



강원학 연구보고 11

# 시호(詩湖) 박원동(朴元東)의 생애와 활동 연구

: 일제강점기 강릉 유교문화의 정리와 계승

A Study on Park Wondong's Life and  
Social Activities



안 세 현



강원연구원  
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



강원학연구센터  
The Institute of Gangwon Studies



# 발간사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학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강원학 관련 연구 공모를 실시하여 강원학 기초토대 연구 주제로 적합한 3편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중 한편인 「시호(詩湖) 박원동(朴元東)의 생애와 활동 연구」는 일제강점기 강릉의 유학자 박원동과 관련된 문헌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그의 생애와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근대적 의미에서 박원동이 지닌 지역학 연구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학 연구를 바로 세우고, 특히 지역사회에서 유교문화의 정체성을 정립하여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 유림의 활동을 실사구시의 견지에서 그 공적과 과오를 균형 있게 탐색해야 합니다.

본 연구는 강릉의 유림으로 활동한 박원동의 생애를 상세히 재구하고 강릉 유교문화 유산의 정리와 재건 활동을 탐색하여, 일제강점기 강릉 지역 유림의 활동 양상을 확인하고, 오늘날 지역사회에서 유교문화를 연구하고 현재적 의미에서의 계승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향후 일제강점기 강릉의 사회상, 산업과 교통, 교육과 출판 등을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집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안세현 강원대학교 교수님과 심의회와 자문회의를 통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전문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0년 12월

강원연구원장

박영근



# 목차

## 요약문

<b>I. 서론</b> .....	<b>1</b>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선행 연구와 연구 방법 .....	6
<b>II. 자료의 개관 및 시문집 해제</b> .....	<b>9</b>
1. 문헌 자료 개관 .....	9
2. 주요 시문집 해제 .....	12
2.1. 시호거사문고 .....	13
2.2. 시호만음 .....	14
2.3. 시호척독 .....	15
2.4. 시호거사일기 .....	16
<b>III. 생애와 현실 대응</b> .....	<b>19</b>
1. 가문적 배경 .....	19
2. 연보 재구성 .....	30
3. 시대 인식과 현실 대응 .....	77
4. 사승 관계 및 교유 인물 .....	87
4.1. 사승 관계 .....	87

4.2. 교유 인물 .....	100
<b>IV. 강릉 유교문화 유산의 정리와 재건 .....</b>	<b>121</b>
1. 유림 사회의 결속과 교류 .....	122
1.1. 강학 활동 .....	122
1.2. 시회 활동 .....	126
2. 원우의 재건과 역사 편찬 .....	139
2.1. 『강릉향현행록』의 편찬과 향현사 증수 .....	139
2.2. 오봉서원의 재정 확충과 『오봉서원실기』의 편찬 .....	148
2.3. 송담서원의 다례 의식 개정과 비각 건립 .....	155
3. 강릉고적보존회 활동과 『증수 임영지』·『강릉향교실기』 편찬 .....	160
3.1. 강릉고적보존회의 설립과 활동 .....	160
3.2. 『증수 임영지』 편찬 및 간행 .....	166
3.3. 『강릉향교실기』 편찬 및 간행 .....	179
4. 대외 활동 : 송자대전 중간과 간재사고 간행 .....	183
4.1. 송자대전 중간 .....	183
4.2. 간재사고 간행 .....	194
5. 유교단체 활동 : 유도천명회 및 관동명덕회 .....	200
<b>V. 결론 .....</b>	<b>211</b>
1. 논의의 요약 .....	211
2. 전망과 과제 .....	224
참고문헌 .....	227
Abstract .....	233
□ 부록 : 시호문집 목차 .....	237

## 표 목차

<표 I-1> 한말~일제강점기 강릉 유림 관련 자료 및 논저 목록 .....	6
<표 II-1> 박원동 관련 문헌 자료 목록 .....	9
<표 IV-1> 문창계 명단 .....	122
<표 IV-2> 강회계 명단 .....	124
<표 IV-3> 주춘시사 명단 .....	130
<표 IV-4> 영주구로속회 명단 .....	134
<표 IV-5> 강의계 및 강호시사 명단 .....	136
<표 IV-6> 『시호거사일기』 소재 강릉향현행록 편찬 및 간행 기록 .....	140
<표 IV-7> 『시호거사일기』 소재 향현사 증수 관련 기록 .....	147
<표 IV-8> 『시호거사일기』 소재 오봉서원실기 편찬 관련 기록 .....	149
<표 IV-9> 『시호거사일기』 소재 송담서원 비각 영건 관련 기록 .....	158
<표 IV-10> 강릉고적보존회 관련 신문기사 .....	161
<표 IV-11> 『시호거사일기』 소재 강릉고적보존회 관련 기록 .....	163
<표 IV-12> 『시호거사일기』 소재 흥학비 개수 기록 .....	165
<표 IV-13> 『시호거사일기』 소재 1926년 임영지 속수 관련 기록 .....	166
<표 IV-14> 『시호거사일기』 소재 1932~1933년 증수 임영지 편찬 및 간행 기록 ..	172
<표 IV-15> 『송자대전』 중간 관여 경위 및 역할 .....	184
<표 IV-16> 유도천명회 관련 신문기사 .....	200
<표 IV-17> 『시호거사일기』 소재 관동명덕회 및 『명덕사조』 관련 기록 .....	205

## 그림 목차

<그림 II-1> 『시호거사문고』 및 『시호척독』 .....	12
<그림 II-2> 『시호거사일기』 .....	17
<그림 III-1> 송자대전중간소 강릉군 유사 망첩 .....	52
<그림 III-2> 화양소제고적보존회 찬무원 망첩 .....	54
<그림 III-3> 사충서원 유지회원 망첩 .....	61
<그림 III-4> 송자대전복판동지록 강원도총무 망첩 .....	62
<그림 III-5> 『풍호정시』 .....	76
<그림 III-6> 풍호정 계판시 .....	76
<그림 III-7> 송규현 찬 「시산선생박공묘표」 .....	90
<그림 III-8> 간재 전우가 박원동에게 보낸 간찰 .....	98
<그림 III-9> 김연목이 1926년 박원동에게 보낸 간찰 .....	106
<그림 III-10> 김윤경이 1941년 박원동에게 보낸 간찰 .....	108
<그림 III-11> 윤용구가 1929년 박원동에게 보낸 간찰 .....	111
<그림 III-12> 김영한 찬 「정효비각기」 .....	113
<그림 III-13> 송규현 찬 「풍은박공묘표」 .....	114
<그림 III-14> 송재경이 1906년 박원동에게 보낸 간찰 .....	115
<그림 III-15> 오진영의 「시호기」 .....	117
<그림 IV-1> 『주춘시화』 서문과 박원동 시 .....	132
<그림 IV-2> 영주구로갑회첩 .....	133



<그림 IV-3> 『강릉향현행록』 범례 .....	143
<그림 IV-4> 『오봉서원실기』 .....	150
<그림 IV-5> 강릉고적보존회 <매일신보> 기사 .....	162
<그림 IV-6> 1926년 김연목이 『임영지』 속수 관련 박원동에게 보낸 편지 .....	169
<그림 IV-7> 『증수 임영지』 「범례」 일부와 강릉부지도 .....	177
<그림 IV-8> 『강릉향교실기』 목록과 연혁 일부 .....	180
<그림 IV-9> 『화양연원록』 권3, 「문인록」 ‘박진해’ 부분 .....	192
<그림 IV-10> 『존위안』 권2 「복판동지록」 및 권3 「복판축」 ‘박원동’ 부분 .....	193
<그림 IV-11> 간재사고인소 발문(1925년) .....	195
<그림 IV-12> 간재사고인소와 간재문집간소 유사 망첩 .....	197
<그림 IV-13> 유도천명회 관련 신문기사 .....	201
<그림 IV-14> 『명덕사조』 신문기사 및 박원동의 시 .....	204



## 요 약 문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강릉의 유학자 시호(詩湖) 박원동(朴元東, 1873~1949)의 생애와 활동을 연구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강릉의 유교문화 유산을 정리하고 재건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근대적 의미에서 박원동이 지닌 지역학 연구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Ⅱ장에서는 먼저 박원동과 관련된 문헌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1993년 영인 출간된 『시호문집』를 비롯하여 『강릉향현행록』, 『증수 임영지』, 『강릉향교실기』, 『주춘시화』, 『예성시고』 등 간행된 자료를 정리하였다. 또한 『시호거사일기』를 비롯하여 『구로속회록』, 『오봉서원실기』, 『풍호정시』 등 필사본 자료도 가능한 수집하였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매일신보>, <동아일보> 등의 신문에 나오는 강릉 고적보존회, 강릉 유도천명회, 관동명덕회 강릉지부 관련 기사도 수집, 정리하였다.

박원동의 생애와 활동을 연구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자료는 영인본 『시호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호거사문고』, 『시호만음』, 『시호척독』 등이다. 또한 1924년 52세부터 몰년인 1949년까지 쓴 『시호거사일기』도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시호거사문고』, 『시호만음』, 『시호척독』, 『시호거사일기』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간략한 해제를 작성하였다. 아울러 『시호거사문고』, 『시호만음』, 『시호척독』 등의 목차를 부록으로 제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장에서는 박원동의 가문적 배경, 연보, 시대인식과 현실 대응, 사승 관계와 교유 인물 등을 살펴보았다.

박원동의 10세조인 완하당 박진해는 향현사의 창건과 7현의 배향을 주도한 인물이다. 또한 그는 송담서원을 건립하고 사액을 받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조부 박규환은 향교의 교임을 맡아 문묘를 중수하였고, 아버지 박증혁은 향약계의 설립,

오봉서원 묘정비 중건, 계련당 중건 등에 역할을 하였다. 박원동의 활동은 10세조로부터 조부와 아버지로 이어지는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계승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박원동이 직접 작성한 『시호연기』를 중심으로 연보를 재구성하였다. 『시호연기』에는 1873년 1세부터 1949년 77세까지의 주요 행력이 기록되어 있다. 『시호거사문고』, 『시호만음』, 『시호척독』, 『시호연명록』 등을 비롯하여 『시호거사일기』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함께 제시하였다. 박원동은 50대인 1920년대 중반부터 지역사회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른바 강릉의 4대 원우인 향현사·오봉서원·송담서원·유천회암 영당의 유사나 관리인 등을 역임하였다. 1930년대 초반에는 강릉향교의 직원(直員)을 맡아 문묘의 제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박원동은 『강릉향현행록』, 『오봉서원실기』, 『증수 임영지』, 『강릉향교실기』 등의 주요 편찬자로 활동하였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전국적으로 유림의 중요한 사업이었던 『송자대전』 중간 사업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박원동이 살았던 시대는 안으로 갑오개혁 이후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향교는 교육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밖으로 서구의 교육제도와 종교가 지역사회 내부까지 들어오는 상황이었다. 일제강점기 향교를 비롯하여 향현사·오봉서원·송담서원·유천회암영당 등의 인사와 재정은 군수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총동원체제로 인하여, 유림에 대한 총독부와 군수의 압박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다. 박원동은 난세를 살아가는 유학자로서 출처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하였으며, 세상의 병폐를 치유해야 한다는 우환의식 속에서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전개하였다.

박원동의 삶과 의식에 영향을 준 스승으로는 시산 박정규, 수당 이종문, 간재 전우 등을 들 수 있다. 박원동은 초년에 시산 박정규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독서와 작문에 영향을 받았다. 수당 이종문은 성균관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박원동이 20대 후반 서울에 머무를 때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는 서울·경기 지역 인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간재 전우는 당대의 이름난 유학자였다. 비록 1년이라는

짧은 기간 편지를 주고받으며 가르침을 받았으나, 박원동의 삶과 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박원동이 향교와 원우(院宇)의 직임을 맡아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가문의 지원과 사우들의 협조가 있었다. 교유 인물로는 가문의 동호 박장실과 운빈 박기동을, 강릉의 사우로 몽재 김연목과 창운 김윤경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강릉의 교유 인물로는 석촌 윤용구, 동강 김영한, 노탄 송규현, 건암 송재경, 석농 오진영 등을 살펴보았다.

IV장에서는 박원동이 강릉의 유교문화 유산을 정리하고 재건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① 유림사회의 결속과 교류의 일환으로 강학 활동과 시회 활동을 살펴보았다. 박원동은 문창계·강회계 등에 참여하며 유학을 진작시키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유림의 결속을 도모하였다. 특히 강회계는 박원동이 30세에 김윤경과 주도하여 결성한 것이었다. 강릉에는 금란반월회, 영주구로회, 주춘계 등과 같이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시회가 많았다. 이들 시회는 한말~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명맥이 끊어졌다. 1930년대 박원동을 비롯한 후손들이 이들 시회를 속수(續修)하였다. 또한 박원동은 사우들과 강의계와 강호시사 등의 시회를 창설하기도 하였다. 특히 ‘강의(講義)’라는 이름에는 단순한 음풍농월의 모임이 아니라 유학을 공부하는 모임이라는 의미를 담아내었다.

② 향현사, 오봉서원, 송담서원 등 강릉을 대표하는 원우의 역사를 편찬하고 이들을 재건한 활동을 살펴보았다.

향현사는 강릉 출신의 12현을 배향한 사당인데, 강릉이 지닌 유향으로서의 위상을 상징하는 곳이다. 박원동은 1930년 12향현의 행록을 모아 간행하는 일을 발의하였다. 12문중을 설득하고 협조를 받아 1931년에 『강릉향현행록』을 간행하였다. 『시호거사일기』를 통해 이 책의 편찬 과정에서 벌어진 지역 유림과의 갈등이나 출판 허가 과정에서의 총독부 검열 등을 밝혀내었다.

오봉서원은 1868년 훼손된 후에 1905년 오봉단을 설치하여 다향을 거행하였으나 재정이 열악하였다. 1930년에 박원동은 오봉서원 유사와 수금 유사를 맡아 유금(儒金)을 모아서 제전(祭田)을 확충하였다. 또한 박원동은 『오봉서원실기』를 편성하였는데, 이 책은 1552년 오봉서원이 터를 잡을 때부터 박원동 당대까지의 연혁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오봉서원의 역사에서 논란이 된 것은 순조 연간 우암 영정의 배향을 두고 벌어진 소론과 노론의 갈등이었다. 박원동은 오봉서원의 연혁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비중 있게 수록하였다. 또한 『오봉서원실기』 발문에서 유학이 침강하는 시대에 여전히 분열되어 있는 유림사회의 각성과 단합을 촉구하였다.

박원동은 1938년 66세 때 송담서원 관리인에 임명되었으며 1947년 사임할 때까지 10년 동안 송담서원의 관리를 맡았다. 1942년에는 다례 의식의 신설도와 흥기를 개정하였으며, 1944~1945년에 비각의 건립을 주도하였다. 1944년 7월 비각 건립과 관련하여 각 면의 수금이 경찰서의 명령에 의해 중지되었다가 1945년 해방 이후에 다시 추진되는 과정은 특기할 만하였다.

③ 강릉고적보존회 활동과 『증수 임영지』·『강릉향교실기』의 편찬 활동을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의 신문 기사를 통해, 강릉고적보존회가 1932년 일본인 군수 다키자와 마코토[瀧澤誠]에 의해 발의되어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강릉고적보존회는 사무실을 군청에 두는 등 군수가 주도하고 지역의 유림이 참여하는 형태였다.

『임영지』 속수와 관련하여 『시호거사일기』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었다. 1926년에 이미 박원동이 편집인을 맡아 『임영지』 속지(續誌)의 대략적인 「범례」가 마련되고 각 면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원고가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하남재와 오봉서원 관련 기사를 두고 소론과 노론 사이의 갈등이 재현되어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1932년에 군수의 주도로 『임영지』 속수가 재추진되었으며, 박원동은 김병환과 함께 편찬 및 간행을 주도하였다. 이때에도 유림의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군수가 주도하며 관찬(官撰)을 추진한 까닭에 완료될 수 있었다.

『강릉향교실기』는 강릉향교의 연혁 및 관련 기문을 모아 엮은 것인데,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연혁」에는 1905년 이후 도유사 대신 군수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는데, 이는 향교의 책임자가 군수임을 명기한 것이다. 또한 부록의 「동양존성록」에는 중국과 한국의 석전(釋奠) 역사는 물론 일본의 관련 사적도 함께 삽입해 놓았다.

④ 대외 활동으로 송자대전 중간과 간재사고 간행 사업에서 박원동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 두 사업은 강릉 유림이 상당수 참여하고 여러 차례 내부 논의를 거치는 등 강릉 유림에게 중요한 사업이었다. 박원동은 1925년 송자대전중간소의 강릉군 유사에 위촉되었으며, 사우들과 함께 원고를 교정하고 간행 비용을 지원하였다. 특히 초간본 『송자대전』에 수록된 글의 수정을 요청한 사건은 주목할 만하였다.

박원동은 간재 사후 문집의 간행 사업에도 관여하였다. 그런데 간재 문인들 사이에 파가 갈리어 1925년 진주에 간재사고인소가, 1926년에는 논산에 간재문집간소가 별도로 설치되었다. 박원동은 1925년에 간재사고인소로부터 통청군·회양군·강릉군 유사에 위촉되었고, 1926년에는 간재문집간소로부터 강릉군 유사에 위촉되었다. 박원동을 비롯한 강릉의 간재 문인들은 대부분 간재사고의 간행에 깊이 관여하였으며, 논산의 간재문집간소에는 간행 비용을 찬조하는 등으로 협조를 하였다.

⑤ 관변 유교단체인 강릉 유도천명회와 관동명덕회 강릉지회의 활동에 관여한 사실을 살펴보았다. 강릉 유도천명회는 1922년에 설립되었는데 박원동은 조규대·최대수·심상조 등과 함께 평의원에 위촉되었다. 관동명덕회 강릉지회는 1932년에 군수 다키자와 마코토의 주도 하에 설립되었으며 박원동은 찬의(贊議)에 임명되어 회원 모집을 담당하였다. 관동명덕회의 지회장은 군수가 맡았는데, 향교와 4대 원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강릉의 유림사회가 1930년대 중반 이후 관동명덕회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관동명덕회 강릉지회는 1941년에 일제의 침략 전쟁을 찬양하는 『명덕사조』를 간행하였다. 박원동은 박증영·김윤경·김병환·정석화 등과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군수 이현재(李玄載)의 지시를 받아 김병환과 함께 편집 업무를 담당하였다. 박원동은 창씨명을 기재하여 본향을 알 수 없게 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였으며, 결국 창씨명 아래에 본명을 병기하는 것으로 절충이 되었다. 『명덕사조』를 발간한 것은 유림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권력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부작용이었다.

박원동의 생애와 활동은 오늘날 지역사회에서 유교문화를 연구하고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일제강점기에 강릉의 유교문화 유산을 정리하고 재건한 것은 오롯이 박원동 한 사람의 업적이 아니며, 강릉 유림 전체가 참여하여 함께 이룩한 것이었다.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으면서도 상호 이해와 조정의 과정을 거쳤으며, 때론 강릉 이외 지역의 유림과 협력하며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때 박원동은 철저하게 실사구시의 정신에 입각하여 갈등을 조정하였다. 지역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 조정과 상호 협력의 과정, 실사구시의 자세 등은 오늘날 지역 문화를 연구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강릉의 유림은 군청이나 관변 유교단체와 긴장-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관청의 지원을 받아내는 한편 관청의 요구에 일정정도 협조하였다. 박원동은 4대 원우의 제향이나 흥학비 개수 등에 향교 재산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다. 『증수 임영지』와 『강릉향교실기』는 군청에서 주도하고 지원하지 않았다면 편찬과 간행이 완수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1940년대 일제의 총동원체제에서 『명덕사조』를 편찬하는 등 유교정신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것은 반성이 필요하다. 이는 박원동 혼자만이 아닌 강릉의 유림이 함께 책임을 통감해야 할 부분이다. 오늘날에도 연구자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지자체도 자율적인 연구와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 감사의 인사

『시호거사일기』를 비롯하여 박원동 관련 자료 260여 점(박창규 기증)을 제공해 주신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대학의 고등교육 체계가 수립된 이후, 유교에 대한 사상적 탐색은 대학의 철학과 영역으로 들어갔다. 오늘날 유교는 불교·기독교·천주교와 같은 종교적 조직이나 사회적 역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에서 유교문화는 전통문화의 하나로 보존의 대상이거나 국민 윤리 교육의 하나로 활용되는 정도이다.

향교와 서원으로 대표되는 유교 문화유산은 주로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2014년부터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생생문화재-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을 통해, 향교와 서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성 교육과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향교와 서원이 일시적으로 활기를 띠었으나, 여전히 일반 대중에게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2015년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3004호)의 제2조를 보면, 예·효·정직·책임·존중·배려·소통·협동 등을 인성교육의 핵심 덕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앞에 위치한 ‘예’와 ‘효’는 유교의 핵심 가치이다. 이렇듯 국가 주도의 인성 교육에서 여전히 유교적 가치를 앞세우고 있으나, 민주시민사회에서 유교는 조선 패망의 원흉, 신분제와 여성차별 등으로 부정적 인식이 상당하다.

유학이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가장 고심했던 시기를 꼽아보면, 중국의 경우 공자

맹자가 유학을 개창한 춘추전국시대와 성리학이 정립된 송대(宋代)이다. 공자와 맹자는 전쟁의 시대에 인의(仁義)를 주창하며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였다. 송대의 성리학자들은 불교·도교와의 쟁투 속에서 유학을 갱신시켰다. 우리의 역사에서는 여말선초의 왕조 교체기에 성리학의 나라인 조선을 건국한 때이다. 비록 정치적 노선은 달랐으나 정몽주·정도전 등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한편 한나라 때 유학이 국교가 된 이후 유학은 국가 권력에의 의존을 통해 세력을 유지하였다. 이는 성리학을 국교로 채택한 조선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1868년과 1871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지역사회에서 유림의 중심점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894년 갑오개혁이 단행되면서 유학은 더 이상 국가의 제도에 의지하여 존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예조(禮曹)가 폐지되고 학무아문(學務衙門)이 창설되면서 향교의 교육적 기능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또한 근대적 신식학교에 설립되면서 향교에 입적하는 유생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지역에서는 유학을 계승하고 전파해야 할 젊은 세대의 감소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갑오개혁 이후 국문 또는 국한문체가 통용되면서 한문은 공식 언어로서의 권위에 도전을 받게 되었으며, 심지어 한문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까지 하였다.<sup>1)</sup>

갑오개혁 이후 친일 내각이 들어서고 1895년 을미사변, 1905년 을사늑약을 거쳐 1910년 한일병합으로 조선은 일제의 통치 내로 들어갔다. 존화양이(尊華攘夷)의 화이론(華夷論)을 신봉한 조선의 유교 지식인들에게 일본으로 대표되는 ‘이(夷)’의 지배권 내에 든다는 것은 치욕스런 일이었다.

1) 매천(梅泉) 황현(黃玹, 1855~1910)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 갑오개혁 이후 어문질서의 변화가 잘 기록되어 있다. “이 때 중앙의 관보(官報)와 지방의 공문서들은 모두 진서(眞書)와 언문(諺文)을 섞어 자구를 연결한 것이었으니 대개 일본의 글 쓰는 법을 본뜬 것이었다. …… 갑오년(1894) 이후로 시무(時務)를 추종하는 자들은 언문을 대단히 받들어 ‘국문’이라 일컫고, 진서를 구분지어 외국 것으로 취급하여 ‘한문’이라고 불렀다. 이에 국한문이라는 말이 용어가 되었고 진서나 언문이라는 말은 드디어 없어지게 되었다. 경박한 자들이 한문은 응당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형세가 막혀서 제지되었다.” 황현 저, 임형택 외 옮김, 『역주 매천야록(상)』, 문학과지성사, 2005, 424면.

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시기는 유교 지식인들에게 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충격과 도전의 시기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유림은 유교의 가치와 역할을 다시금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한말~일제강점기 시기 지역의 유림 활동을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처럼 한말~일제강점기 강원 지역에서 유림 활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895년 명성왕후 시해와 단발령의 강제시행으로 촉발된 을미의병은 경기·충청 지역과 함께 강원 지역의 유림에 의해 시작되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의 문인 이소응(李昭應)이 의병을 일으켰으며, 강릉에서는 복재(復齋) 민용호(閔龍鎬)가 중심이 되어 영동구군창의진(嶺東九郡倡義陣)이 편성되기에 이르렀다. 한말에 강원도는 화서학파의 문인을 중심으로 위정척사 활동과 의병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지역이었던 것이다.

특히 강릉은 조선시대부터 강원도에서 유림 세력이 가장 강했던 곳이다. 강릉은 문과 급제자가 강원도의 여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sup>2)</sup> 조선전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풍속’ 조를 보면,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강릉은 학문을 숭상하며 예의를 우선시한다고 기술되어 있다.<sup>3)</sup> 서원도 강릉에 오봉서원과 송담서원 등이 있었을 뿐 강원도의 여타 지역에는 거의 없었다. 강릉의 유림은 근대식 신식학교에 대응하여 강릉향교 내에 화산학교(花山學校)를 설립하고, 유교문화 유산을 정리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일제강점기를 민감하게 생각하여 이 시기 유림 활동을 본격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꺼리는 듯하다. 단적으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강릉)>에는 일제말기 관동명덕회 강릉지부에서 발행한 한시집인 『명덕사조(明德詞藻)』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명덕사조』에는 일제의 침략 전쟁을 미화한 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2) 조선시대 강원도 영동지방(현 경북 울진 포함) 9개 군현에서 총249명의 문과 급제자가 배출되었는데 그 중 60%가 넘는 150명이 강릉 출신이다. 삼척과 평해가 각각 23명, 양양이 22명 정도였다. 『강릉향교철 백년사지』, 강릉향교, 2013, 149면.

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강원도, 강릉대도호부, ‘풍속’조. “尙學問”; “禮義相先.”

그러나 지역학 연구를 바로 세우고, 특히 지역사회에서 유교문화의 정체성을 정립하여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 유림의 활동을 실사구시의 견지에서 그 공적과 과오를 균형 있게 탐색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말에 태어나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후까지 살았으며, 강릉의 유교문화 유산의 정리와 재건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던 시호(詩湖) 박원동(朴元東, 1873~1949)의 생애와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강릉의 유학자인 시호 박원동의 생애와 활동을 연구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특히 강릉 유교문화 유산을 정리하고 재건에 힘쓴 활동을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근대적 의미에서 지역학 연구자로서 박원동이 지닌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박원동은 강릉 시동(詩洞) 출신의 유학자로, 본관은 강릉, 자(字)는 덕영(德英), 호는 시호(詩湖)이다. 현재 문집인 『시호문집(詩湖文集)』을 비롯하여 『시호거사일기(詩湖居士日記)』 등이 전하고 있다. 『시호문집』에는 『시호거사문고(詩湖居士文稿)』, 『시호만음(詩湖謾吟)』, 『시호척독(詩湖尺牘)』, 『삼세가장(三世家狀)』, 『시호연기(詩湖年記)』, 『시호연명록(詩湖聯名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문집을 통해 박원동이 지은 시문의 대략을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연보에 해당되는 『시호연기』에는 박원동의 행적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어 주목을 요한다. 『시호거사일기』는 필사본 5책으로 1924년부터 몰년인 1949년까지 쓴 일기이다. 박원동 개인의 행적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강릉의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귀중한 자료이다.

박원동은 이른바 강릉의 4대 원우(院宇)인 향현사·오봉서원·송담서원·유천회암영당의 유사나 관리인 등을 역임하였으며, 1930년대 초반에는 강릉향교의 직원(直員)을 맡아 문묘의 제향을 담당하였다. 또한 『강릉향현행록(江陵鄉賢行錄)』, 『오봉서원실기(五峰書院實記)』, 『증수 임영지(增修臨瀛誌)』, 『강릉향교실기(江陵鄉校實記)』 등의 주요 편찬자이다.

『강릉향현행록』은 강릉향현사(江陵鄉賢祠)에 배향하는 12향현의 행록을 모은 것

인데, 박원동은 강릉이 지닌 유향(儒鄉)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오봉서원실기』는 오봉서원이 터를 잡은 1552년(명종 7)부터 1868년(고종 5) 훼손을 거쳐 1905년 오봉단을 세우고 1930년 제전(祭田)을 확충한 때까지의 연혁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 박원동은 1932년에 결성된 강릉고적보존회의 주축으로 활동하면서 1933년에는 『증수 임영지』와 『강릉향교실기』의 편찬을 주도하였다.

한편 박원동은 일제강점기에 조직된 유교단체의 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1922년 창립된 강릉 유도천명회(儒道闡明會)의 평의원(評議員)이었으며, 1941년에는 관동 명덕회(關東明德會) 강릉지부(江陵支部)의 일원으로 『명덕사조』의 편찬에 관여하였다.

요컨대 박원동은 『강릉향현행록』·『오봉서원실기』·『증수 임영지』·『강릉향교실기』 등의 편찬자이자, 강릉향교를 비롯하여 강릉의 4대 원우의 임원을 맡아 지역의 유림을 이끌며 유교문화 유산의 정리와 재건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 박원동은 근대적 의미에서의 지역학 연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박원동에 대한 본격적인 첫 연구로서 박원동의 생애를 상세히 재구하고 강릉 유교문화 유산의 정리와 재건 활동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박원동 개인의 생애와 활동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강릉 지역 유림의 활동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박원동의 생애와 활동은 오늘날 지역사회에서 유교문화를 연구하고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 2. 선행 연구와 연구 방법

지금까지 조선시대 강릉 지역의 향약이나 유림 활동에 관해서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sup>4)</sup> 그러나 한말~일제강점기 강릉의 유림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아래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미한 수준이다. 관련 자료와 논저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1-1> 한말~일제강점기 강릉 유림 관련 자료 및 논저 목록

구분	목록
자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동안·금석문연구회 공편, 『영동지방 금석문자료집(1)(2)』,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1984·1989.</li> <li>- 이규대·임호민 공편, 『江陵의 樓亭資料集』, 강릉문화원, 1997.</li> <li>- 임호민 편, 『강릉사우자료집』, 강릉문화원, 1998.</li> <li>- 방동안·이규대 공편, 『영동지방향토사연구자료총서』 1(鄉約契)·2(書院·學校 I)·3(書院·學校 II),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1994.</li> <li>- 최백순 편, 최호·임호민 역, 『국역 동호승람』, 강릉문화원, 2001.</li> <li>- 임호민 편, 『江陵市 金石文 資料』,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2003.</li> <li>- 김풍기, 「강릉 지역 시사 주춘사의 한시집 &lt;주춘시화(住春詩話)&gt;에 대하여」, 『강원문화연구』 34,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2015.</li> </ul>
연구 논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청희, 「復齋 閔龍鎬의 義兵活動」, 『영동문화』 6,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1985.</li> <li>- 박민영, 「閔龍鎬의 江陵義兵 抗戰에 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1.</li> <li>- 금창현, 「강릉 화산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연구」, 『영동문화』 8,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2001.</li> <li>- 장정룡, 「일제강점기~강릉고적보존회 역할과 고전출판」, 『강원학비전포럼자료집』, 강원발전연구원, 2006.</li> <li>- 이경화, 「강릉 지역 시사의 구성과 역할-영주음사(瀛州吟社)를 중심으로-」, 『강릉학보』 제2호, 강릉학회, 2008</li> <li>- 한길로, 「일제 말 지방 유림의 동향과 친일시의 국면-강릉 유림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60, 성균관대인문학연구원, 2016.</li> <li>- 차장섭, 「강릉 선교장의 형성과 발전」, 『장서각』 39,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li> </ul>

4) 주로 이규대 교수와 임호민 교수에 의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주요 논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이규대, 「17세기 江陵地方의 士族과 향약 조직」, 『영동문화』 3,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1988; 이규대, 「17세기 초반 江陵지방 栗谷鄉約의 성격」, 『울곡학연구』 27, 울곡연구원, 2013; 임호민, 「17~18세기 강릉사족의 결속과 분화」,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집문당, 2003; 임호민, 「17~19C 강릉지역 재지사족의 조화와 갈등구조」, 『지역사 자원의 교육자료 활용방안 탐색』, 서경문화사, 2009; 임호민, 「18~19C 강릉 鄉儒의 爭端과 향교의 역할」, 『역사민속학』 43, 한국역사민속학회, 2013; 임호민, 「조선시대 향촌조직 결성의 양상과 추이 고찰-강릉지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원사학』 27, 강원사학회, 2015.

구분	목 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장섭 외, 『선교장과 관동 사대부가의 삶』,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9.</li> <li>- 안세현, 「한말~일제강점기 강릉향교의 변화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화산학교의 설립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38, 한국한문고전학회, 2019.</li> <li>- 안세현, 「한말~일제강점기 강릉지역 유림의 활동 양상과 그 의미-지역사회에서 유교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과제-」, 『고전과 해석』 29, 고전문학한문학회, 2019.</li> </ul>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행 연구로는 한말 민용호를 중심으로 한 강릉 유림의 의병 활동이나 1909년 강릉향교의 명륜당에 설립되었던 화산학교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1930년대 강릉고적보존회의 활동을 고찰하거나 1940년대 관동명덕회의 친일한시 창작에 대해 연구한 사례가 더러 있을 뿐이다. 특히 박원동에 관해서는 장정룡 교수가 강릉고적보존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 시기 강릉을 대표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주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본격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문헌 조사와 이를 활용한 연구에 집중하고자 한다. 박원동의 주요 시문이 필사본 형태의 원고를 영인하여 출간되긴 하였으나, 해제와 목차도 없다. 『시호거사일기』는 문집에는 함께 영인되지 않았으나 박원동의 행적을 재구성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다.

이외에도 『구로속회록(九老續會錄)』(필사본 1책), 『주춘시화(住春詩話)』(석판본 1책), 『풍호정시(楓湖亭詩)』(필사본 1책) 등을 비롯하여 박원동이 김연목(金演穆), 최대수(崔大洙), 김윤경(金潤卿), 송증헌(宋曾憲), 송필호(宋苾鎬), 김희진(金憲鎭), 김영한(金甯漢) 등 지인으로부터 받은 간찰이 전하고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발행된 <매일신보>, <동아일보> 등의 신문 자료에도 박원동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기사가 실려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박원동과 관련된 문헌 자료를 최대한 발굴, 정리하여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박원동에 관한 본격적인 첫 연구로서 기초적인 연구 자료를 구축하여, 향후 박원동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다음의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영인본 『시호문집』을 비롯하여 박원동 관련 문헌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한다. 간행본과 필사본을 망라하며 고문서 자료나 신문 자료도 참고한다. 아울러 『시호문집』에 영인되어 있는 『시호거사문고』, 『시호만음』, 『시호척독』 등을 비롯하여 『시호거사일기』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간략한 해제를 작성한다.

III장에서는 박원동의 가문적 배경, 연보, 시대 인식과 현실 대응, 사승 관계 및 교유 인물 등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박원동의 생애와 그를 둘러싼 인맥, 시대 상황과 현실 대응 양상 등을 밝힌다.

IV장에서는 박원동의 유교문화 유산의 정리와 재건, 지역학 연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유림 사회의 결집의 위한 각종 계의 조직과 활동, 『강릉향현행록』의 편찬과 향현사 중수, 오봉서원·송담서원의 재건과 『오봉서원실기』의 편찬, 강릉고적보존회 활동과 『증수 임영지』·『강릉향교실기』의 편찬 등을 집중적으로 정리한다. 또한 대외 활동으로서 『송자대전』 중간 사업과 『간재사고』 간행 사업에서의 역할도 살펴본다. 아울러 유도천명회와 관동명덕회의 등의 유교 단체에 관여한 사실에 대해서도 확인해 본 것이다.



## Ⅱ

# 자료의 개관 및 시문집 해제

### 1. 문헌 자료 개관

1993년에 간행된 『시호문집』은 필사본 형태의 시문 『시호거사문고(詩湖居士文稿)』, 『시호만음(詩湖謾吟)』, 『시호척독(詩湖尺牘)』, 『삼세가장(三世家狀)』, 『시호연기(詩湖年記)』 등을 엮어서 영인한 것이다. 이 문집은 후손 박창규(朴昌奎)·박동규(朴東奎)가 소장하고 있던 필사본 형태의 시문을 엮은 것으로, 서문은 박원동의 족질인 박용기(朴容起)가, 발문은 삼남 박용정(朴容丁)이 썼다.

영인본 『시호문집』 외에 박원동 관련 문헌 자료의 대부분은 필사본 형태로 후손가에 소장되어 있다가 현재는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에 기증되어 전하고 있다. 특히 『시호거사일기』는 박원동이 52세인 1924년부터 몰년인 1949년까지 쓴 일기로서, 박원동의 생애와 활동을 고찰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필자가 수집한 박원동 관련 문헌 자료의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 박원동 관련 문헌 자료 목록

자료 목록	내용 개요
朴元東, 『詩湖文集』, 춘천: 강원출판사 영인, 1993.	- 후손가에 전하던 시호거사문고(詩湖居士文稿), 시호만음(詩湖謾吟), 시호척독(詩湖尺牘), 삼세가장(三世家狀), 시호연기(詩湖年記), 시호연명록(詩湖聯名錄) 등의 시문 원고를 모아 영인한 것임.

자료 목록	내용 개요
朴元東, 『詩湖居士日記』(필사본 5책,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 소장)	- 52세인 1924년부터 몰년인 1949년까지 쓴 일기로, 연월일에 따라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
朴元東, 『江陵鄉賢行錄: 并江陵鄉賢祠沿革』(석판본 1책), 江陵: 江陵鄉賢祠, 193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강릉의 12향현의 행록을 모아 편찬한 책으로, 강릉 향현사의 연혁을 부기함.
朴元東, 『五峯書院實記』(필사본 1책, 오죽헌시립박물관 소장)	- 오봉서원의 설립부터 박원동 당대까지의 연혁을 정리한 책으로 1932년에 편찬되었음. - 방동안이구대 공편, 『영동지방향토사연구자료총서』 2(書院·學校 1),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1994에 영인 수록.
『增修臨瀛誌(全)』(연활자본 1책), 강릉고적보존회, 193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1932년 김병환(金秉煥)과 함께 편찬하였으며 이듬해인 1933년에 강릉고적보존회에서 군수 다키자와 마코토[瀧澤誠]의 지원을 받아 간행함. 구지(舊誌)에 속지(續誌)를 더함.
『江陵鄉校實記』(연활자본 1책), 강릉고적보존회, 193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1932년 김병환(金秉煥)과 함께 편찬하였으며 이듬해인 1933년에 강릉고적보존회에서 군수 다키자와 마코토[瀧澤誠]의 지원을 받아 간행함. 연혁과 문류로 구성됨.
『住春詩話』(석판본 1책, 1936년간, 오죽헌시립박물관 소장)	- 박원동이 참여한 주춘시사 회원들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서문은 정채화(鄭察和)가 썼음. - 주춘시사에 참여한 회원 36명의 시를 모아 놓은 것으로, 회원마다 각각 20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음.
『藥城詩稿』(구활자본 1책, 매일신보 강릉분국 발행, 개인 소장)	- 일제강점기 강릉을 중심으로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활동한 문인들의 한시를 엮은 시집. - 서문은 1918년 경학원 대제학 운양(雲養) 김윤식(金允植)이 썼음. - 시호(詩湖) 박원동(朴元東), 경농(鏡農) 이근우(李根宇) 등 강릉 출신 문인의 한시 275편이 수록되어 있음.
『明德詞藻』(연활자본 1책), 朴曾泳編, 關東明德會江陵支部, 1941.(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1941년 강릉군수이자 관동명덕회 강릉지회 회장 이현식의 주도로 편찬된 한시집. - 대표 편자인 박증영은 박원동의 삼종숙이며 당시 강릉향교의 직원이었음. - 박원동을 비롯한 강릉 80여명의 한시 160여 편을 수록하고 있으며 중일전쟁의 찬양하는 내용의 시가 들어 있음.
『九老續會錄』(필사본 1책,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 소장)	- 박원동이 참여한 영주구로속회의 회원들의 세계도가 정리되어 있으며, 회원 명부가 함께 실려 있음.
『詩湖住春社吟』(필사본 1책, 오죽헌시립박물관 소장)	- 내제(內題)는 '주춘시사(住春社詩)'로 되어 있으며, 박원동이 주춘시사에 참여하여 읊었던 시 20수가 시첩의 형태로 묶여져 있음. - 제목은 '노간사우설회우오성정(魯澗社友設會于五星亭)', '여찬회(余贊會)', '회산회(淮山會)', '도동회(道洞會)' 등으로 시회를 열었던 장소를 적어 놓았음 - 문집의 『시호만음』과 대교해 본 결과, 편차 순서가 다소 다를 뿐 동일한 시임.

자료 목록	내용 개요
『楓湖亭詩』(필사본 1책, 오죽헌시립 박물관 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원동이 1947년 시호의 풍호정(風湖亭) 낙성했을 때 이를 기념하여 만든 시첩.</li> <li>- 박원동의 원시(原詩)와 이에 차운한 박장실(朴長實), 조삼환(曹三煥), 김병환(金秉煥), 조인환(曹仁煥), 김병시(金炳時), 김윤경(金潤卿) 등 80여 명의 차운시가 수록되어 있음.</li> </ul>
후손가 소장 기타 고문서 자료 (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 소장, 박창규 기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원동이 김연목(金演穆), 최대수(崔大洙), 김윤경(金潤卿), 신명선(辛明善), 정채화(鄭察和) 등 강릉의 사우들뿐만 아니라 송자대전 중간과 관련하여 관계를 맺은 송증헌(宋曾憲), 송필호(宋苾鏞), 송주헌(宋柱憲), 김희진(金熹鎭) 등으로부터 받은 간찰이 다수 소장되어 있음.</li> <li>- 송자대전 중간소 및 동지록(同志錄) 간행소에서 보낸 편지나 문서도 15종 가량 소장되어 있으며, 화양소제고적보존회(華陽蘇堤古蹟保存會)에서 보낸 문서도 2종이 들어 있음.</li> <li>- 간재 전우의 고제인 오진영이 박원동을 위해 지은 「시호기(詩湖記)」에도 소장되어 전함.</li> </ul>
<매일신보>, <동아일보> 등 일제강점기 신문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릉고적보존회, 강릉유도천명회, 관동명덕회 강릉지부 등의 활동과 관련된 기사가 다수 실려 있음.</li> </ul>

후손가 소장 고문서 자료는 간찰이 다수를 차지한다.<sup>5)</sup> 김연목의 편지 20편을 비롯하여, 정채화 6편, 최대수 3편, 신명선 3편, 김윤경 1편, 족종 박기동 1편, 김병시 1편, 권오석 1편 등, 박원동이 강릉 지역의 사우들로부터 받은 간찰 등이 보인다. 또한 송증헌의 편지 20편, 송재경 4편, 송필호 6편, 송주헌 6편 등, 우암 송시열의 후손가들로부터 받은 간찰도 많은 양을 차지한다. 이는 송자대전 중간, 화양연원록(淵源錄), 자대전복판동지록(宋子大全復板同志錄) 등의 편찬과 관련하여 박원동에게 보낸 것이다. 송자대전 중간소 총무를 맡았던 김희진의 편지도 4편이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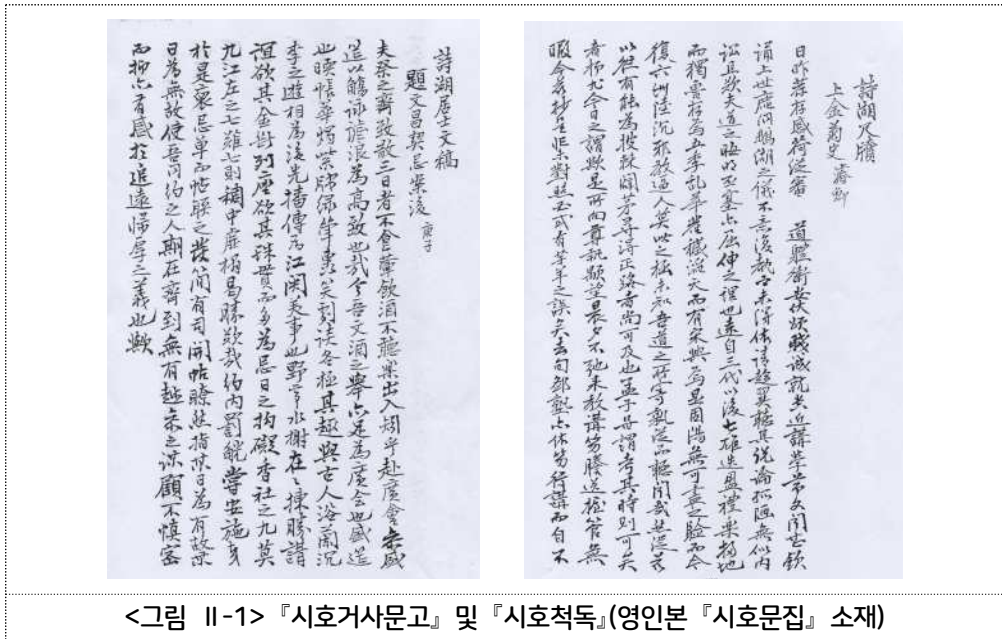
또한 간재의 고제인 오진영이 보낸 편지도 3편 소장되어 있으며, 동강 김영한이 보낸 편지도 3편 소장되어 있다. 한편 송자대전 중간소와 동지록 간행소에서 보낸 편지와 문서도 15종 가량 소장되어 있으며, 화양소제고적보존회(華陽蘇堤古蹟保存會)

5) 이들 자료는 박원동의 장손 박창규가 본래 강릉문화원에 기증한 것인데, 현재 오죽헌박물관으로 이관되어 전하고 있다. 박창규는 박원동의 장자 박용갑(朴容甲)의 맏아들이다. 한편 이들 자료의 목록과 이미지 일부는 국사편찬회의 전자자료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에서 보낸 것도 2종이 들어 있다. 송규현의 노탄집(老灘集) 발간사무소에서 낸 것도 문서도 1종이 있다.

## 2. 주요 시문집 해제

1993년에 영인 출간된 『시호문집』은 700면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인데, 해제는 물론이거니와 목차조차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문집에 수록된 시문의 전체적인 규모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시호문집』에 영인되어 있는 『시호거사문고』, 『시호만음』, 『시호척독』을 중심으로 시문집의 구성과 내용을 정리한다. 아울러 문집에는 영인되어 있지 않으나, 별도로 전하는 『시호거사일기』에 대해서도 간략한 해제를 작성한다. 한편 『시호문집』의 목차는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II-1> 『시호거사문고』 및 『시호척독』(영인본 『시호문집』 소재)

## 2.1. 시호거사문고

『시호거사문고』에는 편지글을 제외한 산문 153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대개 작성 시기 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1900년 28세 때 지은 「제문창계기안후(題文昌契忌案後)」(17면)를 시작으로 1947년경에 지은 「박공문혁묘표(朴公文赫墓表)」(180면)에 이르기까지 114편의 산문이 문체의 구분 없이 작성 시기별로 편차되어 있다. 서문과 발문, 기문과 설(說), 묘표(墓表) 등의 전통적인 한문 산문의 문체가 다수를 차지한다. 아울러 지역 사회의 활동에 관여하며 지은 각종 통문(通文)이나 청조문(請助文), 보고문 등도 상당수가 있다.

둘째, 1897년 12월 25세 때 쓴 「제인우이종태문(祭隣友李鍾泰文)」(183면)을 시작으로 1948년 7월 76세 때 쓴 「차아분가상량문(次兒分家上樑文)」(241면)까지 총 35편이 수록되어 있다. 제문과 상량문을 위주로 하여 작성 시기별로 수록해 놓았는데, 특히 제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시호거사문고』의 말미에 「공양곡양춘추(公羊穀梁春秋)」(244면), 「초출어문선총목(抄出於文選總目)」(245면), 「혜숙야양생론(嵇叔夜養生論)」(247면), 「사혜련제고총문(謝惠連祭古冢文)」(251면) 4편이 부기되어 있다. 이는 박원동이 직접 지은 글이 아니며, 『춘추』와 『문선』을 공부하면서 관련 사항을 메모하거나 정리한 것이다. 「공양곡양춘추」는 『춘추』에 주석을 단 공양과 곡양에 대해 기록한 글이다. 「초출어문선총목」은 『문선』의 총목을 초록한 것인데, 부(賦)·시(詩)·소(騷)·칠(七)·자(謔)에서 행장(行狀)·조문(弔文)·제문(祭文)에 이르기까지 각 문체별로 개요를 적어두었다. 혜강의 「양생론」과 사혜련의 「고총문」은 모두 『문선』에 수록되어 있는 글을 옮겨 적은 것이다. 「양생론」은 유교의 인생관을 비판하고 인간 본래의 진실성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 글이다. 박원동이 이 글을 자신의 문고에 부기해 놓은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 2.2. 시호만음

1922년 50세 때 지은 「김성파이국은야도(金星坡(振鴻)李菊隱(時應)夜到三首(壬戌正月日)」(255면)로부터 1947년경에 지은 「화김경효열각운(和金卿孝烈閣韻)」(470면)에 이르기까지, 613제(題)의 시가 시체(詩體)의 구분 없이 대체로 창작 시기 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다만 서두에는 「양평 신양묵·단양 신재덕 및 도동의 사우들과 함께 명선문에서 노닐며[楊平辛養默丹陽辛在德與道洞社友遊溟仙門]」(258면)와 같이 1921년에 지은 시도 수록되어 있다. 이 시의 원주에 “신유년 여름 명선문에 각명하다.[辛酉夏刻名于名仙門]”라는 원주가 달려 있다.

말미에는 별도의 면에 「오월전가(五月田家)」란 제목으로 여러 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제목에는 “명덕회월보(明德會月報)에 수록되어 있는 소양초부(昭陽樵夫)의 시[昭陽樵夫詩載明德會月報]”라는 원주가 달려 있다. ‘명덕회’는 일제강점기 강원도의 유교 단체인 ‘관동명덕회(關東明德會)’를 말하며, ‘소양초부’는 춘천에 거주하는 유림으로 추정된다. 곧 「오월전가」는 박원동의 작품이 아니라 관동명덕회 월보에 수록되어 있는 소양초부란 사람의 시를 초록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시체별로 보면 칠언율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대개 시회(詩會)에 참여하여 지은 시가 많기 때문이다. 박원동은 만년에 금란계(金蘭契), 영주구로속회(瀛州九老續會), 강의계(講義契), 주춘시사(住春詩社), 강호시사(江湖詩社), 풍호시사(楓湖詩社) 등 많은 시회에 참여하였다. 이들 시회는 대개 회원들의 집을 돌아가며 모임을 가졌는데, 『시호만음』에는 시회의 이름을 시의 제목으로 삼고 제목 아래에 모임 장소를 적어 놓았다.

강의계에서 지은 시는 「강의계(講義契)」(366면)를 시작으로 약 25편이 수록되어 있다. 금란계는 「수계우금란정(修契于金蘭亭)」(400면)을 시작으로 약 7편이 수록되어 있다. 주춘시사는 1930년 58세 때 제1회 모임을 노간(魯澗)에 사는 창서(蒼西) 김연채(金演采)의 집에서 열었다. 주춘시사에서 지은 시는 「주춘시사(住春詩社)」

(318면)를 시작으로 1943년 읍내에서 모임을 가진 「주춘시사(住春詩社)」(439면)까지 무려 83편이나 수록되어 있다.

강호시사는 첫 모임을 읍내에서 열었는데, 「강호음사(江湖吟社)(會于邑)」(428면)를 시작으로, 「상호시사회우신연빈장(江湖詩社會于辛蓮濱庄)」(469면)에 이르기까지 43편이 수록되어 전한다. 풍호시사는 「약영우결시사우리중공회당알풍소시사(約泠又結詩社于里中公會堂曰楓湖詩社)」(356면)부터 「풍호음사(楓湖吟社)(自五月晦)」(408면)까지 약 8편이 수록되어 있다.

시사에서 지은 시 외에는 지인에게 화운(和韻)한 시, 고인을 위해 지은 만시(挽詩)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화운한 시가 30여 편, 만시는 70여 편 수록되어 있다.

### 2.3. 시호척독

박원동은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글만을 모아 ‘시호척독(詩湖尺牘)’이란 제목으로 따로 편집해 두었다. 1910년 후반 경에 국사(菊史) 김준경(金濬卿)에게 올린 「상김국사(上金菊史)(濬卿)」(475면)부터 1944년에 박진한(朴進翰)에게 보낸 「답박진한(答朴進翰)」(622면)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132편의 편지글이 『시호척독』에 수록되어 전한다. 1920년대에 쓴 것이 50편, 1930년대에 쓴 60편 정도이다. 1920년대에 쓴 편지들은 『송자대전』 중간과 『간재사고』 간행에 참여하면서 관련자들과 보낸 편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편지 수신자의 분포를 보면, 강릉의 사우 중에는 김연목(金演穆), 김윤경(金潤卿), 최대수(崔大洙) 등에게 보낸 편지가 많다. 김연목에게 보낸 편지가 7편, 김윤경과 최대수는 각각 5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은 강릉 출신의 간재(良齋) 전우(田愚)의 문인들이다.

강릉 지역 외 인사들 중에는 우암 송시열의 후손인 송증헌(宋曾憲)에게 보낸



편지가 15편으로 가장 많고, 송규헌(宋奎憲)이 7편 등이다. 송증헌에게 보낸 편지는 대부분 송자대전 중간본의 간행 비용이나 송자대전 구입 대금 송금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또한 송자대전중간소 총무인 김희진(金熹鎭)에게 보낸 것도 5편이 수록되어 전한다. 간재의 고제(高弟)인 석농(石農) 오진영(吳震泳)에게 보낸 편지도 4편이나 수록되어 있는데, 오진영은 박원동이 간재의 문하에 들어간 이후 교유를 맺었던 인물이다.

한편 동강(東江) 김영한(金甯漢)에게 보낸 편지가 8편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박원동은 김영한에게 생정비각(生旌碑閣)의 기문, 『강릉박씨세보』의 서문, 조부 삼락공묘표(三樂公墓表), 선조 단천공묘갈문(端川公墓碣文) 등을 부탁하여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편지를 주고받은 것이다. 『시호척독』에 수록된 편지는 박원동이 지인들로부터 받은 간찰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4. 시호거사일기

박원동은 52세인 1924년부터 몰년인 1949년까지 연월일에 따라 상세히 일기를 작성하였다. 매년 정월 초1일부터 시작되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기록하였으며, 1행정도의 짙막한 것도 있고 10행 이상 되는 긴 내용도 있다. 『시호연기』에 따르면, 박원동은 1924년 52세 때 정월부터 날마다 비망기(備忘記)를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아들 용갑(容甲)의 요청에 따라 이해 갑자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였으며 견문을 기록하여 후고(後考)에 대비하였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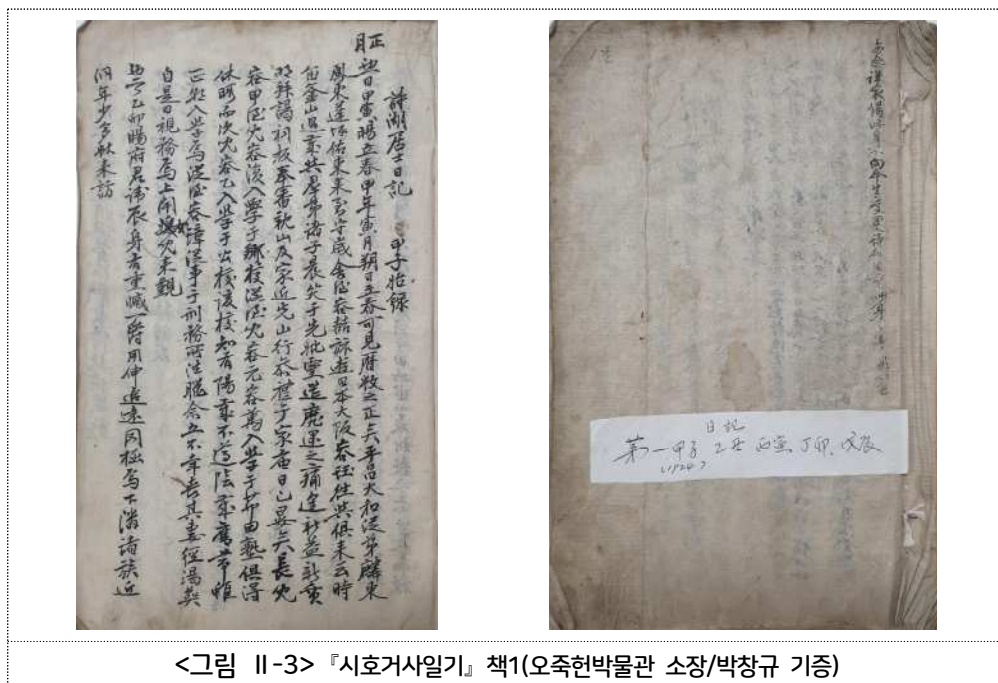
제1책은 1924년(갑자) 52세부터 1928년(무진) 56세까지 5년간의 일기이다.(총 143장) 표지에 표제(表題)는 따로 없으며, 우측에 “매번 선가(禪家)에서 말하는 ‘이내 몸을 금생(今生)에서 제도하지 못한다면 다시금 어느 생을 기다려서 제도할까.’라고 한 계(偈)를 생각한다.【전우에게 올린 복서(伏書)】<sup>6)</sup>”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

6) 『시호거사일기』 책1, 표지. “每念禪家偈, ‘此身不向今生度, 更待何生度此身’之語.【愚伏書.】”



내제(內題)는 ‘시호거사일기(詩湖居士日記)’이며, 내제 아래에 ‘갑자년에 기록하기 시작하다.[甲子始錄]’라고 적혀 있다.

제2책은 1929년(기사) 57세부터 1933년(계유) 61세까지 5년간의 일기이다.(총 126장) 표제에 ‘일기 제이(日記 第二)’라 쓰여 있으며, 내제가 없이 ‘기사(己巳)’라고만 적혀 있다. 제3책은 1934년(갑술) 62세부터 1938년(무인) 66세까지 5년간의 일기이다.(총96장) 표제는 ‘일기 제삼(日記 第三)’으로 되어 있으며, 내제는 따로 없이 간지가 적혀 있다. 제4책은 1939년(기묘) 67세부터 1943년(계미) 71세까지 5년간의 일기이다.(총51장) 표제는 ‘일기 제사(日記 第四)’로 되어 있으며, 내제는 따로 없이 간기가 적혀 있다. 마지막 제5책은 1944년(갑신) 72세부터 몰년이 1949년(기축) 77세까지 6년간의 일기이다.(총33장) 표제는 ‘일기 제오(日記 第五)’로 되어 있으며, 내제는 따로 없이 간기가 적혀 있다.



<그림 II-3> 『시호거사일기』 책1(오죽헌박물관 소장/박창규 기증)

대개 1책 당 5년간의 일기가 정리되어 있는데, 분량을 보면 제1책과 제2책까지 각각 143장과 126장으로 분량이 많으며, 제3책부터 96장으로 줄어들어 마지막 제5책은 33장에 불과하다. 1924년부터 1946년까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을 하였는데, 1947년부터는 빠진 날짜가 많다. 박원동은 1949년 3월에 졸하였는데 몰년의 일기에는 1월 1일·2일·12일의 3일간의 기록밖에 없다. 이는 1924년부터 1933년 사이에 박원동이 강릉 지역 유교문화의 정리와 재건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시호거사일기』에는 『시호문집』에 언급되지 않은 강릉고적보존회와 관동명덕회 등의 기록이 보인다. 또한 『강릉향현행록』 편찬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유림 간의 갈등이나 출판 허가 과정에서의 총독부 검열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히 『임영지』 속수가 1926년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기록은 주목할 만하다. 『시호거사일기』 1926년에 읍내의 활판소 정호태(鄭鎬泰)와 김진태(金振泰)가 『임영지』를 속수하여 간행할 계획을 세우고 박원동에게 참여를 권한 내용이 나온다. 이후 박원동이 주도하여 지역의 유림과 『임영지』 속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시호거사일기』를 통해 『임영지』 속수의 과정과 그 사이에서 벌어졌던 지역 유림 간의 갈등 양상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시호거사일기』에는 농사, 교통, 물가, 의료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 일례로 1926년 5월 2일자 일기에는 해충 방지용 신종 농약 ‘우베루딩’과 관련된 내용이 보이기도 한다.<sup>7)</sup> 1925년 김윤경과 함께 전북 익산의 간재 묘소에 갈 때의 남유기행(南遊記行)에는 교통편과 거리, 각종 교통 요금을 빠짐없이 기록해 두기도 하였다. 박원동은 부인과 3남 용정이 잦은 병치레를 앓았는데 일기에는 각종 증세, 양의와 한의의 처방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시호거사일기』는 일제강점기의 사회상을 고찰하는 데에도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7) 『시호거사일기』 책1, 1926년 5월 2일. “京城社稷洞國產農業藥品商會，有新發明藥水，名‘우베루딩’。稻麥菜果，各種沈水以種，則除蟲茂盛云。一瓶豫約二十錢，受領證合一圓五十錢價也。用法，入水二百五十倍而沈種，亦有時間。該藥來到時，用法并付云。”

### Ⅲ

## 생애와 현실 대응

### 1. 가문적 배경

박원동(朴元東)은 본관은 강릉, 자(字)는 덕영(德英), 호는 시호(詩湖)이다. 본래 이름은 형실(馨實), 자는 덕영(德寧)이었는데, 1905년 33세 때에 이름과 자를 고쳤다. 자호인 시호(詩湖)에서 ‘시(詩)’는 거주지인 시동(詩洞)의 ‘시산(詩山)’을, ‘호(湖)’는 집 동쪽에 위치한 ‘풍호(楓湖)’를 말한다. 간재 전우의 제자인 석농(石農) 오진영(吳震泳, 1868~1944)이 박원동을 위해 「시호기(詩湖記)」를 지어주기도 하였다.<sup>8)</sup>

박원동의 가문은 증종조 기묘명현의 한 사람인 삼가(三可) 박수량(朴遂良, 1475~1546)<sup>9)</sup>을 중시조로 하는 삼가공파(三可公派)이다. 박수량은 아들 박명현(朴命賢)이 노비 8명을 서제(庶弟) 2인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자 다음과 같이 경계하였다. 박수량의 이 계사(誡詞)는 대대로 집안의 가법(家法)으로 지켜졌다고 한다.

8) 吳震泳, 「詩湖記」, 『石農集』 卷22, 『석농집(하)』, 여강출판사 영인, 1988, 429~430면. 오진영이 박원동에게 보낸 「시호기」 원본은 오죽헌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전한다.

9) 박수량(朴遂良) : 1475~1546. 강릉 12향현의 한 사람. 본관은 강릉. 자는 군거(君擧), 호는 삼가정(三可亭)·쌍한정(雙開亭). 1504년(연산군 10)에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모친상을 당한 뒤로는 과거에 응하지 않았다. 연산군 때 단상법(短喪法, 상례 기간을 단축시키는 법)이 엄했으나, 모친상을 당하자 선왕(先王)의 제도를 어길 수 없다 하여 3년 동안 최복(衰服)을 입고 여막에 살았다. 증종반정 후에 효자 정문이 세워졌다. 1519년(중종 14) 겨울에 기묘사화로 파직되어 고향인 강릉으로 돌아와, 당숙인 박공달(朴公達)과 쌍한정(雙開亭)에서 시와 담론으로 여생을 보냈다. 1645년에 향현사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삼가집(三可集)』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박수량’조) 강릉12향현의 행적과 현양 사업에 대해서는 박도식, 『강릉의 12향현』, 채륜, 2018 참고.

너는 천리를 유념하여 종들을 받아서 서제(庶弟)에게 넘겨주었다.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인륜을 중히 여기는 것이 인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비록 내가 너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고 네가 음직을 받게 할 관직이 없으나, 효우(孝友)의 행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려준 작위이다. 우리 집안의 가법으로 지켜서 길이 후손들에게 전하도록 하라.<sup>10)</sup>

박수량은 그의 당숙인 사휴당(四休堂) 박공달(朴公達, 1470~1552)<sup>11)</sup>과 함께 기묘 현량과에 선발되었는데, 사화(士禍)를 만나 당숙과 함께 강릉 사천면(沙川面) 미로리(美老里)에 은거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정자를 ‘쌍한정(雙閑亭)’이라 이름하고 봉우리를 ‘삼가봉(三可峯)’이라 불렀다. 박원동은 박수량의 유문을 모아 『삼가선조유집(三可先祖遺集)』을 간행하며 그 뒤에 박공달과 농헌(龔軒) 박억추(朴億秋, 1523~1590)의 시문 약간 편을 함께 엮어 간행하였는데, 사람들이 ‘일문삼현유집(一門三賢遺集)’이라 불렀다고 한다.<sup>12)</sup>

강릉 박씨는 강릉 12향현 중 박수량·박공달·박억추 3인을 배출한 강릉의 명문가이다. 박원동이 이들 3인의 영향을 받은 것은 당연하거니와 특히 주목할 것은 10세조인 완하당(玩荷堂) 박진해(朴震楷, 1598~1690)의 삶이다. 박진해는 박수량의 현손인데, 박원동은 아버지·조부와 함께 10세조인 박진해의 가장을 지어 『삼세가장(三世家狀)』을 엮었다.<sup>13)</sup> 박원동은 박진해의 가장을 지으면서 『임영지(臨瀛誌)』에 전하는 기록을 많이 참고하였다.

박원동 집안이 시대에 세거하기 시작한 것도 박진해 때부터이다. 박진해는 중년에

10) 박원동, 「十世祖家狀」, 『三世家狀』, 『시호문집』, 627면. “汝念天顯, 納僕而賁, 輕財重倫, 所貴人道. 雖無金遺汝, 無爵蔭汝, 孝友之行, 是謂天爵. 守我家法, 萬世永傳.” 이하 박원동의 10세조인 완하당 박진해의 행적과 관련된 서술은 이 기록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영인본 『시호문집』에서 인용할 경우 문헌의 서명, 편명, 면수만 명기함.

11) 박공달(朴公達) : 1470~1552. 강릉 12향현의 한 사람. 본관은 강릉, 자는 대관(大觀), 호는 강호거사(江湖居士)·사휴당(四休堂). 1519년(중종 14) 기묘 현량과에 선발되었음.

12) 박원동, 「敬窩遺稿附于愚峯遺稿序」, 『시호거사문고』, 136면. 국립중앙도서관에 목판본 1책의 『삼가집』이 소장되어 있는데, 부록으로 『사휴선생유고(四休先生遺稿)』가 붙어 있다.

13) 박원동이 『삼세가장』을 엮은 데에는 3인의 묘표를 부탁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노탄 송규현에게 부탁하여 1934년 완하당 박진해의 묘표를, 1938년 아버지 풍은공 박증혁의 묘표를 각각 받았다. 동강 김영한에게 부탁하여 1937년 조부 삼락공 박규환의 묘표를 받았다.

미로리에서 남쪽으로 거처를 옮겨 지금의 강동면(江東面) 시동(詩洞)에 거주하였다. 시동은 본래 시동역(寺洞驛)이었는데 박진해는 풍수에 밝아 이곳을 거주지로 정하였다. 그리고는 역원(驛院)을 안인(安仁)으로 옮기고 ‘시(寺)’를 ‘시(詩)’로 고쳐서 이곳에 살았던 것이다.

① 10세조 완하당(玩荷堂) 박진해(朴震楷)

박진해(朴震楷, 1598~1690)는 자는 정보(正甫), 호는 완하당(玩荷堂)이다. 완하당이란 호는 집의 동쪽에 있는 풍호(楓湖)에 연꽃이 10리나 승경을 이루어 이를 완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원동은 ‘완하당’이란 호가 삼가 박수량이 지은 다음의 「연을 읊은 시[詠蓮詩]」에서 그 의미를 취한 것으로 보았다. 3구에 나오는 주무숙은 송나라의 성리학자인 주돈이(周敦頤)인데, 주돈이는 일찍이 「애련설(愛蓮說)」을 지어 연꽃을 군자에 비견하기도 하였다.

연 즐기는 군자의 도와 같고  
 꽃은 덕 있는 사람의 모습 같아라  
 주무숙(周茂叔)의 천년 뒤에도  
 맑은 향기는 만고에 변함이 없구나  
 莖如君子道 花似德人容  
 茂叔千載後 清香萬古同<sup>14)</sup>

박진해는 1639년(인조 17) 진사에 합격하였다.<sup>15)</sup> 박진해가 성균관에 있을 때 잠곡(潛谷) 김육(金瑬, 1580~1658)이 반임(泮任)을 맡고 있었다. 김육은 기묘명현 정우당(淨友堂) 김식(金湜, 1482~1520)의 현손이고, 박진해는 삼가 박수량의 현손으로 세의가 있어서 서로를 허여하며 가깝게 지냈다.

14) 박원동, 「十世祖家狀」, 『三世家狀』, 632~633면.

15) 『사마방목』 [진사 인조(仁祖) 17년(1639) 기묘(己卯) 식년시(式年試) [진사] 3등(三等) 41위(71/100)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과거 및 취재'의 '박진해'조)

박진해는 고향으로 낙향한 후에 강릉의 유생 180여 명과 창의(倡議)하여 강릉부사 강백년(姜栢年)에게 단자를 올려 향현사(鄉賢祠) 건립을 건의하였다. 이에 강릉 부사는 예조에 보고를 해서 특별히 강릉의 성 동쪽에 향현사를 건립하도록 허락을 받았다.<sup>16)</sup> 비로소 1645년에 조은(鈞隱) 최치운(崔致雲), 수헌(睡軒) 최응현(崔應賢), 삼가(三可) 박수량(朴遂良), 사휴당(四休堂) 박공달(朴公達), 원정(猿亭) 최수성(崔壽誠), 도경(蹈景) 최운우(崔雲遇) 등 6향현을 배향하게 되었다.

1649년 효종이 즉위하여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을 문묘에 종사(從祀)하는 것과 관련하여 태학생이 상소를 올릴 때, 박진해는 강원도 유생으로 상소를 올렸다. 1652년(효종 3)에 박진해는 많은 유생들을 이끌어 율곡 선생의 석천서원(石川書院)을 송담(松潭)으로 이건하고 신판(神版)을 봉안하였다. 1655년에 송담서원의 사액 상소를 올렸으나 사액을 받지 못하였다. 1659년 2월<sup>17)</sup>에 김숙(金澣) 등과 다시 상소를 올려 마침내 사액을 받았다. 이해 5월에 현종이 즉위하자 강원도 유생으로 삼소(三疏)를 올려 율곡과 우계 두 선생의 문묘 종사를 청하였다. 결국 성균관 최주송준길(宋浚吉)과 대사간 유계(兪槩)의 상소가 더해져서 윤허를 받았다. 1660년(현종 1) 가을 송담서원의 사액치제(賜額致祭)를 거행하였는데, 지제교 김만기(金萬基)가 제문(祭文)을 짓고 동춘당 송준길이 사액의 글씨를 썼으며 우암 송시열이 정향(丁享) 축문(祝文)을 지었다. 박원동은 이 모든 것이 박진해의 위도모현(衛道慕賢)의 정성이 성세(盛世)에 드러난 것이라 평가하였다.

박진해는 1675년(숙종 1)에 78세 때 강릉부사 이후(李煦)가 조정에 보고하여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올랐다. 이 해에 우암 송시열이 유배지를 함경도 덕원(德源)에서 경상도 장기(長鬢)로 옮겨 가게 되었다. 우암이 송담서원을 지날 때 박진해는 우암에게 ‘안인동송담(安仁洞松潭)’ 5자를

16) 향현사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8호 강릉 지역의 인물들 중에서 추앙받는 이들을 배향한 사당이다. 1867년 강릉지방의 대화재로 모두 소실되었다가 1921년 배향인물의 후손들이 자리를 옮겨 중건하였다. 이후 1996년에 황영조(黃永祚)기념체육관 건립 관계로 바로 뒤로 이전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향현사’ 조

17) 본고의 연월일은 음력을 따른 것이며, 이하 양력인 경우에 한하여 ‘양력’을 별도로 밝힌다.

써 달라 청하여 서원 앞 계석(溪石)에 새겨서 현인이 지나 간 정채(精彩)를 드러내었다.

1676년(숙종 2) 가을 박진해는 군수 최완(崔浣), 생원 김계(金賢) 등 12인과 ‘주춘계(住春契)’를 결성하였다. 회원들이 모두 칠순이 넘었는데, 박진해가 79세로 계장(契長)을 맡아 향사례(鄉射禮)를 주관하였다. 이 주춘계는 강릉 고을의 성사(盛事)로 그 전통이 계속되었으며, 자손들이 시축을 만들어서 집안 대대로 전하게 되었다.

1680년(숙종 6) 우암이 유배에서 풀려나 조정으로 돌아오자 박진해를 비롯한 송담서원의 여러 유생들이 편지를 보내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축하하였다. 이때 우암은 감사의 답서를 보냈는데, 답서에서 “지난 번 매서운 불꽃이 하늘까지 치솟을 때 그대들이 기둥을 붙들고 버텨준 덕분에 원사(院事)가 허물어지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sup>18)</sup>”라고 하였다.

박진해는 1682년(숙종 8) 다시 통문을 보내 춘헌(春軒) 최수(崔洙)를 향현사에 추향(追享)하니 모두 7현이 되었다.

이상이 박원동이 기록한 10세조 완하당 박진해의 주요 행적이다. 박진해의 행적에서 중요한 지점은 향현사 창건과 7현의 배향, 송담서원의 건립과 사액, 우암 송시열과의 인연, 주춘계(住春契)의 결성 등이다. 박원동은 완하당 박진해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공은 울곡 이이 선생을 경모하여 문묘에 종사시킬 것을 상소하고 울곡 선생을 모신 서원을 세워 사액을 받았다. 우암 송시열 선생을 종유하여 우암 선생이 서원의 정향(正享) 축문(祝文)을 짓고 강릉의 유림에게 감사하는 답서를 보냈다. 이는 사문(斯文)의 연원이 바른 것이다.

18) 이 답서는 『송자대전(宋子大全)』 권120에 실려 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宋時烈, 『宋子大全』 卷120, 「答松潭院儒」(庚申), 한국문집총간112, 232~233면. “罪戾餘蹤, 蟄伏空山, 不敢自同餘人. 伏蒙僉尊俯賜問札, 仍有所伴, 恭領至意, 不知攸謝. 時烈猥蒙聖恩, 生還舊棲. 若得檢理書籍, 閱理省己, 則庶收桑榆之萬一, 而年齡已耄, 精力頓衰, 恐無其日, 永爲泉下之恨也. 曩時虐焰之燔空, 得賴僉尊之撐柱, 院事不至墜廢, 遯聞風儀, 不勝欽尚也.” 이하 ‘한국문집총간’은 ‘총간’으로 약칭함.



성균관에 있을 때 반임이었던 잠곡 김육이 호의를 베풀며 함께 공부를 하였고, 고향에서 만년을 보낼 때 강릉부사 운포(雲浦) 여성제(呂聖齊)가 장로로서 공경하며 시를 수창하였다. 이는 당시 재상들이 도 의로서 존중한 것이다.

성균관에 있을 때 유생들은 공이 경전에 밝은 것에 감복을 하였고, 향현을 배향할 때 고을의 선비들은 공의 바른 의론을 따랐다. 그러하니 우리나라 유사(儒士)의 표준이 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추춘계를 수계할 때 계장을 맡았고, 족첩(族牒)을 제(題)할 때 첩수(牒首)가 되었으니, 자리가 무겁고 덕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백수를 살아 2품에 올라서 자손들이 번창을 하였으니, 인(仁)을 아끼어서 음 덕을 쌓으셨음을 또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sup>19)</sup>

박진해는 평생 저술에 힘썼으나 전하는 것은 박원동 집에 남아 있는 소본(疏本) 3편뿐이며, 「고록(古麓)」이란 시 1수가 종가의 구판(舊板)에 걸려 있다고 한다. 박원동은 1907년 『강릉박씨세고(江陵朴氏世稿)』를 편성하였는데, 박진해가 지은 상소문과 시를 세고에 수록하였다. 그리고 1924년 완하당을 모시는 재청(齋廳)을 건립할 때 재청의 기문 글씨를 박원동이 썼다.

한편 박진해의 손자 박율(朴栗)은 경사에 박학하고 임영팔문장(臨瀛八文章)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졌다. 박진해의 후손이자 박원동의 6세조인 박민천(朴民天)은 칠순동갑끼리 영주구로갑회(瀛州九老甲會)를 결성하였는데 계첩(契帖)이 회원들의 후손가에 전해졌다.<sup>20)</sup> 박원동의 5세조 박지희(朴祉希)는 향유(鄉儒)의 영수로 향교 계판문(揭板文)에 그 실적이 실려 있다고 하였다. 박원동이 문장으로 이름이 나게 된 내력, 영주구로속회(瀛州九老續會)의 결성, 향교의 임원 활동 등은 이러한 가문적 배경이 작용하였던 것이다.

19) 박원동, 「十世祖家狀」, 『三世家狀』, 633면. “公景慕栗谷而從祀上疏, 建院蒙額. 從遊尤菴而享祝製定, 儒書報答, 此斯文淵源之正路也. 金潛谷通好講討, 呂雲浦敬老酬唱, 此當時宰輔道義之相尚也. 居泮宮而泮儒服其明經, 享鄉賢而鄉士從其正議, 則爲吾邦儒士之表準可見也. 修春契而爲契長, 題族牒而居牒首, 則其位重而德尊可知也. 享百歲陞二品, 而子孫蔓延, 則其愛仁而積蔭之德, 亦可推也.”

20) 박민천은 삼가 박수량의 묘표(墓表)를 도암(陶菴) 이재(李緯, 1680~1746)에게 부탁하여 입석(立石)하였다. 李緯, 『陶菴集』 卷38, 「縣監三可朴公墓表」, 총간195, 286면.



## ② 조부 삼락(三樂) 박규환(朴奎煥)

박원동의 조부 박규환(朴奎煥, 1830~1901)은 자는 명오(明五), 초호(初號)는 금파(錦坡), 만호(晩號)는 삼락당(三樂堂)이다.

박규환은 1851년(철종 2) 22세에 향시에서 합격하였고 그 후에도 향시에 여러 번 발탁되었으나 끝내 소과에 합격하지는 못하였다. 과거시험을 그만두고 ‘궁경양성(窮經養性)’을 소임으로 삼았다. 일이 있어 서울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집안끼리 잘 알고 지내는 재상에게 벼슬자리를 부탁을 해 보라는 소리를 듣고는 단칼에 거절하였다고 한다. 박원동은 이에 대해 “높은 뜻과 고상한 행실로 세상에 아부할 생각이 없음을 볼 수 있다.”<sup>21)</sup>라고 평하였다.

강릉에는 오봉서원, 송담서원, 향교에 각각 양사(養士) 거접(居接)의 규례가 있었고 세 곳에서는 별선(別選) 도회접(都會接)이 있었다. 박규환은 두 곳의 서원과 향교에 거접이 5회, 도회접이 3회 등록될 정도로 강릉 지역의 촉망받는 인재였다.

1868년(고종 5) 오봉서원이 훼철되고 1871년에 송담서원의 제향이 폐지되어 다만 그 터만 남겨지게 되었다. 박규환은 1874년(고종 11) 45세 때 향교의 교임(校任)이 권세를 끼고 개신(改新)을 단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유생들이 명륜당에 모였는데, 임원의 위세에 눌려서 감히 항의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권복규(權復圭)와 최장하(崔長河) 두 노유(老儒)가 “산천이 변했는가, 국규(國規)가 변했는가.”라고 따졌고, 박규환 역시 이들의 항의에 동조하였다. 이 일로 세 유생이 옥에 갇혔는데, 많은 유생들이 예조에 이 사실을 보고하여 예전의 규례대로 회복하고 갇혔던 유생들이 풀려났다. 박규환은 1883년(고종 20) 54세에 향교의 교임을 맡아 문묘를 중수하였다. 이 때의 사적은 강릉부사 임철수(林徹洙)가 쓴 명륜당 계판문에 기록되어 있다.

박규환은 만년에 자호를 ‘삼락(三樂)’으로 고쳤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1) 박원동, 「先祖考家狀」, 『三世家狀』, 637면. “抗志高蹈, 無阿世之意, 此可見也.”

내게 자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경서를 가르치는 게 첫 번째 즐거움이요, 몇 되기 밭이 있어서 농사 짓는 걸 보는 게 두 번째 즐거움이요, 사는 곳에 아름다운 풍호(楓湖)와 선강(仙江)이 있어 이곳을 소요하며 흥취를 붙이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sup>22)</sup>

박원동은 가장의 말미에 박규환에 대한 지인들의 평가를 인용해 두었다. 남계(南溪) 김연팔(金演八)은 집안의 자제들을 경계시키며 “너희들은 처세를 반드시 내 친구 박규환과 같이 해야만 옳다. 내가 능히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였고, 박규환의 외조카 국사(菊史) 김준경(金濬卿)은 “내 평생 행사(行事)는 나의 외삼촌을 모범으로 삼고자 하였다.”라고 하였다.<sup>23)</sup>

박원동의 조부 박규환의 인생 지향은 갑오개혁으로 대표되는 국가 체제의 대변혁, 서양의 과학과 종교의 유입, 일제의 침략 등, 대내외적 난세를 살아가는 박원동에게 영향을 미쳤다.

### ③ 아버지 풍은(楓隱) 박증혁(朴曾赫)

강릉의 유림 사회에서 박원동 집안이 지니는 역할과 영향력은 아버지 박증혁(朴曾赫, 1849~1919)에게도 계승되었다. 박증혁은 자는 윤침(允瞻), 호는 풍은(楓隱)이다. 일체의 영리(營利)에 연연하지 않고 일찍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둔세무민(遯世無憫)<sup>24)</sup>’을 부신(符信)으로 삼아 늘 몸에 지니며 대대로 풍호정 가에 살았으므로 자호를 ‘풍은(楓隱)’이라 하였다.

박증혁은 제석 날이면 ‘인부(忍負)’ 두 글자를 쪽지에 써서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22) 박원동, 「先祖考家狀」, 『三世家狀』, 639~640면. “我有諸子孫, 教之書經, 一樂也; 自有數頃田, 觀其稼穡, 二樂也; 所居有楓湖·仙江之勝, 逍遙以寓趣, 三樂也.” 수당(遂堂) 이종원(李種元)이 이 말을 듣고 기꺼이 문미(門楣)에 ‘삼락당(三樂堂)’이라는 글씨를 써 주었다고 한다.

23) 박원동, 「先祖考家狀」, 『三世家狀』, 639면. “南溪金演八誠子侄曰: ‘汝輩處世, 必如五友某可也. 吾學之不能也.’ 菊史金濬卿, 府君之表侄也, 常語人曰: ‘吾平生行事, 欲冒犯吾內舅云.’”

24) 둔세무민(遯世無憫): 『주역』 「건괘(乾卦)·문언(文言)」에 “세상을 피해 은둔하되 걱정함이 없으며, 옳게 여겨 주지 않아도 고민이 없어, 즐거우면 나가서 도를 행하고, 근심스러우면 떠나서, 확고하여 그 뜻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잠룡인 것이다. 遯世無憫 不見是而無悶 樂則行之 憂則違之 確乎其不可拔 潛龍也.”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주며 언행을 늘 조심하게 가르쳤다. ‘인부’는 ‘분노를 참고 남들을 책임진다.[忍於忿負於人]’는 가르침이었다. 한 해가 지나 다시 제석이 돌아오면 작년에 써 준 쪽지를 잘 간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써서 주었다.

박증혁은 사람과 어떤 일에 대해 논의할 때 공정하고 정직하게 판결을 하여 지역의 유생들에게 신망이 두터웠다. 그리하여 유생 권수흥(權秀興)은 늘 “우리 고을 유생의 모임에 박증혁이 좌수(座首)에 있지 않으면 좌수에 사람이 없는 것과 같다.<sup>25)</sup>”라고 할 정도였다.

1903년 향교에서 향약계(鄉約契)를 설립했는데, 강릉 부사 박우양(朴岬陽)이 도약장(都約長)을 맡고 박증혁이 부약장(副約長)을 맡았다. 이듬해에 시동에서 촌약계(村約契)를 마련하여 박증혁이 약장을 맡았는데, 여씨향약(呂氏鄉約)과 울곡의 해주향약에 의거하여 조목을 세웠다.

1905년 송담재(松潭齋)와 송담서원(松潭書院)을 중건하였다. 송담서원은 박원동의 10세조 완하당 박진해가 창건하여 사액을 받았던 서원인데, 고종 때 서원 철폐령에 따라 1871년 훼철되었다. 1882년 고종은 서원을 철폐했던 일을 후회하며 “충신과 현인을 제사 지내지 않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윤음을 내렸다.<sup>26)</sup> 이에 따라 강릉에서도 훼철된 서원과 향사를 복원하자는 여론이 일어났다. 박증혁이 지역의 사람들에서 통문을 보내 발의하여 훼철된 묘우(廟宇)를 중건하였다. 이해에 박증혁은 음직으로 순릉 참봉(順陵參奉),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내가 일찍 공령(功令, 과거공부)을 그만두었는데 만년에 원외(員外)에 묶이는

25) 박원동, 「先考家狀」, 『三世家狀』, 646면. “吾鄉儒會, 某不在座, 則座如無人也.”

26) 1882년(임오) 7월에 내린 고종의 윤음에 “毀撤祠院, 忠賢不祀, 是予之罪也.”라는 말이 나온다. 『고종실록』 고종 19년(1882) 7월 20일 및 『승정원일기』 고종 19년(1882) 7월 20일 참고. “諭八道·四都耆老·人民等. 若曰: 嗚呼! 予以否德, 猥託民上, 十有九年, 不明厥德, 政失民散, 罪積于上, 殃集于躬. 由予所召, 雖悔曷追? 粵自嗣服以來, 大興土木, 勒斂民財, 使貧富俱困, 是予之罪也. 屢改錢幣, 多殺無辜, 是予之罪也. 毀撤祠院, 忠賢不祀, 是予之罪也. 玩好是求, 賞賜無節, 是予之罪也. 過信祈禳之事, 虛糜帑藏, 是予之罪也. …… 今茲亂逆斯討, 不極厥武, 宥其餘黨, 行將大赦國中, 咸與維新. 予方悔過, 何暇責人? 嗚呼! 興國恒於是, 亡國恒於是. 安危之機, 凜如一髮, 尙可不戒之哉? 茲以敷心以告, 想宜知悉.”

것은 소신이 아니다.”라 말하고는 계속 유관(儒冠)을 쓰고 잠영(簪纓)을 더하지 않았다.

1907년 강릉 사마소(司馬所)인 계련당(桂蓮堂)을 중수할 때, 박증혁은 도청(都廳)을 맡았다. 박증혁은 “과거제도가 지금은 폐지되었으나 계련당은 선조들이 유식(遊息)하던 곳이니 중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중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당시 계련당 중수를 위해 강릉 유림은 모선계(慕先契)를 결성하였는데, 창계원 명단인 『모선계좌목(慕先契座目)』과 그 취지를 밝힌 중수기가 현재 전하고 있다.<sup>27)</sup> 『모선계좌목』의 창계원(創契員) 명단에는 죽와(竹窩) 조헌승(曹憲承, 1840~1915)을 비롯해서 70여 명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는데, 성명과 자호(字號), 주소 등이 함께 적혀 있다.<sup>28)</sup> 계련당 중수기는 1909년 3월 조헌승이 작성하였는데, 계련당 중수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과거에 급제한 여러 인사들이 꽃피는 봄과 달 밝은 가을에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이 계련당에 모여서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그리하여 이 고을의 풍속을 중후하게 하고 사림의 후생들이 존모하며 본받아 재예(才藝)를 더욱 열심히 닦도록 하였다. …… 아! 15년 전인 갑오년(1894)에 시기(時機)에 재난이 일고 국헌(國憲)이 강장(更張)하여 과거제가 영원히 폐지되고 시무(時務)의 학문이 발흥하였다. 계련당을 돌아봄에 장차 허물어지려 하였고 가만히 전토(田土)를 헤아려 보니 말라 시들어질 뿐이었다. 지난 병오년(1906)에 계련의 후손들이 모두들 이를 개탄하며 발의하기를 “전해 받은 당우(堂宇)는 수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예부터 전해진 전지(田址)는 길이 보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 하였다.<sup>29)</sup>

27) 『慕先契座目』(필사본 1책), 방동안이규대 공편, 『영동지방향토사연구자료총서』 1(鄉約契),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1994, 303~309면.

28) 박원동 집안의 박태수(朴泰秀)도 보이며 박원동과 친분이 두터운 최동길(崔東吉), 심상조(沈相祚), 김윤경(金潤卿) 등의 이름도 올라 있다. 그런데 박원동의 아버지 박증혁(朴曾赫)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박증혁은 창계원은 아니었고 후에 참가하여 도청(都廳)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29) 曹憲承, 「桂蓮堂重修記」, 방동안이규대 공편, 『영동지방향토사연구자료총서』 1(鄉約契),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1994, 309면. “桂蓮諸人 이春花秋月에 杯酒果品으로 斯堂에 會集호야 敦睦之誼를 讚호야 使一鄕風俗으로 忠厚에 歸至하고 士林後生으로 景仰效則호야 才藝를 益勤케호니 …… 噫라 十五年前甲午에 時機火變호고 國憲이 更張호야 科擧之業이 永廢호고 時務之學이 勃興이라 顧瞻堂宇에 顧圯將至호고 黠量田土에 凋殘乃已일스 | 往在丙午에 桂蓮後孫이 咸爲慨然發論曰 遺傳堂宇는 不可不修葺이오 古來田址는 不可不永保라”

계련당은 과거시험에 급제한 유림이 모여 우의를 나누던 곳이었다.<sup>30)</sup> 그러나 “15년 전인 갑오년에 시기(時機)에 재난이 일고 국헌(國憲)이 갱장(更張)하여”라 운운하였듯이, 갑오개혁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되면서 계련당의 명맥도 끊어졌다. 이에 1906년에 모선계를 조직해서 계련당을 중수하고 과거의 영광을 회고하였던 것이다. 인용문 말미의 후손들이 운운한 말은 박증혁이 중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그 내용이 같다.

1916년 오봉서원의 제단과 담장을 개축하고 묘정비(廟庭碑)를 중건하였는데, 이 역시 박증혁이 큰 역할을 하였다. 오봉서원은 1868년 훼손되었는데 그 후 1905년에 오봉단(五峯壇)을 설치하고 다향(茶享)을 거행하였다. 이 해에 묘정비가 큰 비로 잠기고 파손이 되자, 박증혁이 발의해서 개축하고 중건하게 되었던 것이다. 박증혁은 강릉 유생들을 이끌면서 송담서원과 오봉서원의 중건을 주도하였다. 지인들은 박증혁을 위해 지은 제문이나 만사에서 이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sup>31)</sup>

요컨대 박원동이 평생토록 진력한 강릉 유교문화 유산의 연구와 정리 사업은 10세조 박진해로부터 조부와 아버지로 이어지는 가문적 배경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30) 현재 '계련당(桂蓮堂)이란 현판 옆에 '모선계(慕先契)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강릉)〉, '계련당'조)

31) 박원동이 지은 「선고가장(先考家狀)」에 박증혁을 기리는 제문과 만시가 인용되어 있는데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사(菊史) 김준경(金濬卿)은 제문에서 “松院建齋，公能挺身。五院設壇，公創謨詢。功在士林，德不孤隣。論議正直，氣宇氤氳。”라 하였고, 만시(輓詩)에서는 “士林失宗匠，一門摧棟樑。”라 하였다. 둔산(遯山) 이석하(李錫夏)는 만시에 “賢廟重營同幹事，院碑改豎創先論.”라 하였다.(박원동, 「先考家狀」, 『三世家狀』, 648면.)

## 2. 연보 재구성

박원동의 삼남 박용정(朴容丁)에 따르면, 박원동은 생전에 자신이 지은 시율(詩律)과 문장, 척독(尺牘) 등을 각각 별도의 책자로 편성해 놓았다고 한다.<sup>32)</sup> 1993년 가장되어 오던 이들 책자를 모아 『시호문집』으로 영인하였는데, 여기에는 박원동이 직접 작성한 『시호연기(詩湖年記)』도 수록되어 있다. 이 글은 박원동이 자신의 행력을 연월별로 작성한 연보(年譜)이다. 『시호연기』를 중심으로 박원동의 연보를 최대한 상세하게 재구성해 보겠다. 영인본 『시호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호거사문고』, 『시호만음』, 『시호척독』, 『시호연명록』 등 여타의 시문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함께 부기하고 그 근거를 주석에서 밝혔다. 아울러 1924년 52세부터 1949년 몰년까지의 생애는 『시호거사일기』의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 ○ 1873년(계유, 고종 10) 1세

4월 28일 사시(巳時)에 시동(詩洞)의 본가에서 출생하였다.

어머니 권 부인이 꿈에 오죽헌(烏竹軒)의 몽룡실(夢龍室, 율곡 이이가 태어난 방)에서 노니다가 강아지를 발견하였다. 그 강아지가 매우 기특하여 치마로 감싸 안았는데 갑자기 호랑이로 변화는 것이었다. 이 꿈을 꾸고 박원동을 임신하였다.

같은 날 밤 아버지 풍은공(楓隱公)이 꿈에 풍호(楓湖)와 선강(仙江)이 교차하는 곳에서 활을 쏘고 있었는데 봉어처럼 생긴 큰 물고기 있었다. 역린(逆鱗)을 띠고 강가로 나와 헤엄을 치는데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풍은공이 “용이다!”라고 소리치니 물고기가 한길이나 뛰어올랐다.

### ○ 1877년(정축) 5세

조부 삼락공(三樂公)에게 처음으로 해몽서(解蒙書)를 배웠다. 삼락공은 매일 새벽에 이불 속에서 공을 안고서 배운 것을 스스로 암송하게 하였다.

32) 朴容丁, 「詩湖遺稿複製跋文」, 701~702면.

○ 1878년(무인) 6세

마을의 서당에 들어가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마을에 서재계(書齋契)가 있었는데 이 계의 자금으로 매년 반년 간 훈사(訓師)를 초빙하였다. 권 부인은 매양 공의 머리를 빗어주며 “잡기에 물들지 말고 글공부에 힘써야 한다. 어미 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계시켰다.

○ 1879년(기묘) 7세

입춘첩(立春帖)을 썼다.

삼락공이 입춘첩 옆에 제(題)하기를 “일곱 살짜리 글씨를 벽에 붙여두니 이웃집 사람들이 어린 아이의 글씨를 좋아하여 찾아와서 글씨를 써 달라 청하였다.”라고 하였다.

○ 1880년(경진) 8세

아버지 풍은공은 원근에서 오는 지인의 간찰을 모두 보관해 두고는 “아이가 조금 성장하기를 기다려 이것을 보고 글씨 연습을 시켜야겠다.”라고 하였다.

○ 1883년(계미) 11세

마을의 서당에서 족조(族祖) 시산공(詩山公)<sup>33)</sup>에게 수학하였다.

당시 시산공 문하의 문생이 60여명이나 되었다고 한다.<sup>34)</sup>

후에 1912년 김병시(金炳時)가 발의하여 「시산문생계명첩(詩山門生禊名帖)」을 만들었는데, 그 서문을 박원동이 썼다.<sup>35)</sup> 1920년에 시산공이 졸하였을 때 박원동은 문생계를 대표하여 제문을 지었다.<sup>36)</sup>

33) 시산공(詩山公) : 박정규(朴廷圭, 1851~1920)를 말한다. 시산은 그의 호. 본관은 강릉(생원공파), 초명은 장환(章煥), 자는 서옥(瑞玉)이다. 저서에 『사서문대(四書問對)』와 『시산자정(詩山自呈)』 등이 있다고 하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강릉박씨세보』 을권, 82~83면. 자세한 내용은 III장 4절 ‘사승 관계 및 교유 인물’ 참조.

34) 『시호연명록』, 「詩山門生禊(同門生六十餘人聯名, 頽未錄)」, 697면.

35) 『시호거사문고』, 「門生禊序(壬子三月)」, 38면.

36) 『시호거사문고』, 「祭詩山先生文(門生禊中)」, 195면.



○ 1885년(을유) 13세

봄에 홍역을 앓았다. 아직 천연두를 앓지 않은 까닭에 수차례 종두(種痘)<sup>37)</sup>를 하였으나 끝내 천연두는 앓지 않았다.

벼루[硯]를 읊은 시에 ‘단(單)’자를 압운하여 “너를 즉묵성(即墨城)에 봉하니 전단(田單)<sup>38)</sup>에게 물어보네. [封汝即墨問田單]”라고 하였다. 잔설(殘雪)을 읊은 시에 ‘선(仙)’자를 압운하여 “흑백이 바둑돌처럼 선명하니 상산사호(商山四皓)<sup>39)</sup>를 찾아가네. [黑白如碁訪商仙]”라고 하였다. 삼락공이 평가하기를 “평직(平直)은 아직 터득하지 못하였으나 구사(構思)는 취할 만하다.”라고 하였다.

2월 16일 조모 김 부인의 회갑에 아버지 풍은공이 회갑 잔치를 열었다.

○ 1887년(정해) 15세

족장(族丈) 월탄거사(月灘居士)<sup>40)</sup>는 성재(省齋) 유중교(柳重教, 1832~1893)를 종유(從遊)하다가 집으로 찾아 왔다. 조부 삼락공이 관례를 치른 후에 성재의 문하로 들어가 공부하라고 권하였다.

37) 종두(種痘) : 우두를 사람의 피부에 접촉해서 천연두에 대한 면역성이 생기게 하여 그 감염을 막는 예방 접종.

38) 전단(田單) : 전국 시대 제(齊)나라 장수. 전단이 홀로 즉묵성(即墨城)을 지키고 있다가 1천여 마리의 소에 붉은 옷을 입히고 뿔에 칼날을 매단 뒤 소고리에 갈대를 묶어 불을 붙여서 성 밖으로 내몰아 연(燕)나라 군사를 크게 격파한 고사가 있다. (『史記』 「田單傳」)

39) 상산사호(商山四皓) : 진나라 말기 한나라 초기의 은자인 동원공(東園公), 기리계(綺里季), 하황공(夏黃公), 녹리선생(甬里先生)을 말한다. 이들은 진나라의 학정을 피해 상산에 은둔하였는데,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초빙해도 응하지 않다가 뒤에 장량(張良)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태자를 도와 왕권을 안정시킨 뒤 다시 은둔하였다. 상산은 섬서(陝西) 상현(商縣)의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상안산(商顏山)’이라고도 한다. (『高士傳』 「四皓」)

40) 월탄거사(月灘居士) : 『강릉박씨세보』를 검토하였으나 누군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한편 박원동 집안에서 성재 유중교를 스승으로 모신 사람 중에 경와(敬窩) 박두헌(朴斗憲)이 있다. 1937년 박두헌의 후손 박주봉(朴周鳳)이 『경와유고』를 편집하여 박두헌의 족조인 우봉(愚峯) 박민해(朴民楷)의 『우봉유고』 뒤에 붙여 함께 간행을 하였다. 이때 박원동에게 『경와유고』의 서문을 부탁하였다. 박원동, 『敬窩遺稿附于愚峯遺稿序』, 『시호거사문고』, 136면. 『경와유고』에 수록된 『우봉유고』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박원동이 지은 서문은 「부경와유고서(附敬窩遺稿序)」란 제목으로 실려 있으며, 말미에 “歲丁丑(1937)孟夏月上澣日族孫元東謹叙”라고 적혀 있다. 내용은 『시호거사문고』에 실려 있는 것과 같다.



○ 1888년(무자) 16세

12월 16일 강릉 김씨를 맞아 혼인하였다.

김씨는 소봉(蘇峯) 김진필(金振泌)의 따님으로 임경당(臨鏡堂) 김열(金說)<sup>41)</sup>의 후손이다. 소봉공이 아우인 진용(振鎔)으로 하여금 와서 의용(儀容)과 책서(冊書)를 보게 하고는 사위로 맞았다.

○ 1889년(기축) 17세

여름 임경당(臨鏡堂)<sup>42)</sup>에서 시를 지었다.

겨울 요춘(耀春) 김장사(金章師) 공의 서재에 가서 『한서(漢書)』를 공부했다.

요춘재(耀春齋) 김장사 공이 그의 아들 진억(振億)과 함께 공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1890년(경인) 18세

2월에 미촌재(美村齋)에 들어가 거접(居接)<sup>43)</sup>하며 강독을 하였다.

미촌재는 선조 삼가 선생(三可先生)의 묘재(墓齋)인데 종중에서 거접 인원을 선발하여 삭망(朔望)으로 성소(省掃)하고 유건(儒巾)을 쓰게 하는 등, 그 의식이 향교와 같았다. 6명이 함께 기숙하였으며 「거접록(居接錄)」이 있다.<sup>44)</sup>

이때 성석(惺石) 최종낙(崔鍾洛)이 근미재(近美齋)에 거처하고 있어서 시문을 주고받았는데 그와의 교분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4월 3일 조부 삼락공의 회갑을 맞아 아버지 풍은공이 잔치를 열었다.

여름에 임경당에서 시를 지었다. 겨울에 요춘재에서 글을 읽었다.

41) 김열(金說) : 강릉 12향현의 한 사람. 본관은 강릉. 자는 열지(說之), 호는 임경당(臨鏡堂). 관직은 훈도(訓導). 종중 연간의 학자로 울곡 이이, 해운정(海運亭)의 심언광(沈彦光) 등과 교류하였다. 이이가 그에게 『호송설(護松說)』(『울곡전서』 권14, 총간44, 287면)을 지어주었다.

42) 임경당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에 있는 조선시대 건물. 현재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소목길 18-26에 있음. 임경당은 조선 중종 때인 1530년대에 건축된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의 건물은 1825년에 중수하였고, 최근 기둥과 도리를 교체·수리 하였다.<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강릉)> '임경당'조

43) 거접(居接) : 조선시대 서당에서의 집단적인 학습 활동 또는 연중행사로 하던 글짓기 경연.

44) 『시호연명록』, 『漢老里齋室居接錄(庚寅春)』, 693면. 당시 박원동과 함께 거접한 이는 박증호(朴曾虎, 자는 仁彦, 거주지 德實里), 박경실(朴璟實, 자는 漢甫, 거주지 詩洞里), 박용수(朴容壽, 자는 仁伯, 거주지 板橋里), 박증룡(朴曾龍, 자는 聖在, 거주지 美老里), 박은실(朴濼實, 자는 景楫, 거주지 詩洞里) 등이다.

○ 1891년(신묘) 19세

봄에 중부(仲父) 이은공(二隱公) 박증학(朴曾鶴)을 모시고 한성(漢城) 증광시(增廣試,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실시된 임시과거)에 응시하였다.

가는 길에 경기도 지평(砥平)의 다산(茶山) 최진사(崔進士) 서재에 묵었다. 그의 아버지 감역옹(監役翁)은 시험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머물면서 그의 자제들과 함께 여름을 보내달라고 신신부탁하였으나 응하지 못하였다.

여름 범재(凡齋) 조익환(曹益煥)<sup>45)</sup>과 함께 시를 지었다.

겨울에 향교에 거접하며 강독하였다.

군수는 김정진(金靖鎭)이었다. 당시 향교와 양몽재(養蒙齋)<sup>46)</sup> 두 곳에 유생을 양성하는 규례(規例)가 있었는데 함께 거접한 생도가 40명이었다. 향교에 「거접록」이 있다.<sup>47)</sup>

○ 1892년(임진) 20세

여름 요춘재에서 시를 지었다.

겨울에 이충태(李鍾泰) 및 여러 아우들과 우리 집에서 송독(誦讀)하였다.

보진재(葆眞齋)<sup>48)</sup> 김선생행록(金先生行錄)<sup>49)</sup>을 보았는데 “평생 해와 달을 향해

45) 조익환(曹益煥) : 1862~1914. 본관은 창녕. 자는 경삼(敬三), 호는 범재(凡齋)·학범재(學凡齋)이다. 1888년(고종 25) 증광감시(增廣監試) 초시(初試)에 입격을 하였으며 1900년(고종 37)에 경상북도 관찰부 주사(主事)에 임명되었다. 『昌寧曹氏江陵派譜』 권3, 창녕조씨강릉파보편찬위원회 편, 대전: 回想社, 1989, 79~80면.

46) 양몽재(養蒙齋) :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3)가 1613년(광해군 5) 강릉대도호부사에 부임한 후 설치한 곳이다. 또한 정경세는 강릉향교에 흥학비(興學碑)를 세우기도 하였다.(<한국향토전자문화대전(강릉)> '우복사(愚伏祠)조')

47) 『시호연명록』, 『江陵鄉校居接錄(辛卯冬)(府使李徹愚)』 및 「養賢齋(鄉校東齋同時居接)」, 693면. 이 해 겨울 향교에 거접한 인원 20명, 양현재(養賢齋)에 거접한 인원 19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시호연명록』에는 당시 강릉부사가 '이철우(李徹愚)'라고 되어 있다.

48) 보진재(葆眞齋) : 강릉 12향현의 한 사람인 김담(金譚)을 말한다. 보진재는 그의 호. 조선중기의 효자. 본관은 강릉. 1539년(중종 34) 초시(初試)에 뽑혔으나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고향에서 부모를 봉양하였다. 선조 대에 정려를 받았으며, 아들 김경황과 김경시, 손자 김한(金垸)이 모두 효행으로 정려를 받았다. 사람들은 그들을 '삼세사효(三世四孝)의 가문'이라 칭하였다. 삼세사효 효자각이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에 있다. 박도식, 앞의 책, 177~185면.

49) 보진재 김선생행록 : 양사언(楊士彦)이 쓴 「서김효자행록(序金孝子行錄)」을 말하는 듯하다. 1571년(선조 5)에 강릉부사 양사언은 김담 사후에 김담을 효자로 천거하여 정려각이 건립되었다. 1807년(순조 10) 화재로 소실되었는데 후손들이 1873년(고종 11)에 재건하고 편액을 보진재(葆眞齋)라고 하였다. 양

서는 용변도 보지 않았다.[平生不向日月便旋]”라는 말이 있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였다.

○ 1893년(계사) 21세

8월에 원주의 동성시(東省試)에 응시하였다.

감사(監司)는 이원일(李源一)이었다. 전에는 이 시험의 장소가 외군(外郡)을 돌아가면서 설치를 하였는데, 지금은 일정하게 원주 감영에 실시하고 있다.

9월에 삼척의 초탁시(初擢試)에서 1등으로 선발되었다.

군수는 심의홍(沈宜鴻)이었다. 감영에서 시행된 복시(覆試)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겨울에 보현사(普賢寺)<sup>50</sup>에서 책을 읽었다.

족제 박만실(朴萬實), 이종태(李鍾泰)와 함께 하였다.<sup>51</sup>

○ 1894년(갑오) 22세

2월 서울에서 경과(慶科)에 응시하였다.

왕세자가 갑술년 2월 8일에 탄신하였는데, 매양 경과를 실시할 때면 갑술 생으로서 초시에 선발된 자는 노소를 가리지 않고 관례상 진사를 내려주었다. 이런 까닭에 호적에 생년을 지우고 다시 고치는 자가 있었다. 계유와 갑술은 1년 차이였지만 답안의 봉내(封內)에 반드시 실제 태어난 해인 계유를 썼다.

6월에 전쟁이 발생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다.<sup>52</sup> 이때부터 과거시험이 폐지되었으며

사언이 쓴 『서김효자행실(序金孝子行實)』,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발문인 『서강릉김씨사효행후(書江陵金氏四孝行後)』, 덕은(德殷) 송근수(宋近洙)가 쓴 『보진재기(葆眞齋記)』, 13세 손 김익성(金益成)이 차운한 『보진재낙성운(葆眞齋落成韻)』과 김덕현(金惠顯)이 쓴 『보진재중건기(葆眞齋重建記)』 등의 현판이 걸려 있다.<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강릉)> '보진재'조

50) 보현사(普賢寺)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月精寺)의 말사. 보현사의 창건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적어도 범일국사가 입적하는 889년에서 924년 사이에는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강릉)> '보현사'조

51) 『시호연명록』, 『普賢寺聯床錄(癸巳冬)』, 694면. 박만실은 1875년 생으로 자는 자춘(子春)이며 거주지는 학동(鶴洞)이다. 이종태는 1876년 생으로 자는 응린(應麟)이며 거주지는 박원동과 같은 시동이다.

52) 동학농민군의 봉기와 이에 따른 청일전쟁을 말한다.(1894년 6월 ~1895년 4월) 1894년 봄 전라도에서 제1차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자 조선 정부는 양력 5월 7일 홍계훈(洪啓薰)을 양호초토사(兩湖招討使)로 임명, 진압하도록 했으나 결국 6월 2일 전주가 농민군에 의해 함락되었다. 이후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하고

개화 신식 제도가 시행되었다.<sup>53)</sup>

9월에 동학당(東學黨) 천여 명이 남도(南道)에서 강릉으로 들어와 관청을 점거하고 행패를 심하게 부렸다. 밤에 민군(民軍)을 일으켜서 쫓아내었다.

○ 1895년(을미) 23세

여름에 소하(小下) 신태묵(辛泰默)과 함께 변려문(駢麗文)을 지었다.

가을에 칠성암(七星菴)<sup>54)</sup> 계판(揭板)을 예서(隸書)로 썼다.

진사 최재린(崔在璘)<sup>55)</sup>이 울산(蔚山)의 서예가 문산(文山) 박문호(朴文琥)<sup>56)</sup>에게 청한 것인데, 먼저 이 암자에 들어와 있어서 함께 글씨를 써 달라 요청하였다.

겨울에 칠성암에서 책을 읽었다.

이때 박원동은 박만실, 이종태와 함께 공부하였다.<sup>57)</sup>

일본도 군대를 파견하여 청일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53) 1894년 단행된 갑오개혁으로 과거제가 폐지되고 학부(學部)가 설치된 것을 말한다.

54) 칠성암(七星菴) : 현재의 법왕사(法王寺)로,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926번지 소재. 1896년에 정은(鄭殷)이 독서재(讀書齋)로 지은 초암(草菴)으로, 지방 부녀자의 칠성기도장(七星祈禱場)으로 이용되어 왔다. 1947년 당시의 주지 청우화상(聽雨和尚)이 윤운곡선사(尹雲谷禪師)가 중건한 10여 칸의 가람을 확장하여 대웅전과 부속건물을 새로 짓고 법왕사(法王寺)라 개칭하였다.(<한국학토문화대전(강릉)> '강릉의 사찰'조)

55) 최재린(崔在璘) : 1874년 생으로 본관은 강릉, 거주지 역시 강릉이다. 1894년(고종 31) 진사에 합격하였는데, 『사마방목』에 아버지는 최윤룡(崔允龍), 생부는 최윤정(崔允鼎)으로 되어 있다.(<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과거 및 취재'의 '최재린'조) 최재린은 1902년 법부주사(法部主事)에 임명되었다.('승정원 일기' 1902년(고종 39) 6월 22일조)

56) 박문호(朴文琥) : 1833~1917. 서예가로 추정되나 자세한 행적은 미상이다. 다만 『시호척독』에 박원동이 1929년 박문호의 아들 박해철(朴海徹, 1868~1934)에게 답한 편지가 1편 수록되어 있다.('시호척독', 「答朴教理海徹」, 551~552면) 당시 박해철은 박씨총보소(朴氏總譜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는데, 박원동은 삼가공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려고 편지를 보냈다. 『박씨총보(朴氏總譜)』는 1932년 밀양(密陽)의 박씨대동종무소에서 신활자본 29권 28책으로 간행되었으며 편자가 박해철로 되어 있다. 박해철은 본관은 밀양, 자는 공요(公堯), 호는 창번(滄樊)이다. 1892년(고종 29)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승문원 부정자, 기주관을 거쳐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을 역임하고 고향인 영덕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모셨다. 이후 다시 서울로 돌아와 의관(議官)에 임명되었으나 한일합병의 조짐을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 일생을 보냈다. 저서로 『창번집(滄樊集)』이 있다.(<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박해철'조) 『창번집』은 1957년 석판본 8권 4책으로 간행되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전한다. 『창번집』에 아버지 박문호의 행적과 관련된 글이 수록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57) 『시호연명록』, 「七星菴聯床揭板(乙未冬)」, 694면.

12월에 민용호(閔龍鎬)<sup>58)</sup>가 스스로 의병장을 칭하고 남쪽으로부터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강릉에 주둔하였다.

○ 1896년(병신) 24세

여름에 시동 상·하리 수십 명의 선비들이 시호서재(詩湖書齋)에 모여 함께 시를 지었다.

○ 1897년(정유) 25세

여름에 칠성암에 들어가 시를 지었다.

포천 사람 이범녕(李範寧)은 육문(六文, 여섯 가지 서체를 말하는 뜻함)에 능한 대가인데 강릉에 와서 객관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시우(詩友)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만나보았다.

9월에 임금이 황제에 즉위하여 국호를 ‘대한(大韓)’이라 하고 연호를 ‘광무(光武)’로 선포하였다.

○ 1898년(무술) 26세

2월 경상도 경주에 가서 신라시조 왕릉전(王陵殿)에 봉심(奉審)하였다.

이해에 크게 기근이 들어 아버지 풍은공이 곡식을 배로 실어 날라 백성들을 구휼하였다. 당시 연일(延日)의 포항(浦港)에 머물러 있었는데, 장차 영덕(盈德)의 매령(梅嶺)에 있는 충렬공(忠烈公) 박제상(朴堤上)의 사당을 방문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족속(族叔) 광의(光誼)가 포항의 객관으로 풍은공을 찾아와 알현하여 경주로 행로를 바꿔서 송덕전(崇德殿)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송덕전 참봉은 박청우(朴淸愚)였다. 왕릉과 송덕전의 유적을 채록하였다.<sup>59)</sup>

58) 민용호(閔龍鎬) : 1869~1922. 본관은 여주. 호는 복제(復齊).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경기도 여주에서 의병을 일으킨 뒤 원주·평창·진부를 거쳐 1896년 양력 1월 강릉으로 이동했다. 강릉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영동 방면의 의병들과 세력을 합하고 포수들을 모아 관동구군 도창의소를 설치하였다. 해변을 따라 관북 방면으로 진출하려고 3월 개항장인 원산을 공격하려 했으나, 일본헌병에게 기밀이 누설되어 실패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민용호’조)

59) 『시호연명록』, 『慶州崇德殿懸板(戊戌春)』, 694면.

돌아오는 길에 영해(寧海)의 종친을 방문하여 충렬공유사(忠烈公遺事) 및 운계서원(雲溪書院)<sup>60</sup>의 설립과 훼손 등의 사적을 기록하여 돌아왔다. 「남유록(南遊錄)」이 있다.

4월에 청학사(靑鶴寺)<sup>61</sup>와 월정사(月精寺)를 둘러보고 오대산(五臺山)을 유람하였다.

이때 최종낙(崔鍾洛), 최돈명(崔燉明), 신진묵(辛晉默), 김진억(金振億) 등과 동행하였는데, 박만실은 뒤에 합류하였다. 기행시첩(記行詩帖)이 있다.<sup>62</sup>

### ○ 1899년(기해) 27세

봄에 고을의 사우(士友)들과 문창계(文昌契)를 수계(修禊)<sup>63</sup>하였다.

이때 문창계에 참여한 인원은 총16명이다.<sup>64</sup> 박원동은 이듬해인 1900년에 문창계기안(文昌契忌案)에 발문을 썼다.<sup>65</sup>

제석(除夕)에 풍은공으로부터 ‘인부(忍負)’ 두 글자의 훈서(訓書)를 받았다.

아버지 풍은공은 ‘분노를 참고 남들을 책임진다.[忍於忿負於人]’는 뜻에서 ‘인부(忍負)’ 두 글자를 쪽지에 써서 주었다. 제석에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훈서를 써 주며 가슴에 간직하게 하였다. 이 해부터 매년 제석이 되면 아들과 며느리들은 풍은공을 배알하고 가슴에 품고 있던 쪽지를 반납하였다. 풍은공이 점검을 한 뒤에 다시 새로 쪽지를 써서 주었다.

60) 운계서원 :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에 있었던 박제상 등 3인의 선현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서원. 1824년(순조 24)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박제상(朴堤上)·박세통(朴世通)·박응천(朴應天)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대원군의 서원철폐로 1868년(고종 5)에 훼손된 뒤 복원하지 못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운계서원’ 조

61) 청학사(靑鶴寺) : 강릉시 연곡면에 있었던 절. 『증수 임영지(增修臨瀛誌)』 사찰조에는 “靑鶴菴在府北七十里靑鶴山下十五間”이라고 되어 있고, 『동호승람(東湖勝覽)』 권4, 시문조의 「청학사중수기(靑鶴寺重修記)」에는 순치(順治) 연간(1644~1661)에 처묵당(處默堂)이 수련하던 곳이라 기록되어 있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강릉)> ‘강릉의 사찰’ 조

62) 『시호연명록』, 「靑鶴五臺同遊錄(戊戌晚春. 有遊山詩軸)」, 694면.

63) 수계(修禊) : 음력 3월 상사일(上巳日, 삼진날로 음력 3월 초사흘날)에 요사(妖邪)를 떨어버리기 위한 의식으로 행하는 제사.

64) 『시호연명록』, 「文昌契」, 695면.

65) 『시호거사문고』, 「題文昌契忌案後(庚子)」, 17면.

○ 1900년(경자) 28세

11월 17일 조모 김 부인(夫人)의 상을 당했다.

○ 1901년(신축) 29세

정월 28일 조모 김 부인을 마곡(麻谷)에 장사 지냈다.

족조(族祖) 태수(泰秀)는 풍수에 능통하여 찾아가 장지를 물었다. 족조는 “반드시 먼 곳에서 구할 필요는 없다. 내가 점지한 곳이 있다.”라고 말하고 마곡 해좌의 언덕을 지목하였다.

2월 서울로 올라가 수당(滄堂) 이종원(李種元)<sup>66</sup> 문하에서 종유(從遊)하였다.

당시 참봉 신태묵(辛泰默)이 수당공의 문하에 빈객으로 있었다. 수당공은 국자선생(國子先生, 성균관장)을 역임하였다. 일찍이 말하기를 “침잠하여 글을 읽고 완미하며 탐구하면 절로 돈오(頓悟)하는 법이 있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마음에 동요가 없기를 마치 물이 병에 담겨 있는 것처럼 해야 한다. 물이 병에 짝 차면 병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부의 자호인 삼락당(三樂堂)의 의미가 자손을 가르치고 농사지음을 보고 강호를 소요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즐긴다는 의미가 있음을 듣고는 당호를 써 주었다.

우암 송시열의 사손(嗣孫) 송재경(宋在慶)이 세마(洗馬)에 제수되어 당시 서울에 우거하고 있었다. 그와 교유하며 공부하였다.

4월 12일 조부 삼락공의 상을 당했다.

당시 서울에 있었다. 삼락공이 음직으로 침랑(寢郎)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부음을 받고 황망하게 고향으로 돌아왔다.

10월 3일 삼락공을 마곡에 있는 조모 김 부인 묘에 합장하였다.

○ 1902년(임인) 30세

봄에 운양재(雲陽齋)에 모여 『소학(小學)』을 강독하였다.

김윤경(金潤卿, 1869~1948)<sup>67</sup>을 비롯하여 문사 수십 명과 강회계(講會契)를 결성하고,

66) 이종원(李種元) : 1849~1904. 본관은 덕수, 자는 여장(汝長). 1900년(고종 37)에 성균관장(成均館長)에 임명되었다. 『시호연기』에는 ‘李種元’으로, 「선조고가장」과 「창가재묘표(滄可齋墓表)」에는 ‘李種元’으로 되어 있다. 『시호연기』의 ‘種’은 ‘種’의 오기이다. 자세한 것은 III장 4절 ‘사승 관계 및 교유 인물’ 참조.

67) 김윤경(金潤卿) : 1869~1948. 본관은 강릉. 자는 덕윤(德允), 호는 천재(泉齋).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이때부터 돌아가며 강회계를 운영하였다. 강장(講長)과 빈장(賓長)을 초빙하여 강독을 하였고 강회계의 조약을 제정하였다.

강회계에 참여한 문사는 박원동과 김윤경을 비롯하여 18명 정도였다.<sup>68)</sup>

강회계의 조약은 회원의 자격, 강장의 요건, 강독할 서종, 모임의 시기와 방법 등 20개조인데, 박원동이 중심이 되어 정리하였다.<sup>69)</sup>

4월에 삼척의 삼화사(三和寺)·흑악사(黑嶽寺) 등과 무릉(武陵) 계곡의 수석(水石)을 유람하고 동산 능침(東山陵寢)<sup>70)</sup>에 봉심하였다.

여주에 사는 박영곤(朴永坤)이 경주의 승덕전(崇德殿)에서 강릉으로 찾아와서는 “선원보(璿源譜) 1질을 상자에 담아 가지고 오다가 삼척의 흑악동(黑嶽洞)에 사는 종인(宗人) 〼〼<sup>71)</sup>에게 주었다.”라고 하였다. 이때 집안의 용채(容采), 만실(萬實), 증영(曾泳)과 함께 가서 1편을 등초(謄抄)하였다.<sup>72)</sup>

7월 안변학교(安邊學校)<sup>73)</sup> 교원(教員)에 임명되었다.

당시 시동의 집에 있었는데, 중제(仲弟) 선동(先東)이 서울에서 학무국장(學務局長) 장세기(張世基)에게 편지를 보내 적극 추천을 하여 임용이 되었으니 즉시 상경하라고 하였다. 이에 출발해서 서울에 들어가니 안변소학교의 소사가 올라와 기다리고 있었다. 말을 세내어서 타고 부임을 하였다. 당시 학부대신은 민영소(閔永韶), 함경남도 관찰사는 서정순(徐正淳), 안변 군수는 김선규(金善圭)였다.

8월 안변의 13사(社)에 고시하여 학생들을 불러 모으고 학무(學務)를 시찰하였다.

1836~1905)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관직은 강릉향교 직원(直員), 성균관 강사(講師) 등 역임하였다. 『강릉김씨대동보』 2권, 496면. 자세한 것은 III장 4절 ‘사승 관계 및 교유 인물’ 참조.

68) 『시호연명록』, 「講會契詠歸巖刻名錄(壬寅創契十一年壬子秋 刻名題其巖曰講臺 詩湖書)」, 696면.

69) 『시호거사문고』, 「講會契條約(壬寅)」, 18~20면.

70) 동산능침(東山陵寢) :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태조 이성계의 5대조 이양무와 그 부인의 무덤인 준경묘(濬慶墓)와 영경묘(永慶墓)를 말한다. 강원도 삼척의 마을인 노동(蘆洞)과 동산(東山)에 있는 고총(古冢)이 그들의 무덤이라는 주장이 조선 초기부터 있었다. 대한제국기인 1899년에 이르러 황실에서는 이 고총을 이양무의 무덤으로 인정하고 노동의 이양무 무덤을 준경묘, 동산의 부인 무덤을 영경묘라 하여 국가의 사전(祀典)에 포함시켰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삼척준경묘영경묘(三陟濬慶墓永慶墓)조’

71) 〼〼 : 원본이 훼손되어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를 표시함. 이하 동일.

72) 『시호연명록』, 「三陟黑嶽寺鐘樓揭板(壬寅春, 有詩軸, 詩湖書)」, 694면.

73) 안변학교 : 공립 안변소학교를 말한다. 소학교는 갑오개혁 이후 1895년에 설치된 근대적 초등교육기관인데, 교원은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운데에서 관립은 학부대신, 공립은 관찰사가 임명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소학교’조



전임 교원이었던 최달빈(崔達斌)이 서울로 올라가 학무를 폐하자 학생들도 흩어져 집에 있었다.

문묘(文廟) 정향(丁享)<sup>74)</sup>에 정성을 다해 번육(膾肉, 제사 고기)을 올렸는데 고기를 좋아 해서가 아니라 예를 좋아했기 때문이다.<sup>75)</sup>

9월 안변 설봉산에 있는 석왕사(釋王寺)를 유람하였다.

참봉 김성규(金星圭), 진사 김영한(金永澣)이 당시 고을의 관아에 있어서 함께 갔다.

안변향교와 향청(鄉廳)의 계판문(揭板文)을 썼다.

군수를 대신하여 계판문의 기문을 짓고 글씨도 썼다.<sup>76)</sup>

이때 『향교임원록』과 『향청임원록』을 만들었는데, 서문 역시 박원동이 군수를 대신하여 썼다.<sup>77)</sup>

영흥(永興)의 종친을 방문하였다.

동본(同本)의 죽인이 영흥군에서 같은 집안이라고 애써 말했는데도, 두 번이나 세보(世譜)에서 누락되었고 남북으로 거리가 멀어 세보를 만들 때 진위를 따지는 등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이때부터 통지문에 ‘형실(馨實, 박원동의 초명)’이라는 이름을 써서 신표로 삼았다고 한다.

10월 23일 부인 김씨가 졸하다.

부인에게 병이 났다는 편지를 받고 함경남도 관찰사에게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염빈(斂殯, 입관하여 안치하는 것)을 하기 전이었다.

11월에 마곡 선영의 아래에 부인을 장사지냈다.

12월 19일 삼척 심씨를 아내로 맞았다.

심두황(沈斗潢)의 딸이다. 휴가 기일을 지켜 안변의 입소로 마땅히 돌아가야 하였다. 그런데 아버지 풍은공이 “너는 아내를 잃고 단지 딸만 있지 아들이 없으니 마땅히 속히 새로 아

74) 정향(丁享) : 음력 2월과 8월 정(丁)자일에 제사 지내는 것이다. 한 달에는 상정(上丁)·중정(中丁)·하정(下丁)이 있다.

75) 고기를 …… 때문이다 : 예를 보호하기 위해 형식일 뿐이라도 옛 제도를 보존한다는 말이다. 자공이 초하룻날 사당에 바치는 희생양을 없애려 하자, 공자가 “사야, 너는 그 양을 아까워하느냐? 나는 그 예를 아끼워한다.[賜也, 爾愛其羊, 我愛其禮.]”라고 하였다.(『논어·팔일』)

76) 『시호연명록』, 「安邊鄉校懸板(壬寅秋)」, 694면.

77) 『시호거사문고』, 「安邊鄉校任錄叙(代主倅金善圭. 作揭板并書. 在安邊時. 壬寅)」, 22면; 「安邊鄉任序」, 23면.

내를 들여야 한다. 올해 네가 서른이니 옛날에 아내를 두었던 나이이다.<sup>78)</sup> 심씨에게 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중매자를 보내어 약조를 하였다.”라고 하였다.

### ○ 1903년(계묘) 31세

봄에 서울로 올라가 기사(技士) 최재봉(崔在鵬)<sup>79)</sup>의 집에 머물며 그의 아들 한집(澗集)을 가르쳤다.

족조인 시종공 태수(泰秀)가 함께 머물렀다. 성석(惺石) 최종낙(崔鍾洛)이 판서를 지낸 이봉래(李鳳來)<sup>80)</sup>의 집에 머물며 그의 아들 용문(容汶)을 가르쳤는데 서울에서 그와 교류하며 지냈다. 당시 서울에 머물러 있는 강릉 출신의 시사(詩士) 수십 인과 두 편으로 나누어 각각 춘율시(春律詩) 서른 편을 지었는데, 참판 이중하(李重夏, 1846~1917)<sup>81)</sup>에게 평가를 맡겨 갑을을 정하였다.

강릉에 보리 흉년이 들어 심지어 굶어죽는 사람이 발생하였다.

가을에 경주의 시조왕릉전을 보수하는 일로 상소문을 지었다.

각도의 후에 십여 인이 연명하였는데, 상소문은 미처 임금에게 보고되지 못하였다.

이때 소두(疏頭)는 가선대부 박사규(朴思圭)가 맡았으며 총14명이 연명을 하였는데 박원동은 강릉을 대표하였다.<sup>82)</sup>

78) 서른이니……나이이다 : 『예기』 「내칙(內則)」에 “30세에 아내를 두어 비로소 남자의 일을 행한다.[三十而有室, 始理男事.]”라는 말이 있다.

79) 최재봉(崔在鵬) : 자세한 행적은 미상. 다만 『승정원일기』 1903년(고종 40) 11월 16일조에 윤용선이 빈전도감 별간역(殯殿都監別看役)에 영선사 기사(營繕司技師) 최재봉(崔在鵬)을 청하는 기사가 보인다.

80) 이봉래(李鳳來) : 조선 말기 관리. 1898년(광무 2) 수릉(綏陵)과 홍릉(洪陵)에 작헌례(酌獻禮)를 행할 때 참여한 공로로서 품계를 올려 받았다. 1900년(광무 4)에는 전선사장(典膳司長)으로 재직하다가,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으로 승진되었고, 이후 내부협판(內部協辦)·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혜민원의정관(惠民院議定官) 등을 역임하였다.(<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 ‘이봉래’조)

81) 이중하(李重夏) : 1846~1917.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 자는 후경(厚卿), 호는 규당(圭堂)·탄재(坦齋). 1882년(고종 19)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훈문관교리가 되었다. 1903년 외무부협판 칙임 2등(勅任二等)이 되어 문헌비고찬집당상(文獻備考纂輯堂上)을 맡았다. 1909년 일진회(一進會)가 합병을 주장하자, 민영소(閔泳韶)·김종한(金宗漢) 등과 국시유세단(國是遊說團)을 조직하여 원각사(圓覺社)에서 임시국민대연설회를 열고, 그 주장이 부당함을 공격하였다. 1910년 규장각제학으로 한일합방에 극렬히 반대하였다. 저서로 『규당문집』·『감계전말(勘界顛末)』·『감계일기(勘界日記)』 등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중하’조)

82) 『시호연명록』, 「慶州始祖王陵殿修補事上疏(癸卯)」, 695면.

○ 1904년(갑진) 32세

12월 13일 어머니 권 부인의 회갑을 맞아 잔치를 열었다.

이때 찾아온 빈객들의 축하시를 모아 시첩을 만들고 그 서문을 박원동이 지었다.<sup>83)</sup>

○ 1905년(을사) 33세

여름에 송담(松潭)의 묘우(廟宇)를 낙성하고 ‘송담재(松潭齋)’라는 편액을 걸었다.

송담서원은 1871년 훼손된 뒤 위판(位版)을 묻고 제사는 단(壇)에서 약식으로 거행하였다. 이에 풍은공이 둔산(遯山) 이석하(李錫夏)와 함께 유사(有司)를 맡아 묘우를 건립하였다. 당시 서울에 있었는데 해사(海士) 김상서(金尙書) 성근(聲根)<sup>84)</sup>에게 편액의 글씨를 받았다.

이로부터 4년 뒤인 1909년 다례(茶禮) 때에 조병두(曹秉斗)와 박증길(朴曾吉) 등이 주관하여 송담재 건립의 전후 사정을 기록하고 계판(揭板)을 하였다. 이때 박원동은 계판문의 서문을 짓고 글씨를 썼다.<sup>85)</sup>

가을에 건암(建菴) 송재경(宋在慶)과 월정사에 들어갔다.

송재경이 휴양과 단풍놀이를 하자며 오대산 유람을 함께 가자고 요청하였다. 서울에서 송재경이 송재설(宋在高)·송재명(宋在明) 등과 함께 와서 월정사에 머물렀다. 이때 김윤경(金潤卿)·최대수(崔大洙) 등 동향의 벗들도 함께 하였는데, 유람 온 이들의 이름을 연명해서 용금루(湧金樓)에 계판(揭板)하였다. 계판문의 글씨는 박원동이 썼다. 또한 읊은 시를 엮은 시첩이 있다.<sup>86)</sup>

이때 비로소 이름을 ‘원동(元東)’으로 고쳤다. 족제 창실(昌實)이 함께 유람하였는데, 서울의 세의(世誼)가 있던 가문의 어떤 이가 묻기를 “항렬의 ‘실(實)’ 자에는 오행(五行)의 의미가 없는데 어떤 뜻을 따를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창실이 자신의 이름을 ‘기동(起東)’

83) 『시호거사문고』, 「慈親啐讌叙(甲辰十二月十三日. 有詩)」, 24면.

84) 김성근(金聲根) : 1835~1919. 본관은 안동, 자는 중원(仲遠), 호는 해사(海士). 1861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1872년 성균관 대사성·좌승지를 역임하였다. 1886년 4월 이조 참판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공조·형조·이조·예조 등의 판서를 두루 거쳤다. 서예에 능하였으며 사공도의 『시품』이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김성근’조)

85) 『시호거사문고』, 「松潭齋揭楹叙(己酉五月十三日)」, 36면. 현재 「송담재중건전말(松潭齋重建顛末)」이란 글이 전하고 있는데, 글의 말미에 “乙巳五月日 有司 李錫夏 朴曾赫”이라 적혀 있다. 임호민 편, 『강릉 사우자료집』, 강릉문화원, 1998, 50면.

86) 『시호연명록』, 「月精寺湧金樓懸板(乙巳秋, 有吟詠詩軸, 詩湖書)」, 695면.

으로 고치고 함께 개명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풍은공에게 편지를 보내 사정을 보고하고 ‘형실(馨實)’을 ‘원동(元東)’으로 고쳤다.

10월에 월정사를 나와 뜻을 함께 하는 벗을 방문하였다.

동향의 벗 십여 명이 건암 송재경과 함께 보현사(普賢寺)와 경포대(鏡浦臺)를 유람하고 이어서 남북의 동당(同黨)을 방문하였다. 시호재(詩湖齋)에서 이별에 임하여 『삼가선생집(三可先生集)』을 송재경에게 증정하고 아울러 증별시를 주었다.

### ○ 1906년(병오) 34세

4월 20일 부인 김씨의 묘를 풍호(楓湖)의 남쪽 기슭 사좌(巳坐)의 언덕으로 이장하였다.

족조 태수(泰秀)와 서울에서 함께 우거하였을 때 족조가 지목했던 산인데 이때에 이르러 이장하였다.

11월 건암 송재경의 부음이 왔다.

### ○ 1907년(정미) 35세 (융희 원년)

본 면인 가자곡면(資可谷面)의 면장에 임명되었으나 사임을 하였다.

이에 앞서 각 면에 집강(執綱)<sup>87)</sup>이 있었는데 이 해부터 ‘면장(面長)’으로 개칭하였다. 군수 이재화(李在華)가 각 면에서 면장을 뽑았는데 누차 사직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여 끝내 임시로 면직을 하였다.

이때 강릉 14면의 면장의 명단을 보면, 박원동과 교분이 있는 김윤경(金潤卿)이 사천면(沙川面), 이근우(李根宇)가 정동면(丁洞面), 조익환(曹益煥)이 남일리면(南一里面) 등의 면장에 임명되었다.<sup>88)</sup>

2월 12일 여동생 조인환(曹仁煥)<sup>89)</sup>의 부인을 곡하다.

87) 집강(執綱) : 조선 시대 향약에서 주현(州縣) 밑에 있었던 면(面)·방(坊)·사(社)의 소규모 동약(洞約)·동계(洞契)의 장을 말한다. 풍헌(風憲)·약정(約正)·면임(面任)·사장(社長)·검독(檢督)·방장(坊長)·방수(坊首)·도평(都平) 등이라고도 불렀으며, 주로 주현의 행정 명령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조세의 납부를 지휘하는 구실을 하였다. 『한국고전종합DB』 ‘집강(執綱)·조’

88) 『시호연명록』, 「面長同住錄(郡守李在華, 稅務官黃哲. 執綱從今爲面長)(丁未)」, 695면.

89) 조인환(曹仁煥) : 1888~1976. 본관은 창녕. 자는 원도(元道), 호는 동운(東雲). 『창녕조씨강릉파보』에

2월 27일 중제 선동(先東, 1876~1907)을 곡하다.

풍은공이 학 꿈을 꾸고 선동을 낳았다. 선동은 도량이 험걸쫘으나 불행히도 일찍 죽고 말았다. 5월 고종황제가 순종(純宗)에게 선위(禪位)를 하였다.

여름에 세고(世稿)가 편성되었다.<sup>90)</sup>

1898년 남유(南遊)했을 때 영해의 종씨를 만나 기록한 선조의 사적과 산출했던 시문을 모아 1편으로 엮었다.

『강릉박씨세고』는 박제상(朴堤上)의 『관설당집(觀雪堂集)』을 시작으로 박수량의 『삼가선생집』, 박진해의 『완하당유고』 등 선조 13인의 문집을 엮고, 부록으로 대제학 조관빈(趙觀彬)이 지은 「신라시조왕묘비명(新羅始祖王墓碑銘)」, 규장각 직제학 남공철(南公轍)이 지은 「시조왕탄강나정비문(始祖王誕降蘿井碑文)」, 「만고충렬비명(萬古忠烈碑銘)」(양산군 소재), 「입비고유문(立碑告由文)」, 「치산서원봉안문(鵝山書院奉安文)」(경주 소재), 「운계서원봉안문(雲溪書院奉安文)」(영해 소재), 「어제봉안각기(御製奉安閣記)」, 「유방원사적(流芳院事蹟)」, 「단천공묘세제기(端川公墓歲祭記)」, 「관관공묘비명(判官公墓碑銘)」, 「생원공묘비명(生員公墓碑銘)」, 「쌍한정기(雙閑亭記)」, 「쌍한정중수기(雙閑亭重修記)」 등을 수록하였다. 이 중에서 「입비고유문(立碑告由文)」 이하의 글은 박원동이 남유(南遊)할 때 직접 수집, 기록한 것이다.

이 해에 세보(世譜)를 수보(修補)하였다.

영흥(永興)의 종족(宗族)에게 통문을 보내어 결국 합보(合譜)를 하였다.<sup>91)</sup>

이 세보는 훗날 1937년 강릉박씨대동보소에서 신연활자본 7권 7책으로 간행하였다. 박원동은 1936년 이 세보에 발문을 썼다.<sup>92)</sup>

### ○ 1908년(무신) 36세

9월 10일에 아들 용갑(容甲)이 태어났다.

부인 심씨가 달 꿈을 꾸고 낳은 까닭에 어릴 때의 이름을 ‘용월(容月)’이라 하였다.

초배(初配)가 박증혁의 딸이며 생년이 1885년으로 되어 있다. 『昌寧曹氏江陵派譜』 권3, 창녕조씨강릉파보편찬위원회, 대전: 回想社, 1989, 244~245면.

90) 박원동 등이 1907년에 편성하여 목활자본로 간행한 『강릉박씨세고』 1책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전한다. 朴元東 等編, 江陵: 江陵朴氏宗中, 隆熙 1(1907).

91) 『시호거사문고』, 「通永興宗中文(丁未)」, 31면.

92) 『시호거사문고』, 「世譜跋」, 125면.

○ 1909년(기유) 37세

11월 27일 풍은공의 회갑을 맞아 잔치를 열었다.

겨울에 농사짓는 아동들을 불러 이웃의 서당에서 밤에 글을 가르쳤다.

죽형 동호(東湖) 장실(長實)이 함께 하였다.

○ 1910년(경술) 38세

봄에 야학 학생들을 데리고 풍호(楓湖) 가의 모래 언덕에 소나무를 심어 풍호의 수구(水口)를 보호하는 숲을 만들었다.

급해로(汲海路) 북쪽은 별도로 '한송사계(寒松寺界)'라 칭하였는데, 지금 남쪽을 양민(洋民)이 측량하여 경계를 확정하고는 본리에 소속시켰다.

○ 1912년(임자) 40세

본 면의 생도들을 면숙(面塾)에서 가르쳤다.

면장 김한탁(金漢倬)이 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김병시(金炳時)는 산학(算學)을 가르쳤다.

가을에 영귀암(詠歸巖)<sup>93)</sup>에 강회계(講會契) 회원의 명단을 새겼다.

그 바위를 '강대(講臺)'라 이름 하고 회원의 이름을 새겼는데, 글씨는 박원동이 썼다. 강회계는 1902년에 창립하였는데, 이때 바위에 새긴 명단은 박원동을 비롯하여 김윤경(金潤卿), 최대수(崔大洙), 박기동(朴起東), 권오석(權五錫), 김진태(金振泰), 심동섭(沈東燮) 등 18명이다.<sup>94)</sup>

10월 10일 아들 용을(容乙)이 태어났다.

이 해에 시산문생계(詩山門生契)를 결성하였다. 김병시(金炳時)의 발의로 「시산문생명첩(詩山門生名帖)」을 만들었으며 서문은 박원동이 지었다.<sup>95)</sup>

93) 영귀암(詠歸巖) : 오봉서원의 앞에 있는 바위이다. 송준길이 찬한 정경세의 연보에 따르면, 정경세는 1615년(광해 7) 4월 53세 때 향교의 제생들을 데리고 영귀암을 방문하였다. 「함께 노닌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다.[示同遊諸君]」라는 제목의 읊시 한 수가 있다. 『우복별집』 권5, 「연보」, 총간68, 482면.

94) 『시호거사문고』, 「講契刻石記」, 47면; 『시호연명록』, 「講會契詠歸巖刻名錄(壬寅創契後十一年壬子秋, 刻名題其巖曰講臺. 詩湖書)」, 696면.

95) 『시호거사문고』, 「門生稔序(壬子三月)」, 38면; 『시호연명록』, 「詩山門生稔(同門生六十餘人聯名, 煩未錄)」,

○ 1913년(계축) 41세

2월 공부자영정(孔夫子影幀)을 문묘(文廟)에 봉안하였다.

옛날의 영정은 분실되어 새 영정으로 정향(丁享)하게 되었는데, 이때 박원동은 봉안문(奉安文)을 지었다.

이에 앞서 1908년 2월 강릉향교 문묘에 봉안되어 있던 공자의 영정이 도난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강릉의 사림이 명륜당에 모여 회의를 열고 이 사실을 성균관에 보고하였다.<sup>96)</sup> 그 후 이 해 2월 정향(丁享) 전일에 이등(伊藤) 교장이 공자의 화상을 모셔 감실(龕室)에 봉안하고, 수백 명의 사림을 유건과 유복을 착용하고 참배하며 봉안축문(奉安祝文)을 고하였던 것이다.<sup>97)</sup>

제자들이 점점 집안의 글방으로 진학하였다. 이때부터 마침내 세상사를 끊고 은거하며[潛居玩時] 생을 마칠 뜻을 먹게 되었다.

○ 1916년(병진) 44세

봄에 금강산 유람을 하였다.

권창식(權昌植), 방정복(朴廷復), 심상봉(沈相鳳) 등과 함께 갔다. 지은 시를 넣을 주머니를 달고 명승지를 두루 유람하였다. 함께 유람한 이들의 이름을 일엄대(一廣臺)에 새겼다. 유산록(遊山錄)이 있다.<sup>98)</sup>

총석정(叢石亭)을 보고 방향을 바꿔 원산항(元山港)으로 갔다. 다섯 째 동생 조동(兆東)이 당시 원산항에 머물러 있어서 만나서 회포를 풀었다.

서울로 들어가 상중에 있는 이용문(李容汶)을 위로하였다. 이용문은 강릉에 있는 장토(庄土)를 관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697면.

96) 황현의 『매천야록(梅泉野錄)』 권6에도 “어떤 도적이 강릉향교에 모셔진 문선왕공자(文宣王孔子)의 초상을 가져갔다.”는 기록이 보인다.

97) 관련 내용이 『강릉향교실기(江陵鄉校實記)』(강릉고적보존회, 1933)의 「연혁(沿革)」에 보인다.

98) 『시호연명록』, 『金剛山—一廣臺刻名錄(入九龍淵路傍。丙辰初夏。有遊山錄。詩湖書)』, 696면. 다만 이때 지었다고 하는 「유산록」은 현재 존재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으며, 오죽헌시립박물관 박창규 기증 목록에도 보이지 않는다.



○ 1917년(정사) 45세

9월 향교 명륜당에서 개최된 강회(講會)에 참여하였다.

경학원 부제학 이용직(李容植)<sup>99</sup>이 와서 강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 1918년(무오) 46세

11월 상황(上皇) 고종이 승하하여 군청 마당에 모여 곡을 하였다.

○ 1919년(기미) 47세

정월 2일 아버지 풍은공이 졸하였다.

2월 풍은공을 하시동(下詩洞) 엄목공(嚴木谷)에 장사지냈다.

족조 시종공(侍從公) 태수(泰秀)가 점지해준 곳인데, 연세(年歲)가 맞지 않아 임시로 매장을 하고 날마다 한 번씩 성소(省掃)하였다.

○ 1920년(경신) 48세

9월 22일 풍은공을 선영 내의 을좌(乙坐)로 개장(改葬)하였다.

○ 1921년(신유) 49세

4월 복상을 마쳤다. 이때부터 삭망(朔望)으로 분향을 하고 사판(祠板)을 배알하였다.

10월 간재(良齋) 전우(田愚, 1841~1922)에게 편지를 올리고 스승으로 모셨다.

이에 앞서 동문 김연목(金演穆)이 간재 선생에게 추천서를 올렸다. 그리고는 박원동에게 제자의 예로서 편지와 폐백을 올리라고 요청한 까닭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이다.<sup>100</sup>

99) 이용직(李容植) : 1852~1932.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치만(稚萬), 호는 강암(剛庵). 사과 이승조(李承祖)의 아들로, 을사조약 때 분사(憤死)한 조병세(趙秉世)의 사위이다. 1875년(고종 12)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으며, 이후 이조참판·대사성·학부대신 등을 역임하였다. 1910년 일제에 병탄된 뒤 자작의 작위를 받았으나, 1919년 3·1운동 때 경학원 부제학 재직 시 대제학 김윤식(金允植)과 함께 조선독립청원서사건으로 작위를 박탈당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용직' 조

100) 박원동이 간재에게 올린 편지는 『시호척독』에 「상전간재선생(上田良齋先生)」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편지 뒤에는 전우가 박원동에게 보낸 답서도 부기되어 있으며, 김연목이 간재에게 박원동을



한편 강릉에서 간재의 문하에 들어간 이들은 박원동을 비롯하여 권오성(權五成), 김윤경(金潤卿), 최대수(崔大洙), 최임수(崔恁洙), 김연목(金演穆), 박화동(朴華東), 함병삼(咸炳三) 등 8명이었다.<sup>101)</sup>

### ○ 1922년(임술) 50세

정월 22일 아들 용정(容丁)이 태어났다.

봄에 간재 선생에게 편지를 올렸다.<sup>102)</sup>

간재는 답서의 별지에서 송나라 성리학자인 정이(程頤)가 말한 “배움은 사색에 근원을 둔다.[學原於思]<sup>103)</sup>”, “학문은 어두운 방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는 일부터 시작된다.[學始於不欺闇室]<sup>104)</sup>” 등을 적어 보내며 박원동에게 학문의 길을 제시하였다.

7월에 간재 선생의 부고가 와서 위패를 설치하고 곡을 하였다.

간재 선생의 장례 기일에 관한 편지가 왔는데 어머니의 노환으로 가보지는 못하였다.

한편 이때 김연목(金演穆)이 박화동(朴華東)과 함께 조문을 갔다가 돌아온 후에 『간재선생상기(良齋先生喪紀)』라는 책자를 박원동에게 보여주었다. 박원동은 1924년에 이 책자의 뒤에 발문을 썼다.<sup>105)</sup>

### ○ 1923년(계해) 51세

정월 26일에 어머니 권 부인이 돌아가셨다.

2월 15일에 어머니를 풍은공 묘 옆에 장사지냈다.

추천하며 쓴 편지 또한 수록되어 있다.

101) 『시호거사문고』, 「良齋門生(同郡同門錄)」, 697면.

102) 『시호척독』에 「상간재전선생(上良齋田先生)」(489면)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이 편지의 말미에 간재가 박원동에게 보낸 짧은 답서와 별지(別紙)가 실려 있는데(490~491면), 이 답서는 전우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03) 『近思錄集解』 권2, 「爲學」에 나오는 정자(程子, 정이천)의 말이다. “배움은 생각에 근원하니 생각을 다하기를 잘한 뒤에야 도를 통달할 수 있다.[學原於思, 善於致思, 然後能通乎道.]”

104) 『심경부주(心經附註)』 「시운잠수복의장(詩云潛雖伏矣章)」의 해설에 나오는 정자(程子)의 말이다. 남이 보지 않는 어두운 방에서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 신독(慎獨) 공부를 말한다.

105) 『시호거사문고』, 「題良齋先生喪紀後(甲子)」, 64면.

○ 1924년(갑자) 52세

정월에 비로소 날마다 비망기(備忘記)를 기록하였다.

아들 용갑(容甲)이 요청하여 이해 갑자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였다. 견문을 기록하여 후고(後考)에 대비하였다.<sup>106)</sup>

10월 17일 어머니 권 부인을 풍은공 묘에 합장하였다.

석농(石農) 오진영(吳震泳, 1868~1944)<sup>107)</sup>이 찾아와 위로하였다.

석농은 간재 선생의 문집을 간행하는 일을 상의하고자 아들 순근(舜根)을 데리고 강릉에 왔다. 우리 고을의 동문들과 경포대에서 상견례를 행하였는데, 박원동은 상중에 있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다.<sup>108)</sup>

참령(參領) 이용문(李容汶)이 내방하였다.

참의(參議) 이근우(李根宇, 1877~1938)<sup>109)</sup>가 서울에서 강릉으로 내려왔는데, 이용문이 내방하여 이근우의 방해정(放海亭)<sup>110)</sup>에서 하룻밤을 묵고 돌아갔다.<sup>111)</sup>

106) 박원동은 이때부터 물넌인 1949년까지 일기를 기록하였다. 이 일기는 『시호거사일기』(필사본 5책)란 제목으로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전하고 있다.

107) 오진영(吳震泳) : 1868~1944. 조선 말기 유학자. 본관은 해주, 자는 이견(而見), 호는 석농(石農). 충북 진천(鎭川) 출신. 간재 전우(田愚)의 고제(高弟)이다. 저서로 『석농집』이 전한다. 자세한 것은 III장 4절 '사승 관계 및 교류 인물' 참조.

108) 『시호거사일기』 책1, 1924년 9월 29일~10월 2일에 관련 기록이 보인다. 간재문고 간행과 관련하여 문하가 둘로 갈라진 저간의 사정이 자세히 적혀 있다. 본래 간행소를 청도에 설치했다가 후에 익산에 설치하게 된 사정, 청도에서는 목판을, 익산에서는 활인(活印)을 추진했다가 모두 중지된 사정 등이다. 오진영은 여러 동문들과 중국 상해에서 출간하려고 했으나 이것도 여의치 않아 지금 강릉 동문들과 상의를 하려고 방문한 것이다. 한편 이에 앞서 4월 17일에 권오성·최대수·김연목 등이 박원동을 찾아와 오진영이 보낸 편지를 보여주었는데, 간재문고 간행과 관련하여 김윤경에게 자금을 청하는 내용이었다. (『시호거사일기』 책1, 1924년 4월 17일)

109) 이근우(李根宇) : 1877~1938. 강릉 선교장의 주인으로 한말 신식학교인 동진학교(東進學校)를 건립하는 등 교육 사업에 기여하였다. 1911년부터 1920년까지 강원도 참사(參事)로 활동하면서 1916년부터 1918년까지 강원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地方土地調査委員會) 위원을 겸임하였다. 1920년 12월 강원도 도평의회원(道評議會員)에 민선으로 선출되었으며, 1924년부터 1927년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참의에 선임되었다. 저서로 『경농유고(鏡農遺稿)』가 전한다.(<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이근우'조)

110) 방해정(放海亭) : 강릉 선교장(船橋莊)의 별서(別墅) 건물. 철종 때 통천군수(通川郡守)를 지낸 바 있는 이봉구(李鳳九)가 관직에서 물러나 1859년(철종 10)에 이 건물을 짓고 만년을 보냈다고 한다. 1940년 이봉구의 증손인 이근수(李根守)가 중수하고 1975년에 보수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강릉 방해정'조)

111) 『시호거사일기』 책1, 1924년 10월 22일~28일에 관련 기록이 보인다. 26일에 이용문과 이근우가 강릉 군수 장헌근(張憲根)과 함께 차를 타고 박원동 집을 찾아 왔다.

○ 1925년(을축) 53세

4월 탈상을 하였다. 비로소 술과 고기를 마련하고 제문을 지어서 전북 익산에 있는 간재 선생의 묘소에 가서 참배를 하였다.<sup>112)</sup>

동문 김윤경(金潤卿)과 함께 출발하여 영월(寧越)에 이르러 충렬사(忠烈祠)를 배알하고 장릉(莊陵)에 봉심하였다. 충북 음성(陰城) 대풍리(大豊里)를 방문하여 상중에 있는 석농 오진영을 위로하였다. 계룡산 유림동(儒林洞)으로 가서 선생의 사판(祠版)을 배알하였다. 전북 익산(益山) 현동(玄洞)으로 가서 선생을 묘에 참배하고 고문(告文)하였다. 서울로 올라가 아들 용갑(容甲)을 만나보고, 원산으로 가서 아우 조동(兆東)을 만나보고 강릉으로 돌아왔다.

11월 송자대전(宋子大全) 중간소(重刊所)에서 강릉군 유사(有司)로 추천을 받아 강원도 내 각 군에 통문을 보냈다.

송자대전 중간소의 별유사(別有司)인 송필호(宋苾鎬)가 강릉으로 와서 동지들과 함께 도내 각 고을에 통문(通文)을 보냈다.<sup>113)</sup> 강원도 각 군의 유림에게 송자대전 중간의 의미를 역설하고 간행 비용 등을 찬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 통문의 뒤에 강원도 임원의 명단이 적혀 있는데, 강원도 도유사(都有司)는 최대수(崔大洙)가, 강릉군 유사는 박원동이, 강릉군 찬성장(贊成長)은 심상조(沈相祚)와 김연목(金演穆)이 각각 맡았다.<sup>114)</sup>

이 달에 송자대전 중간소에 답통(答通)을 하였다.<sup>1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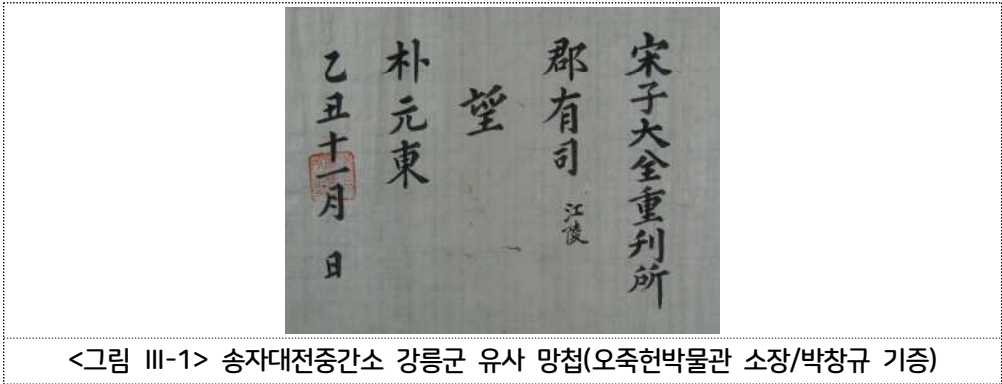
중간소에서 별도로 통문을 보내온 까닭에 답통을 하였다.<sup>116)</sup>

112) 『시호거사일기』 책1, 1925년 4월, 윤4월 등에 관련 기록이 보인다. 박원동은 4월 1일 모친상 탈상을 하고, 8일에 김윤경 집에서 목을 때 함께 간재 묘소에 가기로 약속을 하였다. 이에 24일 간재선생제문을 지었는데, 『시호거사문고』에 수록되어 있는 「간재선생고묘문(良齋先生告墓文)」(198면)을 말한다. 드디어 윤4월 14일 행구(行具)를 갖추고 간재의 묘소가 있는 전북 익산으로 출발을 하였다. 『시호거사일기』 윤4월 14일 조에는 '이하 남유기행(以下南遊記行)'이라고 적혀 있으며, 이후 5월 중순까지 여정과 투숙한 집, 이동 거리, 자동차나 기차 운임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해 두었다. 박원동과 김윤경은 영월과 제천을 거쳐 음성에 도착하여 오진영을 만났고, 대전을 거쳐 5월 3일 익산에 도착을 하였다. 이튿날 현동의 간재 묘소에 가서 참배하고 고유하였다. 5일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큰 아들 용갑을 만나고, 11일 기차를 타고 원산으로 가서 아우 조동(兆東)을 만났다. 이후 통천, 고성, 간성, 거진, 양양 등을 거쳐 13일에 강릉으로 돌아왔다.

113) 『시호거사일기』 책1, 1925년 11월 8~9일에 관련 기록이 보인다.

114) 『시호거사문고』, 「宋子大全重刊事通告于道內各郡」, 68면.

115) 『시호거사일기』 책1, 1925년 11월 27일자에 송자대전 중간 군유사 망첩에 대한 답서를 경성에 보냈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림 III-1> 송자대전중간소 강릉군 유사 망첩(오죽헌박물관 소장/박창규 기증)

이 달에 간재사고(艮齋私稿) 인행소에 답통(答通)을 하였다.

경남 진주의 간재사고 인행소에서 강릉·회양·통천 세 군의 유사(有司) 망첩(望帖)과 통문(通文)을 보냈다.<sup>117)</sup> 이에 답통을 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강릉군의 경우 적극 동참하겠으나, 회양과 통천은 거리가 멀고 사우(士友)의 명단이나 거주지도 명확치 않아 쉽지 않겠다는 것이었다.<sup>118)</sup>

○ 1926년(병인) 54세

2월에 대전 소재(蘇堤)에 가서 『송자대전』 중간을 보았다.<sup>119)</sup>

최대수(崔大洙)·신진묵(辛晉默)과 함께 강릉을 출발하여 서울로 들어가 노탄(老灘) 송규현

116) 『시호거사문고』, 『宋子大全重刊江陵郡有司望帖答通』, 72면.

117) 『시호거사일기』 책1, 1925년 9월 19일자에 경남 진주읍 대안동 간재사고 인소에서 통문이 왔으며, 10월 6일자에 간재사고 인소에서 보낸 강릉·통천·회양군 유사 망첩이 왔다고 적혀 있다. 『시호연기』의 기록과는 1개월 차이를 보인다. 『시호거사일기』 책1, 1925년 10월 22일자에 전북 익산군 삼기면 현동 간재 묘소 석의(石儀) 유사 망첩이 왔다는 기록도 보인다.

118) 『시호거사문고』, 『答晉州印稿通文(慶南晉州邑大安洞艮齋私稿印所. 江陵·淮陽·通川三郡有司望帖與通文來到)』, 70면.

119) 관련 내용이 『시호거사일기』 책1, 1926년 2월 10일~3월 5일자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2월 14일에 배를 타고 원산항으로 이동하여 16일에 기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였다. 19일에 송규현 집을 방문하고 대전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용문의 만류로 박원동은 서울에 남았고, 21일에 최대수와 신진묵이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출발하였다. 박원동은 최대수의 편지를 받고 3월 3일 기차를 타고 대전의 간소에 가서 송자대전 중간 관계자를 만나고 판각의 현황을 관망하였다. 3월 4일에 건암 송재경 부인에게 환대를 받은 후 서울로 올라와 총무 김희진을 만나고 5일에 원산을 거쳐 강릉으로 돌아왔다.

(宋奎憲)을 방문하고 가장(家藏)되어 있는 송자 선생의 진영을 배알하였다. 이때 아들 용갑이 진영 사진을 찍었다. 낙산(駱山)의 이용문(李容汶)이 가서 함께 머물렀는데, 이용문이 박원동에게 『논어』를 강토(講討)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원동은 애써 사양하였으나 끝내 거절할 수가 없었다.

최대수와 신진목이 먼저 소제(蘇堤)로 가서 편지를 보내오기를, 간행소의 제군들이 내가 서울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 보고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서울을 출발해서 기국정(杞菊亭) 간행소에 도착해보니, 각수(刻手) 수십 명이 해를 넘기며 간행 업무를 진행하여 장차 마치려고 하였다.

이때 건암 송재경(宋在慶)의 부인이 소제의 구탁에 머물러 있었다. 부인은 몇 해 전 건암이 강릉에 유람 갔을 때를 떠올리며 박원동에게 성찬을 마련해 주었다. 기국정(杞菊亭)은 대개 주자(朱子)의 “몇 이랑의 땅에 몇 그루 국화를 심고 몇 권의 읽던 책을 물리네. [種得幾畦幾菊, 了却幾卷殘書]”의 뜻을 취한 것이다. 소제지(蘇堤池)는 우암이 이곳에 터를 잡고 살 때 판 것이라 하였다. 다시 서울로 들어가서 간행소 총무 김희진(金憲鎭)을 만나보았는데, 서로 만나보길 간절히 원했던 회포를 풀고 최대수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다.

한편 『송자대전』의 중간과 관련하여 강릉군의 동지원(同志員)은 박원동을 비롯하여 박증호(朴曾虎), 심상두(沈相斗), 박용수(朴容壽), 심상조(沈相祚), 김윤경(金潤卿), 권오성(權五成), 김의남(金儀南), 박기동(朴起東), 정연달(鄭然達) 등 총10명이었으며, 찬조원(贊助員)은 21명이었다.<sup>120)</sup>

3월 14일에 순종이 승하하여 본 면의 사람들이 망곡(望哭)을 하였다.

5월 1일 인산일(因山日)에 본 면소(面所)에서 망곡을 하였다.

이 달 정읍(井邑)의 권순명(權純命)과 진천(鎭川)의 최원(崔愿)이 내방하였다.

간재사고(艮齋私稿)를 간행하는 비용과 관련된 일로 오진영이 두 사람을 강릉에 보낸 것이다.<sup>121)</sup>

120) 『시호연명록』, 「宋子大全重刊時同志錄(丙寅, 贊助員二十一人, 煩末錄)」, 697면.

121) 『시호거사일기』 책1, 1926년 5월 20일과 21일자에 오진영이 권순명과 최원을 보낸 내막이 자세히 적혀 있다. 간재사고 간행과 관련하여 진주 인소에 김윤경이 3천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간재 문하생이 파가 갈리어 진주와 논산에 따로 간소가 설치되어 다투자 김윤경이 송금할 뜻이 없어졌다. 이에 오진영이 최원과 권명순 두 사람을 강릉에 보내서 김윤경을 설득하였다. 그런데 여의치 않자 두 사람은 박원동을 찾아와 김윤경을 설득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박원동은 박화동(朴華東), 최원·권순명·김연목 등과 함께 김윤경의 집으로 가서 오진영의 편지를 보여주며 김윤경을 설득하였다.

7월에 몽재(蒙齋) 김연목(金演穆)의 문목(問目)에 답서를 보냈다.<sup>122)</sup>

김연목의 문목은 이기설(理氣說)과 역설(易說)에 관련된 내용이었다.<sup>123)</sup>

10월 화양소제고적보존회(華陽蘇堤古蹟保存會) 찬무원(贊務員)에 위촉되는 망첩(望帖)이 왔다.<sup>124)</sup>



<그림 III-2> 화양소제고적보존회 찬무원 망첩(오죽헌박물관 소장/박창규 기증)

### ○ 1927년(정묘) 55세

7월에 가석(可石) 김희진(金熹鎭)에게 답서를 보냈다.<sup>125)</sup>

122) 『시호거사일기』 책1, 1926년 7월 29일과 8월 24일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7월 29일 김연목은 손자 진우(振宇)를 통해 편지를 보내왔는데 문목(問目)은 이기(理氣)와 역설(易說)에 관한 것이었다. 진우가 곧장 이별하고 가는 바람에 미처 답을 하지 못하였다. 8월 24일 박원동은 김연목의 문목에 대한 답과 함께 자신도 문목을 보냈다. 『시호척독』에는 7월에 답서를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시호거사일기』와는 1개월 차이가 있다.

123) 『시호척독』, 「答金蒙齋(演穆)(丙寅七月日)」, 516면. “理氣決是二物?” “理氣原不相雙?” “形色者有長短深淺?” “朱子於易學本卜筮, 伊川專義理?” “理者形而上, 氣者形而下?” “各一其性之字, 本然乎? 氣質乎?”

124) 『시호거사일기』 책1, 1926년 10월 30일자에 화양소제고적보존회 찬무원 망첩과 함께 취지서가 함께 왔다는 기록이 보인다. 취지서의 대략적인 내용은 화양의 소제는 우암 송시열이 강학을 하던 곳인데 지금 다른 이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으니 합심하고 의리를 내어 보존하자는 것이었다. 발기 총회를 9월 모일에 경성 동동(通洞)에서 개최하였는데 임시 좌장을 김종한(金宗漢)이 맡았고 김희진이 사회를 보았으며, 고문에 민병석·김중한, 회장에 권익상, 부회장 김희진이 피선되었다는 것이었다. 본회의 위치는 소제리 기국정으로 정했다고 하였다.

125) 『시호척독』, 「答金祀丞可石(熹鎭)(七月十日)」, 528면.

김희진은 송자대전 중간소의 총무인데, 『송자대전』 중간본 1질 102권과 『송자대전수차(宋子大全隨筭)』 6권을 포장하여 보냈다. 또 소진록(掃塵錄), 문인록(門人錄), 동지록(同志錄)을 장차 편성하여 간행하고자 한다고 하였다.<sup>126)</sup> 그리고 화양소제고적보존회를 장차 창립하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김희진이 보낸 편지가 있다.

9월 김희진에게 답서를 보냈다.<sup>127)</sup>

송자대전 간행소에 박원동의 이름을 빙자하여 무서(誣書)를 투서한 자가 근거가 없는 말로 날조하였는데 대단히 망측하였다.<sup>128)</sup> 답서를 보내 변무(辨誣)하였다.

### ○ 1928년(무진) 56세

3월 가옥을 증건하였다.<sup>129)</sup>

집의 정청(正廳), 동고(東庫), 마구간을 증건하였다. 11일에 기둥을 세우고 상량을 하였으며, 병인년 생에게 운을 빌려서 상량문을 지었다.<sup>130)</sup>

4월 김연목(金演穆)의 문도가 내방하였다.

간재 선생은 장횡거(張橫渠)가 말한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정립하고 생민을 위하여 도를 정립하며, 옛 성인을 위하여 끊어진 학문을 잇고 만세를 위하여 태평 시대를 열어야 한다. [爲天地立心, 爲生民立道, 爲去聖繼絕學, 爲萬世開太平.]<sup>131)</sup>”와 “말에는 가르침이 있고 행동에는 법도가 있으며, 낮에는 하는 것이 있고 밤에는 얻는 것이 있으며, 숨 쉴 때도 수양하는 것이 있고 눈을 깜빡일 때도 보존하는 것이 있다.[言有教, 動有法, 晝有爲, 宵有得,

126) 『시호거사일기』 책1, 1927년 6월 23일자에 김희진이 보낸 편지 및 송자대전 1질을 소재에서 운임을 선불로 지불하고 보냈다는 화물표를 받았다는 기록이 보인다. 김희진은 편지에서 『송자대전수차』 6권의 구독을 아울러 요청하였다. 또한 정조 때 근와(芹窩) 상공 김희(金憲)가 송자대전을 편집, 간행하고 『소진록(掃塵錄)』을 엮었는데, 이를 따라 지금 중간할 때 동지원(同志員)이 각각 율시(律詩)를 지어 『소진록』 상하권으로 엮을 계획이며 『문인록』도 편찬하려 한다고 하였다.

127) 『시호척독』, 「答金祀丞(憲鎮)(九月廿二日)」, 533면.

128) 『시호거사일기』 책1, 1927년 9월 21일자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대전의 송자대전 간소에서 김희진이 보낸 답서 2통과 함께 『송자대전수차』 대금 20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이 왔다. 김희진의 답서에서 내가 전에 보낸 편지에 『송자대전수차』를 되돌려 보내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대금을 보내는 것은 무슨 일이나고 적혀 있었다. 같이 온 답서에는 전혀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들어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무서(誣書)를 간소에 보낸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박원동은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129) 『시호거사일기』 책1, 1928년 3월 7일에 초석을 놓았으며 11일에 상량을 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후 4월까지 집을 새로 짓는 공사 과정이 자세히 적혀 있다.

130) 『시호거사문고』, 「元舍重建上樑文(戊辰三月庚寅朔十一日庚子某敢昭告于成造之神)」, 227면.

131) 『근사록』 「위학(爲學)」에 수록되어 있다.



息有養, 瞬有存.]<sup>132)</sup>”, 곧 사위육유(四爲六有)의 뜻을 취하여, 김연목의 정사(精舍)에 ‘사육정사(四六精舍)’라 이름을 붙이고 이어 명(銘)을 지어 주었다.<sup>133)</sup> 문인들이 장차 정사를 지으려고 강릉의 중앙에 있는 오죽헌(烏竹軒)과 이설당(梨雪堂) 두 곳을 점찍었으나 두 곳 모두 잘 되지 않았다.<sup>134)</sup> 김연목이 영서의 구석평(龜石坪)으로 이거하여 정사를 짓고는 박원동에게 제자들을 보내어 강회(講會)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또 ‘사육정사(四六精舍)’ 네 글자의 편액을 써 달라고 요청하였다. 집을 증건하는 일로 김연목이 청한 두 가지를 모두 들어주지 못하였다.<sup>135)</sup> 다만 정사를 짓는 비용에 보태라고 의연금을 주었다.<sup>136)</sup>

9월 송증헌(宋曾憲)이 내방하였다.

『송자대전』 간행 비용을 정산하는 일로 와서 상의를 하였고, 송증헌과 함께 강릉군의 동지들을 방문하였다.<sup>137)</sup>

10월에 송증헌에게 답서를 보냈다.

『송자대전』 간행 비용과 관련된 일로 편지를 보내 왔는데, 이때부터 여러 차례 편지를 주고받았다.<sup>138)</sup>

132) 장횡거의 『정몽(正蒙)』에 나오는 말이다.

133) 田愚, 『良齋集後編』 卷18, 「四六精舍銘」(辛酉), 총간335, 348면. 이 글은 1921년(신유)에 지은 것인데, 김연목 등이 정사를 세운다는 계획을 듣고 실제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지어준 것이다.

134) 『시호거사일기』 책1, 1924년 4월 17일자에 권오성·최대수·김연목 등이 박원동을 찾아와 지난달에 사육정사를 이설당에 건축하기로 회의를 하고 김윤경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하였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으며, 이날 회의를 하여 일단 죽헌리로 터를 정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135) 『시호거사일기』 책1, 1927년 4월 9일자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김연목이 보낸 문생은 김문호(金文昊)이며 강회 일자는 4월 15일이었다.

136) 『시호거사일기』 책1, 1927년 5월 3일자에 사육정사 건립비용으로 5원을 김연목의 문생 김문호(金文昊)·신석휴(辛碩休)에게 주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137) 『시호거사일기』 책1, 1927년 9월 7일~9일자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송증헌은 예대희(芮大禧)와 함께 왔는데, 송자대전 중간의 부채가 1만여 원에 달하여 강릉의 유림에게 지원을 요청하였다. 강릉 유림이 2~3천원을 빌려주어 인쇄지 비용을 감게 해주면 3~4달 안에 『송자대전』으로 보상하겠다고 하였다. 또 지난해 『송자대전』을 간행할 때 찬조원금이 50원 혹은 30원이었는데, 50원을 낸 찬조원에게는 연보 6권으로 증정하겠으나 30원을 낸 찬조원에게는 주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에 해당되는 회원 10여 명이 항의를 하자, 송증헌이 간소의 규정에 50원이상만 보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0원을 더 내면 연보를 추가로 보내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동지원 및 찬조원 명단을 기록하고 강릉군 유사를 맡은 박원동이 최종적으로 일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송증헌은 후에 송자대전복판동지록이 간행되면 동지원과 찬조원을 막론하고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138) 『시호초독』, 「與宋曾憲(號后菴)(戊辰九月晦)」, 537면; 「答宋曾憲(十一月五日)」, 538면. 『시호거사일기』 책1, 1927년 10월 이후에 송자대전 간행 비용을 처리하는 일로 박원동과 송증헌이 여러 차례 편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보인다.



11월 박씨총보소(朴氏總譜所)에 답통(答通)을 하였다.<sup>139)</sup>

교리 박해철(朴海喆)이 박씨총보소를 경남 밀양(密陽) 만운재(萬雲齋)에 설치하였다. 통문(通文)과 공사원(公事員)으로 추천하는 망첩이 왔다.<sup>140)</sup>

○ 1929년(기사) 57세

2월 21일 큰 며느리 신씨(辛氏)의 상을 당했다.

만오(晩悟) 신진묵(辛晉默)의 딸로 성품이 온화하고 신중하며 너그럽고 우아하니 부덕(婦德)을 갖추었으나 요절하고 말았다. 시부모가 매우 애통해 하였다. 이때 아들 용갑(容甲)은 영월의 직소(職所)에 있었다.

○ 1930년(경오) 58세

4월 금란계(金蘭契)에 참석하였다.<sup>141)</sup>

금란계는 본래 반월계(半月契)<sup>142)</sup>였는데 중간에 폐지되었다. 후손들이 수계(修契)하여 매학정(梅鶴亭)을 사서 ‘금란정(金蘭亭)<sup>143)</sup>’으로 이름을 고치고 계를 ‘금란계(金蘭契)’라

139) 『시호거사문고』, 『答朴氏總譜所通文(慶南密陽郡下西面武安里萬雲齋, 戊辰十一月五日)』, 77면.

140) 『시호거사일기』 책1, 1927년 11월 16일자에 밀양 총보소 총무 박해철이 보낸 통문이 왔다는 기록이 보인다. 보단 양식에는 다만 휘와 직위, 당호만 적는데 권질이 번거롭게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41) 『시호거사일기』 책2, 1930년 3월 9일자에 박원동이 금란계에 참여하게 된 내막이 적혀 있다. 심동섭·김진홍(金振洪)·김두남(金斗南)이 박원동을 찾아와 금란계에 동참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경포의 금란정은 작년에 보수를 했는데 부채가 4백 원이었으며, 신입 회원 8~9명을 모집하여 회원 당 50원씩 회비를 받아 부채를 갚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금란반월계의 창계에 방계의 선조 영정(榮楨)·시문(始文) 등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박원동은 가입을 승낙하였다. 이후 박원동은 죽형 은실(殷實), 중제 기동(起東), 김윤경 등에게 가입을 권고하였다. 4월 28일에 비로소 금란계에 참석하였으며 29일에 금란반월계 창원록 등을 열람하고 각자 50원씩 회비를 내어 명첩에 기록을 하였다.

142) 금란반월회(金蘭半月會) : 1466년(세조 12) 음력 9월 9일에 강릉 지방의 젊은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금란반월회는 1453년(단종 1)에서 1477년(성종 8) 사이에 12명의 생원과 진사 합격자를 배출하기도 하였다. ‘맹약오장(盟約五章)’이라는 회칙을 마련하여 유학을 향촌사회에 보편화시키는 데 힘썼다.(<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강릉)> ‘금란반월회조’)

143) 금란정(金蘭亭) : 강원도 강릉시 저동에 있는 금란반월회의 모임 장소로 활용되었던 정자. 원래 매학정(梅鶴亭)이었는데 금란계가 결성되어 계명에 따라 금란정이라 고쳤다. 김형진(金衡鎭)이 경포대 북쪽 시루봉 기슭 경포호가 바라보이는 곳에 매학정을 건립하였으나 금란계원들이 그로부터 매입하여 현재 위치한 강릉시 경포로 371번길 57에 옮겨지었다.(<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강릉)> ‘금란정’조)

하였다. 이때 금란계에 참석한 인원은 김규경(金奎卿), 최동길(崔東吉), 최찬수(崔燦修), 심상조(沈相祚), 최찬우(崔燦佑), 김윤경(金潤卿), 박은실(朴殷實), 김익경(金翊卿), 박원동(朴元東), 박기동(朴起東) 등(생년순) 27명이었다.<sup>144)</sup>

5월 주춘시사(住春詩社)를 창립하였다.<sup>145)</sup>

18인이 시사를 창립하였는데 후에 추가로 가입하여 36명이 되었다.<sup>146)</sup>

시사의 이름은 ‘삼십육궁이 온통 다 봄이로다[三十六宮都是春]<sup>147)</sup>’에서 의미를 취하였다. 칠성암의 바위에 회원 이름을 새겼는데 박원동이 글씨를 썼다.<sup>148)</sup>

주춘시사의 첫 번째 모임은 가장 연장자인 노간(魯澗)에 사는 창서(蒼西) 김연채(金演采)의 집에서 열었다.<sup>149)</sup>

9월 오봉서원 유사 및 유금(儒金) 유사 망첩을 받았다.<sup>150)</sup>

오봉서원은 1868년에 훼손된 후 향유(鄉儒)를 선천(先薦)하여 의연금(義演金)을 모아 단(壇)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냈다. 이때에 이르러 수금 유사로서 유금(儒金)을 거둬서 제전(祭田)을 보립(補立)하였다.<sup>151)</sup>

144) 『시호연명록』, 「金蘭契(庚午)」, 697면.

145) 『시호거사일기』 책2, 1930년 5월 26일자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의관(議官) 김연채(金演采), 진사 정채화(鄭察和), 참봉 심상조(沈相祚), 주사 최문길(崔文吉) 및 여러 시우들이 장차 ‘주춘시사(住春詩社)’를 조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박원동에게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다. 박원동의 10세조 완하당 박진해가 주춘계 창립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만약 주춘계를 중수(重修)하는 것이라면 그 자손들만 가입이 가능하고 다른 성씨는 가입이 불가능하여 이름을 ‘주춘음사(住春吟社)’라 하였다. 제1회 모임을 노간의 김연채 집에서 열었다. 회원 사진을 찍었는데 총독부에서 각도 각 군에 시사가 있으면 사진을 찍으라는 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리 시제를 알려주어 각자 지은 시를 이날 시첩에 등사하고 회원 명부를 작성하였는데, 생년순으로 하였으며 갑인생 77세가 가장 위고 무인생 53세가 최하였다.

146) 『시호연명록』, 「住春詩社(庚午. 七星菴石刻, 詩湖書)」, 698면. 이 명단에는 총37명이 적혀 있는데 ‘최영학(崔永鶴) 위에 삭제하라는 의미의 ‘△’가 표시되어 있으며, 맨 끝의 김한주(金漢柱)는 경오생으로 ‘추입(追入)’이라 적혀 있다. 최영학은 빠지고 김한주가 후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춘시사는 1936년 『주춘시사(住春詩社)』(석판본 1책)를 간행하였는데, 이 책의 서두에도 『시호연명록』과 동일한 36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147) 송나라 소옹(邵雍)이 지은 「관물음(觀物吟)」(7언율시)의 마지막 구절이다.

148) 칠성암 앞의 바위에 주춘시사 회원들 각명한 것은 1937년의 일이다. 『시호거사일기』 1937년 8월 19일자에 주춘시사 36인의 명단을 칠성암 앞 바위에 새겼는데, 길이 12행이고 폭은 3행이었다. 박원동은 바위의 머리에 ‘주춘대(住春臺) 세 글자를 쓰고 말미에 ‘경오추(庚午秋) 3자를 썼으며, 박용만(朴容萬) 등으로 하여금 새기게 하였다고 한다.

149) 『시호만음』, 「住春詩社(第一會于魯澗金蒼西庄)」, 318면.

150) 『시호거사일기』 책2, 1930년 9월 5일자에 오봉단소 명년 유사 망첩이 왔다는 기록이 보인다. 한편 신구 유사 인수인계는 이듬해인 1931년 2월 3일~4일에 있었다.

이때 김양경(金陽卿)과 함께 오봉단소 유사를 맡았으며, 전임 유사는 권규식(權逵植)과 신진묵(辛晉默)이었다. 또 오봉 수금 유사는 박원동을 비롯하여 김의남(金儀南), 권길수(權吉洙), 심기수(沈基洙), 박증영(朴曾泳)이 맡았다.<sup>152)</sup>

이후 1933년에 유금록(儒金錄) 서문을 지었다.<sup>153)</sup>

### ○ 1931년(신미) 59세

5월 화양연원록(華陽淵源錄) 간행소에 답문을 보냈다.<sup>154)</sup>

선조 완하당행록(玩荷堂行錄)에 자구(字句)가 잘못되고 빠진 곳이 있어서 개정(改正)을 부탁하였다.<sup>155)</sup>

6월 제문을 지어 몽재(蒙齋) 김연목(金演穆)의 탈상에 가서 곡을 하였다.<sup>156)</sup>

9월 영주구로회(瀛州九老會)를 속수(續修)하였다.

6세조 민천(民天)이 동갑인 9명의 노인과 함께 계를 만들었는데, 수계한 명첩(名帖)이 가장되어 전해져 왔다. 조규태(曹圭泰)와 함께 구로(九老) 후예들의 계모임을 이어가는 일에 대해 협의하여 도모하게 되었다.<sup>157)</sup>

151) 『시호거사일기』 책2, 1930년 9월 3일자에 자세한 기록이 보인다. 오봉단소에는 기적(記蹟) 비각이 새로 건립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소론 쪽에서 이 해에 건립한 것이었다. 강당은 3~4년 전에 유림의 의연금(義金)을 모아서 영건하기로 하였으나 아직도 완성이 멀어서, 심기수(沈基洙)가 오봉단소에 수금 유사를 두어 위토(位土)를 보충해야 한다고 발의하였다. 이때 오봉단소 단향(壇享) 유사를 새로 선임하면서 추가로 수금 유사를 선임하게 되었던 것이다. 박원동은 김양경과 함께 단향 유사에 선임되었으며, 수금 유사는 선천(宣薦)에 박원동을 비롯하여 김의남·심기수·박증영(朴曾泳)이 위촉되었다. 또한 장재(掌財)는 선천에 심상조, 부천(部薦)에 정봉화(鄭鳳和)가 위촉되었다.

152) 『시호연명록』, 「五峯壇所有司(辛未)」, 「五峯收金有司(辛未)」, 698면.

153) 『시호거사문고』, 「五峯儒金錄序」, 150면. 1933년 모춘에 지음.

154) 『시호거사문고』, 「答華陽淵源錄刊所文(辛未五月日大邱府鳳山)」, 88면.

155) 『시호거사일기』 책2, 1931년 5월 20일자에 『화양연원록』 구입 신청서와 답통을 간행소에 보냈다는 기록이 보인다. 답통에서 완하당의 생년의 오기를 수정해 줄 것과 삼가당의 현손이라는 구절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미 인편이 완료되었다면 어쩔 수 없으며, 후에 수정할 때를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156) 『시호거사문고』, 「祭金蒙齋文(演穆)」, 209면. 『시호거사일기』 책2, 1931년 6월 15일과 21일자에 자세한 내용이 보인다. 박원동은 김연목의 대상(大祥)이 멀지 않아 6월 15일에 「제김연목문(祭金演穆文)」을 짓고 21일 진부면 구석평 사육정사로 조문을 갔다. 당시 김연목의 문생 김대영(金大榮)이 사육정사에 머물며 몽재문고를 등초하고 있었다.

157) 『시호거사일기』 책2, 1931년 8월 27일과 9월 10일에 자세한 내용이 보인다. 박원동 집에는 6대조 민천(民天)의 구로회명첩이 전해져 왔는데, 8월 27일 후손들이 구로회를 중수(重修)하자는 뜻으로 읍

당시 강릉 최씨·박씨·김씨, 창녕 조씨 등의 가문에서 18인이 참여를 하였다.<sup>158)</sup>

박원동은 이 모임의 시첩에 서문을 짓고 범례를 정리하였다.<sup>159)</sup>

가을 『향현행록(鄉賢行錄)』 편성(編成)하였다.<sup>160)</sup>

박원동은 1930년 9월에 향현사에 배향된 12향현(鄉賢)의 행록(行錄)을 편집(編集)하는 일을 12종중에 통문을 보내어 협의(協議)를 하였다.<sup>161)</sup> 이때 이르러 편찬을 마치고 4백 권을 인출(印出)하여 각 종중의 자손들이 나누어 가장하게 하고, 1백여 권은 그 밖의 집안에 배포하였다.<sup>162)</sup>

11월 경기도에 있는 사충서원(四忠書院)<sup>163)</sup>의 유지 회원(維持會員)으로 위촉되는 망첩이 왔다.<sup>164)</sup>

내에 모여 회의를 하였다. 다른 군으로 이거한 채씨를 제외하고 함박초·최·관·김·강씨 집안의 후손들이 모두 참석을 하였다. 그리고 9월 10일 드디어 최영해(崔永海)의 집에서 영주구로갑회를 속수하는 첫 모임을 열었다.

158) 『시호연명록』, 「瀛州九老續會(辛未)」, 698면.

159) 『시호거사문고』, 「瀛州九老續會序」(1931), 89면; 「瀛州九老續會凡例(癸酉)」, 102면.

160) 『시호거사일기』 책2, 1930년 8월~1931년 11월 기록에 『강릉향현행록』 편찬 및 간행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보인다. 박원동이 12현행록의 편찬 및 간행의 뜻을 처음 발의한 것은 1930년 8월 13일이었으며, 총독부 경무국 도서관의 출판 허가가 난 것은 1931년 10월 2일이었다. 1931년 강릉향현사에서 '강릉향현행록(江陵鄉賢行錄)'이란 제목의 석판본 1책(40장)으로 간행을 하였다. 朴元東, 『江陵鄉賢行錄: 并江陵鄉賢祠沿革』, 江陵: 江陵鄉賢祠, 1931.

161) 『시호거사문고』, 「鄉賢祠十二賢行狀編集通文」, 84면. 『시호거사일기』 책2, 1930년 9월 17일자에 박원동·김제남·최돈철 3인의 명의로 12문중에 통문을 발송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162) 『시호거사일기』 책2, 1931년 8월 26일자 관련 기록이 보인다. 400질 중에서 295질은 12선생의 후손 가문에서 나누었는데 1질당 75전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105질은 타성에 무료로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 다만 이때는 출판 허가가 아직 나지 않아 실제 배포는 하지 못하고 쌓아두었다고 한다.

163) 사충서원: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조선 후기 김창집·이이명·이건명·조태채 등 이른바 노론4대신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서원.

164) 『시호거사일기』 책2, 1931년 12월 23일자에 과천의 사충서원(四忠書院) 유지회원(維持會員)에서 추천되는 망첩이 왔다는 기록이 보인다. 『시호연보』와는 1개월 차이가 있다. 일기에는 회장은 이재곤(李載崑), 고문은 박영호(朴泳孝)·민영휘(閔泳徽)·윤덕영(尹德榮)·윤용구(尹用求), 원장은 민병석(閔丙奭), 도유사는 이문용(李文用) 등의 임원 명단이 적혀 있다. 회원의 성명, 자호, 본관, 생년, 주소 등을 적어서 보내라고 하였으며, 회비는 특별회원 연 1원 이상, 통상회원 연 10전 이상이었다. 유지회보 1책이 동봉되어 왔다. 후에 박원동은 1935년 9월에 『사충서원지(四忠書院誌)』 2권을 구람하였다.



<그림 Ⅲ-3> 사충서원 유지회원 망첩(오죽헌박물관 소장/박창규 기증)

○ 1932년(임신) 60세

봄에 송경(松京)을 유람하였다.<sup>165)</sup>

선원보(璿源譜) 해주파(海州派) 선조 휘(諱) 원계(元桂)는 곧 강릉파(江陵派) 휘 지계(之桂)의 백씨(伯氏)인데 후손이 개성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계(先系) 사적을 상고하기 위해 종인을 가서 만나보았으나 구보(舊譜)가 없어서 상고하지 못하였다.

송양서원(崧陽書院)을 찾아 포은선생(圃隱先生)의 유상(遺像)을 배알하였다.

서원 안에 두문동(杜門洞) 원사(院祠) 창건사무소를 설치해두었는데 임하영(林河永) 군이 업무를 주관하였다. 고려 말 충절(忠節)을 지킨 사람이 비단 72인뿐만이 아니었으니, 충절의 실적(實蹟)이 있는 사람은 같은 사당에 함께 배향하였다. 들으니 지계가 임종할 때 자식들에게 글을 남겨 말하기를 “나는 왕씨의 혼령에게 돌아갈 터이니, 너희들은 이씨의 세상에서 살아라.”라고 하였다. 이미 신하로서의 충절을 행하였으니 선천과 후천에 정성을 다한 것이다. 훗날 지계도 함께 배향되기를 요청하였으나 후에 실현되지는 못하였다.<sup>166)</sup>

165) 『시호거사일기』 책2, 1932년 3월 23일~4월 6일 서울을 거쳐 개성의 송양서원을 다녀온 내용이 보인다. 4월 29일 개성에 가서 유적지를 두루 돌아보았으며, 4월 1일 송양서원에 가서 관리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166) 『시호척독』, 「與林河永(四月十六日 開城崧陽書院內在門洞建院事務所)」, 564면; 「答金口均林河永(六月十日 與起東聯名答書)」, 565면. ‘口’는 원문에 본래부터 빠진 글자를 표시함.(이하 동일)

5월 송자대전복판동지록(宋子大全復板同志錄) 간행과 관련하여 강원도총무에 위촉되는 망첩이 왔다.<sup>167)</sup>



<그림 III-4> 송자대전복판동지록 강원도총무 망첩(오죽헌박물관 소장/박창규 기증)

9월 향현사(鄉賢祠) 유사에 천거되었다.<sup>168)</sup>

이때 박원동과 함께 이윤식(李潤植), 조병룡(曹秉龍) 3인이 유사가 되었다.<sup>169)</sup>

가을 『임영지(臨瀛誌)』를 속수(續修)하였다.<sup>170)</sup>

167) 『시호거사일기』 책2, 1932년 5월 8일자에 송자대전복판동지록 간소에서 강원도 총무에 위촉하는 망첩이 왔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때 동지록 발간 통고문과 범례 도합 1책, 장판각 낙성 때의 회의록, 성금 찬조 구좌용지 2매 등이 함께 왔다. 한편 '송자대전복판동지록'은 '존위안(尊衛案)'이란 제목으로 1936년경에 무주군 사류정(四柳亭)에서 목판본 3권 2책으로 간행하였다. 『尊衛案』(木版本 3卷2冊), 柳東烈 編著, 茂朱: 四柳亭, 昭和11[1936]. 표제가 '송자대전복판동지록(宋子大全復板同志錄)'으로 되어 있다. 권2의 '복판동지록(復板同志錄)'에 박원동의 이름이 같은 집안의 박용수(朴容壽)·박기동(朴起東)과 함께 올라 있으며, 권3의 '복판축(復板軸)'에 박원동이 지은 오언고시가 수록되어 있다.

168) 『시호거사일기』 책2, 1932년 8월 13일과 9월 1일에 자세한 내용이 보인다. 8월 13일 향현사 다례에 설사 후유증으로 참석치 못하고 아우들이 대신 참석을 하였는데, 명년의 유사로 박원동을 비롯하여 이윤식(李潤植)·조병룡(曹秉龍) 등이 추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9월 1일 향현사로 가서 친구 유사 인수인계식에 참석을 하였다.

169) 『시호연명록』, 「鄉賢祠有司(癸酉)」, 699면.

170) 『시호거사일기』 책2, 1932년 5월~1933년 8월에 『증수 임영지』와 『강릉향교실기』 편찬 관련 기록이 다수 보인다. 박원동은 1932년 5월 14일에 '임영지 속편 겸 강릉향교실기 편찬 위원'에 위촉되는 첩지

『임영지』는 곧 강릉읍지인데 구지(舊誌)로는 전지(前誌)·후지(後誌)·속지(續誌)가 별도로 있었다. 속지 이후 147년간의 사적을 이제 다시 속수(續修)하여 구지(舊誌)의 뒤에 붙였다.<sup>171)</sup>

김병환(金秉煥, 1871~1947)과 함께 편찬하였다.<sup>172)</sup>

『강릉향교실기(江陵鄕校實記)』를 편찬하였다.

고려 충렬왕 계축년(1313)부터의 연혁과 기문(記文)을 수집하여 1편(編)을 완성하였다.<sup>173)</sup>

이 책 역시 김병환과 함께 편찬하였다.<sup>174)</sup>

『증수 임영지』와 『강릉향교실기』는 이듬해인 1933년 양력 8월에 강릉고적보존회에서 각 연할자본 1책으로 간행하였다.

### ○ 1933년(계유) 61세

3월에 유천회암영당(楡川晦菴影堂)<sup>175)</sup>의 유사에 천거되었다.<sup>176)</sup>

이때 유사에 천거된 이는 박원동과 조규동(曹圭東) 2인이었다.<sup>177)</sup>

4월 송철호(宋哲鎬), 송빈헌(宋斌憲), 송면헌(宋勉憲), 윤호혁(尹虎赫)이 내방하였다.<sup>178)</sup>

송철호는 건암 송재경(宋在慶)의 사자(嗣子)로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길에 찾아와 이들을 묵고 북사(北社)의 여러 벗들을 위방(委訪)하였다. 5월 초 돌아가는 길에 다시 찾아와 유숙하고 송별하였다.

(帖紙)를 받고 1년 넘게 편찬 및 간행 작업에 몰두하여서 1933년 양력 8월에 두 책이 간행되었다. 1934년 7월 2일에는 임영지와 강릉향교실기 편찬 공로로 군수로부터 감사장과 함께 두 책을 각각 1부 받기도 하였다.

171) 『시호거사문고』, 「臨瀛誌凡例(壬申)」, 100면.

172) 『시호연명록』, 「臨瀛誌及鄕校實記編輯員(壬申)」, 698면.

173) 『시호거사문고』, 「江陵鄕校實記凡例(壬申)」, 101면.

174) 『시호연명록』, 「臨瀛誌及鄕校實記編輯員(壬申)」, 698면.

175) 유천회암영당 : 강릉시 유천동에 있는 주희의 영정을 모신 조선 말기의 영당. 1887년(고종 24)에 주재식(朱載植)·주재학(朱載學) 등이 성균관과 예조에 글을 올려 연천의 임장서원(臨漳書院)에 모셔져 있던 주부자 영정을 옮겨 사당을 짓고 봉안하였다.

176) 『시호거사일기』 책2, 1933년 3월 6일·7일자에 관련 기록이 보인다. 박원동은 3월 6일 유천영당 다례에 집례(執禮)로 재실에 들어갔으며, 이튿날 7일 유천영당 다례에 군수가 참여하였다. 1년 전 박원동은 군청에 요청하여 향교 재산의 일부를 유천영당 제향 예산으로 편입될 수 있게 하였다. 당시 유사는 신재철(辛在哲)과 김봉경(金鳳卿)이었으며, 명년 유사로 박원동과 조규동(曹圭東)이 추천되었다.

177) 『시호연명록』, 「楡川影堂有司(甲戌)」, 699면. 『시호거사문고』, 「楡川影堂茶禮笏記改書辨(甲戌三月上澣)」, 103면.

178) 『시호거사일기』 책2, 1933년 4월 19일~5월 8일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이들 일행은 4월 23일과 5월 3일 박원동 집을 내방하였다.



28일 내 환갑 잔치가 열렸다.

5월 노탄(老灘) 송규헌(宋奎憲)이 내방하였다.<sup>179)</sup>

이 달 동강(東江) 김영한(金甯漢, 1878~1950)<sup>180)</sup>이 내방하였다.<sup>181)</sup>

족종(族從) 운빈(雲濱) 기동(起東)이 동강과 오대산에 가기로 약조를 하고 나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하였다. 동강은 아들 춘동(春東)을 데리고 함께 차를 타고 월정사에 도착하여 머물렀다. 중대(中臺)의 승지를 관람하고 대관령을 넘어 십여 명과 함께 와서 유숙하였다. 이때 지은 시가 있다. 함께 금란정(金蘭亭)을 유람한 후에 운빈 기동과 심동섭(沈東燮)이 함께 금강산으로 들어갔다.

7월 강릉향교 직원(直員)<sup>182)</sup>에 임명되었다.<sup>183)</sup>

8월 본리의 향약(鄉約)을 설립하였다.<sup>184)</sup>

향약의 조약은 대개 여씨향약과 율곡 선생의 해주향약에 의거하여 지었다.

179) 『시호거사일기』 책2, 1933년 5월 2일·3일자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송규헌이 5월 2일 신진목 집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3일 박원동은 신진목 집으로 가서 노탄 송규헌을 비롯하여 심상조정채화정석최희대수김한주신진목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와서 점심을 먹었다. 송규헌은 돌아가는 일정이 빠듯하여 유숙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180) 김영한(金甯漢) : 1878~1950. 조선 말기 문신. 본관은 안동(장동), 자는 기오(箕五), 호는 급우재(及愚齋)·동강(東江). 문집으로 『급우재집(及愚齋集)』이 전한다. 자세한 것은 III장 4절 '사승 관계 및 교유 인물' 참조.

181) 『시호거사일기』 책2, 1933년 5월 13일~16일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13일에 참의 박기동이 승지를 지낸 김영한과 경학원 사성 김완진을 오대산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함께 가자고 청하였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오대산으로 가는데 심동섭도 합류하여 총3인이 동행하였다. 월정사 길에서 김영한과 그의 셋째 아들 춘동을 만나 이후 5인이 오대산을 유람을 하고 16일에 읍내로 돌아왔다.

182) 직원(直員) : 1894년 갑오개혁으로 향교는 제향 기능만 유지하였는데, 1908년부터는 도유사장의 등의 종전 직임을 폐지하고 직원(直員)을 두어 문묘의 제향을 비롯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일제강점기 향교의 직원은 향교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었는데, 직원은 군수가 임명하였다.

183) 『시호거사일기』 책2, 1933년 7월 6일·8일·10일·12일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8일 군청에 들어가 다 키자와 마코토[瀧澤誠] 군수로부터 직원 임명장을 받았는데, 군수는 "인망(人望)을 택하여 이 임무를 주는 것이니 다만 왜림(倭林) 관계 때문만은 아니며 농촌 진흥을 권유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다. 12일 향교에 들어가 전임 직원 조규상(曹圭常), 군청의 교화 주임 권영기(權寧機)와 향교 물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였다. 제기(祭器)와 제복(祭服)은 오래된 것이었는데 유독 군수와 직원의 관복만 근년에 만든 것이었다. 전하는 서책은 한 곳에도 보관된 것이 없었고 오직 새로 구비된 몇 종만 있을 뿐이었다.

184) 『시호거사일기』 책2, 1933년 7월 19일, 8월 11일·21일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박원동은 7월 19일에 동리 사람들과 모여서 향약계 설립에 관하여 논의하고, 8월 11일 향약계 설립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도약정을 박원동, 부약정을 신정목이 맡았다. 8월 21일 향약계원 명안(名案)을 작성하였는데 임원은 도합 16명이고 계원은 89명이었다. 관련 내용을 면장과 군청에 보고하였다.



가을에 오봉서원록(五峯書院錄)이 완성되었다.<sup>185)</sup>

오봉서원록은 곧 『오봉서원실기(五峯書院實記)』를 말한다. 오봉서원이 건립된 1552년(명종 7)부터 1868년(고종 5) 훼손될 때까지의 내력과 이후 1905년 오봉단을 세우고 1916년에 묘정비를 중건하며 1930년 제전(祭田)을 확충한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오봉서원실기』의 말미에 붙인 발문이 『시호거사문고』에도 수록되어 있다.<sup>186)</sup>

### ○ 1934년(갑술) 62세

봄에 생정비각(生旌碑閣)과 오사재(五思齋)의 문미(門楣)에 걸 글씨를 판서를 지낸 석촌(石村) 윤용구(尹用求, 1853~1939)<sup>187)</sup>로부터 받았다. 생정비각기(生旌碑閣記)는 동강 김영한이 지었고<sup>188)</sup>, 완하당묘표(玩荷堂墓表)는 노탄 송규현이 지은 것이다.<sup>189)</sup>

선조 삼가 선생이 살아계셨을 때 정효비(旌孝碑)가 쌍한정(雙閑亭)의 바위 위에 건립되었는데 지금은 비각 안으로 옮겨 세웠다.<sup>190)</sup> 윤용구에게 글씨를 받으러 서울에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영월에 들러 큰 아들 용갑을 만나보고 왔다.<sup>191)</sup>

185) 『시호거사일기』 책3, 1931년 6월~1932년 7월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1931년 6월 24일자에 여러 가문에 소장되어 있는 고적을 참고하여 장차 오봉서원연혁(『오봉서원실기』를 이름)을 편성하려고 한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듬해인 1932년 1월 28일에 오봉서원실기와 칠봉사(七峯祠)연혁을 편성하였다고 하였는데, 이후 계속적인 수정을 거쳐 1933년 가을에 완성을 하였다.

186) 박원동, 「五峯書院實記跋(壬申)」, 『시호거사문고』, 91~92면. 박원동 편 『오봉서원실기』(오봉서원 소장 필사본 1책)는 오죽헌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전한다. 한편 방동인·이규대 공편, 『영동지방향토사연구자료총서』 2(書院·學校 1),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1994, 37~54면에도 영인 수록되어 있다.

187) 윤용구(尹用求) : 1853~1939. 한말 예조·이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서화가.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주빈(周賓), 호는 석촌(石村)·해관(海觀)·수간(睡軒)·장위산인(獐位山人). 글씨는 해서·행서를 많이 썼으며 그림은 난과 대를 잘 그렸다. 자세한 것은 Ⅲ장 4절 '사승 관계 및 교류 인물' 참조.

188) 김영한의 문집은 김윤동이 1969년 신활자본 20권 15책으로 간행하였다. 金窩漢 著, 金潤東 編, 『及愚齋集(遺集·續集)』(신활자본, 20권 15책), 1969. 다만 이 문집에 생정비각기(生旌碑閣記)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189) 송규현의 문집은 송주현이 1942년 석판본 2권 2책으로 간행을 하였는데 서명은 '사위유고(史謂遺稿)'이며 서문은 1927년 윤희구(尹喜求)가 썼다. 宋奎憲 著; 宋柱憲 編, 『史謂遺稿』(石版本 2권 2책), 京城: 宋柱憲家, 1942. 권상에 송규현이 박원동에게 보낸 편지 1편이 「答朴德英(元東)」(張6)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권하에 완하당 박수량의 묘표인 「江陵朴公墓表」(張59~60)가 수록되어 전한다.

190) 현재 삼가 박수량을 기리는 생정비각은 쌍한정 곁에 자리하고 있으며 윤용구가 쓴 편액이 걸려 있다. 이규대·임호민 공편, 『江陵의 樓亭資料集』, 「13. 雙閑亭」, 강릉문화원, 1997, 239~245면.

이에 앞서 박원동은 1928년 11월 24일자로 고양(高陽) 송인면(崇仁面) 석천(石村)에 사는 윤용구에게 편지를 보내 글씨를 부탁한 바 있었다. 편지에서 아들 용갑이 종이를 가지고 찾아볼 것이라 적었다.<sup>192)</sup>

여름에 석농 오진영의 편지와 「시호기(詩湖記)」가 우편으로 왔다.<sup>193)</sup>

11월 남간영당(南澗影堂) 영건(營建) 유사에 위촉되는 망첩을 받았다.<sup>194)</sup>

남간정사(南澗精舍)<sup>195)</sup>는 우암 선생이 독서하던 곳인데, 『송자대전』 각판(刻板)을 보관해 두는 한편 영정을 봉심하기 위해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 ○ 1935년(을해) 63세

봄에 서선향교(西鮮鄉校)<sup>196)</sup>를 시찰하였다.<sup>197)</sup>

이때 박원동은 강릉향교의 직원(直員)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경학원과 평양·재령 문묘의 제기(祭器)가 매우 청결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돌아와 강릉문묘의 제기고(祭器庫)를 중수하고 제기를 수리하였다. 경학원 명륜당(明倫堂)의 편액 대자(大字)는 주자(朱子)의 글씨이다. 그 글씨를 모사하여 가지고 와서 본향의 명륜당에 걸었다. 죽편(竹籩)을 구입하여 제기를 갖

191) 『시호거사일기』 책3, 1934년 3월 9일~29일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박원동은 3월 9일에 완하당행록과 삼가당행록을 약기(略記)하고 11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송규헌을 만나 완하당과 풍은공 묘표 승낙을 받았다. 13일에 윤용구를 찾아가 생정비각과 오사재의 편액 글씨를 부탁하였으며, 14일 김영한을 찾아가 생정비각기문과 삼락당묘표 승낙을 받았다. '생정비각'은 애초에 '어제비각(御製碑閣)'으로 써 달라고 윤용구에게 부탁을 하였으나, 김영한·송규헌과 상의해 본 결과 '생정비각'이라 하는 게 온당하다고 하여 윤용구에게 다시 써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때 박원동은 윤용구에게 글씨를, 김영한에게 기문과 묘표를 직접 받아 강릉으로 가지고 왔으며, 송규헌의 완하당묘표는 4월 24일 우편으로 받았다.

192) 『시호척독』, 「上尹判書用求(十一月二十四日)」, 540~541면. 원주에 “高陽崇仁面石村”라 되어 있는데, 원래는 ‘楊州’로 썼었다가 지우고 ‘高陽’으로 고쳐 썼음.

193) 『시호거사일기』 책3, 1934년 6월 10일자에 음성 오진영의 편지와 함께 「시호기」가 왔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때 받은 「시호기」는 오죽헌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오진영의 문집인 『석농집』 권2에도 「시호기」가 수록되어 전한다.

194) 『시호거사일기』 책3, 1934년 11월 7일자에 대전군 남간영당(南澗影堂) 영건(營建) 유사에 위촉되는 망첩을 받았는데 총재는 송두헌(宋斗憲)이 맡았다는 기록이 보인다.

195) 남간정사(南澗精舍)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에 있는 조선 중기의 별당건축으로 우암 송시열이 강학하던 곳이다.

196) 서선향교(西鮮鄉校) : 관서 지역에 소재한 향교를 말한다. 일제가 조선을 중선(中鮮), 서선(西鮮), 북선(北鮮), 남선(南鮮), 제주도(濟州島)의 5개 지역으로 나누었는데, 서선은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을 말한다.

197) 『시호거사일기』 책3, 1935년 2월 21일~29일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박원동은 향교의 직원으로서 군수의 허락을 득하고 관련 비용의 지원을 받아 경성을 거쳐서 평양·재령·해주향교를 두루 돌아보았다.

추고 위판(位版)을 올려놓는 의자를 개조하고 위판을 넣어두는 함을 개칠(改漆)하였다.

○ 1936년(병자) 64세

봄에 세보(世譜)를 교정하고 세고(世稿)를 증보하였다.<sup>198)</sup> 발문이 있다.

『강릉박씨세보』의 서문은 동강 김영한이 지었으며, 발문은 박원동은 지었다.<sup>199)</sup>

박원동이 편찬한 이 세보는 이듬해인 1937년 강릉의 강릉박씨대동보소에서 신연활자본 7권 7책으로 간행되었다. 1899년에 송병선(宋秉璿)이 지은 서문과 박성문(朴性玫)이 지은 발문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sup>200)</sup>

한편 『강릉박씨세고』는 1907년 박원동 등이 편찬하여 목활자본 1책으로 간행하였는데, 이 해 증보를 해서 신연활자본 1책으로 간행을 하였다.<sup>201)</sup> 이 책의 발문 역시 박원동이 썼다. 증보 사항은 시 27수, 사(詞) 2수, 부록으로 시 11수, 서찬(書贊) 2수, 비문 8수, 기서(記序) 6수, 축문(祝文) 7수 등을 더 찾아내어 분류하여 구분에 삽입한 것이다. 또 구본에서는 부록으로 명(銘)과 기(記)를 1편으로 합쳤었는데, 2편으로 나누었다.<sup>202)</sup> 박원동은 세고 편찬의 의의와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조의 시문을 취할 때 많이 모으는 데에 힘쓰지 않고 핵심이 되는 것만을 취하였다. 이런 까닭에 선조들 중에 유고가 없으면 문장 하나라도 반드시 기록을 하였고, 유고가 있으면 번다한 것은 덜어내고 핵심만 기록을 하였다. 몇몇 문장은 세대와 생년에 따라 이어서 편집을 하였으니, 세고(世稿)를 편찬하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시문을 선별할 때 세대를 고려하여 마땅히 제한을 하였다. 이런 까닭에 신라고려의 선조에서 시작을 해서 조선의 정조 연간에서 멈추었으며, 그 이하는 후대의 군자가 속고(續稿)를 편성하여 이 세고를 윤색해 주기를 바라며 남겨두었다. …… 우리 집안의 선조들이 전수해준 심법(心法)과 우리나라 현인들이 중요한 연원이 모두 세고의 시문에 실려 있으니, 이는 곧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이어온 도를 꿰는 그릇이라 할 것이다.<sup>203)</sup>

198) 『시호거사일기』 책3, 1936년 2월~윤3월에 관련 내용이 다수 보인다.

199) 『시호거사문고』, 『世譜跋』, 125면.

200) 『강릉박씨세보』는 1937년에 신연활자본 7권 7책으로 간행되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江陵朴氏世譜』, 江陵 : 江陵朴氏大同譜所, 1937.(表題: 江陵朴氏璿源世譜) 1936년 김영한이 지은 서문과 박원동이 지은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201) 박원동이 편찬하여 1937년에 간행한 『강릉박씨세고』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江陵朴氏世稿』, 朴起東 編, 鉛活字本(1冊), 江陵, 1937.(跋: 丙子(1936)...朴元東[觀雪堂四十九世孫])

202) 『시호거사문고』, 『世稿跋』, 133면.

203) 박원동, 『世稿跋』, 『시호거사문고』, 134~135면. “凡詩文之取, 不在務多, 必取其要義. 故列祖之無遺

3월 남간정사(南澗精舍) 유계(儒契) 지방유사에 위촉되는 망첩이 왔다.<sup>204)</sup>

윤3월 4일에 둘째 아들 용을(容乙)의 상을 당했다.<sup>205)</sup>

고성(高城)의 금용조합에 재직하였는데 병이 나서 집에 돌아와 있었다.

6월 5일 손자 창규(昌奎)가 태어났다.

○ 1937년(정축) 65세

봄에 삼락공의 묘표석(墓表石)을 세웠다.

묘표는 동강 김영한이 찬하였다.

울곡선생 400주년 기념제에 고축문(告祝文)을 작성하였다.<sup>206)</sup>

○ 1938년(무인) 66세

2월에 숙제(叔弟) 광동(光東)의 상을 당하였다.

봄에 충렬공(忠烈公, 박제상)의 사당을 건립하는 일로 영해(寧海)에 갔다.<sup>207)</sup>

충렬공서원은 예전에 영해의 운계(雲溪)에 있었는데 1868년 훼손된 후 지금 다시 건립하는

---

稿, 則雖一章之傳, 必錄之; 有遺稿, 則省繁而略錄. 其數章循世甲而聯編之, 世稿之義此也. 且詩文之選, 考其世代, 宜有限制. 故起自羅麗之列祖, 至國朝正宗朝而止, 下此則留俟後君子踵成續稿而潤色之也. …… 是吾列先祖相授之心法, 東邦諸賢之從遊淵源, 皆載此篇, 卽吾家世世貫道之器也.”

204) 『시호거사일기』 책3, 1936년 3월 26일자에 망첩을 받았다는 기록이 보인다.

205) 『시호거사일기』 책3, 1936년 윤3월 4일자에 용을의 생애와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기록되어 있다. 다음의 마지막 구절은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애절한 심정이 절절하다. “이렇게 살다 일찍 갈 것이라면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나왔다. 집안사람들이 모두 통곡을 하는데 내 입에는 곡소리 하나 없고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는데 내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네. 부자 간의 정이 이미 끊어져서 그러한 것인가.[如此人生, 反不如不生世之愈也. 家衆皆哭, 而余口無一聲哭; 衆皆淚, 而余眼無一滴淚, 則父子情已絕而然歟.]”

206) 『시호거사문고』, 「栗谷先生記念祭祝文」, 231면. 『시호거사일기』 책3, 1937년 1월 17일에 군청의 요청을 받고 울곡선생 기념제 축사를 지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에 앞서 1월 8일에 군청의 교화 주사 권영기가 울곡 선생 400년 기념제를 장차 거행하려고 울곡 선생과 사임담의 고적을 조사하는 일로 박원동 집을 찾아와 사임당행장 및 포도화 내력을 등사해 가기도 하였다.

207) 『시호거사일기』 책3, 1938년 1월 21일~30일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박원동은 영해의 종인 박건호(朴建鎬)와 박문호(朴文鎬)를 만나 충렬공 묘우 건립 문제를 상의하였다. 영해의 운계서원이 훼손된 후 재실을 건립하여 어제각 유판(遺板)과 서원에 있던 유물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토지를 모두 팔아 사정이 어려우므로 결국 강릉에 묘우를 건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일로 영해의 종인(宗人)을 찾아가 의논하니, 강릉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가을에 풍은공 묘표석을 세웠다.

묘표는 노탄 송규현이 찬하였다.<sup>208)</sup>

송담서원 관리(管理)에 추천되는 망첩을 받았다.<sup>209)</sup>

박원동은 이후 1947년까지 송담서원 관리인을 맡았다.<sup>210)</sup>

### ○ 1939년(기묘) 67세

봄에 경양사(鏡陽祠)<sup>211)</sup>를 건립하였다.<sup>212)</sup>

경양사 건립을 추진한 것은 이미 여러 해 되었으나 이루지를 못하다가 세보를 간행하고 남은 자금으로 건립하게 되었다. 건립하게 된 사실을 계판문(揭板文)에 기록해 두었다.<sup>213)</sup>

208) 宋奎憲 著; 宋柱憲 編, 『史謂遺稿』(石版本 2권 2책, 京城: 宋柱憲家, 1942. 권하에 박원동의 아버지 풍은 박증혁 묘표인 「풍은박공묘표(楓隱朴公墓表)」(장47~48)이 수록되어 있다.

209) 박원동이 송담서원의 관리인에 피선된 것은 한 해 전인 1937년 4월이었다. 『시호거사일기』 책3, 1937년 4월 2일자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오봉서원·유천영당·송담서원·향현사 등 원우 4곳의 관리인을 선정하는 유희(儒會)가 향교 명륜당에서 개최되었다. 오봉서원에는 권인식이, 유천영당에는 심상덕이, 송담서원에는 박원동이, 향현사는 김병경이 각각 피선되었으며 십여 인이 연서하여 군청에 보고하였다. 관리인은 3년마다 교체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210) 『시호거사일기』 책5, 1947년 2월 16일자에 박원동은 송담서원 관리인을 사면하였으며, 유림이 논의하여 이 이후로는 관리인을 두지 않기로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한편 『시호연명록』, 「송담서원(松潭書院)」, 699면에 무인년(1938)부터 계미년(1943)까지의 송담서원 관리인(管理人) 및 유사(有司) 명단이 있다. 무인년(1938) 관리인은 박원동이고 유사는 이한용(李漢鎔)과 최승규(崔升圭)이며, 기묘년(1939) 관리인은 역시 박원동이고, 유사는 김의남(金儀南)과 신기환(曹璣煥)이다. 경진년(1940) 유사는 이원응(李元應)과 신정묵(申鼎默)이고, 신사년(1941)은 김남선(金南鎭)과 정문화(鄭文和)이고, 임오년(1942)은 김봉경(金鳳卿)과 최경섭(崔景燮)이고, 계미년(1943)은 조병동(曹秉棟)과 심달섭(沈達燮)이었다.

211) 경양사(鏡陽祠) : 강원도 강릉시 저동에 있는 신라의 대야찬 박제상의 위패를 모신 사당. 1939년 박씨 중중에서 성금을 출연하여 건립되었다. 사당의 전면에는 '경양사(鏡陽祠)'라는 현판과 '경양사기(鏡陽祠記)'가 걸려 있다. 내부에는 박제상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숙종대왕어제시(肅宗大王御製詩)'와 '정종대왕어제시(正宗大王御製詩)'가 같은 판액에 음각되어 걸려 있다. 내삼문 밖에는 좌측으로 '모선재(慕先齋)'라는 현판이 걸린 재실(齋室)이 배치되어 있고, 재실 내에는 '경포재청중건기(鏡浦齋廳重建記)', '경포재실중수기(鏡浦齋室重修記)', '경양사중건기(鏡陽祠重建記)' 등의 현판이 걸려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경양사'조

212) 『시호거사일기』 책4, 1939년 1월~6월에 관련 내용이 다수 기록되어 있다. 1월 16일에 초석을 놓고 21일에 상량을 하였으며, 6월 4일에 준공을 하였다. 6월 4일 일기에는 공사 내역과 소요 경비가 자세히 적혀 있다.

213) 『시호거사문고』, 「鏡陽祠位土事通函于同貫諸族」, 146면; 「通告于寧海派各郡居族」, 147면; 「鏡陽祠記」, 148면.

○ 1940년(경진) 68세

2월에 송규헌(宋奎憲)의 노탄집(老灘集) 간행소에서 통문을 보내왔다.<sup>214)</sup> 그 후 송주헌(宋柱憲)과 김창근(金昶根)이 노탄 문집을 간행하는 일로 내방하였다.<sup>215)</sup>

6월에 참동계(參同契)에 승입(承入)하였다.<sup>216)</sup>

참동계는 본래 약국계(藥局契)인데 11대조가 계를 창립하여 대대로 승입(承入)하였다. 증조고에 이르러 승입하지 않다가 이때 승입하게 되었다.<sup>217)</sup>

○ 1941년(신사) 69세

6월에 서울로 올라가 선조 단천공묘갈문(端川公墓碣文)을 동강 김영한에게 받았다.<sup>218)</sup>

당시 아들 용갑이 몸에 병이 있어 함께 서울로 가서 경성고등의원에서 진찰을 받았다.

가을에 강호시사(江湖詩社)를 창립하였다.<sup>219)</sup>

시사의 창립에는 박원동을 비롯하여 최돈성(崔燾性), 정석화(鄭錫和), 김병환(金秉煥), 조삼환(曹三煥), 신진묵(申晉默) 등 19인이 참여하였다.<sup>220)</sup>

214) 『시호거사일기』 책4, 1940년 2월 30일자에 노탄집 간소에서 통고문이 왔는데 송재은(宋在殷)이 전3책으로 출간하려고 한다는 기록이 보인다. 박원동은 이 통문에 대한 답통을 이듬해인 1941년 2월에 노탄집간소에 보냈다. 『시호척독』, 「答老灘集刊所書(辛巳二月日)」, 608면. 한편 송규헌의 문집은 송주헌이 1942년 석판본 2권 2책으로 간행을 하였는데 서명은 '사위유고(史謂遺稿)'이며 서문은 1927년 윤희구(尹喜求)가 썼다. 宋奎憲 著; 宋柱憲 編, 『史謂遺稿』(石版本 2권 2책), 京城: 宋桂憲家, 1942.

215) 이듬해인 1941년 3월의 일이다. 『시호거사일기』 책4, 1941년 3월 7일·14일자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216) 박원동은 참동계에 승입하기 전에도 모임에 참석을 하고 있었다. 『시호거사일기』 책1, 1926년 4월 13일자에 종제 현동(顯東)이 참동계를 행하여 가서 참석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참동계는 본래 약국계로 11대조 휘 인순(仁淳)이 창설하고, 6대조 휘 민천, 고조 휘 돈화(敦華)가 계승하여 참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217) 『시호만음』에 참동계의 시첩에 붙인 제시(題詩)가 수록되어 있다. 『시호만음』, 「題參同契詩帖」, 432면.

218) 『시호거사일기』 책4, 1941년 3월 8일, 5월 6일·21일, 6월 11일에 관련 기록이 보인다. 김영한이 근래 갈문(碣文)을 일체 사절한다고 하여 선조 단천공묘갈문(端川公墓碣文)을 요청하기가 난감하였으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부탁을 하였다. 그 후 박원동은 5월 6일에 단천공행록을 찬하여 21일에 김영한에게 보냈다. 6월 큰아들 용갑이 경성고등의원 진찰을 받으러 갈 때 함께 서울에 가서 6월 11일 번리의 김영한을 찾아가 단천공묘갈문을 받았다.

219) 『시호거사일기』 책4, 1941년 10월 7일자에 읍내에서 열린 강호시사에 참석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 후로 1947년 8월 29일까지 강호시사에 참석했다는 기록이 많이 보인다.

220) 『시호연명록』, 「江湖詩社(辛巳創社)」, 699면.



강호시사는 강릉 읍내에서 첫 모임을 가졌으며 이후 주기적으로 회원의 집을 돌아가며 시회를 열었다.<sup>221)</sup>

12월에 청주의 유림에게 답서를 보냈다.<sup>222)</sup>

우암선생신도비는 정조의 어제(御製) 어필(御筆)인데 세월이 오래되어 비각이 기울어 무너졌다. 이를 중건하는 일로 앞서 송빈헌(宋斌憲)이 편지를 보냈고 후에 청주 유림의 통문을 보냈다.<sup>223)</sup> 이에 강릉의 동지들이 100여 원을 수금하여 답통을 보냈다. 청주 유림에게 보낸 답통은 박원동을 필두로 하여 김의남(金儀南), 권오석(權五錫), 심동경(沈東慶) 등의 명의로 보냈다.<sup>224)</sup>

### ○ 1942년(임오) 70세

봄에 송담서원 다례(茶禮) 의식을 개정(改定)하였다.<sup>225)</sup>

전에는 지주(紙主)로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은 이미 영정에 제사를 올리므로 마땅히 사변두(四籩豆) 의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진설도(陳設圖)와 흘기(笏記)를 개정하고 그 사실을 흘기첩(笏記帖) 말미에 기록하였다.<sup>226)</sup>

승덕전 봉성계(崇德殿奉誠契) 취지서가 왔다.

경주 승덕전 참봉 박화준(朴華準)이 승덕전 앞에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인하여 능에 담장을 넓게 세우려는 목적으로 승덕전 봉성계(崇德殿奉誠契)를 결성하고 그 취지서를 편지와 함께 관동 일대에 보내왔다. 편지에서 관동 일대는 박원동만 믿는다고 운운한 까닭에 관동지역 남북의 여러 족인들을 권유하여 계에 가입하게 하고 수금해서 보내달라고 하였다.<sup>227)</sup>

221) 『시호만음』, 「江湖吟社(會于邑)」, 428면.

222) 『시호거사문고』, 「答通淸州儒林」, 157면.

223) 『시호거사일기』 책4, 1941년 10월 6일자에 우암신도비각 중건을 청조하는 통문과 함께 송빈헌의 편지가 동봉되어 왔다는 기록이 보인다.

224) 『시호거사일기』 책4, 1941년 10월 28일, 11월 20일, 12월 13일·14일에 관련 기록이 보인다. 강릉 유림은 우암신도비각 중건 의연금을 모금하는 일로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12월에 청주 유림에게 답통을 보냈는데 의연금을 낸 16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의연금 105원 중에서 송금료 1원을 제하고 104원을 보냈다고 한다.

225) 『시호거사일기』 책4, 1942년 2월 20일, 3월 6일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박원동은 송담서원 관리인으로서 2월 20일 송담서원의 다례 흘기 및 진설도를 개서하였다. 송담서원에서 영정을 불안하여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마땅히 사변두를 갖추어 의식을 진행해야 하므로 개정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3월 6일에는 개정된 제의에 따라 4번(籩)과 4두(豆) 예식으로 다례를 거행하였다.

226) 『시호거사문고』, 「題松潭書院茶禮笏記後」, 163면.

여름에 향현사를 중수하였다.

정월 25일에 향현사에 화재가 발생하여 유금(儒金)을 모아 중수하였다.<sup>228)</sup> 박원동이 지은 「유금록서문」이 있다.<sup>229)</sup>

가을에 소현서원(紹賢書院)<sup>230)</sup> 유계(儒契) 찬성유사(贊成有司)에 위촉되는 망첩을 받았다.<sup>231)</sup>

율곡 선생의 종손 교리 이종문(李種文)<sup>232)</sup>이 강릉을 내방한 뒤 돌아가 통문을 보내왔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석담(石潭)의 소현서원은 오로지 주자를 모시고 정암 조광조,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우계 성혼, 사계 김장생, 우암 송시열 여섯 선생을 아울러 모시는 곳입니다. 불행하게도 중간에 훼손되었으나 지금 다시 제향(祭享)하려고 특별히 유계(儒契)를 설립하여 이에 윤고(輪告)하는 바입니다.”

## ○ 1943년(계미) 71세

정월 송병황(宋秉煊)에게 답서를 보냈다.<sup>233)</sup>

과암(果菴) 송덕상(宋德相)<sup>234)</sup>은 홍국영(洪國榮) 사건으로 무고를 당해 죽었다. 5대손

227) 『시호척독』, 「答朴華準(崇德殿參奉)(八月十六日)」, 615면.

228) 『시호거사일기』 책4, 1942년 1월 25일·28일, 2월 1일·19일, 5월 10일·29일에 관련 기록이 보인다. 화재의 원인과 피해 상황, 향현사 중수 관련 회의, 공사비용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박원동은 1월 28일 향현사 관리인 및 유사 통지서를 받고 공사비용 마련을 위해 의연금을 모금하는 한편 중수 공사를 감독하였다.

229) 『시호거사문고』, 「鄉賢祠重修儒金錄序(壬午)」, 161면.

230) 소현서원 : 황해남도 벽성군 고산면에 있었던 서원. 1578년(선조 11)에 주자의 영정을 배향하는 은병정사(隱屏精舍)로 창건되었으며, 1610년(광해 2)에 '소현'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그 뒤 조광조·이황·이이·성혼·김장생·송시열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서원철폐령으로 1871년(고종 8)에 훼손되어 복원하지 못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소현서원'조)

231) 『시호거사일기』 책4, 1943년 2월 12일자에 해주 소현서원에서 유계 유사 망첩이 왔다는 기록이 보인다. 『시호연기』의 기록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시호거사일기』 책4, 1942년 9월 11일자에 황해도 해주에서 온 율곡의 사손 교리 이종문(李種文)을 만나 보았는데, 소현서원 중건을 위한 유계를 결성한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때 이종문은 박원동에게 유사를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232) 이종문(李種文, 1868~?) : 조선 말기의 문신. 본관은 덕수, 자는 경박(景博), 거주지는 해주. 1885년(고종 22)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11위(21/46)로 합격하였다.<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과거 및 취재의 '이종문'조

233) 『시호척독』, 「答宋秉煊(癸未正月小晦)」, 616면.

234) 송덕상(?~1783) : 본관은 은진, 자는 숙함(叔咸), 호는 과암(果菴). 송시열의 현손. 1753년(영조 29)



송병황(宋秉煥)이 신원하고 문집을 간행하였는데<sup>235)</sup>, 문집 7책 1질을 보내면서 편지도 함께 보냈다.<sup>236)</sup>

○ 1944년(갑신) 72세

5월 송담서원 비각을 건립하는 일로 고을의 유림에게 통고(通告)하였다.<sup>237)</sup>

앞서 고을에서 100인이 부천(副薦)되었으며 이때에 이르러서 함께 일을 맡아 같이 진력하였다.<sup>238)</sup>

○ 1945년(을유) 73세

10월 송담서원 비각이 완공되었다.

유금으로 영건 비용을 충당하였는데 중간에 정지되는 일이 있었으나 이때 이르러 준공되었다.<sup>239)</sup> 박원동은 상량문을 지었다.<sup>240)</sup>

좌의정 이천보(李天輔)의 천거로 세자익위사세마(世子翊衛司洗馬)에 임명되었다. 정조가 즉위한 뒤 홍국영(洪國榮)의 뒷받침으로 1776년 동부승지·이조참의 등을 거쳐, 1779년 이조판서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 해 홍국영이 실각하자 삼수부(三水府)에 안치되었다. 그 뒤 왕위계승에 대하여 올린 상소에 흉역(凶逆)의 뜻이 있다 하여 옥에 갇히고 많은 유생의 공격을 받았다. 결국 노론벽파(老論僻派)로 몰려 죽었다. 저서에 『과암집』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송덕상'조)

235) 송덕상의 문집인 『과암집(果菴集)』은 1942년 송병황이 도림정사(道林精舍)에서 목판본 15권 7책으로 간행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宋德相(朝鮮) 著 ; 宋秉煥(韓國) 編, 『果菴先生文集』(木版本 15卷 7冊), 道林精舍, 昭和17年(1942). 刊記: 昭和十七年(1942)五月二十日發行.

236) 『시호거사일기』 책4, 1942년 1월 6일자에 송병황이 보낸 편지와 함께 『과암문집』 7권을 받았다는 기록이 보인다. 박원동은 송병황을 만난 적이 없는데 뜻밖에도 문집을 보내주었으니 참으로 우연이 아니라고 하였다.

237) 『시호거사일기』 책5, 1944년 5월 22일자에 박원동이 송담서원 관리인으로서 비각 건립을 위한 통고문을 작성하여 유림에게 찬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238) 『시호거사문고』, 「松潭書院發起文」, 165면.

239) 『시호거사일기』 책5, 1944년 윤4월 20일~1945년 10월 28일에 관련 기록이 산견된다. 1944년 7월 18일자에 경찰서에서 송담서원 비각 건립과 관련하여 각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금을 금지시켰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 후 1945년 8월 해방 이후에 다시 각 면의 수금이 속게 되었으며 10월 8일에 상량을 하고 10월 28일에 준공을 하였다.

240) 『시호거사문고』, 「松潭書院廟庭碑閣上樑文」, 237면.

○ 1946년(병술) 74세

정월 23일에 용정의 아들 동규(東奎)가 태어났다.

7월에 풍호정(楓湖亭)<sup>241)</sup>이 완성되었다.

집안 대대로 풍호(楓湖)에 거주하여 장차 이를 기념을 하고자 여러 해 정자를 세우려고 하였는데 이제 비로소 완공하였다.<sup>242)</sup> 연전에 석촌(石村) 윤용구(尹用求)가 ‘풍호정(楓湖亭)’ 세 글자의 편액과 주련(柱聯) 등을 써 주어 계판(揭板)하였다.<sup>243)</sup>

한편 박원동은 이듬해인 1947년 4월 28일에 지인을 초대하여 풍호정 낙성을 기념하는 시회를 개최하였다.<sup>244)</sup> 이때 엮은 시첩(詩帖)이 현재 전하고 있다.<sup>245)</sup>

다음은 박원동이 지은 풍호정 시이다.

241) 풍호정(楓湖亭)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에 있었던 정자. 풍호(楓湖)는 경호(鏡湖)와 함께 명승지로 널리 알려진 석호이다. 풍호는 화력발전소 회탄지로 활용되면서 거의 매립되어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고, 풍호정 역시 관리가 소홀하여 거의 허물어진 상태로 터만 남아 있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강릉)> ‘풍호정’조)

242) 『시호거사일기』에는 1930년 5월 29일자에 풍호정 건립과 관련된 기록이 처음 나온다. 촌약계(村約契)에서 적립금 1천 2백 원 내에 풍호정 건축 비용을 충당하기로 결의하고 6월 16일에 박원동은 촌약계원 수십 인과 회동하여 터의 매입과 정자의 규모, 건축비용 등을 협의하였다. 6월 26일에 4칸 반에 기와를 얹는 것으로 440원에 목수 최창집(崔昌集)·조연환(曹連煥)과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적당한 터가 매입되지 않아 실제 착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뒤 1946년 2월 6일에 조창조(趙昌祖)가 자신의 전기답(田起畓: 모내기 하려고 갈아 덮은 논)을 굴토하고 남은 땅을 풍호정 터로 무료로 허여하는 증서를 작성하였다. 박원동은 7월 16일에 축문을 지어 고유하였다. 22일에 초석을 놓고 28일에 상량을 하고 8월 15일에 기와를 덮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듬해인 1947년 윤2월 13일에 돌계단을 놓고 정자 주변의 조경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박원동이 지은 상량문과 제시(題詩)를 각각 계판하였다. 풍호성 낙성식은 박원동의 생일인 1947년 4월 28일에 지인들을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243) 『시호거사문고』, 「楓湖亭開基事由文(丙戌七月十六日)」, 239면; 「楓湖亭上樑文(丙戌七月二十八日庚午)」, 239면.

244) 『시호거사일기』 책5, 1947년 4월 28일자에 관련 기록이 보인다. 이날은 박원동의 생일로 풍호정 낙성식을 겸하여 손님 1백여 명을 초청하였는데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풍호정 시운에 따라 박원동과 참석한 사람들을 시를 짓고 시첩을 엮었다.

245) 『楓湖亭詩』(필사본 1책)이 오죽헌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전한다. 첫 장에 ‘풍호정시(楓湖亭詩)’라는 제목과 함께 “檀紀四二七九年丙戌秋七月日成造, 翌年丁亥夏四月二十八日讌而落之”라는 원주가 있다. 이 시첩에는 박원동이 지은 「풍호정시」를 필두로 박장실(朴長實), 박은실(朴殷實), 조삼환(曹三煥), 김병환(金秉煥), 최종해(崔鍾海), 권오석(權五錫), 조인환(曹仁煥), 김병시(金炳時), 김윤경(金潤卿) 등 박원동과 친분이 두터운 80여 명의 차운시가 수록되어 있다. 한편 말미에는 1957년 중간판 『강원도지』에 게재된 ‘풍호정’에 관한 원고(국한문 혼용)가 부기되어 있다.

풍호정

楓湖亭

풍호를 좋아하여 대대로 이곳에 살았는데  
 연꽃 핀 정자엔 주인도 없이 터만 남아 있네  
 우물에 단구가 남아있어 한가로이 단약 만들기 알맞고  
 개울에는 황어가 뛰어올라 늘그막에 고기 잡기 좋구나  
 집안엔 옛날 우복이 쓴 시<sup>246</sup>가 보관되어 있고  
 아들이 새롭게 석옹이 쓴 편액<sup>247</sup>을 걸었네  
 만년에 여기서 바둑 두고 술 마시며 시간을 보내니  
 선인들이 예전 세웠던 정자를 상상해 보네

自愛楓湖世接居 蓮亭無主只遺墟  
 井留丹臼閑宜鍊 灘躍黃魚老可漁  
 古蹟家藏愚相序 新容兒揭石翁書  
 晚年消遣携棋酒 像想先人舊結廬<sup>24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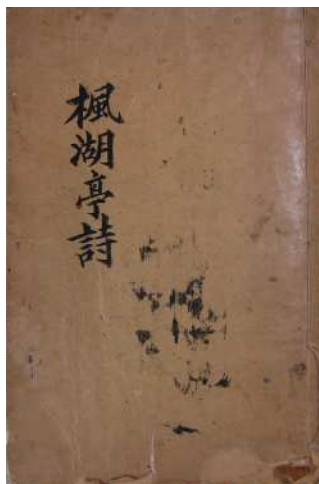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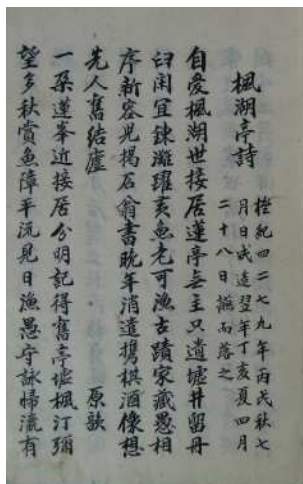
246) 우복이 쓴 시 : 우복 정경세가 지은 「풍호를 추억하며[憶楓湖]」라는 시가 『우복집』 권2에 전한다. 병서(并序)가 길게 있는데 여기서는 시만 제시한다.(번역은 정선용 역(2003)을 따름.)

한송정 남쪽 가는 바로 풍호 호수	寒松南畔是楓湖
눈앞 가득 퍼진 물결 가없어서 흐릿하네	極目平波遠有無
맑은 모래 가에다가 작은 초가 한 채 짓고	欲傍晴沙留小屋
염호들과 어울리며 어부 되면 좋겠다고	好隨鹽戶作漁徒
당시에 한 나의 이 말 괜히 한 말 아니거니	當時此語元非戲
늘어서도 당시 먹은 맘 저버릴 수가 없네	抵死初心未肯孤
유새에는 먼지 일고 내 몸 이미 늙었거니	榆塞又塵吾已老

【마지막 구절은 결락되어 없음.】

247) 석옹이 쓴 편액 : 풍호정의 편액은 석촌(石村) 윤용구(尹用求)가 썼다. 윤용구가 쓴 편액은 전하지 않으며, 다만 풍호정에 걸려 있던 시를 쓴 편액이 오죽헌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248) 박원동, 「楓湖亭」, 『시호만음』, 462면.



<그림 III-5> 『풍호정시』(오죽헌박물관 소장/박창규 기증)



<그림 III-6> 풍호정 계판시(오죽헌박물관 소장/박창규 기증)

- 1949년(기축) 77세  
3월 13일 졸하다.

### 3. 시대 인식과 현실 대응

1894년 갑오개혁으로 과거제는 폐지되었고 지역의 향교에서는 교육 기능이 정지되었다. 서구식 학제를 도입하여 서구의 학문을 가르치는 신식학교가 생겨났다. 강릉에서도 국립 소학교는 물론 동진학교(東進學校)와 같은 신식 사립학교가 설립이 되었다. 유교는 더 이상 국시(國是)가 아니었으며 지역사회에서 향교로 대표되는 제도권 내에서의 유교 교육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이는 향교를 거점으로 활동하였던 지역의 유림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강릉의 유림은 다양한 계 조직을 만들어서 활발하게 교류하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아울러 강회(講會)와 서당 교육을 통해 후학을 양성하고 유학의 정신을 이어나갔다. 박원동도 서세동점의 시대, 유학이 침강하는 시대를 안타까워하는 한편, 후학 교육을 통해 난세를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 다음은 박원동이 척숙(戚叔) 김준경(金濬卿)에 올린 편지의 일부이다.

대개 도가 드러나고 사라짐에는 또한 굴신(屈伸)의 이치가 있는 법입니다. 멀게는 저 삼대 이후로 전 국시대 칠웅이 번갈아 나타나 예약이 사라졌지만 유독 노나라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대시대에 이족이 중화를 혼란에 빠뜨려 먼지가 하늘을 덮었지만 송나라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참으로 양(陽)이 완전히 사라지는 법은 없다는 징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가 침략을 하고 사교(邪教)가 핍박을 함이 지금보다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유학은 어디에 기탁을 할 것이며 누구를 좇아 성현의 도를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후로 능히 가시덤불을 헤치고 띠를 쳐내며 바른 길을 찾는 이가 있다면 그를 좋을 만한 것입니다. 맹자께서 일찍이 “시대를 살펴보면 지금이 가능하다.<sup>249)</sup>”라고 하신 것이 지금 이 시대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는지요.<sup>250)</sup>

249) 시대를 …… 가능하다 : 맹자는 “500년마다 반드시 성군이 나오니, 그 사이에 반드시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자가 있다. 주나라 이래로 700여 년이 되었으니, 연수로 말하자면 지났고, 시기로 살펴보자면 지금이 가능하다.[五百年必有王者興, 其間必有名世者, 由周而來, 七百有餘歲矣. 以其數則過矣, 以其時考之則可矣.]”라고 하였다. (『맹자』 「공손추 하」)

250) 박원동, 『上金菊史(濬卿)』, 『시호척독』, 475면. “夫道之晦明否塞, 亦屈伸之理也. 遠自三代以後, 七雄迭盟, 禮樂掃地, 而獨魯存焉. 五季亂華, 塵穢滔天, 而有宋興焉, 是固陽無可盡之驗. 而今復六洲陸沈, 邪教逼人, 莫此之極, 未知吾道之所寄, 孰從而聽聞哉! 然茲以往, 有能爲披棘闢茅, 尋得正路者, 尚可及也. 孟子嘗謂‘考其時則可矣’者, 抑非今日之謂歟.”

김준경은 강학의 방법과 절차를 담은 흘기(笏記)를 서숙을 운영하는 박원동에게 참고가 될까 하여 전달하였다. 박원동은 이 흘기를 한 부 초록한 뒤에 원본을 김준경에게 돌려주며 편지를 쓰게 된 것이다. 박원동은 서세동점의 시대에 대한 한탄과 유자로서의 책임을 척숙 김준경과 공유하였다. 아울러 이처럼 어려운 시대에 김준경이 강학(講學)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박원동은 자신이 운영하는 서숙에서도 이 흘기에 의거하여 강경(講經)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박원동은 18세에 종가의 미촌재(美村齋) 거접(居接)에 선발되어 공부를 하고 19세에 중부(仲父) 박증학(朴曾鶴)을 따라 한성(漢城) 증광시(增廣試)에 응시하는 등, 사대부의 자제로서 과거를 통한 입신양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갑오개혁이 단행되기 직전인 1894년 2월의 경과(慶科)에 22세의 나이로 응시를 하였다. 과거제 자체가 폐지되자, 1899년 27세에 문창계(文昌契)에 참여하고 1902년 30세에 사우들과 강회계를 창립하며 공부를 이어나갔다.

그러다가 1902년 7월에 안변소학교 교원에 임명되어 교육자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안변소학교는 공립학교로서 교원은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운데에서 관립은 학부대신, 공립은 관찰사가 임명하였다. 소학교의 편제는 3년제의 심상과(尋常科)와 2~3년제의 고등과로 나누어 실제 수업연한은 5~6년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해주지 못하였으며, 일반 국민도 신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주로 한문 습득에 전력하였을 뿐, 이과(理科)에 관한 교육은 실시되지 않았다.<sup>251)</sup> 박원동 역시 안변소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쳤던 것이다. 그러나 이해 10월에 아내가 죽자 교원을 그만두고 돌아왔다.

1907년 35세 때 강릉 가자곡면(資可谷面)의 면장에 임명되었으나 누차 사직을 청할 정도로 관직에는 뜻이 없었다. 이때 강릉군 14개 면의 면장의 명단을 보면, 박원동과 교분이 있는 김윤경(金潤卿)이 사천면(沙川面), 이근우(李根宇)가 정동면(丁洞面), 조익환(曹益煥)이 남일리면(南一里面) 등의 면장으로 임명되었다.<sup>252)</sup>

25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소학교’조.

면장은 사직했지만 교육자의 역할은 놓지 않았다. 1909년 37세에 겨울철 농한기 때에 족형 박장실과 함께 농사짓는 아동을 불러 이웃의 서당에서 밤에 글을 가르쳤다. 1912년 40세 때에는 면장 김한탁(金漢卓) 요청에 따라 면숙(面塾)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박원동은 한문을 가르치고 김병시(金炳時)는 산학(算學)을 가르쳤다. 그러다가 1913년(계축) 41세 때 제자들이 점점 줄어들자, 이때부터 마침내 세상을 끊고 은거하며[潛居玩時] 생을 마칠 뜻을 먹게 되었다. 유학이 날로 위축되고 유림이 지역 사회에서 설 자리가 줄어들어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위기감과 좌절감은 박원동 혼자만의 것은 아니었다.

다음은 박원동과 동시대를 살았던 강릉의 유학자 심일수(沈一洙, 1877~1952)가 쓴 일기인데, 1908년 전후로 강릉에 서구식 신식학교가 설립됨에 따라 서당이 직면한 위기를 정리한 것이다.

- 1907년 8월 중순 : 사립학교가 정지되고 공립학교를 불허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서당의 학생들이 많  
이들 괴로워하였다.
- 1907년 8월 28일 : 사립학교를 향교로 옮기고 '화산학교(花山學校)'라 하였다.
- 1908년 2월 : 학교에서 서당을 탈취하고 서당의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였다. 이로 인해 가까운 고  
을의 서당이 일시에 해산하였다.
- 1908년 6월 10일 : 선교장에 비로소 학교를 설립하고 개교를 하였다.【이근우(李根宇) 설립 동진학교  
(東進學校)】
- 1908년 10월 20일 : 서당의 교사와 아동들의 이름을 적어갔는데, 내년 4월에 학생을 선발하여 학교  
에 입학시킨다고 하였다.
- 1908년 12월 22일 : 학교를 개교하는 문제로 전대청(殿大廳)의 전패(殿牌)를 옮겼다.
- 1909년 윤2월 9일 : 화산학교가 개교하였다.
- 1909년 4월 : 서당의 학생들은 각처로 분집(分集)하였고 서당은 모두 문을 닫았다.<sup>253)</sup>

252) 『시호연명록』, 「面長同住錄(郡守李在華, 稅務官黃哲. 執綱從今爲面長)(丁未)」, 695면.

253) 沈一洙, 「日記」, 『遯湖遺稿』 卷1, 江陵: 檄祿書屋, 1961. 심일수는 강릉 지역의 유학자로 일제강점기에 전통 서당식 교육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의 문집인 『둔호유고(遯湖遺稿)』 '잡저(雜著)'에는 1905년부터 1950년대까지의 일기가 수록되어 있어 한말~일제강점기 강릉 사회를 이해하는 도움이 된다.



강릉에서 서당을 운영하던 유림은 서당이 학부의 인가를 받지 못해서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였다. 통감부는 1908년 <사립학교령>을 공포하여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학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폐교할 수 있게 하였다. 다행히 서당은 <사립학교령>의 예외를 인정받으면서 강제 폐교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그런데 학생들이 서당을 떠나 신식학교에 입학하면서 서당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박원동 역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좌절과 고민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시호연기』를 보면 1914~1915년까지 2년 남짓한 기간 동안의 행적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시호문집』에 영인 수록된 시문집에도 1914~1915년 사이에 지어진 글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박원동 자신에게는 고민과 모색의 시간이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1916년 봄에 벅들과 금강산 유람을 다녀 온 후 강회나 향교·원우의 행사에 참석하는 등 지역 유림 사회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박원동은 난세를 살아가는 유자로서 끊임없이 출처에 대해 고민을 하였다. 『시호만음』에는 ‘술회(述懷)’, ‘서회(敘懷)’, ‘유감(有感)’ 등의 제목이 붙은 시가 몇 편 보인다. 박원동은 이들 시에서 출처에 대한 고민을 솔직하게 드러내었다.

① 술회(述懷)

모여 앉아 파초에 떨어지는 빗소리 들으며 평생을 말하노니  
바닷가 고을에 가을 소리가 밀려와 그리운 마음을 일으키네  
유래 없이 무더운 여름이더니 서늘한 계절이 이르고  
며칠 째 자욱한 먹구름 끼더니 밝은 햇빛이 뚫고 나오네  
마음에 촛불을 잡고 우리의 도를 탐구하리니  
꿈속에서도 책을 품고 도성으로 들어가네  
만년은 시골구석 호숫가서 편안히 지내는 게 최고니  
저 옛날 영광은 작은 배를 타고 건너갔다고 하네  
坐聽蕉雨話平生 海國秋聲起遠情  
暑莫前年涼節至 雲何長晦漏陽明  
心中秉燭求斯道 夢裏懷書入帝城  
晚計最安湖一曲 永郎古渡小舟橫<sup>254)</sup>



② 유감(有感)

누가 강태공이 되고 싶고 누가 허유가 되고 싶은가  
 한 평생의 출처는 마음속 생각에 달려 있는 것이라네  
 부귀가의 변화한 거리에 꽃 사이의 말  
 밝은 달과 푸른 물결에 일엽편주  
 의사는 혼탁한 시대에 명예를 이루고  
 문장은 오늘 가을날 늙음을 한탄하네  
 때를 만나기 어려우니 먼저 내 생각을 말하고  
 시 짓는 자리에서 운자를 뽑아 화운하길 청하네  
 孰欲太公孰許由 一生出處在心籌  
 紅塵錦陌花間馬 明月滄浪葉小舟  
 義士成名清濁世 文章惜老古今秋  
 逢時難易述先占 請看詩筵韻籤抽<sup>255)</sup>

『시호만음』이 창작 시기 순으로 편제된 것을 고려해 볼 때, ①은 1922년 50세경에 지은 것이고, ②는 1925년 53세 때 지은 시이다. 「술회(述懷)」의 원주에는 “장맛비가 잠깐 개어 거사의 집에 모였다.[霖雨乍晴，會居士家.]”라고 되어 있다. 아마도 벗들이 박원동의 집에 모여 각자 자신의 마음속 생각을 풀어놓았던 듯하다.

①의 5·6구에서 “마음속에 촛불을 잡고 우리 유도를 탐구하리니, 꿈속에서도 책을 품고서 도성으로 들어가네.”라고 하며, 유학을 정진하여 세상에 나가 도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그러나 이는 한 밤의 꿈과 같은 일이며 현실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하여 7·8구에서 “만년은 시골구석 호숫가서 편안히 지내는 게 최고니, 저 옛날 영광은 작은 배를 타고 건너갔다고 하네.”라고 하며, 시골에서 조용히 은거하는 것으로 자신을 위로하였다.

②에서는 1·2구에 강태공과 허유를 언급하며 보다 직접적으로 출처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강태공은 위수 가에 은거하고 있다가 주나라 무왕에게 발탁되어 그를 도와

254) 박원동, 「述懷(霖雨乍晴，會居士家)」, 『시호만음』, 263면.

255) 박원동, 「有感」, 『시호만음』, 288~289면.

은나라 주왕을 정벌하고 주나라를 건국하는 데에 공을 세웠던 인물이다. 허유는 요 임금 때의 고사(高士)로 요임금이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자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며 영수 가에서 귀를 씻었다는 고사가 있다. 곧 강태공은 출세(出世)를, 허유는 은거(隱居)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출처에 대한 고민은 3·4구에서 부귀한 삶과 자연 속에서의 삶을 대비시키는 것으로 이어 받았다. 5·6구에서는 혼탁한 시대 의사(義士)로서의 삶을 열망하면서도 늙어버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였다.

박원동은 출처에 대한 고민 속에서도 지역사회에서 유자로서의 책무를 감당하였다. 1921년 49세의 늦은 나이에 간재 전우의 문하로 들어간 이후에 1920년대 중반 송자대전 중간과 간재사고 간행을 시작으로 강릉의 유교문화 유산의 정리와 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박원동은 유학을 재건하여 세상의 병폐를 치유해야 한다는 유자로서의 우환의식은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1929년 57세에 지은 「임선명에게 주다[贈林善明]」의 일부이다.

아! 지금 시대는 진짜 병이 들었는데도 도리어 의원을 피하니 이는 유독 어째서인가? 지금 세상에는 여러 가지 병이 많다. 욕심의 불꽃이 뜨겁게 타고 사특한 바람이 차갑게 몰아친다. 이단의 말들이 사람들을 현혹시켜 이에 깊이 빠져서 고질이 되고 말았다. 물 여우<sup>256</sup>의 독이 오장육부를 잠식하였는데, 그 병을 고치는 이가 대체 몇이나 된단 말인가. 오히려 사람들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고 세상에는 또한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원이 없다.

나 역시 세상에서 병든 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스스로 병든 지도 모르고 두문불출하고 신음하고 있을 뿐 치료할 방법을 찾으려하지 않는다. 그러하니 어찌 남들이 치료법을 찾지 않는다고 지적할 수 있겠는가.

그대의 병은 혹여 윤군(輪困)<sup>257</sup>의 열정과 분비(憤排)<sup>258</sup>의 기운이 배속에 쌓여서 얼굴로 드러난 것이 아니겠는가. 주자(朱子)께서 왕공(汪公)에게 보낸 편지에 고도(古道)를 실천하고자 하며 말하기를,

256) 물여우 : 원문은 석영(射影)인데 물여우의 이칭. 물여우는 물속에 살면서 사람의 그림자를 보면 모래를 내뿜어 해친다는 전설 속의 괴물이다. 전하여 소인이 군자를 모해하는 것에 비유된다.

257) 윤군(輪困) : 가슴에 천자를 보필할 기력과 역량이 있는데, 그것을 펼치지 못해 응어리가 저서 불올한 것을 말한다.

258) 분비(憤排) : 분비(憤排)에서 분(憤)은 마음으로 통하려 해도 잘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비(排)는 입으로 표현하려 해도 잘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곧 공부하려는 열성이 표정과 말에 나타난다는 뜻이다. 『논어』 「술이(述而)」에 “분발하지 않으면 열여 주지 않고 고심하지 않으면 깨우쳐 주지 않는다.[不憤不啓, 不悱不發.]”라고 하였다.

“병든 자의 하반신이 차면 상반신은 객열(客熱)<sup>259</sup>로 뜨겁다. 한증을 치료하면 열이 다시 크게 일어난다.<sup>260</sup>”라고 하였다. 그대가 고향으로 돌아가 이 말씀을 완미하며 깊이 탐구하고 열심히 실천한다면, 약 없이도 절로 치료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대는 나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처지이니, 어찌 서로 면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sup>261</sup>)

이 글은 경북 울진군 북면 소곡리 도동에 사는 임선명(林善明)에게 준 글이다. 임선명은 자가 복여(復汝)이며 당시 나이는 23세였다. 임선명은 면증(面症: 홍역을 앓은 흔적)이 있어서 강릉의 영주의원(瀛州醫院)에 진찰을 받으러 왔다가 박원동을 만났다. 박원동은 임선명에게 난세이지만 자기 수양과 공부에 정진할 것을 권면하였다. 이는 박원동 자기 자신에게 하는 충고이기도 하다.

박원동은 강릉향교 직원, 4대 원우의 유사나 관리인 등을 역임하며 유교문화의 역사를 정리하고 재건하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박원동은 대개 두 가지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었다. 첫째는 지역 유림사회의 분열과 갈등이었다. 아래의 ①과 ②는 『시호거사일기』 1931년 2월 22일과 23일 기록의 일부이다.

① 오봉단소의 수금 유사들과 함께 최명수(崔命洙) 집을 방문하였다. 최명수가 말하기를 “전에는 노론이 간사를 맡아 대문 앞을 지나면서도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소이다. 지금 그대가 방문을 하였으니 이는 필시 박 교원의 마음을 씀이 넓기 때문이오.”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들어보니 우리 향당에서 논의가 편벽된 것이 가소롭다. 소론이 지난해 수금을 하여 오봉단소의 기적 비각을 세우고 남은 돈으로 토지를 사서 복조(卜租)를 25말 받는다고 하였다. 해당 토지를 오봉단소에 맡기는 게 어떻겠냐고 최명수에게

259) 객열(客熱) :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기(邪氣)로 생기는 발열 증상.

260) 원문은 다음과 같다. 『朱子書節要』, 「與汪尚書書」. “病人下寒, 比道學不明, 客熱熾上, 比儉薄浮華詐欺巧僞, 治其寒比一以經行迪之, 熱復大作, 比舊習之姦紛然耶.”

261) 박원동, 「贈林善明」, 『시호거사문고』, 80면. “噫! 今世之人, 眞有病而反諱醫者, 獨何哉? 今世之病多種, 有慾火而熱, 邪風而寒, 異言而眩, 沈湎而痼, 射影之毒, 荐食之腸, 中其病者, 凡幾人? 猶不知求可艾法, 而世亦無可艾之醫也. 余亦病于世者久矣. 自知自病而杜戶呻吟, 不欲求治抑, 何能言人之不求治耶? 子之病, 無或輪困之熱·憤排之氣, 積于肚而發于面歟? 朱夫子與汪公書, 欲行古道而曰: ‘病人下寒, 客熱上熾, 治其寒, 則熱復大作.’ 子歸子之鄉, 玩味此語, 力行深究, 則自有勿藥自治之日矣. 與我同病之地, 盍相以是勉諸?”

말했더니, 최명수가 “비각 제향을 위한 땅이니 마땅히 단소의 제향을 위한 위토(位土)로 보태야지요.”라고 하였다.<sup>262)</sup>

② 저녁에 오봉단소 수금 유사들과 최종만(崔鍾萬)의 집에 모였다. 최돈성(崔燾性)의 종손인 성무(成武)가 노론과 소론은 함께 할 수 없다며 단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일장 변론하며 말하였다.

“오봉서원은 원래 사색(四色)이 모두 귀의한 곳입니다. 예전에 단소를 설치할 때 소론만 유독 빠졌고 작년 비각을 세울 때는 소론만 수금을 하였으니, 이는 소론의 좁은 소견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금 유사로 돌아다니며 동참의 뜻을 독려하는 것은 작년 오봉단소 다향 때 모두의 발의에 따른 것입니다. 노론과 소론의 당론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운곡 최씨의 선대 묘는 양주에 있으며, 조씨가 지은 비문【조병세(曹秉世)가 찬한 최돈성(崔燾性) 조부의 묘비문】 역시 그 근처에 있는데, 비문을 지은 조씨는 실로 노론입니다.”<sup>263)</sup>

1930년 가을 오봉서원 다향에서 유림은 유금(儒金)의 모금하여 오봉서원의 위토(位土)를 확충하기로 결의하였다. 박원동은 오봉서원 유사 겸 수금 유사를 맡아 1931년부터 동료 수금 유사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지역의 유림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모금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소론과 노론의 갈등이 여전하여 상호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순조 때 오봉서원에 우암 영정을 배향하는 일로 소론과 노론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반대한 소론측 유생들은 구류나 귀향 조치가 내려졌고 결국 노론의 의지대로 우암 영정 배향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강릉 유림사회에서도 소론과 노론 사이의 골이 깊어졌다. 소론은 오봉서원의 비각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면서도 위토 확충을 위한 모금 활동에는 소극적이었다. 박원동은 지역의 유림 사회가 여전히 분열되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개탄하며, 단합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262) 『시호거사일기』 책2, 1931년 2월 22일. “齊發歷訪崔命洙庄. 命洙曰‘日前者, 老論有所幹事, 過吾門不入, 而今則訪問, 此必朴教員用意之寬’云. 聞其言, 則吾鄉黨論之偏, 可笑者也. 聞少論前年收金, 記蹟碑閣成立, 餘金買土, 卜租二十五斗云. 故該土付于五峯壇所之意, 言及于命洙, 曰‘碑閣祭享之所也, 宜補于壇享位土云云.’”

263) 『시호거사일기』 책2, 1931년 2월 23일. “夕會崔鍾萬庄. 崔成武即燾性之宗孫, 而以老少不參之意有携貳, 故一場辨論曰: ‘五峯書院, 元來四色俱是依歸之所. 往年設壇時, 少論獨漏焉; 昨年碑閣時, 少論獨收金焉, 此是少論之偏見也. 今吾行之收金副薦, 亦爲同參之意, 昨年茶享時發論者, 有何老少之黨論乎? 且雲谷崔氏則先世墓有楊州, 趙氏碑文【崔燾性祖父墓曹秉世碑文】近亦有, 曹氏碑文則實爲老論也云云.’”

박원동이 겪은 두 번째 갈등은 총독부-경학원-군청으로 이어지는 관청의 간섭과 압력이었다. 다음은 『시호거사일기』 1933년 11월 9일 기록의 일부이다. 당시 박원동은 강릉향교 직원(直員)을 맡고 있었다.

나는 문묘의 직원으로서 마땅히 경학원 시제(時制)를 따라야 한다고 한다. 각 관청에서 권고함이 심히 사나워 가묘(家廟)에 고하였다.

“외람되어 문묘를 모시게 되어 유림에게 후회스런 일만 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학은 오직 신체발부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지침이니, 위의 국학에서 내려온 시의(時儀)는 참된 것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안으로는 옛 사람들에게 근심을 끼치고 밖으로는 지금 사람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이 몸을 크게 훼손했다고 하여 어찌 이 마음까지 변하겠습니까. 감히 조상들께 저의 충심을 고하노니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sup>264)</sup>

일제강점기 향교의 인사와 재정은 군수가 관리하였다. 향교의 문묘 제향을 관장하는 직원은 군수가 임명하였으며, 향교 재산 역시 군수의 관할 하에 있었다. 또한 지방의 향교는 중앙 경학원의 지시를 받았으며, 경학원은 총독부의 관할 아래에 있었다. 향교의 직원은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학원과 군청의 복무규정을 따라야 했다.

박원동은 당시까지 단발(斷髮)이나 훼손(毀服)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직원이 되면서 경학원과 군청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결국 박원동은 이들 기관을 지시를 따라 단발을 하며 조상 영령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고하게 된 것이다.<sup>265)</sup> 그러나 박원동은 “이 몸을 크게 훼손했다고 하여 어찌 이 마음이 변하겠습니까.”라고 하며, 유교를

264) 『시호거사일기』 책2, 1933년 11월 9일. “余以文廟直員, 宜從經學院時制云. 各官廳勸告甚猛, 因告家廟文曰: ‘猥侍文廟, 悔忝儒林. 惟我宗教, 髮膚是箴. 上自國學, 時儀難諱. 內愆于古, 外覲于今. 鉅毀此形, 詎渝此心? 敢告愚衷, 伏悚不任.’”

265) 영인본 『시호문집』 권두에는 1940년(경진) 68세 때 그린 박원동의 초상이 실려 있다. 유관을 쓰고 도포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으며 오른 손에는 부채를 들었다. 직원을 마친 후에 다시 두발을 회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초상화와 관련하여 『시호거사일기』 책5, 1947년 7월 2일자에 “나의 초상화는 매년 여름에 바람을 쏘여 쪼먹는 것을 방지하였다. 작년에는 잊고 하지 못한 까닭에 오늘 꺼내 햇볕을 쏘였다. 이 초상화는 경진년 봄에 그린 것이니 이제 8년이 되었다. 그 때 이미 형체가 노쇠하여 젊은 시절 모습을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숭상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며, 유교문화를 계승해야 한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었다. 박원동이 관청의 압력을 받아 개인적으로 굴욕을 겪으면서도 직임을 끝까지 수행하였던 것은 유교문화를 계승하여 재건해야 한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하였기 때문이다.

## 4. 사승 관계 및 교유 인물

### 4.1. 사승 관계

#### ① 시산(詩山) 박정규(朴廷圭)

박원동은 1883년 11세 때 마을의 서당에서 족조(族祖) 시산(詩山) 박정규(朴廷圭, 1851~1920)에게 수학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시산의 문하에는 문생이 60여명이나 되었다고 한다.<sup>266)</sup>

박정규는 본관은 강릉(생원공파), 초명은 장환(章煥), 자는 서옥(瑞玉), 호는 시산(詩山)이다. 아버지는 문익(文翼)인데 백부인 문혁(文赫)에게 출계하였으며 조부는 돈진(敦晉)이다.<sup>267)</sup> 『강릉박씨세보』에 따르면 박정규는 14~15세에 『중용』과 『대학』을 숙독하여 그 이치를 깨달을 정도로 학문이 일찍 성숙되었다고 한다. 세보에는 그의 학문과 문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시문은 맑고 전아하였으며 과거문(科擧文)과 서기문(序記文) 등은 사마천에 의거하여 완성시켰다. 향시에 여러 번 합격을 하였으나 끝내 중앙의 과거에는 합격을 하지 못하였다. 이후로 과거 공부는 그만두고 오직 성리서(性理書) 공부에 몰두하고 후진을 가르치는 것으로 자신의 소임을 삼았으니 제자들이 감화되었다. 향현사(鄉賢祠)를 중건하려고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통문을 보내 깨우쳤으며, 훗날 결국 중건하여 제사를 올리게 되었다. 『사서문대(四書問對)』와 『시산자정(詩山自呈)』 등의 원고가 가장되어 있다.<sup>268)</sup>

세보에서는 사마천의 『사기』를 공부하여 문장에 능하였다는 점, 과거를 통한 입신 양명이 좌절된 후 성리학 공부와 후진 양성에 전념하였다는 것, 향현사 중건과 같은 지역 유교문화 재건에 힘썼다는 점을 기록하였다. 훗날 박원동이 살아갈 삶과 여러

266) 『시호연명록』, 「詩山門生禋(同門生六十餘人聯名, 煩未錄)」, 697면.

267) 『강릉박씨세보』 을권, 82~83면.

268) 『강릉박씨세보』 을권, 83면. “詩文清雅, 科程記序, 文章製作, 倚馬而成. 累占鄉貢, 竟未得中. 自後不治擧業, 專心性理書, 教誨後進, 爲己任, 學者化之. 重建鄉賢祠, 再三通諭于士林, 後竟享祀. 所著『四書問對』·『詩山自呈』等稿, 藏于家.”

가지로 남아 있다. 다만 시산이 저술했다고 하는 『사서문대(四書問對)』와 『시산자정(詩山自呈)』 등이 전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시산의 학문과 삶에 대해 자세히 상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정규의 묘는 양양의 학포(鶴浦)에 있는데 묘표를 노탄 송규헌(宋奎憲)이 썼다. 현재 송규헌의 문집인 『사위유고(史謂遺稿)』 권하에 「시산박공묘표(詩山朴公墓表)」가 수록되어 전한다. 묘표의 서두에는 박선실(朴善實)이 시산문생계의 어떤 이가 작성한 행장을 가지고 송규헌을 찾아가 묘표를 부탁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송규헌은 묘표에서 『근사록(近思錄)』을 열심히 공부하며 후진들을 잘 교육하는 점을 언급하는 한편, 유림 세력이 호락(湖洛)으로 갈리어 서로 반목하는 세태에 대해 개탄했던 점을 특기하였다.<sup>269)</sup>

박원동을 비롯한 시산의 문생들은 ‘문생계(門生契)’를 조직하여 동문으로서의 우의를 다지고 교류를 하였다. 1912년 3월 김병시(金炳時)가 박원동 찾아와 유생 중에 시산 선생으로부터 배운 문하생이 많은데, 문생들이 시산 선생께 보은하는 뜻이 보이지 않는다며 계를 만들어서 충지(衷志)를 드러내자고 제안을 하였다. 박원동은 시산 선생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 김병시의 제안에 직계 제자로서 부끄러워하는 한편 그 뜻에 존경을 표하였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안타까운 일이구려! 선생님의 문하에 출입한 자가 백 명이 넘는데, 선생님의 의발을 전수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상이(尙爾)<sup>270)</sup>은 고작하고 선생님의 문하에서 의관을 갖추고 열심히 학업에 힘쓰던 이들이 지금 농사꾼이 되어 쟁기를 지고 있는 자가 반이나 됩니다. 참으로 개탄하고 애석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말에 “안자(顔子)와 맹자(孟子)는 아성(亞聖)이다.”라 하였습니다. 학문이 비록 성인에게는

269) 宋奎憲 著, 「詩山朴公墓表」, 『史謂遺稿』 卷下, 京城: 宋奎憲家, 1942, 張55. “嘗歎曰: ‘今之湖洛, 曰是曰非, 各倚文一偏, 長書短牘, 互相譏斥, 殆如儒墨之辨, 切非尊畏先輩講明義理之意也. 豈不寒心哉?’”

270) 상이(尙爾): ‘아직도’, ‘여전히’라는 의미. 제자로서 나이 사오십이 되도록 이론 것이 없다는 의미임. 『논어』 「자한(子罕)」에 “후생을 두렵게 여겨야 할 것이니, 후생들이 지금의 나보다 못하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40세나 50세가 되도록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또한 두려워할 것이 없다.[後生可畏, 焉知來者之不如今也? 四五十而無聞焉, 斯亦不足畏也已.]”라고 했다.



미치지 못하였으나 또한 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의 도덕과 문장을 비록 제가 잘 배우지는 못하였으나 어찌 선생님의 문하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니 옛 사람들이 스승을 모시는 예를 지금 갑작스레 회복하기 어렵더라도 계를 결성하여 정성을 표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sup>271)</sup>

이에 박원동은 동문들에게 통문을 돌려 『시산문생계명첩(詩山門生袞名帖)』을 만들어서 문생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박원동은 문생을 대표하여 이 문생첩에 서문을 썼다.<sup>272)</sup>

박원동은 1920년에 시산공이 졸하였을 때 문생계를 대표하여 제문을 작성하였다. 박원동은 제문의 서두에서 노나라 말기 경신년에 공자가 절필(絶筆)하였고, 송나라 말기 경신년에 주자가 기졸(既卒)하였고, 조선 말기 경신년에 시산선생이 영결함을 특기하였다. 아울러 시산이 공자가 탄생한 경술년에 잉태되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박원동이 제문에서 일관되게 언급한 시산의 삶과 학문은 ‘공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주자를 희구함[師孔希朱]’으로 요약된다.<sup>273)</sup> 곧 박원동은 시산을 공자와 주자와 견주며 스승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한편, 난세를 만나 불우하게 살다 간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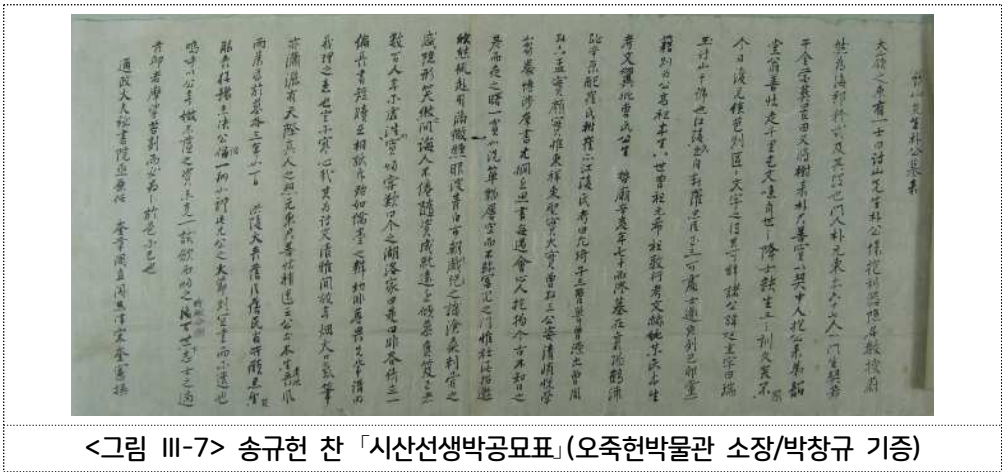
한편 『시호거사일기』에는 시산공의 묘표가 작성된 경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sup>274)</sup>

271) 박원동, 「門生袞序(壬子三月)」, 『시호거사문고』, 39면. “噫! 出入于先生之門者, 名不下百數. 而其承綜傳鉢之無人, 尙爾勿論. 昔之冠履鼓篋, 今化爲襜褕荷鑱者, 強半矣. 是可慨惜. 然傳曰‘顏子孟子亞聖也’, 學之雖未至, 亦可爲賢人. 今先生之道德文章, 雖學之不得, 顧不爲先生門下濡染之人哉? 然則古人事師之禮, 今難猝復, 立契表誠, 有何難哉?”

272) 박원동, 「門生袞序(壬子三月)」, 『시호거사문고』, 38면.

273) 박원동, 「祭詩山先生文(門生袞中)」, 『시호거사문고』, 195~196면. “嗚呼魯木庚申, 孔子絶筆, 宋木庚申, 朱子既卒. 鮮木庚申, 先生永訣. 賢聖雖殊, 命道一轍. 嗚呼庚戌受娠, 聖誕暗符, 一生存養, 師孔希朱. 何謂師孔? 敢陳見知. 受業家庭, 伯魚禮詩. 事親克孝, 負米仲由. 才德拔倫, 藝也冉求. 修成大儒, 文學游夏. 隱德不仕, 子貢待價. 不近權要. 偃室澹臺. 貧之安樂, 簞瓢顏回. 衣冠整其, 端章公西. 語言慎默, 南容白圭. 保身全歸, 曾子啓手. 數子同列, 如侍衡斗. 何謂希朱? 繼又敢解. 幼有奇才, 沙上八卦. 服膺庭訓, 在堂草齋. 垂■教子, 塾塾趨階. 群蒙教授, 白鹿講規. 湖山卜築, 精舍武夷. 喪祭盡誠, 家禮一部. 板蕩守義, 斥和金虜. 慮時憂民, 西山蕙湯. 歲晚志違, 靈芝質筮. 考修正寢, 疾筆整衣. 數事同蹟, 想像依傍.” ‘■’는 판독하지 못한 글자를 표시함.(이하 동일)

274) 『시호거사일기』 책3, 1935년 3월 23일, 9월 7일, 10월 4일, 11월 13일·30일, 1936년 3월 9일, 7월 23일·24일, 9월 3일.



<그림 III-7> 송규헌 찬 「시산선생박공묘표」(오죽헌박물관 소장/박창규 기증)

1935년 3월에 열린 시산 문생계에서 묘비와 상석대(床石臺)를 세우자고 결의하였다. 이해 9월 박원동은 『시산선생행록보유(詩山先生行錄補遺)』를 작성하여 사종(四從) 선실(善實)에게 보내서 경성에 가지고 가게 하였다. 선실은 경성에 가서 노탄 송규헌에게 시산 선생의 비문을 부탁하였고, 11월에 노탄 송규헌이 시산선생비문을 보내왔다. 그런데 비문에 박원동의 이름이 두 번이나 기재되어 있었다. 박원동은 노탄 송규헌에게 답서를 보내 자신의 이름이 들어 있는 1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선계(先系)의 오자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듬해 3월에 송규헌이 시산선생비문을 다시 보내와서 비석 새기는 일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7월에 시산 선생의 비석을 족실 용만(容萬)으로 하여금 새길 계획을 세웠는데, 문생들이 박원동에게 글씨를 쓰라고 하였다. 본래 비문에 ‘문인박원동등육십팔인(門人朴元東等六十八人)’이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박원동이 ‘박원동’은 빼고 단지 ‘육십팔인(六十八人)’만 쓰는 게 좋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9월에 양양의 족숙 증하(曾夏)가 박원동을 찾아와 비문에 ‘시산처사박모(詩山處士朴某)’라 쓰고 싶어 하여 문인들이 회의하여 그의 뜻에 따랐다. 현재 박원동이 송규헌으로부터 받은 「시산선생박공묘표」가 오죽헌시립박물관에 전하고 있다.

② 수당(遂堂) 이종원(李種元)

박원동은 1901년 2월 29세 때 서울로 올라가 성균관장을 역임한 수당(遂堂) 이종원(李種元, 1849~1904)<sup>275)</sup>의 문하에서 종유(從遊)하였다. 이종원은 본관은 덕수, 자는 여장(汝長)이다. 1888년(고종 25) 별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승정원일기』 1900년(고종 37) 4월 3일 기사에 이종원(李種元)을 성균관장(成均館長)에 임용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시호연기』에 따르면, 박원동은 어릴 때부터 함께 공부하였던 소하(小下) 신태묵(辛泰默, ? ~1905)의 소개로 이종원을 문하에 들어가 공부하게 되었다. 신태묵은 과거에 뜻을 두어 여러 차례 응시하였으나 끝내 낙방을 하였고, 갑오개혁으로 과거제가 폐진된 이후에는 강릉과 서울을 오가며 지냈다. 당시 신태묵은 이종원의 문하에 들어가 종유하고 있었다. 신태묵은 박원동보다 10여 세 많았으나 박원동을 망년지우(忘年之友)로 대우해 주었다고 한다. 박원동은 1895년 여름 23세 때 신태묵과 함께 변려문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서울에 함께 가서 수당 이종원의 문하에서 공부를 하였던 것이다.<sup>276)</sup>

수당 이종원은 박원동에게 “침잠하여 글을 읽고 완미하며 탐구하면 절로 돈오(頓悟)하는 법이 있고”, “마음에 동요가 없기를 마치 물이 병에 담겨 있는 것처럼 해야 한다. 물이 병에 짝 차면 병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을 주었다. 한편 조부의 자호인 삼락당(三樂堂)의 의미가 자손을 가르치고 농사지음을 보고 강호를 소요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즐긴다는 의미가 있음을 듣고는 ‘삼락당(三樂堂)’이라는 글씨를 써 주었다고 한다.

275) 『시호연기』에는 ‘李種元’으로, 「선조고가장」과 「창가재묘표(滄可齋墓表)」에는 ‘李種元’으로 되어 있다. 『시호연기』의 ‘種’은 ‘鍾’의 오기이다. 한편 1904년 신태묵이 졸하였을 때 지은 제문 「祭辛參奉泰默(號小下)文(乙巳)」에도 수당이 언급되는데, 이 제문에 수당이 갑진년(1904) 남월에 졸했다고 되어 있다. 이종원의 생년은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의 과거 및 취재 ‘이종원’조에 의거하였으며, 몰년은 「제신참봉태묵문(祭辛參奉泰默文)」에 의거하였다.

276) 박원동, 「祭辛參奉泰默(號小下)文(乙巳)」, 『시호거사문고』, 188면. “乙年(1895)同硯之誼, 辛年(1901)同旅之情.” 이 제문에 수당 이종원이 갑진년(1904) 남월에 졸했다고 되어 있다.

강릉 유림 중에서 박원동과 신태목 외에도 창가(滄可) 박태동(朴台東, 1875~1906)도 수당 이종원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박태동은 초명(初名)은 만실(萬實), 자는 자춘(子春)으로 경전에 밝고 글을 잘 지어 조정에 이름이 알려져서 강릉향교 교원(敎員)에 제수되었다고 한다. 박태동은 수당 이종원, 건암 송재경 등과 도의(道義)로 허여하는 사이였다고 한다.<sup>277)</sup>

### ③ 간재(良齋) 전우(田愚)

박원동은 1921년 10월 49세 때 간재(良齋) 전우(田愚, 1841~1922)<sup>278)</sup>에게 편지를 올리고 스승으로 모셨다. 간재는 답서를 보내 제자로 받아주었다. 박원동이 적지 않은 나이에 간재의 문하로 들어간 것은 강릉의 사우 몽재(蒙齋) 김연목(金演穆, 1877~1929)의 추천에 따른 것이다. 박원동이 간재에게 올린 편지, 간재가 박원동에게 보낸 답서, 김연목이 간재에게 올린 추천의 편지 등이 『시호척독』에 모두 수록되어 전하고 있다.

김연목이 간재에게 박원동을 추천하며 올린 편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sup>279)</sup>

277) 박원동, 「滄可齋墓表(乙亥)」, 『시호거사문고』, 115면.

278) 전우(田愚) : 1841~1922. 전라북도 전주 출신. 본관은 담양. 초명은 경륜(慶倫)·경길(慶估). 자는 자명(子明), 호는 구산(臼山)·추담(秋潭)·간재(良齋). 임헌회(任憲晦)의 문인. 1882년(고종 19) 선공감가감역(繕工監假監役)·선공감감역·전설사별제(典設司別提)·강원도도사, 1894년 사헌부장령, 이듬해 순흥부사·중추원찬의(中樞院贊議)를 제수 받았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그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자 1895년 박영효(朴泳孝) 등이 수구 학자의 우두머리로 지목하여 개화를 실현시키려면 그를 죽여야 한다고 여러 번 청했으나 고종의 승낙을 얻지 못하였다. 1908년(순종 2)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왕등도(旺登島)·군산도(群山島) 등으로 들어가 나라는 망하더라도 도학(道學)을 일으켜 국권을 회복하겠다고 결심하였으며, 부안·군산 등의 앞 바다에 있는 작은 섬을 옮겨 다니며 학문에 전념하였다. 1912년 계화도(界火島)에 정착하여 계화도(繼華島)라 부르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저술과 제자 양성에 힘썼다. 제자로는 오진영(吳震泳)·최병심(崔秉心)·이병은(李炳殷)·송기면(宋基冕)·권순명(權純命)·유영선(柳永善)·김병준(金炳駿)·김택술(金澤述) 등을 비롯하여 3,000여 명이 있다. 전우의 묘는 전라북도 익산에 있다. 계화도의 계양사(繼陽祠), 의령의 의산사(宜山祠), 고창의 용암사(龍巖祠), 정읍의 태산사(台山祠)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안자편(顔子篇)』·『연원정종(淵源正宗)』·『간재집』·『간재사고(良齋私稿)』 등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전우'조)

279) 김연목의 문집인 『몽재사고(蒙齋私稿)』(석판본 2권 1책, 1940년간) 권1에는 김연목이 전우에게 올린 편지가 4편 가량 수록되어 있는데, 박원동을 간재에게 추천한 편지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몽재사고』에는 김연목이 김윤경(金潤卿)에게 답한 편지가 2편, 박원동에게 답한 편지가 1편 실려 있다. 박원동에게

김연목이 아웁니다.

박원동은 올해 마흔 아홉입니다. 제 고향의 본가에서 사학(詞學)의 대가로서 시단에서 시재(詩才)를 떨쳐 영동에서 이름이 났습니다. 그 전에는 서울에서 증유한 적이 있었는데, 큰 선비와 이름난 인사들이 많이들 허여하며 장려하였습니다. 박원동은 스스로 “세상에서 시문에 힘쓰는 것은 지리(支離)하고 자질 구레하여 도에 어긋나서 사사로운 것을 이루는 데 불과할 뿐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침내 기유년(1909)·경술년(1910) 이후로 두문불출하고 뜻을 추구하여 시산(詩山)과 풍호(楓湖)에 은거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재능에 맞게 가르쳤는데 따르는 이들이 역시 많았습니다. 대개 이렇게 살면서 선업(先業)을 실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그의 집에 찾아가 내막을 상세히 물어보니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사우(師友)들로부터 ‘성(性)을 스승 삼는다[師性]’는 구옹(臼翁, 전우의 호 臼山) 선생의 가르침 들었소. 그 의미를 묵묵히 탐구한다면, 기쁘게도 터득하는 것이 있어서 내 지난날의 병폐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요. 몸을 수고롭게 하는 소인(小人)은 세상에서 이익을 좇는 자와 다만 청탁으로 나누어질 뿐 둘 사이의 거리는 한 치도 되지 않습니다.<sup>280)</sup> 참으로 다행입니다. 내가 구옹 선생의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일생을 거의 허비하였습니다. 내 장차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종신토록 공부하고 실천한다면 과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될 것이 없다면 선생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소?”

소자는 적이 가상하게 여기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대의 뜻이 어찌 이러도 장대하고 험걸잡니까! 하루아침에 우리 사문(師門)의 지결(旨訣)을 듣고는 수십 년 이룩한 것들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마침내 곡진한 예를 갖추어 스승으로 섬기고자 하니 지금 세상에는 보기 드문 일입니다. 선생께서 그대를 어찌 거절하시겠습니까. 내 장차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대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들 중에 그대가 이상한 짓을 한다고 어찌 비난하거나 비웃는 자가 없겠습니까.”

박원동이 말했습니다.

보낸 편지는 병인년(1926) 9월에 보낸 것이다. 金演穆, 『蒙齋私稿』(石版本), 1940.(국립중앙도서관 소장)

280) 마음을 …… 하는 자 : 원문은 ‘情勞力者’인데, 이는 『춘추좌씨전』 양공(襄公) 9년에 “군자는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소인은 몸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니, 이는 선왕이 마련한 법도이다.[君子勞心 小人勞力 先王之制也]”라고 한 것과 『맹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혹자는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혹자는 힘을 수고롭게 하는데,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힘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에게 다스려진다.[或勞心 或勞力 勞心者治人 勞力者治於人]”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81) 한치도 되지 않습니다 : 『맹자』 「이루 하(離婁下)」에 “중도(中道)에 맞는 사람이 중도에 맞지 않는 사람을 길러주고 재주 있는 사람이 재주 없는 사람을 길러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진 부형이 있음을 즐거워한다. 만일 중도에 맞는 사람이 중도에 맞지 않는 사람을 버리고 재주 있는 사람이 재주 없는 사람을 버린다면 어진 이와 불초한 이의 차이가 한 치도 되지 않을 것이다. [中也養不中 才也養不才 故人樂有賢父兄也 如中也棄不中 才也棄不才 則賢不肖之相去 其間不能以寸]”라는 말이 있다.

“내가 이제 고해(苦海)에서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어찌 다시 그물에서 빠져나가 새장으로 들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할 뿐이니,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것은 조족지혈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품은 뜻은 가히 ‘분연이 떨쳐 일어난 재(奮然興起)’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께서 비록 그 사람의 기개나 모습을 직접 보지는 않으셨으나, 제가 어찌 감히 거짓으로 추천을 하여 분수에 넘치는 짓(282)을 했다고 욕을 먹는 일을 하겠습니까. 박원동은 일찍이 자호를 ‘시호(詩湖)’로 지었는데, 시산(詩山)과 풍호(楓湖)<sup>283)</sup>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며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데서 취한 것입니다.

바라건대 제 추천을 받아들여 속히 제자로 허락을 해주시고 글을 지어 보내어 그를 면려해 주시옵소서. 소자는 정성을 다해 인재를 키우시는 선생님의 은택에 죽을 때까지 감격을 하며 그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소자는 선생님의 넘치는 사랑을 믿고서 어찌 감히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이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인서(仁恕)를 베푸시어 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바라고 바라옵니다.<sup>284)</sup>

박원동은 김연목이 간재에게 추천서를 올린 후에 편지와 폐백을 갖추어 문하생으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간재는 답서를 보내 이를 허락하였다. 박원동이 간재에게 올린 편지의 전문을 인용해 본다.

282) 분수에 넘치는 짓 : 원문은 ‘복속(覆餗)’인데 능력이 모자라 임무를 감당하지 못함을 비유한 말이다. 『주역』 「정괘(鼎卦) 구사(九四)」에 “공상(公上)에게 바칠 음식을 엮었으니, 그 얼굴이 무안하다.[覆餗 其形渥]” 하였다.

283) 원문에는 이 부분에 “강릉군 남쪽 15리에 있다. 시산은 산세가 완만하고 풍호는 맑게 둘러 있으니 빼어난 경관을 지닌 곳 중 하나이다.[江陵郡南十五里, 而詩山則殘麓逶迤, 楓湖則澄波縈廻, 亦一奇勝處也.]”라는 원주가 달려 있다.

284) 『시호척독』, 「上田良齋先生」에 附記된 김연목의 편지, 487~488면. “金演穆竊白: 朴元東今年四十有九矣. 鄙鄉舊家肖胄而以詞學鉅蹠, 藝場擅手, 聞於嶺東. 曩年遊於京洛, 碩彥名公, 多所獎許. 嘗自謂‘世之業詩文者, 支離瑣屑, 不過爲僻道而濟其私耳’. 遂自己庚以後, 杜門求志, 棲息於詩山楓湖間, 以其所能訓後進, 從之遊者亦多, 蓋居然爲先業矣. 一日小子造其廬, 詢叩其詳, 而其曰: ‘吾聞曰翁師性之訓於師友間, 默究其旨, 則悅若有得, 乃知吾向日之弊. 情勞力者, 其與世之求利者, 特清濁之分, 而其間不能以寸也. 幸哉! 吾非聞此, 則幾於虛此生矣. 吾將北面先生而終身焉, 庶幾寡過矣. 得無不可而先生其許我乎?’ 小子竊賀曰: ‘子之志, 何等壯傑乎! 一朝聞我師門旨訣, 而棄其數十年之成業如弊屣, 遂欲屈禮而事之, 今世未多見也. 先生豈拒子乎? 吾將紹介矣. 然平日所親交者, 得無非笑而謂子爲怪舉乎?’ 元東曰: ‘吾方迷於苦海, 安得復拔罟網而入樊籠乎? 爲吾所當爲, 則夫何指笑之足恤乎?’ 斯人之志, 可謂奮然興起者也, 先生雖不親觀其氣貌, 小子豈敢謬薦而犯覆餗之誅乎? 其嘗自號曰詩湖, 蓋因其詩山楓湖之樂, 而徜徉自適者也. 伏乞特加愛納而早賜允可寵, 以數行文而責其所可勉, 則先生曲成人材之澤, 其當生死, 俱感而激切, 殊眷冀收微效矣. 小子非恃隆愛, 何敢冒瀆及此? 伏惟老先生垂仁鑒恕, 亟賜施行, 幸甚幸甚.”



박원동이 재배하고 아뢰입니다.

지난해 겨울 참망함을 헤아리지 않고 감히 옛 사람이 편지로 제자의 예를 표하는 것을 본받아 편지를 올렸습니다. 적이 외람된 짓을 하여 죄를 지었다 걱정을 하였는데, 도리어 선생님께서 흔쾌히 제자로 받아주시고 답서를 보내 살뜰하게 깨우쳐 주시니 마치 직접 뵈고 가르침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만호(萬戶)와 삼공(三公)의 영광을 받더라도 어찌 이보다 더하겠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감격을 하였으니 조금의 거짓도 없습니다. 달려가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더 많은 가르침을 청하고자 하였으나, 집안 일에 골몰하느라 아직 제자로서의 정성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큰 죄를 짊어지게 되었으니 저도 모르게 식은땀이 납니다.

모춘(暮春, 음력 3월)에 편지를 받았는데, 선생님께서 고령의 연세에 학문에 힘쓰시며 귀신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살피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러러 선생님을 사모하는 저의 마음이 전보다 만 배는 더합니다.

소자는 곤궁하게 살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고령이라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며<sup>285)</sup>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타고난 자질이 이미 낮고 박잡한데다가 올바른 행실을 힘쓰지 않았으며, 세상일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사이에 참으로 점검할 겨를이 없어서 후회와 한탄이 날로 쌓였습니다. 예전의 잘못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이제 세월만 보내다가 잘못된 것을 하늘이 과연 성심(誠心)을 가지도록 이끌어주시지 않겠습니까?<sup>286)</sup> 남쪽을 바라보며 선생님을 간절히 그리워할 뿐이니, 참으로 송구하고 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접 선생님을 찾아뵈지 못하고 편지로 가르침을 구하고 있습니다. 대등한 지위 이하의 사람에게도 오히려 감히 이처럼 소홀하게 하지 않는 법입니다. 하물며 도가 높으신 선생님께 감히 이렇게 제멋대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니 교례(教禮)를 구해야 하는데 교례에 어찌 혐의를 피하는 게 있겠습니까. 만약 도가 높으신 선생님께 제가 꺼리는 게 있어서 감히 속내를 솔직하게 밝히어 정성을 다해 교례를 구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선생님의 크나큰 은덕을 저버리는 것인 듯합니다. 이는 실로 보잘 것 없는 제가 스스로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편지로 선생님의 안부를 살피고 얼마 안 되는 포백(布帛)을 보냅니다. 설령 이를 통해 가르침을 받게 된다면 감히 종신토록 마음에 새겨 간직하지 않겠습니까. 은혜에 감동하는 마음을 마땅히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엎드려 원하오니 사정의 살피고 성심에 힘쓰시어 소자가 즉시 달려와 가르침을 받지 않음을 허물로

285) 어머니 연세가 …… 두려워하며 : 원문의 ‘희구(喜懼)’는 부모의 연세가 많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논어』 「이인(里仁)」에 “부모의 연세를 알지 않아서는 안 되니,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렵다.[父母之年, 不可不知也, 一則以喜, 一則以懼.]”라고 하였다.

286) 하늘이 …… 않겠습니까 : 원문은 ‘천과불유충야(天果不誘其衷耶)’인데, 이 구절은 『춘추좌씨전』 희공(僖公) 28년에, 위(衛)나라 영무자(寧武子)가 이제 국가의 운명이 호전될 전망이 보인다면서 “하늘이 사람들에게 성심을 갖도록 유도하여 모두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서로 의종계 지내도록 하였다.[天誘其衷 使皆降心 以相從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여기저 앉으시고 특별히 가르침을 내려주시어 미혹한 소자를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울러 선생님께도 몸을 잘保重(保重)하시고 강녕하게 지내시어 미천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갖추지 못하고 올립니다.<sup>287)</sup>

간재는 박원동의 편지를 받고 답서를 보냈는데, 현재 『간재집후편(良齋集後編)』 권5에 「답박원동(答朴元東)」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전한다.<sup>288)</sup> 아래는 간재가 보낸 답서의 그 일부이다.

지금 들으니 고명(高明, 상대를 높여 부르는 말)은 일찍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이 났으나 그것을 어렵지 않게 버렸다더군요. 또한 세상에 일을 이루려는 자들이 담처럼 둘러싼 것을 보고도 고명은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마음은 마땅히 성(性)을 스승으로 섬겨야 한다.’는 한 마디 말을 학문의 지극한 요결로 삼으며, “내가 이 말을 듣지 못했다면 평생을 거의 허비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들었소이다. 마침내 김연목 군의 소개로 나에게 고도(古道)를 행하겠다는 편지를 보내며 후진(後進)의 자리를 자처하였습니다. 옛날의 나석(蘿石)<sup>289)</sup> 역시 이에 지나지 않았는데, 왕양명(王陽明)이 ‘나는 아직 이런

287) 박원동, 「上田良齋先生」, 『시호척독』, 489~490면. “朴元東再拜白：去冬不揆僭妄，敢效古人書執禮，伏修候儀。竊虞猥越得罪，反蒙優容，諄諄教答，如受面命。自念雖寵以萬戶三公之榮，何以加此？欽仰感激，粉繚難諉。準擬奔拜牌下，因可請益，而幹蠱汨沒，迄未伸誠，罪負更大，不覺汗發。暮春受序，伏未審老先生道體起居，神人交贊，膺福無疆。慕溯欽仰之誠，萬倍前日。小子窮居奉母，喜懼自遣。但質既卑駁，行又不力，隱顯之間，固不暇點檢，悔吝日積。以此思獲點化之益，而當此荏苒差池者，天果不誘其衷耶？南望傾溯，不勝悚恨。蓋身不就，而以書求教，自敵以下，猶不敢忽，況道尊所在，敢此自慢乎？竊又念之，求教禮也，禮豈有避嫌？若憚於道尊，不敢披腸誠求，則恐是孤恩負德之大，而實非區區所自安也。故敢因書察候，以通寸幅。倘或因此蒙誨，則敢不終身佩服？感恩之意，宜以何報？伏願原其情而務其衷，不以不即趨命罪之，特降諄諄，開導迷惑，無任祈懇之至。更伏乞爲道保重，加護几衲，以慰賤誠。不備候禮。”

288) 田愚, 『良齋集後編』 卷5, 「答朴元東」(辛酉), 총간334, 249면. 전문은 아래와 같다. “聖賢道否，其德業之盛·出處之嚴，無從而見。故惟文章事功，爲人事之最。然夫子言‘文莫吾猶人也，躬行君子，則吾未之有得’，又言‘天下國家可均也，中庸不可能也’。故文采之炳蔚如史遷，猶被無識之譏；功業之輝赫如管仲，未免卑小之誚。況其下者乎！今聞高明早以詞華有名于世，而不難於棄之，又見世之欲集事者堵立，而亦不之就。乃以心當師性一語爲至訣，而曰：‘吾不聞是語，幾於虛此生矣。’遂因金君演穆爲介，投我以古道之書，而自居以後進之列，古之蘿石亦不過是，而陽明所稱‘吾未或見此翁’者，非溢辭也。然蘿石從吾之吾，是良知之心也。吾門師性之性，乃本然之天也。夫人之愛親敬兄，固是良知良能也。其甘食悅色，亦未嘗非自然之知且能也。由前則原於性命，而性命之正，聖賢之所本也。由後則由於血氣，而血氣之私，凡庸之所主也。學者于此，宜細審而站立。愚今病且死，亦願與高明共勉，而偕底大道也。” 한국문집총간 영인본은 1927년 논산 용동(龍洞)에서 간행한 용동본(龍洞本)이다. 1926년 진주에서 간행한 『간재사고(良齋私稿)』와는 편차 상 차이가 상당하나 수록된 글은 대동소하다.

289) 나석(蘿石) : 명나라의 학자 동운(董濂, 1457~1533)을 말한다. 나석은 그의 호 자는 복종(復宗). 동운



어른(곧 나석)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송한 것 역시 실상에 넘치는 말이 아니라 할 것이오.<sup>290)</sup>

이후 박원동은 간재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가르침을 이어갔다. 1922년 봄에 박원동은 간재에게 편지를 올려 직접 찾아가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편지로 가르침을 청한 것에 대한 죄송함을 표하였다. 당시 전우는 전북 계화도(繼華島) 장자동(莊子洞)에 '계화재(繼華齋)'라는 강사(講舍)를 두고 제사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간재는 이 해 9월에 박원동에게 답서를 보냈는데, 이 편지는 간행본 『간재사고』와 『간재문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박원동의 편지 뒤에 부기(附記)되어 있다. 간재가 보낸 답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편지를 받아보니 많은 위로가 됩니다. 나에게 학문의 참된 이치를 구하였는데 나는 학문이 보잘 것 없고 병이 심하여 대답할 것이 없소. 후의가 남다르며 강개함에 그침이 없으니, 가야할 길은 곤궁함을 끝까지 지키며 성현의 글을 읽고, 치욕을 참으며 옛 도를 지키는 것이라오. 그리하여 성현을 존송하고 인륜을 돈독히 하며 중화를 보존하는 것을 평생의 사업으로 삼아 죽는 날까지 열심히 할 뿐입니다. 나는 그저 아직 식지 않는 시체일 뿐인데, 편지 너머로 그대와 서로 마음이 딱 맞으니, 어찌 그대를 직접 앞에 앉혀두고 얘기 나누길 바라겠소. 다만 각자 면려하면서 천년 후에 귀신으로 만나길 기약할 뿐이라오. 이만 줄입니다. 예를 갖추지 못한 채 보냅니다.<sup>291)</sup>

전우는 이 답서의 별지에 정이천이 말한 “배움은 사색에 근원을 둔다.[學原於思]<sup>292)</sup>”, “학문은 어두운 방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는 일부터 시작된다.[學始於不欺闇室]<sup>293)</sup>”

(董澐)은 1524년 68세 때 소흥에 있는 왕양명(당시 53세)을 찾아 학술을 토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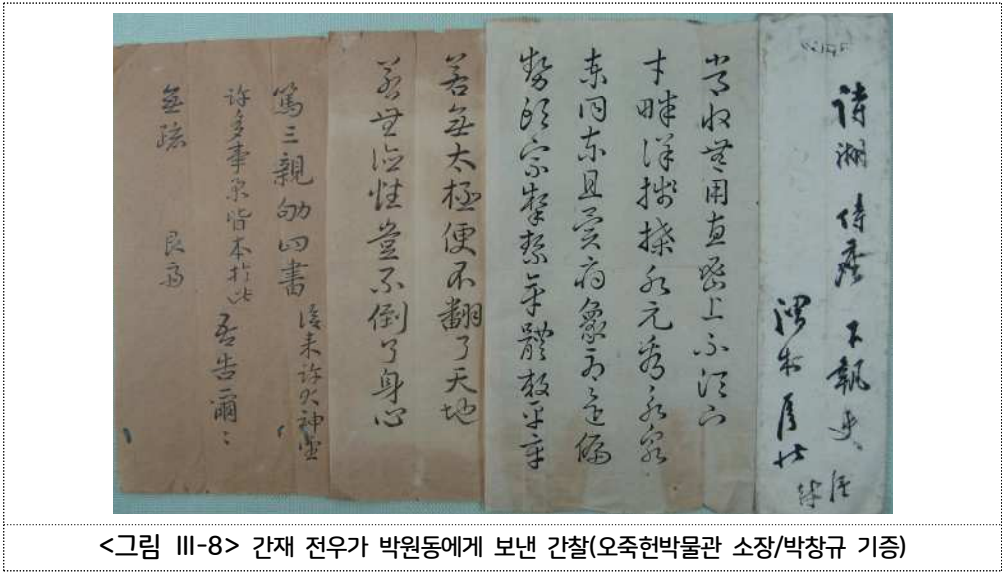
290) 『시호척독』, 「上田良齋先生」, 486면에 부기되어 있는 간재의 답서. “今聞高明早以詞華有名于世, 而不難於棄之, 又見世之欲集事者堵立, 而亦不之就, 乃以心當師性一語爲至訣, 而曰: ‘吾不聞是語, 幾於虛此生矣.’ 遂因金君演穆爲介, 投我以古道之書, 而自居以後進之列. 古之蘿石亦不過是, 而陽明所稱‘吾未或見此翁’者, 非溢辭也.”

291) 『시호척독』, 「上良齋田先生」, 490면에 부기되어 있는 간재의 답서. “承書慰慰, 所求真詮. 愚學陋病亟, 無以答. 厚意殊甚, 慨無已, 則固窮讀書, 忍辱守舊, 以尊聖敦倫保華爲終身事業, 斃後乃已之道而已. 愚直一未冷戶, 符到隔紙, 何望坐前聚談? 只得各自勉勵, 以爲千載之期神逢. 略備. 不具式.”

292) 『近思錄集解』 권2, 「爲學」에 나오는 정자(程子, 정이천)의 말이다. “배움은 생각에 근원하니 생각을 다하기를 잘한 뒤에야 도를 통달할 수 있다.[學原於思, 善於致思, 然後能通乎道.]”

293) 『심경부주(心經附註)』 「시운잠수복의장(詩云潛雖伏矣章)」의 해설에 나오는 정자(程子)의 말이다. 남이

등을 적어 보냈다. 이처럼 간재는 편지를 통해 박원동에게 가르침을 전한 것이다.



<그림 III-8> 간재 전우가 박원동에게 보낸 간찰(오죽헌박물관 소장/박창규 기증)

박원동은 1925년 5월 간재 전우 선생의 묘소에 고한 글에서 간재의 학문과 출처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선생께서는 몸은 산림에 물러나 있어도 마음은 늘 사직을 걱정하셨네. 명운이 쇠하고 막혀서 창궐(猖獗)이 온 나라를 뒤집었다. 도와주는 이 없이 홀로 외롭게 섰는데, 우주는 칠혹처럼 암흑으로 변했지. 땡땡이 소리 나는 한수와 경쇠 소리 나는 바다에서<sup>294</sup> 자정(自靖)을 성취하였지. 열강이 몰려오는데 절해고도에서 경서를 안고 통곡 하셨지. 도를 아는 이가 드무니 무리지어 선생을 헐뜯었네. 하늘이 사문(訟 유학)을 아직 없애지 않았으나 곤궁하게 생활하며 고통을 겪으셨지. 성인 기자가 찾아온 우리나라에서 홍범의 황극<sup>295</sup>을 진술하셨네. 공자께서는 도가 쇠퇴해지자 도리어 『시경』과 『악경』을 바르게 하셨지.

보지 않는 어두운 방에서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 신독(慎獨) 공부를 말한다.

294) 땡땡이 …… 바다에서 : 원문은 '도한경해(叢漢磬海)'인데 '도경(叢磬)'은 『시경』 「周頌·有誓」에 "設業設虞, 崇牙樹羽. 應田縣鼓, 鞀磬祝圉, 既備乃奏, 簫管備舉."라는 구절에 나오는데, 정확한 의미는 상고할 수 없다.

295) 홍범의 황극 : 원문의 '범극(範極)'은 『서경』 「홍범(洪範)」의 "五, 皇極, 皇建其有極."을 엄두에 둔 표현

선생은 시대의 변화를 살피 후학들을 장려하여 길을 열어주셨네. 모든 게 끊어진 상황에서 한 가닥을 이었으니, 이것이 누구의 공이런가. 봉액(縫掖)을 입고 장포(章甫)를 쓴 유생들이 온 나라에 가득하다네.<sup>296)</sup>

당시 유림 사이에 간재가 의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있었다. 박원동은 간재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의식해서인지 위와 같이 간재의 출처에 대해 해명하고 간재가 나라 전체의 유림에게 끼친 영향력을 칭송하였던 것이다.

한편 『시호연명록』에 따르면 강릉의 유림 중에서 간재의 제자는 박원동을 비롯하여 권오성(權五成), 김윤경(金潤卿), 최대수(崔大洙), 최임수(崔恁洙), 김연목(金演穆), 박화동(朴華東), 함병삼(咸炳三) 등 8명이었다.<sup>297)</sup> 이 중에서 김연목, 김윤경, 최대수 등은 박원동에 앞서 간재의 문하에 들어가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 간재의 문집에 1921년 간재가 김윤경, 최대수, 김연목에게 보낸 편지가 수록되어 전한다.<sup>298)</sup>

이다. '황국'은 제왕이 천하를 통치하는 대법(大法)을 말한다.

296) 박원동, 「良齋先生告墓文」, 『시호거사문고』, 198면. "身退林樊, 心懸社稷. 命衰運艱, 猖獗覆國. 隻手孤立, 宇宙昏黑. 蠡漢罄海, 自靖有得. 群國絕島, 抱經痛哭. 知道者鮮, 衆喙垢瀆. 天未喪斯, 困苦窮厄. 箕聖國墟, 爲陳範極. 尼父道衰, 反正詩樂. 先生時變, 獎牖後學. 一線總絕, 伊誰之力? 縫掖章甫, 遍滿邦域." 이 글의 서두에 "서두에 "良齋田先生考終後四年乙丑五月日"이라 되어 있음.

297) 『시호거사문고』, 「良齋門生(同郡同門錄)」, 697면.

298) 田愚, 「答金潤卿·崔大洙·金演穆(辛酉)」, 『良齋集後編』 卷5, 總간334, 220~221면.

## 4.2. 교유 인물

### 4.2.1. 가문 내 인물

#### ① 동호(東湖) 박장실(朴長實)

박장실(朴長實, 1867~1953)은 자는 윤규(潤圭), 호는 동호(東湖)이다. 아버지는 증식(曾植, 초명은 曾根, 자는 汝春, 호는 晦寓), 조부는 영수(永水, 자는 華三, 호는 栢軒)이다. 박원동과 같은 삼가공파로 거주지는 시동이다.<sup>299)</sup> 『강릉박씨세보』에 따로 적혀있진 않으나, 초명은 ‘장실(璋實)’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원동은 1904~1907년경에 박장실을 위해 지은 「동호설(東湖說)」의 주석에서 “‘동호’는 즉 형 장실(璋實)의 호이다.”라고 되어 있다. 장실의 형이 ‘경실(璟實)’이고 아우가 ‘규실(珪實)’, ‘원실(瑗實)’인 것을 보면, 초명의 ‘장(璋)’을 후에 ‘장(長)’으로 고친 것인 듯하다. 1984년에 간행된 『강릉박씨세보』에는 박장실의 행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었다.

공은 향촌과 문중에서 모두 장로(長老)의 직임을 역임하였다. 종택의 세업(世業, 가업)에는 공경을 다하여 도왔다. 공은 2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늘 삼년상을 하지 못한 것을 한으로 여긴지 오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아버지 기일이 돌아오자 참쇠복을 입고 고기를 먹지 않으며 삼년상을 치렀다. 사람들이 모두 효자라 칭찬하였다.<sup>300)</sup>

박원동은 박장실을 위해 「동호설(東湖說)」을 지었는데, 일부를 인용해 본다.

온통 맑은 못이 산과 바다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 위치가 강릉의 동쪽이요 나라의 동쪽이며 천하의 동쪽이다. ‘동호재(東湖齋)’라 편액을 단 것은 참으로 이에서 취한 것이다. 호수의 둘레가 감호(鑑湖,

299) 『강릉박씨세보』 을권, 강릉박씨대동보편찬위원회, 회상사, 1984, 315~316면. 이하 『강릉박씨세보』는 이 책을 참고한 것이며, 권수와 면수만 명기함.

300) 『강릉박씨세보』 을권, 315면. “公於鄉於宗, 俱經長老之任. 宗宅世業, 克敬克助. 公二歲失恃, 常以未伸三年喪, 茹恨久矣. 及慈主下世後, 週甲忌日, 執衰行素追喪三年, 人皆稱孝.”

경호포)에는 미치지 못하나, 완상할 만한 것을 한 번 만들어보면 소상팔경(瀟湘八景)과 승경이 갖추어진 다. 연꽃과 마름이 무성히 수면에 가득하고, 물고기는 뛰어오르고 조개는 튼실하며, 풍교(楓橋)의 오래된 나무에는 자옥한 안개에 달빛이 비치고, 이따금 종소리와 피리소리가 은은히 들려온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속세를 벗어나 은거하는 뜻을 품게 한다. 이것이 우리 선조 완하당께서 이 호수를 좋아하여 거주하게 된 이유이다. 강릉 부사로 왔던 우복 정경세는 풍호를 추억하는 시<sup>301)</sup>를 남겼으니, 족히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은 곳이라 관동의 승지에 넣어도 될 것이다.

그러나 호수의 성질은 평온하고 한정(閒靜)하며 경계(境界)가 유심(幽深)하다. 마치 고인(高人)과 일사(逸士)가 물러나서 갈건을 쓰고 평범한 띠를 두르고 그윽한 곳에 살면서 사람들과 세상에 아부하지 않는 뜻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이는 참으로 은자가 지낼만한 곳이요, 거사가 뜻을 기탁할 만한 곳이다. 이것이 이른바 '사람과 장소가 서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sup>302)</sup>

『시호거사문고』가 창작 시기별로 글들이 편차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글은 1904~1907년 사이, 박원동 나이 32~35세에 지은 글이다. 족형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를 동일시하며 강한 유대감을 보이고 있다. 박원동은 1909년 겨울 37세 때 농사 짓는 아동들을 불러 서당에서 밤에 글을 가르쳤는데 이때 족형인 박장실과 함께 하였다.

박원동은 1927년 박장실과 종가의 제사 문제를 두고 문답을 하기도 하였다.<sup>303)</sup> 종가의 맏아들 집의 정침(正寢)을 장차 증건하려고 헐었을 경우, 선조의 제삿날이 되면 어느 곳에서 제사를 지낼 것인지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박원동은 의리상 종가의 맏아들이 우식(寓食)하는 곳에서 제를 올리는 게 마땅한 듯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301) 우복 정경세는 풍호를 추억하는 시 : 정경세의 『우복집』 권2에 「풍호를 추억하며[憶楓湖]」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전한다. 병서에 강릉부사로 재직하였을 때 풍호를 유람하고 그 승경에 감탄한 일을 적어 두었다. 시의 원문만 제시해 둔다. 정경세, 「憶楓湖」, 『愚伏集』 卷2, 총간68, 36면. “寒松南畔是楓湖, 極目平波遠有無. 欲傍晴沙留小屋, 好隨鹽戶作漁徒. 當時此語元非戲, 抵死初心未肯孤. 榆塞又塵吾已老, 【末句缺】”

302) 박원동, 「東湖說(族兄璋實號)」, 『시호거사문고』, 28~29면. “一面澄潭, 介於山海間, 爲郡之東國之東, 暨爲天下之東, 扁其居曰東湖齋者, 固得之矣. 湖之周圍, 不及鑑湖, 一作其所玩賞, 備有瀟湘八景. 荷子菱角, 簇滿水面; 紅鯪紫蟹, 物躍波心; 楓橋古渡, 孤烟蓊月; 踈鍾孤篴, 隱約相聞, 令人有招世脫塵之志. 是吾玩荷先祖有愛湖之居, 愚伏前候, 有憶湖之詩, 足以見稱於世而參爲關東勝地也. 然湖之性, 平穩閑靜, 境幽而界深, 有如高人逸士, 以葛冠常帶, 深居退任, 不媚於人阿於世之意態. 是隱者之可棲息, 居士之所寓意也. 此豈非人與地相得之謂也歟.”

303) 박원동, 「族兄東湖問答」, 『시호척독』, 524면.

지방 수령이 되어 부임지로 가 있는 경우는 목주(木主)를 마련하여 우소(寓所)에서 제를 올리는 것이 예의 권도인 것처럼 말이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 종가의 맏아들이 어려서 종조(從祖)가 제사를 섭행(攝行)하고 있고, 종조의 집 또한 종갓집의 가묘에 가까이 있으니 종조의 사방(私房)에서 권도를 행하는 것은 의리를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 ② 운빈(雲濱) 박기동(朴起東)

박기동(朴起東, 1874~1940)은 초명은 창실(昌實), 자는 우옥(禹玉), 호는 운빈(雲濱)이다. 아버지는 증호(曾虎, 초명은 曾壽, 자는 仁彦, 호는 閒閒), 조부는 규정(奎鼎, 자는 君五, 호는 雙西)이다. 박원동과 마찬가지로 삼가공파인데, 거주지는 사천면 미노리이다. 1902년 경기관찰부 주사(主事)가 되었으며 1905년 승훈랑(承訓郎)으로 승진하였고 다시 칙임교관(勅任敎官)에 제수되었다. 후에 중추원(中樞院) 참의(參議)에 올랐다.<sup>304)</sup> 『시호거사일기』에 따르면, 박기동이 중추원 참의에 피선된 것은 1930년 5월이었다. 박원동은 이에 대해 “지금 비록 나라가 쇠하였으나 반드시 사면할 것은 아니며 집안의 영광일 뿐이다.<sup>305)</sup>”라는 기록을 남겼다.

박기동은 1905년 박원동이 33세 때 개명을 하게 된 계기를 제공했던 인물이다. 이 해 가을 서울에서 건암(建菴) 송재경(宋在慶) 등이 오대산 월정사로 유람을 왔었는데, 이때 박원동과 박기동도 함께 하였다. 서울에서 온 어떤 이가 향렬인 ‘실(實)’자에 오행(五行)의 의미가 없음을 지적하자, 박기동은 초명인 ‘창실’을 ‘기동’으로 고치고, 박원동에게도 함께 개명할 것을 요청하여 박원동 역시 개명하였던 것이다.

박기동은 박원동과 함께 강회계(講會契)·금란계(金蘭契) 등에 참여하였으며, 『송자대전』 중간을 할 때에 박원동을 지원하였다. 박원동은 1927년 7월 『송자대전』 중

304) 『강릉박씨세보』 을권, 168면.

305) 『시호거사일기』 책2, 1930년 5월 14일. “今雖邦衰, 不須辭免, 爲普族之榮耳.”

간본 완질의 대금 문제로 박기동과 상의를 하였다. 북쪽 종친은 박기동이, 남쪽 종친은 박원동이 맡아 대금 문제를 전달하고, 대금을 모아서 ‘박원동, 박기동, 박용수(朴容壽)’ 세 사람의 명으로 간행소에 송금하였다.<sup>306)</sup> 송자대전복판동지록 간소에서 송자대전 중간 사업에 주축으로 참여한 인사를 기리기 위해 1936년경에 『존위안(尊衛案)』을 간행하였는데, 삼가 가문에서는 이들 3인의 이름이 올라 있다. 이후로도 박원동과 박기동은 『송자대전수차』의 구입과 대금 지불 문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계속해서 의견을 교환하였다.<sup>307)</sup>

한편 『강릉박씨세보』나 박원동의 문집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박기동은 강릉 고적보존회와 유교단체인 유도천명회(儒道闡明會)·관동명덕회(關東明德會) 등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강릉고적보존회는 1932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는데, 창립 기금을 김윤경과 함께 박기동이 융통하였다.<sup>308)</sup> 또한 박기동은 1924년 유도천명회 강릉지회의 2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sup>309)</sup>, 1930년 관동명덕회 창립에는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 4.2.2. 강릉의 싸움

##### ① 몽재(蒙齋) 김연목(金演穆)

김연목(金演穆, 1877~1929)은 본관은 강릉, 자는 달삼(達三), 호는 몽재(蒙齋)이다. 아버지는 병중(秉鍾), 어머니는 창녕 조씨 병우(秉友)의 딸이다. 일찍이 간재전우의 문하에 들어가 성리학을 공부하였으며,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구석촌에 사육

306) 박원동, 「答族從雲濱(起東)(七月日)」, 『시호척독』, 526~527면.

307) 박원동, 「答族從起東」, 『시호척독』, 530~531면. “筭件來教, 公直明透, 無所容喙, 而猥以一言陳解, 或曲許不之咎否. 管窺以爲此係士流公印, 決非本孫私佈也. …… 全書刊事, 同黨之浩役也. 脫或刊濟後有債臺, 而向同志家三大外, 更請二小, 則如之何答述耶? 既結同志, 此亦難措, 而今送費而覓價, 雖知其高構, 而莫如闔眼也. 以縫其刊債, 思置之似是好這意也. 筭之爲書, 卽全書之一通衍義, 一部續誌, 必相隨者也. 讀是全者, 捨是筭, 蘊奧莫開, 緊■從之照察也. 購此要編, 忘其浮算, 亦或一道也. 幸望諭告于同宗僉賢如何? 南宗別無角說耳.”

308) <每日申報> 1932년 12월 27일 기사 “江陵古蹟保存會 設立資金融通 朴·金兩氏가 五千圓을”.

309) <每日申報> 1924년 1월 24일 기사 “儒道闡明會 總會”. 초대 회장인 최동길(崔東吉)이었다.



정사(四六精舍)를 짓고 후학을 가르쳤다. 저서에 『몽재사고』가 있다.<sup>310)</sup>

김연목의 문집 『몽재사고(蒙齋私稿)』는 1940년에 석판본 2권 1책으로 간행되었다.<sup>311)</sup> 『몽재사고』에는 김연목이 전우에게 올린 편지가 4편 가람 수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편지는 임자년(1912) 9월에 보낸 것이다. 이 편지에서 김연목은 문학생으로 들어가 가르침을 받겠다고 청하였다. 이로 보아 김연목은 1912년에 간재의 문학생으로 들어가서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sup>312)</sup>

간재 전우는 1921년 김연목이 평창의 구석촌에 지으려고 한 정사의 이름을 ‘사육정사(四六精舍)’라 붙이고 「사육정사명(四六精舍銘)」을 지어주며 후학 교육을 독려했다. 간재가 지은 「사육정사명」의 병서(并序)를 인용해 본다.

김연목 군이 강릉에서 와서 말하기를 “우리 고을의 김윤경(金潤卿), 권오성(權五成), 최대수(崔大洙)와 제가 함께 학사(學舍)를 건립하여 유생들을 이끌고 강학을 하며 의리를 지키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이를 듣고 가상하게 여기며 횡거 선생(橫渠先生, 곧 장재(張載))의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정립하고 생민을 위하여 도를 정립하며, 옛 성인을 위하여 끊어진 학문을 잇고 만세를 위하여 태평 시대를 열어야 한다.[爲天地立心, 爲生民立道, 爲去聖繼絕學, 爲萬世開太平.]”(『근사록』 「위학(爲學)」)과 “말에는 가르침이 있고 행동에는 법도가 있으며, 낮에는 하는 것이 있고 밤에는 얻는 것이 있으며, 숨 쉴 때도 수양하는 것이 있고 눈을 깜빡일 때도 보존하는 것이 있다.[言有教, 動有法, 晝有爲, 宵有得, 息有養, 瞬有存.]”(『정몽(正蒙)』), 이 두 가지 가르침을 취하여 학사의 이름을 ‘사육정사(四六精舍)’라 이름 하였다.<sup>313)</sup>

310) 『강릉김씨대동보』 4권, 6면. “公聰明過人, 文藝夙就, 受業良齋田愚之門, 學闡性理, 義嚴春秋. 北之鹿山齋, 西之四六精舍, 講學受徒, 良齋先生, 銘而勗之. 纔免天而歿, 士林惜之. 有私稿八卷, 刊行于世.”

311) 金演穆, 『蒙齋私稿』(석판본 2권 1책), 1940. 서문은 1939년에 석농 오진영(吳震泳)이 지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되어 있다.

312) 전우의 『간재집』에는 김연목에게 보낸 편지가 여러 편 수록되어 있으며, 김연목과 관련된 서명(序銘)도 여러 편 있다. 편지는 『良齋集後編』 卷5, 「答金潤卿崔大洙金演穆(辛酉-1921)」, 『良齋集後編』 卷6에 「答金演穆(戊午-1918)」, 「答金演穆(己未-1919)」, 「與金演穆(辛酉-1921)」 등이며, 序銘은 『良齋集後編』 卷18에 「四六精舍銘(辛酉)」, 『良齋集後編續』 卷6에 「贈金演穆東歸序」, 『良齋集後編續』 卷7에 「鹿山齋銘(爲金演穆作)」 등이 보인다.

313) 田愚, 『良齋集後編』 卷18, 銘, 「四六精舍銘」(辛酉-1921년), 한국문집총간335, 348면. “金君演穆, 至自江陵, 言‘吾鄉金潤卿權五成崔大洙與小子, 共立學舍, 倡率諸生, 講學而守義.’ 余聞而善之, 取橫渠先生‘爲天地立心, 爲生民立道, 爲去聖繼絕學, 爲萬世開太平’, ‘言有教, 動有法, 晝有爲, 宵有得, 瞬有存, 息有養’二訓, 名曰四六精舍.”



전우가 「사육정사명」을 지었을 때는 사육정사가 실제로 건립된 것은 아니었다. 『시호거사일기』에 의하면, 1924년 4월 17일에 권오성·최대수·김연목이 박원동의 집에 찾아와 사육정사를 어디에 지을지 논의하였다. 지난 번 회의 때 박원동은 참석하지 못하였는데, 사육정사를 이설당에 건축하기로 하고 김윤경이 이를 맡아 추진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날 박원동 집에 모여 넷이 정사를 지을 곳을 다시 정하기로 논의를 한 것이며, 일단 죽헌으로 터를 다시 정하였다.

결국 사육정사는 1928년에 김연목이 평창의 구석평(龜石坪)으로 이거하여 짓기 시작하였으며, 김연목은 문생 김문호(金文昊)를 보내어 강회를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사육정사(四六精舍)’ 네 글자의 편액을 써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박원동은 집을 증건하는 일로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였다. 그후에 김연목이 사육정사 건립 비용을 청하는 편지를 보냈으며 박원동은 정사를 짓는 비용에 보태라고 김연목의 문생 김문호(金文昊)·신석휴(辛碩休)를 통해 의연금을 보내주었다.<sup>3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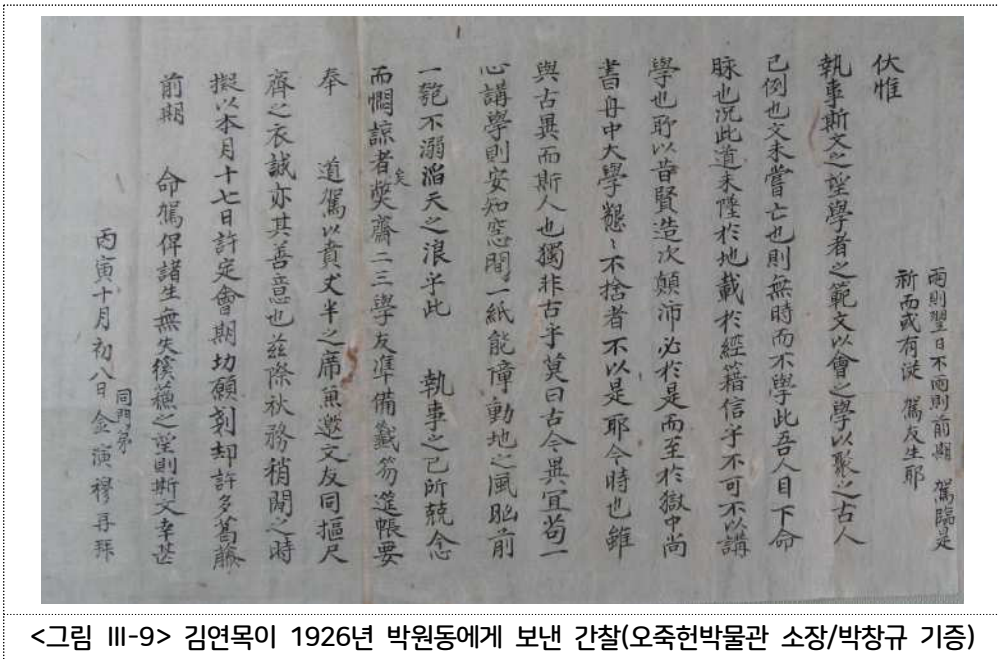
『시호척독』에는 박원동이 김연목에게 보낸 편지가 7편 가량 수록되어 있는데, 둘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문적 교류를 하였다. 특히 박원동의 후손가에는 박원동이 김연목으로부터 받은 편지가 무려 20편이나 전하는데, 박원동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편지 중 가장 많다.<sup>315)</sup> 이를 통해 둘 사이의 교류가 깊었음을 단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1926년 7월에 김연목에게 답한 편지의 별지에 김연목의 문목(問目)과 이에 대한 박원동의 답변이 부기되어 있다. 내용은 이기설에 관한 것인데, 박원동은 다음과 같이 말하여 문목에 답변을 달았다.

314) 『시호거사일기』 책1, 1928년 4월 9일; 4월 29일; 5월 1일; 5월 3일. 박원동은 사육정사 건립비용으로 5원의 의연금을 보냈다.

315) 박원동의 후손 박창규의 집에는 박원동이 김연목(金演穆), 최대수(崔大洙), 김윤경(金潤卿), 신명선(辛明善), 정채화(鄭采和) 등 강릉의 사우들뿐만 아니라 송자대전 중간과 관련하여 관계를 맺은 송증헌(宋曾憲), 송필호(宋苾鎬), 송주헌(宋柱憲), 김희진(金憲鎭) 등으로부터 받은 간찰이 200여 편 소장되어 있었다. 이들은 현재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에 기증되어 전하고 있다.

별지에 적어 보낸 문목은 심오한 이치와 의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실천하는 군자가 지극히 미세하게 분석해야 하는 것이요, 구이지학(口耳之學)을 하는 이가 능히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좌하께서 이미 불치하문(不恥下問)의 덕을 발휘하였는데, 보잘 것 없는 제가 어찌 감히 경솔하고 망녕되어 대답을 하겠습니까. 부디 저의 답변에 조목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바른 법도를 곧장 내려주어서 저의 미혹함을 깨우치는 덕을 베풀어주길 바랍니다.<sup>316)</sup>



<그림 III-9> 김연목이 1926년 박원동에게 보낸 간찰(오죽헌박물관 소장/박창규 기증)

앞서 살펴보았듯이, 1921년 박원동이 49세 때 간재의 문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천해 준 인물이 김연목이었다. 김연목은 간재의 상에 다녀온 후에 『간재선생상기(艮齋先生喪紀)』를 엮고서 서문은 김윤경에게, 발문은 박원동에게 부탁을 하였다.<sup>317)</sup> 강릉 지역 간재 문인 8인 중에 3인의 유대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316) 박원동, 「答金蒙齋(演穆)(丙寅七月日)」, 『시호척독』, 517~518면. “別錄之示, 理義深奧處, 是實踐君子之毫縷分析也, 非口耳之習所能窺究也. 座下既有不恥下問之德, 而不佞敢有率爾妄對之舉. 更望逐條指瑕, 直下繩尺, 以爲提警迷惑, 乃德之愛也.”

317) 참고로 1940년에 간행된 『몽재사고』에는 『간재선생상기』가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한편 1940년에 간행된 김연목의 문집인 『몽재사고』에는 권1의 ‘서(書)’에 박원동에게 보낸 편지가 1편 수록되어 있다. 『시호거사일기』를 보면, 『몽재사고』 1책이 왔다는 기록이 보인다. 박원동은 김연목이 진부의 구석평으로 이거하기 전 신리(新里)의 회동(檜洞)에 거주할 때 서로 주고받은 서신이 많았고, 또 김연목의 대상 때 제문을 가지고 가서 그의 묘에 곡을 하였는데, 『몽재사고』에는 단지 문목(問目)만 수록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하였다.<sup>318)</sup>

박원동은 간재 문하의 김연목을 두고 ‘주자 문하의 황왕(黃王)’과 같은 존재라고 칭송하였다.<sup>319)</sup> ‘황왕(黃王)’에서 ‘황(黃)’은 주희의 제자이자 사위인 면재(勉齋) 황간(黃幹, 1152~1221)을 말한다. 황간은 주희가 임종 때 황간에게 의발(衣鉢)을 전했다고 하며, 주희의 행장을 황간이 지었다. ‘황왕’에서 ‘왕’은 노재(魯齋) 왕백(王栢, 1197~1274)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재는 주희의 직전 제자는 아닌데, 왕백은 하기(何基)에게서 배웠고 하기는 황간(黃幹)에게서 배웠다. 곧 왕백은 황간으로부터 학기로 이어지는 주희의 정맥을 이은 학자로 일컬어졌다.

박원동은 1929년 김연목을 위해 지은 제문에서 김연목이 간재의 문하에 들어가 관동의 대유(大儒)가 된 것, 김연목이 자신을 간재에게 추천하여 문하생이 될 수 있도록 한 것, 그리고 간재로부터 칭찬의 편지를 받게 해 준 사실을 비중 있게 기록하며 고마움을 표시하였다.<sup>320)</sup>

한편 『송자대전』 중간을 할 때 강릉군 찬성장(贊成長)을 맡았다. 또한 『간재사고』 편찬 및 간행에서는 최대수와 함께 강원도 유사라는 중책을 담당하였다.

## ② 창운(滄雲) 김윤경(金潤卿)

김윤경(金潤卿, 1869~1948)은 본관은 강릉, 자(字)는 덕운(德允), 호는 천재(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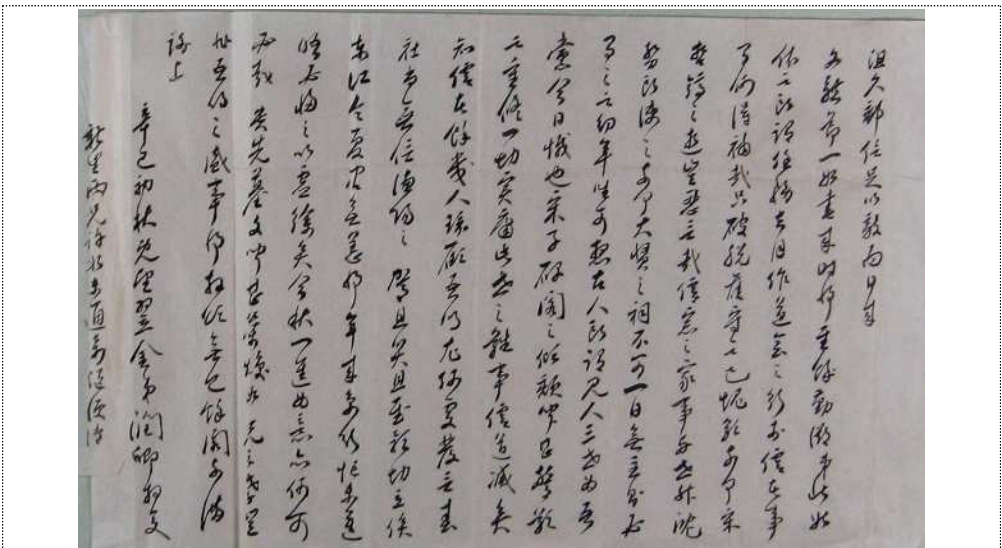
이 책의 존재를 상고하기가 어렵다.

318) 『시호거사일기』 책4, 1941년 1월 10일.

319) 박원동, 「題良齋先生喪紀後(甲子)」, 『시호거사문고』, 64면.

320) 박원동, 「祭金蒙齋文(演穆)」, 『시호거사문고』, 209면.

齋)이다.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관직은 강릉향교 직원(直員), 성균관 강사(講師) 등을 역임하였다. 어머니 상을 당하자 시묘살이를 3년간 수행하여 효자로 이름이 났으며, 열심히 치산을 하여 가업을 크게 일으켰다. 중년 이후로는 취옹(醉翁)·백운(白雲)·창석(滄石) 세 정자를 짓고 도의(道義)의 벗들과 함께 강독하고 시를 읊조리며 여생을 즐겼다고 한다. 유고(遺稿) 7권이 있다고 하는데, 현전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sup>321)</sup>



<그림 III-10> 김윤경이 1941년 박원동에게 보낸 간찰  
(오죽헌박물관 소장/박창규 기증)

321) 『강릉김씨대동보』 2권, 강릉김씨대동회, 2005, 496면. “公性度寬容正大, 克孝克友. 壬戌(1922)丁憂侍墓三年, 富與文明俱備. 早年受業於宋淵齋之門, 克修先業, 身致千金, 幹蠱勤止, 以復舊莊. 中年慕先世之蔭, 創建醉翁白雲滄石, 春風秋月, 與道義之友, 輪遊三亭, 或講或詠, 以娛餘生. 公以生當叔季, 懷寶不若, 既無不遇之嘆也哉. 有遺稿七卷.” 다만 김윤경이 1940년에 편찬, 간행한 『江陵金氏世譜』(신연활자 7권 7책. 江陵 : 江陵金氏族譜所, 1940)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전한다. 이하 『강릉김씨대동보』를 참고한 경우 권수와 면수만 명기함.

박원동이 1902년 30세 때 강회계(講會契)를 결성할 때 함께 주도한 이가 김윤경이다. 금란계·주춘시사(住春詩社) 등의 시회도 박원동과 함께하였다. 또한 김윤경은 간재 전우의 문하생이기도 하고, 『송자대전』 중간할 때 박원동과 함께 했던 동지이기도 하다.

김윤경은 박원동보다 앞서 간재의 문하에 들어갔다. 『간재집후편(良齋集後編)』 권5에는 전우가 김윤경에게 보낸 편지가 약간 편 수록되어 전한다.<sup>322)</sup> 편지의 주된 내용은 『소학』과 『대학』, 송대 성리학자의 견해, 율곡의 견해 등 학문의 요점에 관한 것이다. 시기적으로 볼 때 1920년의 편지가 가장 앞선데, 김윤경은 적어도 1920년에 간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박원동은 1924년경에 김윤경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윤경이 육순에 삼년상을 치른 효행을 칭송하고, 간재 선생의 상기(祥期)가 다 되었는데 모친상중이라 가보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김윤경이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사육정사(四六精舍)를 세워 열심히 후학을 가르쳐 주길 바랐다.<sup>323)</sup>

박원동은 1925년 4월 53세 때 비로소 모친상 탈상을 하고 전북 익산의 간재 선생 묘소에 참배를 하러 갔다. 이때 김윤경이 동행을 하였고 김윤경은 이때의 시문을 모아 『남유록(南遊錄)』으로 엮었다. 이 글은 윤4월 15일의 여정과 행적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박원동은 1930년 7월 15일 이 글에 발문을 썼는데, 『서경』의 「우공」과 「이훈」의 구절을 인용하며, 『서경』이 지닌 역사서로서의 전범적 기술 방식을 언급하였다. 「우공(禹貢)」은 산수(山水)를 표지(表識)하고 강역(疆域)을 변별하였으며, 「이훈(伊訓)」은 정삭(正朔)과 간지(干支)를 기록하였던 점을 특기하였다. 그러면서 김윤경의 『남유록』 역시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죽헌(竹軒)’부터 ‘방림(芳林)’까지, ‘경제(京第)’에서 ‘천재(泉齋)’까지 세세히 기록하고, ‘을축년(1925) 윤4월 15일 신유’에서 시작하여 ‘임진의 다음 날인 계사(5월 18일)’까지

322) 田愚, 『良齋集後編』 卷5, 「答金潤卿(庚申-1920)」, 「答金潤卿崔大洙金演穆(辛酉-1921)」, 「答金潤卿」.

323) 박원동, 「與金直眞(潤卿)」, 『시호척독』, 500면. “師也者, 師其道也, 不以師之存沒有異, 而手書遺箴, 有如面命, 則幸起一區精舍, 不失四六眞詮, 專希于■執之用力耳也.” ‘精舍’는 ‘四六精舍’를 가리킴.

기록하였다는 것이다.<sup>324)</sup>

한편 『간재사고(良齋私稿)』 간행과 관련하여 김윤경의 경제적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1925년 간재선생사고인소(良齋先生私稿印所)에서 발급한 발문(發文)에 간재 문집 간행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다행히 강릉의 김윤경이 특별히 힘을 보태주어 다시 추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기록이 보이기도 한다.<sup>325)</sup>

#### 4.2.3. 강릉 외 교류 인물

1984년에 간행된 『강릉박씨세보』에서 박원동이 교류한 강릉 지역 외의 인사로 석촌(石村) 윤용구(尹用求), 동강(東江) 김영한(金甯漢), 노탄(老灘) 송규헌(宋奎憲), 건암(建庵) 송재경(宋在慶), 석농(石農) 오진영(吳震泳) 등을 적시해 두었다.<sup>326)</sup> 이들의 인적 사항과 박원동과의 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다.

석촌(石村) 윤용구(尹用求, 1853~1939)는 한말에 예조·이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서화가이다. 본관은 해평, 자는 주빈(周賓), 호는 석촌(石村)·해관(海觀)·수간(睡幹)·장위산인(獐位山人)이다. 1871년(고종 8) 직장(直長)으로서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예조·이조판서에 이르렀다. 1895년 을미사변 이후로 법무·탁지부·내무부 등의 대신에 10여 회나 임명 되었지만 취임하지 않고 서울 근교의 장위산에 은거하면서 ‘장위산인’이라 자호하였다. 한일합방 후 일본 정부에서 남작을 수여하였으나 거절하고 서화와 거문고, 바둑으로 자오(自娛)하며 두문불출, 세사를 멀리하였다. 글씨는 해서·행서를 많이 썼으며 그림은 난과 대를 잘 그렸다.<sup>327)</sup>

박원동은 1934년 64세 때 ‘생정비각(生旌碑閣)’과 ‘오사재(五思齋)’의 편액 글씨를 윤용구로부터 받았다. 이에 앞서 박원동은 1928년 11월에 고양(高陽) 송인면

324) 박원동, 「題滄雲金潤卿南遊錄後(庚午七月之望)」, 『시호거사문고』, 8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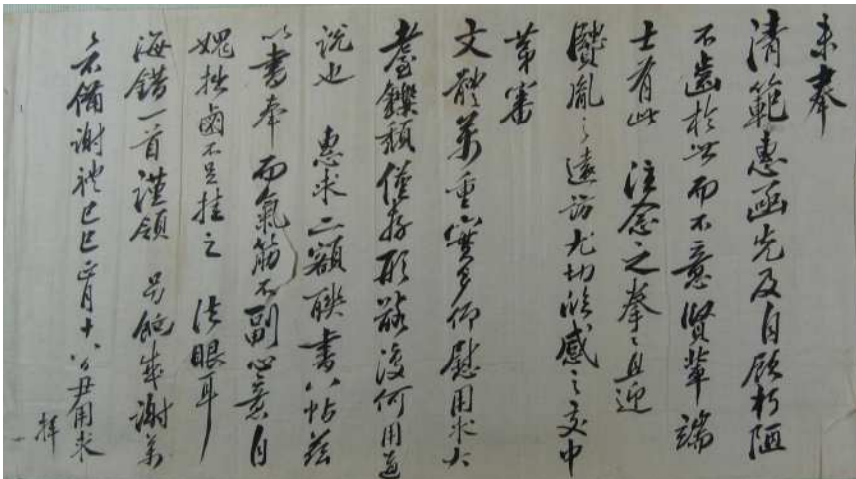
325) 「良齋先生私稿印所發文」,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이 문서는 유영선(柳永善)의 문중에 소장되어 있던 것인데, 유영선은 간재의 제자이다.

326) 『강릉박씨세보』 을권, 382~383면. “與尹石村用求·金東江甯漢·宋老灘奎憲·宋建庵在慶, 往復討論, 多有所發揮. 事在『江原道誌』. 建楓湖亭, 吳石農震泳作『詩湖記』.”

327)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윤용구’조.



(崇仁面) 석천(石村)에 사는 윤용구에게 편지를 보내 글씨를 부탁한 바 있었다. 편지에서 아들 용갑이 종이를 가지고 찾아볼 것이라 적었다.<sup>328)</sup> 또한 1946년 74세 때 풍호정(楓湖亭)을 낙성하였을 때, 윤용구에게 미리 받아둔 ‘풍호정(楓湖亭)’ 세 글자의 편액과 주련(柱聯) 등을 걸었다. 현재 생정비각의 편액은 쌍한정(강릉시 사천명 방동 소재) 옆의 비각에 걸려 있다.<sup>329)</sup> 그러나 ‘풍호정’ 편액은 현재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그림 III-11> 윤용구가 1929년 박원동에게 보낸 간찰(오죽헌박물관 소장/박창규 기증)

동강(東江) 김영한(金甯漢, 1878~1950)은 한말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장동), 자는 기오(箕五)·급우재(及愚齋) 또는 동강(東江)이다.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의 13세손으로, 아버지는 판돈녕원사(判敦寧院事) 김석진(金奭鎭)이고, 생부는 면천군수(沔川郡守) 김홍진(金鴻鎭)이다. 17세에 1894년(고종 31) 진사가 되었으며

328) 박원동, 「上尹判書用求(十一月二十四日)」, 『시호척독』, 540~541면. 원주에 “高陽崇仁面石村”라 되어 있는데, 원래는 ‘楊州’로 썼었다가 지우고 ‘高陽’으로 고쳐 썼음.

329) 이규대·임호민 공편, 『江陵의 樓亭資料集』, 「13. 雙間亭」, 강릉문화원, 1997, 239~245면 참조

1901년(광무 5)에는 용인군수에, 이듬해에는 양근 군수에 제수되었으며, 1903년(광무 7) 어진(御眞)을 모셔 서경(西京)에 봉안하였다. 1905년(광무 9) 을사늑약 이후 세상에 대한 뜻을 접고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문집으로 『급우재집(及愚齋集)』이 전한다.<sup>330)</sup>

박원동과 김영한의 교유는 상당히 일찍 시작된 듯하다. 『시호거사일기』 1929년 8월 30일자에 박원동이 서울의 아들을 만나로 간 차에 김영한을 방문하여 안부를 묻고 지난 과거시험 볼 때의 일과 삼연 선생이 호해정에서 독서할 때의 일 등에 대해 정겹게 대화를 나누었다는 기록이 보인다.<sup>33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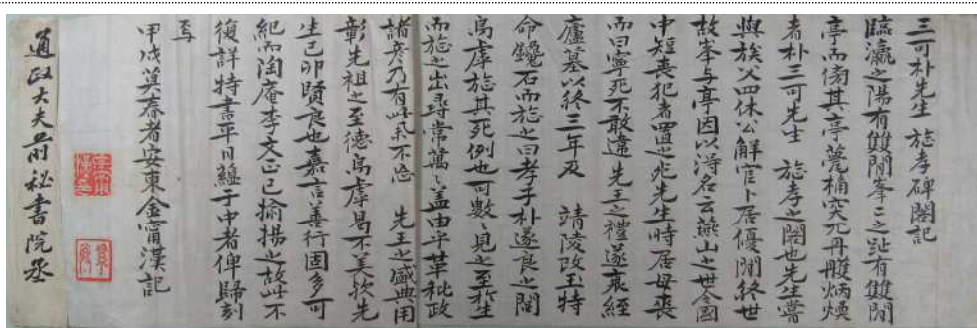
박원동 뿐만 아니라 박기동 역시 김영한과 가깝게 지냈다. 1933년 5월 김영한이 셋째 아들 김춘동(金春東)을 데리고 오대산 월정사로 유람을 왔을 때 박기동과 함께 하기로 사전에 약속을 하였다. 박원동과 김영한은 상당히 빈번하였는데, 『시호척독』과 『시호만음』에 김영한에게 준 시와 편지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박원동이 김영한에게 보낸 편지만 해도 9편 가량 된다. 김영한뿐만 아니라 김영한의 아들 김춘동에게 보낸 편지도 3편이나 수록되어 있다.

박원동은 주로 김영한으로부터 선조나 선조들의 사적에 대한 글을 청탁하여 받았다. 김영한으로부터 1934년에 생정비각(生旌碑閣)의 기문을, 1936년에 『강릉박씨세보』 서문을, 1937년에 조부 삼락공 묘표를, 1941년에 단천공 묘갈문 등을 요청하여 받았다. 편지를 통해 동봉하여 받은 적도 있고 서울에 올라가 직접 받은 적도 있었다.

33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김영한'조.

331) 『시호거사일기』 책2, 1929년 8월 30일.





<그림 III-12> 김영한 찬 「정호비각기」(오죽헌박물관 소장/박창규 기증)

김영한의 문집인 『금우재집』은 김윤동(金潤東)이 1969년 신활자본 20권 15책으로 간행하였다.<sup>332)</sup> 서문과 발문은 따로 없다. 권10에 서(序), 권11~12에 기(記), 권17~18에 묘갈명(墓碣銘), 권19에 묘표(墓表)가 수록되어 있다. 『금우재집』을 검토해 본 결과, 박원동이 김영한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생정비각 기문, 강릉박씨세보 서문, 단천공 묘갈명, 삼락공 묘표 등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권14의 서독(書牘)에도 박원동에게 보낸 편지는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문집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8에 「오봉서원중건상량문(五峯書院重建上樑文)」이 수록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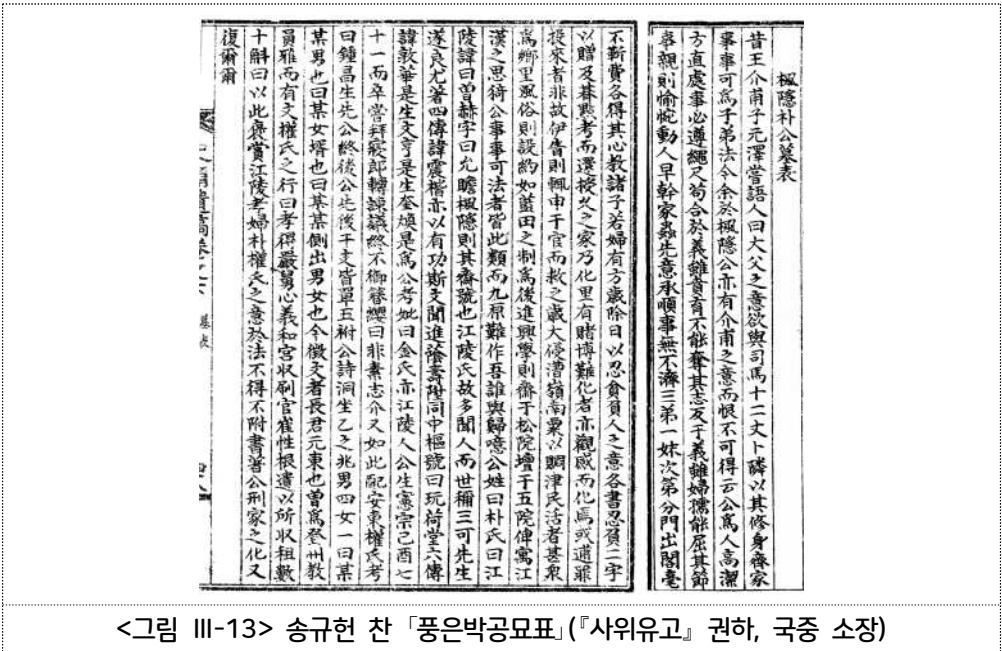
노탄(老灘) 송규헌(宋奎憲, 1874~?)은 우암 송시열의 후손으로 본관은 은진, 자는 윤오(允五), 호는 노탄(老灘)이며, 거주지는 회덕이었다. 1892년(고종 29)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규장각 직각, 시강원시독관(侍講院侍讀官) 등을 역임하였다.<sup>333)</sup>

박원동이 송규헌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긴밀하게 교류한 것은 『송자대전』 중간 사업에 강릉군 유사로 참여하면서부터이다. 박원동은 1926년 2월 54세 때 대전 소재 리의 송자대전중간소를 방문하여 중간 작업을 확인하러 가는 길에, 서울의 송규헌

332) 金甯漢 著, 金潤東 編, 『及愚齋集(遺集續集)』(신활자본, 20권 15책), 1969.

333) <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 '과거 및 취재' 및 '관인 정보'의 '송규헌'조에 의거함.

집에 들러 가장되어 있던 우암 영정에 배알을 한 적이 있었다. 이후 1933년 61세 때는 송규현이 강릉으로 찾아오기도 하였다. 『시호척독』에 송규현에게 보낸 편지가 7편 가량 수록되어 있는데, 1934년 이후에 보낸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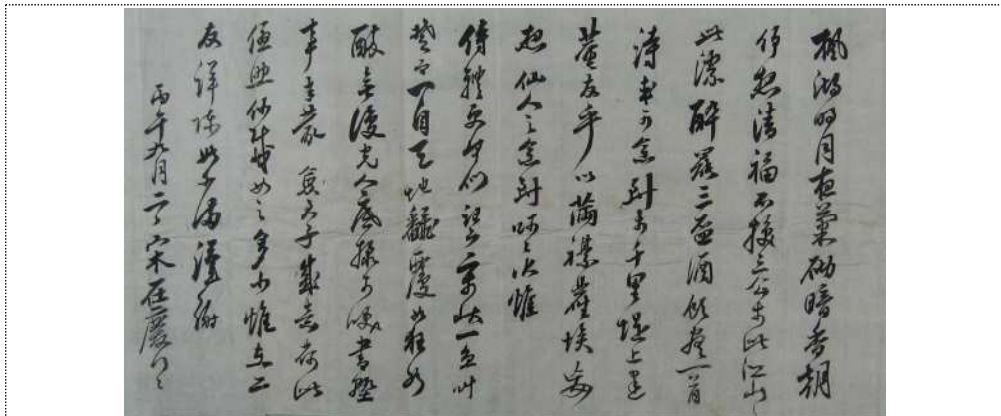
<그림 III-13> 송규현 찬 「풍은박공묘표」(『사위유고』 권하, 국증 소장)

박원동은 10세조인 완하당 박진해의 묘표와 아버지 풍은공의 묘표석을 송규현으로부터 받았다. 또한 송규현은 시산 박정규의 묘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특히 송규현 사후에 문집 간행에 박원동도 관여를 하였다. 1940년 2월에 문집 간행소에서 통문을 보내 왔으며 이어 송주헌(宋柱憲)과 김창근(金昶根)이 강릉으로 찾아와 문집 간행을 협의하였다. 문집 간행과 관련하여 1941년 2월에 박원동이 간소에 답한 편지가 있다.<sup>334)</sup>

334) 박원동, 「答老灘集刊所書(辛巳二月日)」, 『시호척독』, 608면.

송규헌의 문집은 송주헌이 1942년 석판본 2권 2책으로 간행을 하였는데 서명은 ‘사위유고(史謂遺稿)’이며 서문은 1927년 윤희구(尹喜求)가 썼다.<sup>335)</sup> 권상에 송규헌이 박원동에게 보낸 편지 1편이 「답박덕영(答朴德英)」(장6)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권하에 박원동의 아버지 풍은 박증혁 묘표인 「풍은박공묘표(楓隱朴公墓表)」(장47~48)와 완하당 박진해의 묘표인 「강릉박공묘표(江陵朴公墓表)」(장59~60) 등이 수록되어 있다.

건암(建庵) 송재경(宋在慶, ? ~1906) 역시 우암의 후손이다. 본관은 은진, 호는 건암이며 음직으로 세마(洗馬)를 제수 받았다. 거주지는 청주이다. 박원동과 송재경의 첫 인연은 1901년 29세 때로 상당히 일찍부터 이루어졌다. 이 해 2월 박원동은 신태목의 소개로 서울에 올라가 수당 이종원을 종유하고 있었다. 송재경은 세마에 제수되어 당시 서울에 우거하고 있었는데, 이때 박원동은 그와 교류하며 함께 공부를 하였다.



<그림 III-14> 송재경이 1906년 박원동에게 보낸 간찰(오죽헌박물관 소장/박창규 기증)

335) 宋奎憲 著; 宋柱憲 編, 『史謂遺稿』(石版本 2권 2책), 京城: 宋桂憲家, 1942.

이후 1905년 가을에 송재경이 휴양과 산풍놀이를 하자며 박원동에게 함께 오대산 유람을 요청하였다. 송재경은 송재설(宋在高), 송재명(宋在明) 등을 대동하고 월정사로 왔고, 강릉에서는 박원동을 비롯하여 김윤경(金潤卿), 최대수(崔大洙), 박기동(朴起東) 등이 함께 하였다. 이렇게 유람 온 이들은 월정사 용금루(湧金樓)에 이름을 연명하여 계판(揭板)을 하였는데 글씨는 박원동이 썼다. 또한 함께 주고받은 시를 모아 시첩으로 엮었다.<sup>336)</sup>

송재경은 10월에 월정사를 나와 강릉의 보현사(普賢寺)와 경포대(鏡浦臺)를 유람하고 강릉 지역의 유림을 두루 방문하여 친분을 쌓았다. 특히 박원동은 송재경과 이별할 때 『삼가선생집(三可先生集)』을 송재경에게 증정하고 아울러 증별시를 주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1926년 박원동이 『송자대전』 중간을 보러 충남 대전 소재 리 송재경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송재경의 부인으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석농(石農) 오진영(吳震泳, 1868~1944)은 한말의 유학자로 간재 전우의 고제(高弟)이다. 본관은 해주, 자는 이견(而見), 호는 석농(石農)이며 충북 진천(鎭川) 출신이다. 30세 이후로는 전우의 학문적 도통을 이어나가며 평생 유교 전통을 수호하는 데 힘썼다. 선비정신과 기절(氣節)을 중시하는 의리론을 제시하며 일제 말 일본 형사의 강압에 자신의 목을 칼로 찢러 항거하는 등 선비의 의리와 절개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일본의 강압에 항거하여, 「포고천하문(布告天下文)」 등의 각종 호소문을 지었으며, 3·1운동과 이후의 독립운동에 관심을 보였다. 경기도 안성(安城) 경양사(景仰祠)에 배향되었다.<sup>337)</sup>

박원동과 오진영의 인연은 1921년 49세 때 간재 전우에게 편지를 올려 간재의 문하로 들어간 때부터 시작되었다. 1922년 간재 사후로는 간재사고 편찬 및 간행과 관련하여 인연이 계속되었다. 1924년 오진영은 간재사고 간행을 상의하고자 아들 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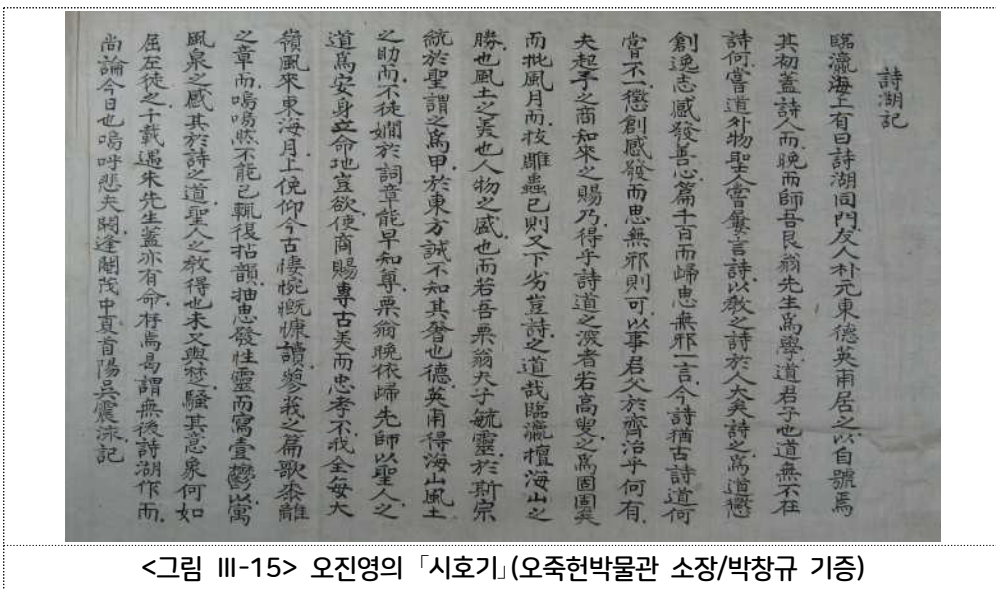
336) 『시호연명록』, 「月精寺湧金樓懸板(乙巳秋, 有吟詠詩軸, 詩湖書)」, 695면.

337)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오진영'조.

(舜根)을 데리고 강릉에 왔다. 강릉의 동문들과 경포대에서 상견례를 행하였는데, 박원동은 상중에 있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다. 이후로도 간재사고와 관련되어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시호척독』에 오진영에게 보낸 편지가 4편 가량 수록되어 전한다.

오진영의 문집인 『석농집(石農集)』이 1950년 연합자본 32권 12책으로 간행되었고, 이를 1988년에 여강출판사에서 영인, 출판하였다. 『석농집』 권1~16이 서(書)인데 오진영이 박원동에게 보낸 편지는 보이지 않는다.<sup>338)</sup> 다만 오진영이 박원동을 위해 지은 「시호기(詩湖記)」가 『석농집』 권22에 수록되어 전한다. 박원동의 후손가에는 오진영이 박원동에게 보낸 편지 3편과 「시호기」가 소장되어 있었다.

박원동은 1934년 여름에 편지와 함께 「시호기」를 오진영으로부터 받았다.



<그림 III-15> 오진영의 「시호기」(오죽헌박물관 소장/박창규 기증)

338) 한편 『석농집』 권6에 오진영이 김연목에게 무오(1918), 경신(1920), 갑자(1924), 정묘(1927)에 보낸 4편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오진영, 『석농집(상)』, 여강출판사 영인, 361~364면.) 또한 『석농집』 권 21에 김연목의 정사에 붙인 「사육정사기(四六精舍記)」가 있다.(오진영, 『석농집(하)』, 384면.)



「시호기」 전문을 인용해 둔다.

강릉의 바닷가에 '시호(詩湖)'라는 호수가 있는데, 동문 박원동 덕영(德英)이 그곳에 살며 자호로 삼았다. 시호는 애초 시인이었는데 만년에 우리 간재 선생을 스승으로 모셔 도를 공부하는 군자가 되었다. 도는 시에 있지 않음이 없으니, 어찌 시를 외물이라 말한 적이 있는가? 성인이 일찍이 시로써 가르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였으니, 시는 사람에게 지대한 것이다.

시의 도는 징창(徵創)과 일지(逸志)하여 선한 마음을 감발시키는 데에 있으니, 수천 편의 시는 모두 '사무사(思無邪)'로 귀결된다. 지금의 시가 옛날의 시와 같으니, 시도는 오로지 징창감발(徵創感發)하고 사무사(思無邪)한다면 군부(君父)를 섬기고 집안과 나라를 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찌 공자를 흥기시켰던 자하(子夏)<sup>339</sup>나 올 것까지 미리 알았던 자공(子貢)<sup>340</sup>처럼 할 수 있겠는가.

시도(詩道)의 심오함을 고수(高叟)와 같이 해석한다면 참으로 고루하다<sup>341</sup> 할 것이다. 그러나 음풍농월하며 초충전각을 뽐내는 데에 그친다면, 이 또한 못한 사람이나 하는 짓이니 이를 어찌 시도라 하겠는가.

강릉은 산과 바다로 승경이 많고 풍속이 아름다우며 인물이 많은 고장이다. 그리고 울곡 선생은 여기서 영기(靈氣)를 기르고 성인의 도통을 계승하였다. 강릉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고장이라 일컬어지는데도 참으로 자랑할 줄을 모른다.

시호는 산과 바다의 승경, 훌륭한 풍속 속에서 살면서 한낱 사장(詞章)을 익힐 뿐만 아니라 능히 울곡 선생을 존중하였고 만년에 간재 선생에게 귀의하였다. 성인의 도를 안신입명(安身立命)<sup>342</sup>할 곳으로

339) 공자를 흥기시켰던 자하(子夏) : 공자의 제자 자하가 『시경』에 나오는 시를 잘 해석하며 평하자, 공자가 "나를 흥기시키는 사람은 바로 우리 상(商)이로다. 이제는 너와 함께 시를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起予者, 商也. 始可與言詩已矣.]"라고 칭찬하였다.(『論語』「八佾」) 상(商)은 자하의 이름이다.

340) 자공(子貢) : 공자의 제자 자공(子貢)이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합니까?[子貢曰: 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 하니, 공자는 "좋기는 하지만 가난하면서도 즐기며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 하였다. 자공이 그 뜻을 열른 알아차리고 『시경』에 있는 말을 이끌어 대답하자, 공자가 칭찬하여 "사(賜)와는 비로소 시를 함께 말할 수 있구나. 지나간 것을 말하여 주니, 오는 것까지 아는구나.[賜也, 始可與言詩已矣. 告諸往而知來者.]" 하였다. 사(賜)는 자공의 이름이다.

341) 고수와 …… 고루하다 : 고수가 『시경』의 「소변(小弁)」시에 대하여 "소변은 원망의 뜻을 담고 있으니, 소인(小人)의 시이다."라고 한 데 대해 맹자가 "고루하다, 고수의 시를 해석함이며, 「소변」의 원망은 어버이를 친하게 여긴 것이다. 어버이를 친하게 여김은 인(仁)이니, 고루하다, 고수의 시를 해석함이며."라고 하였다. 「소변」시는 주 유왕(周幽王)이 포사(褒姒)에게 빠져 비인 신후(申后)를 내쫓고 태자인 의구(宜臼)를 폐위하자 의구가 이 시를 지어 애통하고 절박한 마음을 서술한 것이다. (『孟子』「告子下」)

342) 안신입명(安身立命) : 몸을 편안히 하고 명을 바르게 확립한다는 뜻이다. 『주자대전(朱子大全)』 권32 「답장경부(答張敬夫)」에 "이제야 넓고 거대한 우주의 큰 조화 속에서 스스로 편안히 지내는 집 한 채를 갖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몸을 편안히 하고 명을 바로 세우며 주재하고 지각하는 곳입니다. 이는

삼았으니, 어찌 자하와 자공처럼 고미(古美)를 전적으로 힘써서 충효(忠孝)가 자신에게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시호는 매양 대관령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동해로 달이 떠오를 때면, 고금의 시대를 회고하며 처원(悽惋)하고 강개(慷慨)한 심회가 일어나 「육아(蓼莪)<sup>343)</sup>」를 읽고 「서리(黍離)<sup>344)</sup>」를 노래하며 오열함을 그치지 못했다. 이럴 때면 또한 운자를 뽑고 구상을 하여 성령(性靈)을 드러내고 답답한 심회를 쏟아내며 풍천(風泉)의 감회에 기탁을 하였다. 시호는 시도에 있어서 성인의 가르침을 획득했다 할 것이다. 또 굴원(屈原)의 『이소(離騷)』와 비교했을 때 그 의상(意像)이 어떠한가? 굴원은 천년 후에 주자의 지우를 입었으니<sup>345)</sup> 역시 명운이 존재하는 것이다. 후대 사람 중에 지금 이 시대의 시호에 대해 논할 사람이 어찌 없다고 하겠는가. 아, 슬프도다!<sup>346)</sup>

대본(大本)을 확립하고 달도(達道)를 실행하는 근거가 되는 핵심입니다. 이른바 '본질과 작용은 근원이 같고 드러남과 은미함은 간격이 없다'고 한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而今而後, 乃知浩浩大化之中, 一家自有一箇安宅, 正是自家安身立命主宰知覺處, 所以立大本行達道之樞要. 所謂'體用一源顯微無間'者, 乃在於此.]”라고 하였다.

343) 육아(蓼莪) : 『시경』 소아(小雅) 편명으로, 낡아 주고 길러 주신 부모의 은덕을 노래한 시이다.

344) 서리(黍離) : 『시경』 왕풍(王風)의 편명으로, 동주(東周)의 대부(大夫)가 행역(行役)을 나가는 길에 이미 멸망한 서주(西周)의 옛 도읍인 호경(鎬京)을 지나가다 옛 궁실과 종묘가 폐허로 변한 채 메기장과 잡초만 우거진 것을 보고 비감에 젖어 탄식하며 부른 노래이다.

345) 굴원은 …… 입었으니 : 주희는 굴원의 충정을 높이 평가하여 『초사집주(楚辭集註)』를 편찬하고, 그 서문에서 “굴원의 행동과 뜻이 중용(中庸)에서 벗어난 것이 있지만 모두 충군(忠君)과 애국(愛國)의 성심(誠心)에서 나온 것이었다.”라고 하였다.

346) 吳震泳, 「詩湖記」, 『石農集』 卷22, 『석농집(하)』, 여강출판사 영인, 429~430면. “臨瀛海上有曰詩湖, 同門友人朴元東德英甫居之, 以自號焉. 其初蓋詩人, 而晚而師吾良翁先生爲學道君子也. 道無不在詩, 何嘗道外物? 聖人嘗累言, 詩以教之, 詩於人大矣. 詩之爲道, 懲創逸志, 感發善心, 篇千百而歸思無邪一言. 今詩猶古詩, 道何嘗不一懲創感發而思無邪, 則可以事君父於齊治乎? 何有夫起予之商·知來之賜乃得乎? 詩道之深者, 若高叟之爲固固矣, 而批風月而技彫蟲已, 則又下劣, 豈詩之道哉? 臨瀛擅海山之勝也, 風土之美也, 人物之盛也. 而若吾栗翁夫子, 毓靈於斯, 宗統於聖, 謂之爲甲於東方, 誠不知其奢也. 德英甫得海山風土之助, 而不徒嫻於詞章, 能早知尊栗翁, 晚依歸先師, 以聖人之道爲安身立命地, 豈欲使商·賜專古美而忠孝不我全? 每大嶺風來, 東海月上, 俛仰今古, 悽惋慷慨, 讀蓼莪之篇, 歌黍離之章, 而嗚嗚然不能已. 輒復拈韻抽思, 發性靈而寫壹鬱, 以寓風泉之感. 其於詩之道, 聖人之教得也. 未又與楚騷, 其意像何如? 屈左徒之千載遇朱先生, 蓋亦有命存焉. 曷謂無後詩湖作而尚論今日也? 嗚呼悲夫!”





## IV

## 강릉 유교문화 유산의 정리와 재건

박원동의 족질 박용기(朴容起)는 『시호문집』을 영인, 간행하는 서문의 서두에서 박원동은 불우한 시대를 만나 선비로서 독선기신(獨善其身)하며 후진을 훈육하는 삶을 살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박원동이 ‘향토문화’의 흥기(興起)를 자신의 소임으로 삼아 금란계(金蘭契)에 참여하고 주춘계(住春契)를 창립하는 등 문화단체의 사우(社友)들과 교류함, 향현록(鄉賢錄)을 편성하고 임영지(臨瀛誌)를 수록(修錄)하며 오봉서원록(五峯書院錄)을 편성함, 송자대전(宋子大全)을 중간할 때 유사를 맡음, 강릉향교실기(江陵鄉校實記)를 편찬할 때 협력함, 송담서원 다례식(茶禮式)을 개정하고 송담서원의 비각을 조성함, 향약을 설립하여 여씨향약의 규례를 전파함 등을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한 주요 활동으로 특기하였다.<sup>347)</sup>

또한 박원동의 삼남 용정(容丁) 역시 문집의 발문에서 “선고의 아조청취(雅操清趣)는 음풍영월(吟風詠月)과 산수오유(山水娛遊)하는 범속사류(凡俗士類)와는 그 취미가 탁이(卓異)하여 오로지 향토 문화 창달에 뜻을” 두고 진력한 선비였다고 회고하였다.<sup>348)</sup>

한편 1984년에 간행된 『강릉박씨세보』에는 박원동의 업적으로 충렬공 경양사(鏡陽祠)의 창건과 삼가공 생정비각(生旌碑閣)의 이건, 그리고 『임영지』의 속수와 『강릉향교실기』, 『강릉향현행록』의 간행을 기록해 두었다.<sup>349)</sup> 전자는 가문 내의 성과이고

347) 박용기, 「詩湖先生遺稿全集刊行序」, 『시호문집』, 13~14면.

348) 박용정, 「詩湖遺稿複製跋文」, 『시호문집』, 701면.

후자는 지역 사회에 기여한 성과이다. 이 장에서는 박원동의 여러 활동 중에서 강릉 유교문화 유산의 정리와 재건, 지역학 연구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유림 사회의 결속과 교류

### 1.1. 강학 활동

박원동은 강릉의 유림과 문창계(文昌契), 강회계(講會契) 등의 모임을 결성하여 유학을 진작하고 지역 사회에서 유림의 결속을 도모하였다. 1899년 27세 때 사우들과 문창계에 참여하였는데, 이때 참여한 인원이 다음과 같이 총16명이었다.

<표 IV-1> 문창계 명단

모임	이름(자, 호)
文昌契	金瑞卿(允集, 澗松), 金振鴻(元翼, 星坡), 朴璟實(漢甫, 晚荷), 崔達河(範天, 篁西), 金演性(正叔, 東四), 崔邦圭(季瞻), 曹珥煥(重(景)玉, 芝農), 金振邦(季彥), 崔〇〇(乃成), 柳豊敎(樂三, 瀛隱), 崔鍾洛(龜瑞, 惺石), 金潤卿(德允, 滄雲), 趙熙泳(聖涵, 石儂), 曹三煥(离玉, 三忍), 朴元東(德榮(英), 詩湖), 朴起東(禹玉, 雲濱)

문창계가 회원으로 참여한 정도였다면 강회계는 박원동이 주도하여 결성한 강학 모임이었다. 박원동은 1902년 30세에 강릉의 사우들과 운양재(雲陽齋)에 모여 『소학』을 강독하고 김윤경(金潤卿)과 주도하여 강회계(講會契)를 결성하였다. 강회계 조약은 박원동이 정리하였는데, 서두에서 결성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강릉은 예로부터 선비가 많은 고을이라 일컬어졌다. 그런데 근래 유교가 점점 침강하고 문풍이 진작 되지 못하였다. 이런 까닭에 동지들과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강회계'를 결성하여 고을의 훌륭한 풍속으로 삼고자 한다.<sup>349)</sup>

349) 『강릉박씨세보』 음권, 382~383면. “公創建忠烈公鏡陽祠, 移建三可公生旌碑閣, 續修『臨瀛誌』, 刊行『鄉校實記』及『鄉賢錄』.”

서세동점의 시대에 유교와 문풍이 흥성하였던 강릉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한 것이다. 강회계의 조약은 모두 20조인데, 앞의 4개 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조 : 회원은 반드시 배우기를 좋아하고 이를 실천하는 자를 선발함. 회원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계수(契首)'로 삼고, 유사 2인 혹은 4인을 돌아가며 선발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함.
- 2조 : 이웃 고을에서 연륜이 있고 덕과 학행(學行)이 있는 이를 여러 사람에게 추천을 받아 강장(講長)으로 삼음. 유사 1인이 직접 가서 강장을 초빙해 와서 스승으로 모심. 만약 책임자가 없으면 의심나는 부분을 기록해 두었다가 훗날을 기다려 질문함.
- 3조 : 강독할 책은 『소학』, 『효경』, 사서오경을 비롯하여 『심경』, 『근사록』 등의 성리서로 함. 일체의 이단이나 잡서, 언기(諺記)·패설(稗說) 등은 엄금함.
- 4조 : 정기 모임은 1년에 봄과 가을로 2회를 개최함. 모임 날짜를 유사가 편지를 발송하여 고지하는데 기안(忌案)을 점검하여 회원들에게 별일이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강릉의 남북으로 2통의 통지문을 발송함.

회원의 요건과 조직 구성, 강장의 초빙, 강독할 서목, 모임의 횟수 등을 규정해 두었다. 5조 이하의 조목에는 응강생(應講生)의 기숙 문제, 강독의 방식, 회원의 자리 배치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이를 통해 당시 강학의 구체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강회계는 1912년 가을 모임을 영귀암(詠歸巖)<sup>351)</sup>에서 개최하였는데, 영귀암을 '강대(講臺)'라 이름을 붙이고 이를 바위에 새겼다. 또한 회원들의 이름도 새겼는데 글씨는 박원동이 썼다. 이때 참석한 회원은 총18명으로 명단은 다음과 같다.

350) 박원동, 「講會契條約(壬寅)」, 『시호거사문고』, 18면. “江之鄉, 古稱多士, 而近來儒教漸降, 文風不振. 故會同志相議, 共修此契, 以爲善俗事.”

351) 영귀암(詠歸巖) : 정경세가 강릉부사 시절에 향교의 제생을 데리고 방문한 적이 있었던 곳이다. 송준길 이 찬한 정경세의 연보에 따르면 1615년(광해 7) 4월 53세 때 제생들을 데리고 영귀암을 방문하였다. 정경세가 지은 「함께 노닐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다.[示同遊諸君]」라는 제목의 율시 한 수가 전한다. 정경세, 『우복별집』 권5, 부록, 「年譜」, 총간68, 482면.

<표 IV-2> 강회계 명단

모임	이름(자)
講會契	金潤卿(德允), 崔燦珏(重玉), 崔大洙(彥一), 李喆鎬(聖國), 朴容采(德彥), 朴元東(德榮(英)), 曹煜承(汝明), 朴起東(禹玉), 金興卿(汝文), 沈達燮(孝源), 權五錫(景仰), 金振泰(來文), 金燦卿(世文), 朴幸均(元韶), 崔燦軾(應蘇), 崔燦奇(士吉), 崔亨吉(大元), 沈東燮(明魯)

이날 모임에 대해서는 「강계각석기(講契刻石記)」란 글에 자세한 기록이 보인다. 박원동은 이 글의 서두에서 강회계의 목적과 모임의 시기, 조약 등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 강회계의 목적은 경학을 공부하며 유학을 부흥시키는 데에 있었으며, 봄가을로 1년에 2회씩 강릉의 남북으로 돌아가며 모임을 가졌다. 강사를 초빙하고 여러 빈객을 맞아 읍양의문(揖讓儀文)을 시행하는 등, 대체적인 규약은 주희의 백록동학규(白鹿洞學規)<sup>352</sup>와 아호(鵝湖)<sup>353</sup>의 규례를 따랐다고 한다. 특히 백록동학규는 조선시대 관학 및 서원 교육의 전범이 되었는데, 강회계는 이를 계승한 것이다.

1912년 봄 모임에서 강회계의 명단을 바위에 새겨 동지들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자는 발의가 있었다. 그리하여 이해 가을 모임에서 오봉서원 남쪽 계곡에 있는 영귀암의 북쪽 사면, 곧 오봉서원과 마주보는 곳에 ‘강대(講臺)’라는 두 글자를 바위 위쪽에 새기고 그 아래에 회원 명단을 세 줄로 새겼다. 박원동은 바위에 이름을 새기는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며 각명(刻名)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바위가 사람을 얻은 것인가, 사람이 바위를 얻은 것인가. 귀신이 같고 아로새겨놓은 듯한 바위가 오랜 세월 깊숙한 곳에 감추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를 만난 날을 기다린 것은 아닐까. 고금의 시대를 회고해 보고 세상을 돌아보아도, 나도 모르게 한바탕 호탕하게 웃는다.

사람의 명자(名字)가 기록되는가의 여부는 사람됨에 달려있는 것이지 어찌 바위에 달려있겠는가. 옛 사람의 시에 “이름을 남기는 것은 단단한 바위에 새겨서 될 일이 아니니, 길가는 사람들의 입이 곧 비

352) 백록동학규 : 주자가 남강군(南康軍)을 다스릴 때 손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의 학규를 정하고 여기에서 학문을 강론하였다.

353) 아호(鵝湖) : 중국 강서성(江西省) 신주(信州) 연산현(鉛山縣)에 있는 산인데, 1175년 여조겸(呂祖謙)의 주선으로 주희와 육구령(陸九齡)·육구연(陸九淵) 형제가 이 산의 아호사(鵝湖寺)에 모여 논쟁을 펼친 바 있다.

석이라네.[遺名不在鐫頑石, 路上行人口是碑]<sup>354</sup>”라 하였으니, 참으로 만고의 격언이라 할 것이다. 그러 하니 지금 우리가 바위에 이름을 새기는 일이 도리어 식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겠는가.

왕희지(王羲之)와 사안(謝安), 양호(羊祜)와 두예(杜預)가 만약 청렴하고 덕이 있으며 공을 이루고 어진 명사가 아니었다면, 비록 난정첩(蘭亭帖)<sup>355</sup>이 열 개나 되고 현수산(峴首山)의 비석<sup>356</sup>이 백 개가 되었든들, 어찌 황희지와 사안, 양호와 두예를 위한 것이겠는가. 공자를 모시는 서원(곧 오봉서원)이 이곳에 있으니, 공자의 말로 해석해 보겠다. 공자는 “단단하다 말하지 않겠는가. 갈아도 닳지 않는다.[不曰堅乎? 磨而不磷]<sup>357</sup>”라 하였으니, 대개 스스로 단단하다면 닳아지는 데에 이르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또 “군자는 죽은 뒤에까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君子疾沒世而名不稱焉]<sup>358</sup>”라 하였으니, 명예를 추구함을 이룬 것이 아니라 선행의 실질이 없음을 싫어한 것이다. 우리 모임의 사람들을 돌아보건대 서로 선행을 면려하고 있다. 스스로 단단해져 닳지 않는 데 나아가도록 노력한다면, 그 이름이 혹 죽은 뒤에라도 칭송함이 있을 것이다. 어찌 잔달게 바위에서 구하여 이름을 새기겠는가.

그러나 바위에 이름을 새기는 뜻은 이름이 불후해짐에 있지 않다. 이는 필시 우리 동지들로 하여금 사이좋게 공유하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다. 마치 바위가 영원히 닳아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지금으로부터 천백년 뒤에 이 바위를 지나는 이들이 새겨진 이름을 가리키며 “누구누구가 서로 의기를 투합하여 도(道)를 숭상하였으니 자못 한 시대를 풍미한 강릉 고을의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한다면, 계를 조직하여 강학을 한 의미를 잃지 않았다 할 것이다. 과연 그렇지 않겠는가.<sup>359</sup>

- 354) 이름을 …… 비석이라네 : 소강절(邵康節)의 「詔三下答鄉人不起之意」(『伊川擊壤集』 卷7)라는 시에 “그대여 돌덩이에도 새길 것 없나니, 노상에 행인의 입이 비석과 같다네.[勸君不用鐫頑石, 路上行人口似碑.]”라는 구절이 보인다. 이 구절은 『명심보감』 「省心篇上」에도 수록되어 있다.
- 355) 난정첩 : 난정은 중국 회계(會稽) 산음현(山陰縣)에 있던 정자이다. 진 목제(晉穆帝) 영화(永和) 9년(353) 삼월 삼진날, 즉 상사일(上巳日)에 왕희지(王羲之), 사안(謝安), 손작(孫綽) 등 당대의 명사 40여 명이 난정에 모여서 계사(禊事)를 행하고, 술을 마시고 시를 읊조렸다. 왕희지의 「난정기(蘭亭記)」에 그 내용이 보인다.
- 356) 현수산(峴首山)의 비석 : 현수산은 중국 양양(襄陽)에 있는 산이다. 진(晉)나라 양호(羊祜)가 양양에 주둔하면서 덕을 베풀어 적국인 오(吳)나라 사람들조차 그를 사모하였다. 그가 죽자 변경을 지키던 오나라 군사들까지 그의 덕을 사모하여 눈물을 흘렸으며, 양양 사람들은 양호가 즐겨 노닐던 현수산에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여 두예(杜預)가 ‘타루비(墮淚碑)’라고 명명하였다. (『晉書』 권34 「羊祜列傳」)
- 357) 단단하다 …… 닳는다 : 지조를 견정(堅貞)하게 지킴을 비유한 말이다. 춘추 시대 진(晉)나라 대부 조씨(趙氏)의 읍재(邑宰)인 필힐(佛聆)이 모반을 일으킨 다음 공자를 불렀는데, 공자가 그에게 가려고 하였다. 이에 제자 자로(子路)가 필힐이 공자를 더럽힐까 걱정하여 가지 못하게 하자, 공자가 자로를 안심시키며 이르기를 “단단하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갈아도 닳아지지 않으니. 희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검은 물을 들어도 검어지지 않으니.[不曰堅乎? 磨而不磷. 不曰白乎? 涅而不緇.]”라고 하였다. (『論語』 「陽貨」)
- 358) 『논어』 「위령공(衛靈公)」에 공자가 “군자는 죽은 뒤에까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君子疾沒世而名不稱焉.]”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 359) 박원동, 「講契刻石記」, 『시호기사문고』, 48~49면. “石得人乎? 人得石乎? 鬼如彫而神如磨, 藏之遼深歷窮古, 而期有待於今日歟. 因府仰今古, 顧瞻寰宇, 自不覺軒然一笑. 凡人名字之存沒, 不在人而

박원동은 강회계를 왕희지의 난정 모임에 비견하였다. 그리고 바위에 이름을 새기는 것이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유학을 숭상하며 강학 모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았다. 『시호거사일기』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강회계는 박원동의 만년인 1940년까지 이어졌다.<sup>360)</sup> 박원동은 강회계가 유향으로서의 강릉이 지닌 위상을 계승한다는 데에도 의미를 부여하였다.

## 1.2. 시회 활동

강릉에는 금란반월회(金蘭半月會), 주춘계(住春契), 영주구로회(瀛州九老會) 등과 같이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시회(詩會)가 많이 있었다.<sup>361)</sup> 강릉의 수려한 풍광과 이를 감상할 수 있는 곳에 세워진 정자에서 유림의 풍류를 즐기는 시회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 중에서 조선전기에 결성된 금란반월회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금란반월회는 강릉 지역의 향촌사회를 유학적 이념으로 개혁하기 위해 1466년(세조 12) 음력 9월 9일에 강릉 지방의 젊은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중간에 폐해졌다가 1930년에 회원의 후손들이 매학정(梅鶴亭)을 사서 이름을 ‘금란정(金蘭亭)’으로 고치고 수계를 하면서 부활하였다.

『시호거사일기』에는 박원동이 금란계에 참여하게 된 사정이 나온다. 1930년 3월에

石乎哉? 古人有詩云‘遺名不在鐫頑石, 路上行人口是碑’, 固足爲千古格語, 則今吾此石之役, 反不爲識者之譏歟. 向使王謝·羊杜輩, 如非清德功仁之名, 雖十蘭帖而百峴碑, 豈爲王謝而羊杜也哉? 夫子之院在斯, 請以夫子之言解之, ‘不曰堅乎? 磨而不磷, 蓋自堅則不至於磨磷; 又曰‘君子疾沒世而名不稱焉’, 非謂求名, 而惡其無爲善之實. 則願吾同約之人, 互相勉勵, 試進於自堅不磷, 則名或沒世而有稱矣, 夫何屑屑焉石之求哉銘之施哉? 然剜石之意, 不在名之不朽, 必使吾同志從遊之好愈久不渝, 有如石之永世不泯. 起自今而至于千百, 過此石者, 指諸名曰‘某與某, 義相合而道相尚, 頗爲江關一時美事也’云矣, 則庶不失會契修講之義也. 果然乎否!”

360) 『시호거사일기』 책4, 1940년 4월 21일자에도 강회계에 참석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361) 일제강점기 강릉 지역 시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영주음사(瀛州吟社)’를 다룬 연구가 있었고, 주춘시사의 시첩인 『주춘시화(住春詩話)』라는 자료를 소개한 정도이다. 이경화, 「강릉 지역 시사의 구성과 역할-영주음사(瀛州吟社)를 중심으로-」, 『강릉학보』 제2호, 강릉학회, 2008; 김풍기, 「강릉 지역 시사(詩社) 주춘사의 한시집 <주춘시화(住春詩話)> 에 대하여」, 『강원문화연구』 34,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2015 참고.



심동섭(沈東燮)·김진홍(金振洪)·김두남(金斗南)이 박원동 집으로 찾아와 금란계동첩(金蘭契同帖)을 속수(續修)하자고 권하였다. 경포의 금란정은 작년에 보수했는데 부채가 4백 원이었으며, 신입 회원 8~9명을 모집하여 회원 당 50원씩 회비를 받아 부채를 갚기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었다. 금란반월계의 창계원에 방계 선조인 영정(榮楨)·시문(始文) 등이 참여하였던 까닭에 박원동은 금란계에 가입하였다. 이후 박원동은 죽형 은실(殷實), 죽종 기동(起東), 김윤경 등에게 가입을 권고하였다. 4월 28일에 비로소 금란계에 참석하였으며 29일에 금란반월계 창원록 등을 열람하고 각자 50원씩 회비를 내어 명첩에 기록을 하였다.<sup>362)</sup> 『시호거사일기』에 1947년 4월에도 금란계에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금란계가 해방 후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sup>363)</sup>

박원동은 1941년 3월 금란계 유사를 맡아 금란정에 가서 화목(花木)을 심었다.<sup>364)</sup> 다음은 이때의 일을 기록한 기문인데, 주제와 행문(行文)이 빼어나 전문을 인용해 둔다. 유종원(柳宗元)이 지은 「종수곽탁타전(種樹郭橐駝傳)」을 번안(飜案)한 흥미로운 글이다.

경포호 가의 언덕에 금란정(金蘭亭)이 있는데 곧 금란계(金蘭契) 회원들이 모이는 정자이다. 사계절로 좋은 날 정자에서 모임을 연다. 봄과 여름에는 '홍행녹양(紅杏綠楊)'이라 하여 살구꽃이 붉게 핀 봄날과 버들이 푸른 여름날에 모인다. 가을과 겨울에는 '황국백설(黃菊白雪)'이라 하여 누런 국화가 핀 가을날과 흰 눈이 내리는 겨울날에 모인다. 대개 사시사철 계절별로 경물을 즐기니 딱 좋은 날을 취한 것이다.

네 가지 경물 중에서 오직 흰 눈은 하늘이 내려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머지 세 가지는 땅에 심는 것들이니, 정자의 뜰에 줄지어 심어두고 철마다 아름다운 빛깔을 눈으로 본다면 참으로 좋은 일이다. 다른 회원들의 생각도 같았다. 나는 금란계의 말석에 참여하여 이 일을 맡았다.

올해 3월 초순에 우리 집 창 앞에 있는 살구나무 한 그루, 버드나무 세 그루, 국화 몇 줄기를 캐다가 집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을 데리고 정자로 가서 심었다. 살구나무는 정자의 서쪽에, 버드나무는 동쪽에

362) 『시호거사일기』 책2, 1930년 3월 9일, 4월 28일·29일.

363) 『시호거사일기』 책5, 1947년 4월 14일.

364) 『시호거사일기』 책4, 1941년 3월 4일.

심었고 국화는 뜰의 남쪽 끝에 줄지어 심었다. 모두 적당한 자리를 살피서 심은 것이며 특별히 방향이 지나는 의미를 취한 것은 아니었다.

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물을 주고는 정자지기를 불러다 곽탁타(郭橐駝)<sup>365</sup>가 나무를 기르는 방법으로 주의를 주었다.

“뿌리를 건드리거나 껍질을 손톱으로 긁지 말게나. 포기한 것처럼 그저 내버려 두고 나무의 본성을 따르게 해야 하네. 이렇게 하면 올 여름과 가을에 푸른 버드나무와 누런 국화를 반드시 볼 수 있네. 내년이면 봄에 살구나무에 붉은 꽃망울이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네.”

이때 어느 뉘시꾼이 뉘싯대를 메고 지나가다가 꽃나무를 손수 심는 의도를 나에게 자세히 묻고는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정자의 이름이 예전에는 ‘매학정(梅鶴亭)’이었고 지금은 ‘금란정(金蘭亭)’이라 들었소. 그런데 매화나무와 학, 쇠불이와 난초 이 네 가지 사물이 보이지 않는구려. 모임을 붉은 살구꽃이 피는 봄날, 버들이 푸른 여름날, 노란 국화가 피는 가을날, 흰 눈 내리는 겨울날에 여는 것은 적당하다 할 것이오. 그런데 이 네 가지 경물을 꼭 이 정자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심한 게 아니겠소?”

이에 나는 쟁기를 잡고는 그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정자의 이름은 다만 그 사물들에 담긴 의미만을 취한 것이지만, 정자에서의 모임은 반드시 경물들의 빛깔을 취한 것이라오. 그러하니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을 함께 이야기 할 수는 없는 법이오. 그대 역시 실지심법(實地心法)을 알거요. 이미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소이다. 그러니 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소. 정자(程子)는 삼척동자도 호랑이가 무섭다는 것은 다 알지만 실제로 본 사람과는 결국 다르다고 하였소이다.<sup>366</sup> 정자의 말과 지금 꽃나무를 심는 것은 비록 서로 비슷하지는 않으나, 실질적인 마음은 같다 할 것이오. 그러나 손수 꽃나무를 심는 것을 가지고 심법(心法)을 설파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역시 망령되지 않겠소.”

뉘시꾼은 다시 빙그레 웃고는 작별 인사를 하고 갔다. 이에 나는 나무뿌리에 흙을 복돋다가 즐거움을 쓰다듬으며 말하였다.

“너는 예전에 우리 집에 있었다. 궁벽한 촌구석이라 너를 보고 칭찬해 주는 이도 없었지만 다행히 나무꾼에게 잘리는 화도 면하였다. 이제 경관이 빼어난 정자에 옮겨 심어져서 철마다 이름난 사람들과 원대한 뜻을 지닌 선비들이 묘사하고 읊조리는 시재가 되어 훗날까지 아름다움이 전해질 것이다. 숨겨져

365) 곽탁타(郭橐駝) : 유종원(柳宗元)의 『중수곽탁타전(種樹郭橐駝傳)』에 나오는 나무를 잘 키우는 사람. 곽탁타가 나무를 잘 기르는 비법은 그 본성에 따라 저절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고 되도록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366) 정자는……하였소이다 : 정이(程頤)는 “옛날에 범한테 부상당한 자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범을 말할 때 비록 삼척동자라도 모두 범이 두렵다는 것은 알지만, 끝내 범한테 부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의 정신과 안색이 잔뜩 공포에 질려 지성으로 두려워하는 것과는 같지 않으니, 이것은 실제로 보았기 때문이다.[昔有曾經傷於虎者。他人語虎，雖三尺童子，皆知虎之可畏也。終不似曾經傷者，神色懾懼，至誠畏之。是實見得也.]”라고 하였다.([『近思錄』 卷7, 「出處」) 실제 경험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다.

있던 것을 드러나게 하고 그 아름다움을 드날리게 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학덕이 높은 재야의 인사가 조정에 천거되어 입신양명하며 뜻을 펼치는 것과 같다. 만약 꽃나무에게 지각이 있었다라면,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어 고맙다고 나에게 인사할지도 모르겠다.”

이 일이 비록 자잘한 것이지만 느끼는 바가 있어 기록한다.<sup>367)</sup>

박원동은 같은 해 ‘주춘계’를 계승하여 주춘시사(住春詩社)를 창설하였다. 이 시사의 이름은 “삼십육궁이 온통 다 봄이로다.[三十六宮都是春]<sup>368)</sup>”에서 의미를 취한 것이다. 일찍이 박원동의 10조인 박진해가 1676년 군수 최완(崔浣), 생원 김계(金膺) 등 12인과 ‘주춘계(住春契)’를 결성하고 시첩을 만들어 집안에 보관하였던 전통을 부활시킨 것이다. 그런데 선조들의 ‘주춘계’를 속수한다면 그 후손들만 가입이 가능하고 다른 성씨는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임의 이름을 ‘주춘음사(住春吟社)’로 하였다고 한다.<sup>369)</sup> 본래는 18인이 창립을 하였는데 후에 추가로 가입하여 36명이 되었다. 주춘시사의 창립 명단은 아래와 같다.

367) 박원동, 「金蘭亭種花木記」, 『시호거사문고』, 155~157면. “鏡湖之岸有亭曰‘金蘭’, 卽金蘭契人之亭也. 亭有四季良辰會, 春夏曰‘紅杏綠楊’, 秋冬曰‘黃菊白雪’, 蓋取四季時物之良辰也. 四物中, 惟白雪必俟天降, 而三物卽地之植物也. 列植于亭之庭, 目見其時物之色, 是好事也. 衆意相符, 余以契木該司, 是年季春之初, 採窓前杏一根·楊三枝·菊幾叢, 帶家僮而來, 植杏西而楊東, 菊列庭之南端, 相其地之宜, 別無取方向之義也. 圍以柵而賦以水, 招亭之守者, 以囊駝種樹誠之曰: “慎勿搖其本而爪其膚, 置之如棄, 以順木之天也. 今夏秋必見其綠黃, 來歲春庶見其結紅矣.” 時有一釣客荷竿而過, 細問手植之意, 向余莞爾而曰: “吾聞亭之名, 古梅鶴, 今金蘭, 未見梅鶴金蘭四物之具也. 亭之會, 亦知其杏楊菊雪四物之時則宜矣. 必欲見其時物之色者, 不其甚歟?” 余乃杖鑿而顧之曰: “亭之名, 只取物之意義也; 亭之會, 必取物之景色, 則其見與不見, 不可同日語也. 客亦知夫實地心法乎. 既以見與不見無異爲言, 則請以有異爲諭矣. 程子有言, 三尺童子, 皆知虎之可畏, 而終不似實見得者也. 以與彼雖不相似, 其實地之心一也. 然手植花木, 說到心法, 亦非妄歟.” 客復莞爾而辭去. 乃以培根之手, 撫其枝幹曰: “汝前在我屋, 僻陋之濱, 不見稱於人, 而幸免樵莞野斤. 今移根于亭樹勝地, 各隨其時, 得入於聞人遠士, 寫物諷詠之詩料, 傳美於來世. 其闌幽揚美, 有若巖穴之士, 薦于廟堂之上, 立身而伸其志. 若使花木有知, 庶或以榮幸謝我矣.” 此雖細事, 有所興感者而記之.”

368) 송나라 소옹(邵雍)이 지은 「관물음(觀物吟)」의 마지막 구절이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목 총명한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으니, 천지조화의 부여가 빈약하지 않다. 월궁을 더듬어야 사물을 알 수 있으니, 천근을 밟지 않으면 사람을 어떻게 알리오. 건이 손을 만난 때 월궁을 보게 되고, 지가 뇌를 만난 때 천근을 볼 수 있나니, 천근과 월궁이 한가로이 왕래하는 가운데, 삼십육궁이 온통 다 봄이로구나.[耳目聰明男子身, 洪鈞賦與不爲貧. 須探月窟方知物, 未躡天根豈識人? 乾遇巽時觀月窟, 地逢雷處見天根. 天根月窟間往來, 三十六宮都是春.]”라고 하였다.

369) 『시호거사일기』 책2, 1930년 5월 26일.

<표 IV-3> 주춘시사 명단

시회	이름(자, 생년, 호, 관직)
住春詩社 (庚午)	金演采(景光, 甲寅, 蒼西, 議官), 李東祚(啓允, 乙卯, 荷汀), 鄭宗和(舜韶, 丁巳, 韶堂, 進士), 鄭鳳和(德羽, 己未, 雲谷, 主事), 崔在河(見天, 己未, 雲南), 崔文吉(聖憲, 辛酉, 東隱, 主事), 鄭鎬日(致德, 辛酉, 松溪), 金演性(敬叔, 壬戌, 悠山, 直員), 沈相祚(錫年, 乙丑, 青存, 參奉), 金演哲(峻明, 丙寅, 月溪), 南有榮(聖韶, 丁卯, 竹西, 主事), 金振泰(登玉, 丁卯, 耕巖, 主事), 崔燉性(子元, 丁卯, 菊圃, 進士), 金潤卿(德允, 己巳, 滄雲, 直員), 沈相德(錫五, 己巳, 愚堂, 直員), 金學源(善翁, 己巳, 美堂), 權泰稷(永會, 己巳, 海石), 鄭錫和(士德, 庚午, 南岡, 敎員), 金秉煥(聖吉, 辛未, 石倫, 主事), 權寧燮(舜汝, 辛未, 河隱), 曹三煥(离玉, 辛未, 三忍, 敎員), 李時應(中立, 壬申, 菊隱), 鄭鎬璟(景玉, 壬申, 晚湖), 辛晉黈(命三, 壬申, 晚悟), 朴元東(德英, 癸酉, 詩湖, 敎員), 沈相烈(大敬, 丁丑, 松山), 沈宗燮(芳伯, 丁丑, 立菴), 沈相鳳(舜招, 戊寅, 桐山, 主事), 崔駿植(季雲, 戊寅, 雪松), 鄭鎬德(致三, 戊寅, 鏡人, 主事), 崔鎮泰(大善, 己卯, 石村), 金晉卿(聖用, 庚辰, 春谷), 曹秉龍(景雲, 庚辰, 霞隱), 崔成主(公一, 辛巳, 東堤), 權寧機(起麗, 庚寅, 悔醒), 金漢柱(聖元, 庚午, 心堂, 追入)

주춘시사는 1930년 늦봄에 제1회 모임을 가장 연장자인 창서(蒼西) 김연채(金演采, 1854년생)의 집에서 열었다.<sup>370)</sup> 이후 매월 여러 차례 시회를 열었는데 이 해 가을 제21회 모임을 입암(立菴) 심완섭(沈宗燮)의 집에서 개최한 뒤에 잠시 쉬었다가 이듬해인 1931년 3월에 다시 시회를 이어갔다.<sup>371)</sup> 『시호만음』에는 주춘시사에서 지은 시가 무려 83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모임으로 기록된 것이 1943년 읍내에서 모임이었다.<sup>372)</sup> 또한 『시호거사일기』에는 주춘시사와 관련된 기록이 1944년 4월 11일자까지 보인다. 이를 통해 주춘시사가 10년 이상 활발하게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춘시사와 관련하여 2종의 시첩이 현재 전하고 있다. 필사본 1책의 『시호주춘시음(詩湖住春社吟)』과 1936년에 석판본으로 간행된 『주춘시화(住春詩話)』가 그것이다. 『시호주춘시음』은 내제(內題)가 ‘주춘사시(住春社詩)’로 되어 있으며, 박원동이 주춘시사에 참여하여 읊었던 시 20수가 시첩의 형태로 묶여져 있는 것이다. 제목은 ‘노간사우설회우오성정(魯澗社友設會于五星亭)’, ‘여찬회(余贊會)’, ‘회산회

370) 박원동, 「住春詩社」, 『시호만음』, 318면. 이 시의 제목에 “第一會于魯澗金蒼西庄”라는 원주가 달려 있다.

371) 박원동, 「住春社」, 『시호만음』, 328면. 이 시의 제목에 “第廿一回于淮山沈立菴庄, 自此秋停會後, 辛未三月一日續會.”라는 원주가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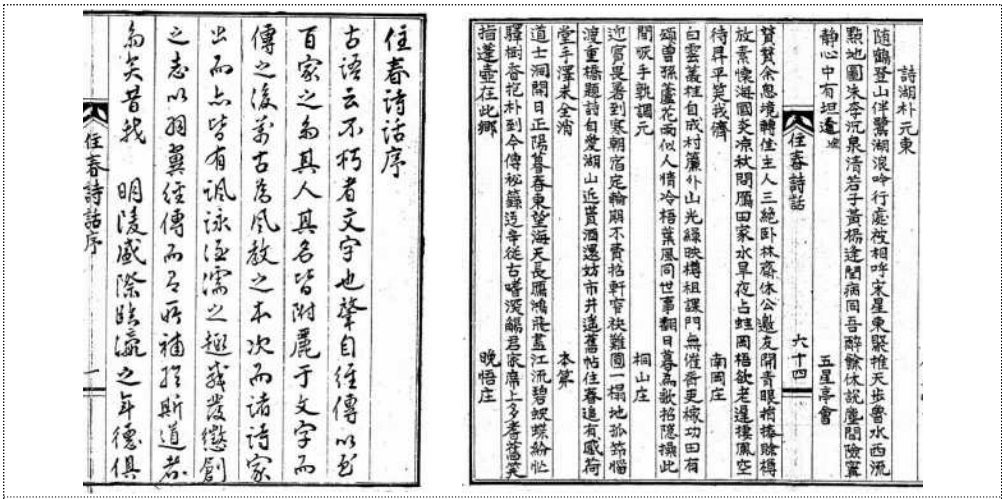
372) 박원동, 「住春詩社」, 『시호만음』, 439면. 제목에 “會于岫”라는 원주가 달려 있다.

(淮山會)', '도동회(道洞會)' 등으로 시회를 열었던 장소 등을 적어 두었다. 『시호만음』과 대교해 본 결과, 편차가 다소 다를 뿐 동일한 시들이다.

석판본 『주춘시화』(1책 92장)는 1936년에 간행한 것인데, 서두에 정채화(鄭察和)가 병자년(1936) 가을에 지은 서문이 있다.<sup>373)</sup> 서문에는 시사의 결성 배경과 시화집의 간행 경위가 적혀 있다. 경오년(1930) 봄에 가장 연장자인 창서 김연채의 집에 모여 시사를 결성하고 이때부터 매월 1회씩 모임을 가졌다. 1936년 가을에 이르러 회원들이 지은 시가 7~8권에 달하여 시집을 편찬하기로 결의하고 각자 지은 시 중에서 약간 편을 선하여 간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서문에 이어 회원 명단을 기록한 「주춘사원록(住春社員錄)」이 있는데, 성명 아래에 자호, 본관, 생년, 관력 등을 적어 두었다. 『시호연명록』의 「주춘시사」 경오년(1930) 명단과 대교해 본 결과 일치한다. 회원록 끝에는 「주춘사입규(住春社立規)」 3조가 부기되어 있다. 남전향약(籃田獅約)에 의거해서 덕업상권(德業相勸)·과실상규(過失相規)·예속상교(禮俗相交)·환난상휼(患難相恤) 등을 힘써 지킬 것, 모임이 있을 때는 서로 추렴을 통해서 준비하되 검소하게 할 것, 상(喪)을 당하면 제문 1편과 주과(酒果)를 마련해 주고 각 회원은 만사(輓詞) 1장(章)을 지어 조문할 것 등이다.

본문은 가장 연장자인 김연채(金演采)를 시작으로 권영기(權寧機)까지 모두 36인의 시가 20편씩 수록되어 있다. 별도의 제목은 없고 '오성정회(五星亭會)', '남강장(南崗庄)', '동산장(桐山庄)' 등으로 모임 장소를 각 시편의 뒤에 부기하는 방식이다. 박원동의 시는 『주춘시화』 장64~66에 20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시호만음』과 대교해본 결과 대체로 일치한다.

373) 현재 석판본 『주춘시화』는 오죽헌시립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전한다. 『住春詩話』(석판본 1책), 鄭察和 等著, 住春社, 1936.



<그림 IV-1> 『주춘시화』 서문과 박원동 시(오죽헌박물관소장/박창규 기증)

석판본 『주춘시화』는 『시호거사일기』에도 관련 기록이 보인다.<sup>374)</sup> 1937년 3월 20일자 일기에 주춘시사의 회원들이 지은 시를 1권으로 엮어서 도합 150권을 인출하였는데, 오서(誤書)가 많은 것이 흠이라고 적혀 있다. 회원들이 1백 50여 원을 각 출하여 80여 원은 인쇄비로 쓰고 남은 40여 원으로 장차 회원들의 이름을 바위에 새길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 해 5월에도 관련 기록이 보이는데, 『주춘음시(住春吟詩)』는 회원 당 20수씩 1권으로 엮고 150권을 석판으로 인출하며, 36인이 4권씩 나누고 나머지 6권 중에 2권은 출판 허가용으로 보내고 4권은 무료로 원하는 이에 게 보내주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다.

주춘시사 회원의 이름을 바위에 새기는 일은 박원동이 맡았는데 이 해 8월에 주춘시사 36인의 명단을 칠성암 앞 바위에 새겼다. 길이 12행이고 폭은 3행이었으며, 머리에 ‘주춘대(住春臺)’ 세 글자를 쓰고 말미에 ‘경오추(庚午秋)’ 3자를 썼으며 박용만(朴容萬) 등으로 새기게 하였다고 한다.<sup>375)</sup>

374) 『시호거사일기』 책3, 1937년 3월 20일, 5월 9일.

375) 『시호거사일기』 책3, 1937년 8월 19일.



박원동은 영주구로회(瀛州九老會)를 부활시키는 데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박원동의 6세조 민천(民天)은 1788년(정조 12) 9월에 고을의 노인 9명과 함께 병산(柄山)의 후정(候亭)에서 영주구로갑회(瀛州九老甲會)를 결성하였다.



<그림 IV-2> 영주구로갑회첩(오죽헌박물관 소장/박창규 기증)

영주구로갑회는 조(曹)·채(蔡)·김(金)·강(姜)·권(權)·박(朴)·최(崔) 총9명이었다. 8명은 계묘 생으로 모두 66세이며 박(朴) 1명만 한 살이 더 많았다. 당시 모임에 참여했던 권공의 회첩(會帖)에는 “향산의 구로는 단지 나이가 많고 덕이 높은 자를 취한 것이지만, 우리들의 구로는 승유(勝遊)를 도모한 것이다. 이 모임을 만들어 같은 해에 태어나 함께 즐긴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었다고 한다.<sup>376)</sup> 영주구로갑회는 당나라 회창(會昌) 5년 3월에 결성된 향산구로회(香山九老會)<sup>377)</sup>를 본뜬 것이었다.

376) 박원동, 「瀛州九老續會序」, 『시호거사문고』, 90면. “香山之九老, 只取其年高德邵者, 而吾儕之九老, 謀勝遊, 設此會, 以寓同庚同樂之義.” 『人』

377) 향산구로회 : 당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가 형부 상서로 치사한 뒤, 향산에 기거하면서 향산거사(香山居士)라 자칭하고는, 호고(胡果)·길교(吉皎)·정거(鄭據)·유진(劉眞)·노정(盧貞)·장훈(張渾)·이원상(李元爽)·여만(如滿) 등과 함께 모임을 결성하고 ‘향산구로회’라고 일컬었다.(『百香山詩集』 卷40 「香山九老圖并書」)



그런데 그 후 150년도 안 되어, 5~6세대도 넘지 않아 채씨가 강릉을 떠나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각 집안마다 가장돼오던 회첩도 조씨와 김씨 그리고 박원동 집밖에 남아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러던 중 구로갑회의 후손들은 1930년 주춘계가 부활하여 반월(半月)마다 모임을 가지는 것에 자극을 받아 구로회도 다시 결성하기로 하였다.

1931년 5월 박원동은 조문오(曹文五)를 방문하였는데 그가 『영주구로회첩(瀛州九老會帖)』을 보여주자 자손들이 계수(繼修)하기로 결의하였다.<sup>378)</sup> 그리하여 8월에 영주구로갑회 후손들이 읍내에 모여 회의를 하였다.<sup>379)</sup> 조공의 6세 부손(副孫) 조규태(曹圭泰)가 주축이 되어 협의를 진행하고 권공의 현손 권중국(權重國)이 후손가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드디어 9월 10일 최공의 현손 최영해(崔永海)의 서장(書庄)에서 첫 모임을 열었는데, 선조들이 모임을 가졌던 병산(柄山)의 후정(候亭) 아래에 위치한 곳이었다.<sup>380)</sup> 강릉 최씨·박씨·김씨, 창녕 조씨 등의 가문에서 다음과 같이 18인이 참여를 하였다.

<표 IV-4> 영주구로속회 명단

사회	이름(자(字), 생년)
瀛州九老續會(辛未)	崔永海(明有, 戊辰), 權重國(聖章, 己巳), 曹圭泰(文五, 己巳), 曹秉昌(禹賢, 壬申), 朴元東(德英, 癸酉), 朴麟東(德和, 丙子), 姜福善(承運, 丁丑), 朴基元(正若, 戊寅), 曹極煥(乃建, 己卯), 金振鐸(章彦, 庚辰), 朴光東(端英, 庚辰), 崔祐植(敬賢, 壬午), 崔燦文(景謨, 壬午), 崔泰集(景寬, 丁亥), 金振琫(允聲, 辛卯), 姜泰東(士魯, 己亥), 權寧穆(文德, 乙巳), 金德起(子明, 庚戌)

박원동은 이날 모임의 시첩에 서문을 지었으며, 아래와 같이 구로회의 범례를 정리하였다.

378) 『시호거사일기』 책2, 1931년 5월 14일.

379) 『시호거사일기』 책2, 1931년 8월 27일.

380) 박원동, 「瀛州九老續會序」, 『시호거사문고』, 89~91면.

- ① 본회는 선배들의 영주구로갑회를 속수(續修)한 까닭에 회원록에 창립했을 당시의 회원 명단과 속회한 명단을 순서대로 쓴다.[本會蓋續修先輩甲會之誼, 故列書創會名案及續會名案于會錄.]
- ② 후손들이 이미 선조들의 유사를 정리하였으니 창립 회원을 계승한 종지(宗支, 종파와 지파)를 상고해야 한다. 때문에 창립 회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속수한 회원에 이르기까지 세계(世系)를 작성한다.[後裔既修先祖遺事, 則當考同員繼承宗支, 故起自創會員, 止于續會員, 以修世系.]
- ③ 회원은 반드시 18명으로 정하였는데 구로갑회의 갑절을 취하여 좌목(座目)에 기록하였다.[會員必定十八人者, 以取九老之九之倍數, 列于座目.]
- ④ 모임의 희식은 순서에 따라 돌아가면서 마련하되 검약함을 힘쓴다. 그리고 반드시 많은 회원이 모임 수 있도록 구애되지 않는 날을 정하기 위해서 기안(忌案)을 작성한다.[會酌, 隨序輪設, 務從儉約, 而必期諸員團會, 揀定無拘日, 以修忌案.]
- ⑤ 회비는 각각 1원을 각출하여 출자금으로 삼아 이자를 불린다. 혹여 이자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공정하게 정산을 하며 장부에 기록한다.[會金, 各醵一圓, 生殖立資, 而無或至爭利相鬧, 從公清算, 記于文簿.]
- ⑥ 강학을 먼저하고 베푸는 것은 나중에 한다. 흥회(興懷)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각각 1편의 시를 짓고 회의록 끝에 부기한다.[講先垂後, 自不無興懷之感, 故各賦一篇詩, 末付于會錄.]
- ⑦ 회원 중에 만약 먼저 졸한 이가 있으면 장례에 쓸 술과 과일·포를 제공한다.【1원에 한함】 유사는 뇌문(誄文)을 짓고 각 회원들은 만시(輓詩)를 짓는다. 만시와 뇌문은 또한 기록하여 별도의 책자로 엮는다.[會員若有先逝, 則徒燭【代一圓】果脯【代一圓】. 有司誄文, 各員輓詩. 其詩與文, 亦記于別編.]<sup>381)</sup>

범례에서 언급한 세계도와 좌목 등이 현재 오죽헌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전하고 있다. 『시호거사일기』에 1942년 11월까지 영주구로속회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까지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382)</sup>

금란계, 주춘시사, 영주구로회 등이 선조들의 시회를 다시 부활한 것이라면, 강의계(講義契)와 강호시사(江湖詩社)는 박원동이 새롭게 창설한 시회였다. 강의계는 1934년 62세 때, 강호시사는 1941년 69세 때 각각 창설하였다. 먼저 두 시회에 참석한 인원의 명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81) 박원동, 「瀛州九老續會凡例(癸酉)」, 『시호거사문고』, 102~103면.

382) 『시호거사일기』 책4, 1942년 11월 9일.

<표 IV-5> 강의계 및 강호시사 명단

사회	이름(자(字), 생년, 주소) / 이름(생년, 자, 호)
講義契員 (甲戌)	朴元東(德英, 癸酉, 江東面 詩洞), 沈龍圭(龍彦, 甲戌, 城德面 笠巖), 金億卿(重萬, 丙子, 丁洞面 白橋), 曹圭鳳(儀鳴, 丙子, 旺山面 木界), 尹相駿(芳八, 丙子, 玉溪面 川南), 崔燾鼎(德三, 戊寅, 望祥面 發翰), 崔禹集(夏範, 戊寅, 沙川面 石橋), 曹鐸承(子聖, 己卯, 邱井面 鶴山), 鄭鎬濟(聖楫, 己卯, 新里面 橋項), 崔龍集(乃雲, 庚辰, 江陵邑 山篁), 崔濟河(淸一, 辛巳, 連谷面 松林), 鄭然始(汝玉, 甲申, 江東面 詩洞), 崔夏植(禹國, 丁亥, 城山面 邱山), 曹圭常(敬天, 己丑, 聖德面 ?山)
江湖詩社 (辛巳創社)	崔燾性(丁卯, 子元, 菊圃), 鄭錫和(庚午, 士德, 南岡), 金秉煥(辛未, 聖吉, 石儉), 曹三煥(辛未, 离玉, 三忍), 李時應(壬申, 中立, 菊隱), 李洪基(壬申, 子洪, 鏡山), 申晉默(壬申, 命三, 晚悟), 崔燾恍(壬申, 元五, 東溟), 朴元東(癸酉, 德英, 詩湖), 金鳳卿(甲戌, 佐鳴, 碧下), 崔燾昊(乙亥, 義瑞, 月東), 崔鍾海(丁丑, 觀瑞, 東島), 申鼎默(戊寅, 聖烈, 蓮濱), 沈相鳳(戊寅, 舜初, 桐山), 崔駿植(戊寅, 季雲, 雪松), 崔燾鼎(庚辰, 重九, 黃華), 曹圭大(庚辰, 宣伯, 時齋), 權寧軾(辛巳, 汝瞻, 愚隱), 崔成圭(辛巳, 功日, 東堤)

『시호거사일기』에는 강의계과 강호시가 관련 기록은 1947년까지 보인다. 이 두 모임은 해방 이후에도 활발하게 이어졌던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강의계이다. 1934년 박원동은 강릉향교 직원(直員)으로 있었는데, 장의가 계모임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여 결성하게 되었고, 첫 모임은 입암(笠巖) 심용규(沈龍圭)의 집에서 열었다.<sup>383)</sup>

박원동은 강의계 모임에서 지은 시를 엮은 『강의계시교(講義契詩稿)』의 서문을 지었다. 서두에서 이백의 「춘야연도리원서(春夜宴桃李園序)」에 나오는 “좋은 시를 짓지 않으면 어찌 고상한 회포를 풀겠는가.[不有佳作, 何伸雅懷?]”와 왕희지(王羲之)의 「난정서(蘭亭序)」에 나오는 “참석한 사람을 차례로 서술하고 그들이 술회한 시를 기록한다.[列敘時人, 錄其所述.]”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시회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와 시회를 기록하는 전통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어서 강의계를 결성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383) 박원동, 「講義契」, 『시호만음』, 366면. 제목 아래에 “余在文廟直員, 時掌議修成一契, 以差同任, 要余同參, 會于笠巖沈龍圭庄.”라는 원주가 달려 있다.

지금 강릉의 시인 14명은 향교의 봄가를 석전제, 삭망의 제사를 주관하며 서로 이끌어주고 따른다. 장차 음추(揜趨)하며 첨양(瞻仰)할 이를 모시고서 마치 형두(衡斗)의 아래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우리 선사(先師)의 도를 강론하고[講] 우리 종교의 의리[義]를 지키고자 하였다. 여기에 덕업을 서로 권하고 과실을 서로 경계하는 뜻을 더하여 '강의계(講義契)'를 조직하였다.

향교의 업무를 보는 여가에 따로 먼 곳에 자리를 마련하고 싶지 않아서 회원들이 사는 전려(田廬)를 돌아가며 드디어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는 필시 술이 있고 술을 마시면 필시 시를 읊조리며 시는 필시 기록을 하였다. 이것이 『강의계시고(講義契詩稿)』를 편성하게 된 이유이다. 이백이 도리원(桃李園)에서 그리고 황희가 난정(蘭亭)에서 모임을 가지고 시로 흥회를 표현하고 그 일을 글로 기록한 것과는 절로 선후가 될 것이다. …(중략)…

다만 계의 이름을 '강의(講義)'라 지은 것은 어째서인가? 의(義)가 지닌 뜻이 크데, 어찌 우리들의 모임에 능히 이 이름으로 붙일 수 있겠는가. 그러나 공자는 “군자는 의에 밝다.<sup>384)</sup>”고 하였고, 맹자는 “의와 비슷하나 사실은 의가 아닌 것을 대인은 하지 않는 법이다.<sup>385)</sup>”라고 하였다. 이는 참으로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 공자는 “의는 마땅함이요.<sup>386)</sup>”라 하였고, 맹자는 “의는 사람의 바른 길이다.<sup>387)</sup>”라 하였다.

다만 우리들은 향교에 들어와서는 현송(絃誦)<sup>388)</sup>의 교화를 숙습(熟習)하고 나가서는 여항의 풍속을 가영(歌詠)하였다. 징창(懲創)하고 일지(逸志)하며 선심을 감발하여 바른 길인 의를 거의 잃지 않으니, '강의'라는 계명에 담긴 의미에 부끄럽지 않다 할 것이다.<sup>389)</sup>

- 
- 384) 군자는 의에 밝다 : 『논어』 「이인(里仁)」에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라는 공자의 말이 있다.
- 385) 의와 비슷하나 …… 법이다 : 『맹자』 「이루 하(離婁下)」에 “예와 비슷하면서도 사실은 예가 아닌 예와, 의와 비슷하면서도 사실은 의가 아닌 의를 대인은 하지 않는 법이다.[非禮之禮 非義之義 大人弗爲]”라는 맹자의 말이 나온다.
- 386) 의는 마땅함이요 : 『중용장구』 제20장에 “인은 사람이니 어버이를 친히 함이 크고, 의는 마땅함이니 어진 이를 높임이 크다.[仁者人也, 親親爲大; 義者宜也, 尊賢爲大.]”라고 하였다.
- 387) 의는 사람의 바른 길이다 : 『맹자』 「이루 상(離婁上)」에 “인은 사람의 편안한 집이고 의는 사람의 바른 길이다. 편안한 집을 비워 두고 살지 않고 바른 길을 버려두고 따르지 않으니, 슬프다.[仁, 人之安宅也; 義, 人之正路也. 曠安宅而不居, 舍正路而不由, 哀哉.]”라고 하였다.
- 388) 현송(絃誦) : 옛날 『시경』을 배울 적에 현악기에 맞추어 노래로 불렀는데 이를 현가(絃歌)라고 한다. 그리고 악기의 반주 없이 낭독하는 것을 송(誦)이라고 한다. 현송은 곧 학문에 힘쓰는 것을 이 둘을 합하여 현송이라고 칭한다. 곧 열심히 공부하거나 예악의 교화를 말한다.
- 389) 박원동, 「講義契詩稿序(甲戌)」, 『시호거사문고』, 113~114면. “今瀛州詩歌者流, 十有四人, 幹事于州學春秋之釋菜朔望之煮蒿, 必相從. 將事揖趨瞻仰者, 若親炙于衡斗之下, 講吾先師之道, 守吾宗教之義, 更加相勸相規, 約成一契曰‘講義’. 隨務時事之暇, 不欲間闊, 乃相招于所居田廬, 遂成輪會. 會必有酌, 酌必有吟, 吟必有錄, 此編之所以成也. 而與李蘭之伸其懷, 錄其述, 自相先後也. …… 獨名其契曰‘講義’者, 何也? 義之義大矣, 豈我輩之所能名歟? 然君子諭於義, 非義之義, 大人不爲者, 是固難言, 而義者宜也, 義人之正路也. 顧吾入而濡染于絃誦之化, 出而歌詠于閭巷之俗, 懲創逸志, 感發善心,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시회의 이름을 ‘강의(講義)’라 지은 이유이다. 강의계라는 시회가 단순한 음풍농월이 아니라, 향교에서 경학을 공부하는 것의 연장 선장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강의계의 모임과 그 모임에서 지은 시가 “징창(懲創)하고 일지(逸志)하며 선심을 감발하여 바른 길인 의를 거의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곧 강의계가 유학과 문풍을 진작시키는 활동의 일환이었음을 역설한 것이다.

---

庶不失其正路之義, 而或不愧乎名契之意也.”

## 2. 원우의 재건과 역사 편찬

### 2.1. 『강릉향현행록』의 편찬과 향현사 중수

향현사는 강릉 지역의 인물들 중에서 추앙받는 이들을 배향한 사당이다. 1645년(인조 23)에 건립되었으며 조은(鈞隱) 최치운(崔致雲), 수헌(睡軒) 최응현(崔應賢), 삼가(三可) 박수량(朴遂良), 사휴당(四休堂) 박공달(朴公達), 원정(猿亭) 최수성(崔壽城), 도경(蹈景) 최운우(崔雲遇) 등 6현을 배향하였다. 이후 1682년(숙종 8) 춘헌(春軒) 최수(崔洙)가 추향되어 7현이 되었다. 향현사의 건립과 7현의 배향에는 박원동의 10세조인 완하당 박진해의 공이 컸다. 이후 1759년(영조 35)에는 늘재(訥齋) 이성무(李成茂), 보진재(保眞齋) 김담(金譚), 농헌(農軒) 박억추(朴億秋) 등 3향현이 추향되었으며, 1808년(순조 8)에 괴당(槐堂) 김윤신(金潤身)과 임경당(臨鏡堂) 김열(金說)이 배향되어 12향현이 되었다.

박원동은 1931년에 『강릉향현행록(江陵鄉賢行錄)』을 편찬하여 강릉 향현사에 배향된 12향현의 행록을 집적하였다. 서두에 「범례(凡例)」와 「강릉향현사도(江陵鄉賢祠圖)」가 있다. 본문은 조은 최치운을 시작으로 도경 최운우까지의 12향현의 행록이 수록되어 있다. 부록으로 향현사의 연혁(沿革)과 진설도(陳設圖)를 첨부해 두었다. 향현사의 역사와 12향현의 행적을 정리하여, 강릉이 지닌 유향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계승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시호거사일기』를 통해 1925년경부터 12향현의 후손가에서 행록을 편찬, 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25년 1월 15일자에는 서원록의 강릉향현사에 7현은 기재되어 있으나 추향된 5현은 누락되어서, 임경당 후손 김제경(金濟卿)과 보진당 후손 김연채(金演采)가 5현의 행적을 추록(追錄)하여 발행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1권의 정가를 2원 50전으로 하고 예약금 1원을 청구하였는데, 박원동은 1원을 납부하고 예약 증서를 받았다.

『강릉향현행록』 편찬과 간행은 1930년 박원동의 발의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다음은 『시호거사일기』에 보이는 강릉향현행록 편찬 및 간행과 관련된 기록이다.

<표 IV-6> 『시호거사일기』 소재 강릉향현행록 편찬 및 간행 기록

연월일	내 용
1930.08.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원동이 12현행록의 간행을 발문하자 문중의 관련자들이 모두 동의함.</li> <li>- 향현사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는데, 향현사지는 사마소의 기지전토(基地田土)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땅은 현재 진사 정채화가 관리를 함. 정채화는 향현사의 헌관(獻官)으로 들어왔으므로 그에게 자세한 내막을 물어 조치하기로 함.</li> </ul>
1930.0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현사지 및 12현행록 간행의 일로 김제경(金濟卿)·최돈철(崔燾澈)과 읍내에서 모임을 가짐.</li> <li>- 12현행록 간행과 관련하여 박원동은 통문을 작성하여 12문중에 보내고, 회의 날을 정하셔서 12문중의 후손이 향현사에 모여 회의를 열기로 함.</li> <li>- 정채화를 만나 향현사지에 대한 논의는 천천히 진행하기로 함.</li> </ul>
1930.0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현행록 인편(印編)과 관련된 일로 12문중에 박원동·김제남·최돈철 3인의 명의로 통문을 발송함. (『시호거사문고』에 수록된 통문에는 '9월 12일'로 되어 있음.)</li> <li>- 읍내로 들어가 최돈철에게 부탁하여 향현사의 사직(祠直)을 시켜 12문중의 확인을 받아오라고 함.</li> </ul>
1930.09.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현행록 인편과 관련된 일로 향현사에서 회의를 개최함. 12문중에서 한두 명씩 참여를 하였음.</li> <li>- 12현행록은 박원동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갔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약간의 운산(潤刪)을 가하고 끝에 향현사 연혁을 덧붙이기로 정함.</li> <li>- 책의 앞에 세계도(世系圖)를 넣자는 말이 있었으나 번다해서서 넣지 않기로 함.</li> <li>- 간행이 되면 각 가문의 후손들이 구람(購覽)하고 그외 가문 몇 군데에 무료로 배포하기로 함.</li> <li>- 교정(校正) 3인, 장재 3인, 간무(幹務) 5인, 모사(模寫) 2인을 둠. 교정은 박원동·최대수·최명익(崔命翼) 3인으로 정함.</li> </ul>
1930.10.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향현행록 임원회의에 참석. 각 문중의 후손 담당자가 참석함.</li> <li>- 인쇄용지는 한지(漢紙)로 하고 활판으로 인쇄하기로 결정하고, 행록의 정서는 박원동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함.</li> <li>- 12현의 세계(世系)를 수단(修單)하여 박원동 집으로 보내기로 함.</li> </ul>
1931.0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향현행록 편집 원고를 정서하기 시작함.</li> </ul>
1931.0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현사 회의에 참석하여 12향현행록 간행 비용과 인쇄 방식에 대해 협의함.</li> <li>- 향현사의 전여전(傳與錢)이 90여원이며 각 문중에서 수미(收米)한 것과 저미(儲米)를 방매(放賣)하여 12현행록 편찬 및 간행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함.</li> <li>- 석판 인쇄소 최영식(崔榮軾)이 회의에 참석을 하였는데 석판 1장(張) 인쇄비는 70전으로, 장책(粧冊)은 10전으로 정함. 1면 당 10행(行)으로 하고 1행에 22자로 예정함.</li> </ul>
1931.0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향현행록의 '연혁'을 편성하여 등초함.</li> </ul>
1931.04.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향현행록의 편집 원고의 정서를 완료함.</li> </ul>



#### Ⅳ. 강릉 유교문화 유산의 정리와 재건

연월일	내 용
1931.04.16.	- 12문중의 자손들을 모여 정서한 원고를 열람하고, 12향현행록 1편을 다시 정사하여 출판 허가를 신청하기로 결정함.
1931.04.23.	- 김원진(金元璣)·최하중(崔夏重)·최이옥(崔以沃)이 7현의 유편(遺篇)이 있다고 해서 열람해 보았더니 7현의 문집과 가승(家乘)이었음.
1931.04.24.	- 12향현행록 발문을 작성함.
1931.05.02.	- 12향현행록 범례를 붙임. - 최창순(崔昌洵)이 향현사 창건에 자신의 선조를 함께 기록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증거가 없어서 허락하지 않음. - 최돈철(崔墩澈)이 자신의 이름과 박용희(朴容熹) 2인의 이름을 향현사 중건 때 삽입해 달라고 하였는데 회의에 참석한 여러 사람들이 추록(追錄)을 허락함. 3인 명의로 보낸 행록의 발문(發文)도 수록함. - 석판 인쇄자 최영식이 출판 허가 수속 양식을 가지고 와서 내 이름을 '편집 겸 발행'으로 출원(出願)하고 날인을 받아서 감.
1931.05.03.	- 경찰서에 12향현행록 출판 허가를 접수하였는데 최창순의 투서로 인해 거부됨.
1931.05.07.	- 최창순이 투서한 등본(謄本)을 보니, 박원동이 문중의 결의(決議)도 없이 사사로이 편집한 것이라 하였고 또 최창순 자신의 선조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글이라 하였음. - 최창순은 선조 최만재(崔萬載)를 향현사 창건 기록에 넣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향현사를 창건한 것은 인조 때의 일이고 최만재는 숙종 때 사람으로 인조 갑신년에 창건했을 때에는 태어나지도 않았음. - 12문중 자손들의 서명을 받아 경찰서에 해명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함.
1931.05.12.	- 12문중 자손 100명의 서명을 받아 경찰서에 해명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최창순이 찾아와 무고한 사실을 인정함. - 최창순은 자신의 이름을 임명(任名, 임원명단)에 넣고 싶어서 투서한 것이었음. - 참석자들은 향현사 중건 시 가록(加錄)과 행록을 발행할 때 임명록(任名錄) 1장을 행록의 권말에 덧붙이는 것을 다시 논의하고 화해하는 데에 이름.
1931.05.19.	- 강동면 주재소의 순검이 찾아와 12향현행록 출판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이력을 조사함. 몇 년에 교원으로 부임하고 면장으로 시무(視務)를 하였으며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물어서 응답함.
1931.05.22.	- 12현 자손들의 권유에 따라 박원동의 명의로 인쇄인 최영식과 출판 계약을 체결함.
1931.05.27.	- 책의 형식과 장간(井間)을 만들고 여승현(呂升鉉)으로 하여금 정사하여 석판으로 인쇄를 시작함. * 이후 박원동은 수시로 인쇄소를 찾아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오탈자 등을 수정함.
1931.06.23	- 박원동 집안의 박인헌(朴仁憲)이 편지를 보내 농헌행록(農軒行錄)은 향현사의 위치(位次)에 따라 마땅히 임경당의 위에 있어야 한다며 수정을 요구함. - 농헌 박억추의 생년이 계축년으로 알려진 까닭에 임경당의 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임. - 박원동은 문헌 고증을 통해 받아들이지 않음. 농헌 박억추는 재미생으로 고쳐서 비문에 등재한 것이 족보에 있으므로 당연히 임경당 김열과 보진재 김담의 아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임. * 결국 박원동의 고증에 따라 출판이 되며, 향현사의 위치(位次)도 변경함.

연월일	내 용
1931.07.02.	- 박인헌이 임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주장을 굽히지 않아 박원동이 대표로 답서를 보냄.
1931.07.17.	- '연혁'에서 향현사 중건 때 발론한 최돈철과 박용희의 이름, 행록 발문의 박원동 이름, 김제경·최돈철의 이름을 모두 삭제하고 다시 인쇄함. * 결과적으로 간행본의 '연혁'에는 모두 이름은 빠졌음.
1931.07.19.	- 박인헌이 제기한 농헌공행록의 순서 문제로 인쇄가 정지되어, 박인헌을 직접 찾아가 농헌공의 생년에 대해 여러 문헌 증거를 들어 해명하여 의혹을 해소함.
1931.07.28.	- 도경 최운우의 말장의 오자를 바로잡고 진설도(陳設圖)를 작성함.
1931.08.26.	- 12향현행록 인쇄를 마무리 하고 12현 후손들이 모여 인쇄비를 정산함. - 총400질 중에서 105질은 타성에 무료로 나누어 주고, 295질은 12현 후손 가문에서 나누었는데 1질당 75전을 부담하기로 함. 강릉 박씨 가문에서는 삼가 자손이 50질, 미로리가 14질, 판교리가 10질, 시동이 26질을 나눔. - 출판 허가가 아직 나지 않아 실제 배포는 하지 못하고 쌓아둠.
1931.09.05.	- 총독부 경무국에서 출판 허가가 왔는데 일부 수정을 요구하였음.(양력 10월 15일) - 「법례」 중에서 '본조(本朝)'와 '황조(皇朝)'의 '황(皇)'자를 삭제하고, 조은행록에서 '천조(天朝)'의 '천(天)'자도 삭제하며, 춘헌행록에서 '본조(本朝)'의 '본(本)'을 '이(李)'로 개서하고, 본문에 나오는 '성상(聖上)' 2자를 삭제하라는 것이었음. * 간행본에는 이에 의거하여 수정됨. 한편 간행본의 판권지를 보면 1931년 양력 10월 8일(음8.27.) 허가, 11월 11일(음10.2.) 인쇄, 11월 25일(음10.16.) 발행, 비매품, 인쇄자 최영식, 인쇄소 철석관(鐵石館), 편집인 박원동으로 되어 있음.
1931.10.26.	- 강릉향현행록 원고와 제고(製稿) 도합 2권을 경찰서를 경유하여 총독부 도서관에 보냄.
1931.11.27.	- 강릉향현행록 출판계(出版屆) 양식을 작성하여 총독부 경무국 도서관에 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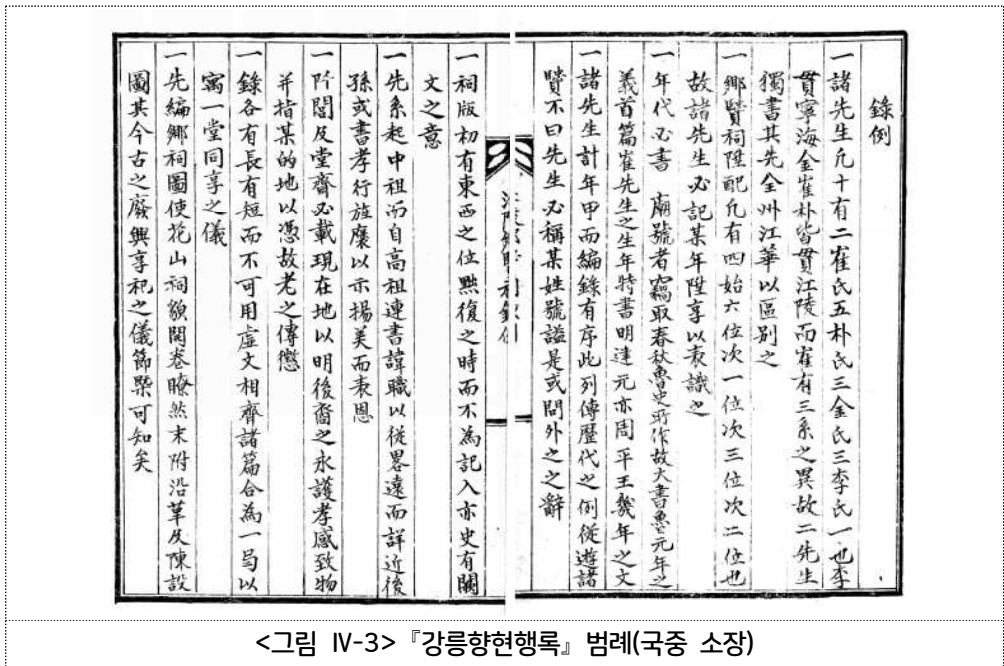
1930년 9월에 12향현의 후손가에게 보낸 통문은 『시호거사문고』에 수록되어 있다. 이 통문은 '김제경(金濟卿)·박원동(朴元東)·최돈철(崔燾澈)' 3인의 명의로 발송하였다. 12향현 중에 놀재(訥齋) 이성무(李成茂)를 제외하고는 모두 강릉 김씨·박씨·최씨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세 가문의 후손들이 대표하여 보낸 것이다. 통문에서 12향현행록의 편찬 배경과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 우리 강릉은 많은 현인이 배출되었는데 12선생이 더욱 빛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후인들은 이분들을 공경하여 사당을 세워서 제를 올렸습니다. 같은 당(堂)에 12선생의 위패를 모셔서 덕을 동등하게 여기고 함께 제사를 올리는 법도를 이루었습니다.

12선생의 행장과 유적은 대대로 전해져서 각각의 후손들 집에 소장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다시 모아 한 권으로 엮어서, 같은 사당에 함께 제사를 올리는 의미를 부여하여 천년토록 함께 전해지는

일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후손들이 현인들을 한데 모아서 세상을 강론하는 아름다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12선생의 후손에게 우러러 고합니다. 이번 달 모일에 향현사에 모두 모여서 다수의 의견으로 논의를 수렴하여 속히 이 책을 간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sup>390)</sup>

이듬해인 1931년 가을에 드디어 『강릉향현행록』의 편성(編成)이 완료되고, 강릉 향현사에서 석판본 1책(40장)으로 간행되었다. 「범례」에는 편찬의 의도와 책의 체제가 자세히 적혀 있다.



<그림 IV-3> 『강릉향현행록』 범례(국중 소장)

390) 박원동, 「鄉賢祠十二賢行狀編集通文」, 『시호거사문고』, 84~85면. “昔我江州諸賢輩出, 而惟十二先生尤爲表著. 故後人矜式, 立祠以祭, 配奉于一堂, 以成同德同享之典. 則諸先生之行狀事蹟, 各傳于世, 分藏于家者, 今復衷合爲一編, 以寓一堂同享之義, 以圖千秋并傳之計. 顧不爲後生纂賢講世之一美舉也哉? 茲以仰告于諸先生姓孫中, 僉座下幸須今日日, 齊會于鄉賢祠, 以爲從衆收議趁速印編之地, 千萬敬望.”

그런데 『시호거사문고』에 수록되어 있는 「범례」는 간행본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시호거사문고』의 「江陵鄉賢行錄凡例(辛未)」를 ‘문고본’이라 칭함.) 문고본의 「범례」를 제시하고 간행본과의 대교 사항을 ‘ [ ] ’ 안에 밝혔다.

- ① 향현은 총12분이다. 최씨 5분, 박씨 3분, 김씨 3분, 이씨 1분이다. 이씨는 본관이 영해(寧海)이고 김씨·최씨·박씨는 모두 본관이 강릉이다. 그러나 최씨는 셋의 세계(世系)가 다른 까닭에 두 선생의 경우는 유독 선계(先系)에 전주(全州)·강화(江華)를 써서 구별을 하였다.[諸先生凡有十有二, 崔氏五, 朴氏三, 金氏三, 李氏一也. 李貫寧海, 金崔朴皆貫江陵, 而崔有三系之異, 故二先生獨書其先全州江華, 以區別之.]
- ② 향현사에 승배(陞拜)된 것은 모두 4차례이다. 처음에 6분의 위패를 배향하였고 다음에 1분, 그 다음에 3분, 마지막에 2분을 모셨다. 그런 까닭에 12선생이 어느 해에 승향(陞享)되었는지를 반드시 기록하여 승배의 순서가 드러나도록 하였다.[鄉賢祠陞拜凡有四, 始六位, 次一位, 次三位, 次二位也. 故諸先生, 必記某年陞享, 以表識之.]
- ③ 연대를 반드시 묘호(廟號)로 쓴 것은 공자가 『춘추』를 집필한 방식을 취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공자가 ‘노원년(魯元年)’을 대서(大書)한 뜻을 따라 수편(首篇)에서 최선생(崔先生)의 생년을 기록할 때 특별히 ‘명건원(明建元)’을 썼으니 또한 주평왕기년(周平王幾年)의 글이다.[年代必書本廟號者, 竊取春秋魯史所作, 故大書魯元年之義. 首篇崔先生之生年, 特書皇明建元, 亦周平王幾年之文.]  
[간행본에는 ‘皇明’이 ‘明’으로 되어 있음.]
- ④ 여러 선생의 연세를 계산하여 편록(編錄)에 순서를 두었는데, 이는 열전(列傳) 역대(歷代)의 체례이다.[諸先生計年甲, 而編錄有序, 此列傳歷代之例. 從遊諸賢, 不曰先生, 必稱某姓號諡, 是或問外之之辭.]
- ⑤ 사판(祠版)에는 애초 동위(東位)와 서위(西位)의 자리와 출(黜)과 복(復)의 때가 있었으나 기입하지 않았다. 이 역시 역사서에서 귀문(闕文)의 뜻이다.[祠版初有東西之位, 黜復之時而不爲記入, 亦史有關文之意.]
- ⑥ 선계(先系)는 중조(中祖)부터 적고 고조 이하는 휘(諱)와 관직을 연서(連書)하되 먼 조상은 간략하게 하고 가까운 조상은 상세하게 하는 체례를 따랐다. 후손 중에는 혹 효행(孝行)과 정포(旌褒)를 기록하여 훌륭한 것을 드러내고 은덕을 드러내는 것을 보이었다.[先系起中祖, 而自高祖連書諱職, 以從略遠而詳近. 後孫或書孝行旌褒, 以示揚美以表恩.]
- ⑦ 천려(阡閭), 정려와 당재(堂齋)는 반드시 현재의 지명을 적어서 후손들이 길이 보존하도록 하였다.[阡閭及堂齋, 必載現在地, 以明後裔之永護孝感致物. 并指某的地, 以憑故老之傳懲.]

- ⑧ 행록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허문(虛文)을 써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안 된다. 여러 편을 합쳐 한 권으로 만들어 같은 당에 함께 제사를 올리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錄各有長有短, 而不可用虛文相齊. 諸篇合爲一卷, 以寓一堂同享之儀.]

【이 조목은 문고본에는 없으며 간행본에 의거하여 보충함】

- ⑨ 서두에 「향사도(鄉祠圖)」를 넣어 책을 펼쳤을 때 화산사(花山祠, 향현사)의 모습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끝에는 「연혁(沿革)」과 「진설도(陳設圖)」를 부록으로 붙여 향현사의 역사와 향사(享祀)의 의절(儀節)을 대략 알 수 있게 하였다.[先編鄉祠圖, 使花山祠貌, 開卷瞭然. 未附沿革及陳設圖, 其古今之興廢, 享祀之儀節, 以備參考.]<sup>391)</sup>

【간행본에는 ‘興廢’가 ‘廢興’으로, ‘以備參考’가 ‘概可知矣’로 되어 있음】

문고본과 간행본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 ⑧의 경우 문고본에는 없이 간행본에만 있는데, 간행할 때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것은 ③이다. 명나라를 지칭하는 말인 ‘황명(皇明)’을 간행본에는 ‘황(黃)’자를 빼고 ‘명(明)’으로만 기입하였다.

이는 단순히 한 글자를 삭제한 것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시호거사일기』의 기록을 보면, 이는 총독부의 출판 허가 과정에서 ‘황’자를 삭제하게 된 것이었다. 1931년 9월 총독부 경무국에서 출판 허가가 왔는데 일부 수정을 요구하였다. 「범례」중에 ‘본조(本朝)’와 ‘황조(皇朝)’의 ‘황(皇)’자를 삭제하고, 조은 최치원의 행록에서 ‘천조(天朝)’의 ‘천(天)’자도 삭제하며, 춘헌 최수의 행록에서 ‘본조(本朝)’의 ‘본(本)’을 ‘이(李)’로 개서하고, 본문에 나오는 ‘성상(聖上)’ 2자를 삭제하라는 것이었다.<sup>392)</sup>

박원동은 춘추대의의 견지에서 『강릉향현행록』을 편찬하였었다. 「범례」 ③의 “수편(首篇)에서 최선생(崔先生)의 생년을 기록할 때 특별히 ‘명건원(明建元)’을 쓴” 것을 강조한 데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조은최선생행록」의 생년을

391) 朴元東, 「江陵鄉賢行錄凡例(辛未)」, 『시호거사문고』, 99~100면. 朴元東 編, 『江陵鄉賢行錄: 并江陵鄉賢祠沿革』, 江陵: 江陵鄉賢祠, 1931. 권수제(卷首題)는 ‘江陵鄉賢祠十二先生行錄’으로 되어 있으며, 간기(刊記)는 ‘鄉賢祠創建後二百八十八年辛未(1931)秋印行’으로 되어 있다. 간행본은 범례가 목록에는 ‘凡例’로, 본문에는 ‘錄例’로 되어 있음.

392) 『시호거사일기』 책2, 1931년 9월 5일.

‘홍무 22년 경오 6월 19일[洪武二十二年庚午六月十九日]’이라 하여, 명나라의 연호인 ‘홍무(洪武: 명나라 제1대 황제인 주원장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범례」에서 밝힌 것처럼, 박원동은 춘추필법의 자세로 12향현의 행적 엄정하게 기록하였다. 단적으로 1931년 6~7월 사이에 있었던 농헌행록(農軒行錄)의 수록 위치에 대한 논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헌 박억추는 강릉 박씨인데, 생년에 따라 향현사의 위차(位次)가 임경당과 보진재 위에 있었다.

그런데 박원동은 행록을 편차하며 농헌행록을 임경당 뒤에 위치시켰다. 박원동은 농헌 박억추의 생년이 수정된 비문에 의거하여 재미생으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경당 김열과 보진재 김담의 뒤에 편차한 것이었다. 그런데 박원동과 같은 집안의 박인헌(朴仁憲)이 편지를 보내 농헌행록은 향현사의 위차에 따라 마땅히 임경당의 위에 있어야 한다며 수정을 요구하였다. 박원동은 문헌 증거를 제시하며 박인헌을 설득시켰다.<sup>393)</sup>

박원동의 『강릉향현행록』 편찬은 12향현의 생년과 행적에 대한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또한 박원동은 실제 향현사 위패의 순서를 다시 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박원동은 1932년 9월에 향현사 유사에 천거되었다. 이때 박원동과 함께 이윤식(李潤植), 조병룡(曹秉龍) 3인이 유사가 되었다.<sup>394)</sup> 생년을 기준으로 해서 농헌 박억추가 임경당 김열의 우측이 되기 때문에, 1921년 향현사를 증건할 때 구례(舊例)에 따라 봉안을 하였다.

그런데 1931년 『강릉향현행록』을 간행하면서 생년을 고증해 보니 농헌 박억추가 마땅히 보진재 김담의 왼쪽에 있어야 해서, 실제 생년을 따라 행록을 편차하였다. 1933년 박원동이 향현사 유사를 맡아 제향을 주관할 때, 여러 선생의 후손과 고을의 유림이 아무래도 행록에 따르는 게 좋겠다고 하여 고유(告由)하고 정위(正位)를

393) 관련 내용이 『시호거사일기』 책2, 1931년 6월 23일, 7월 19일에 보인다.

394) 『시호거사일기』 책2, 1932년 8월 13일과 9월 1일에 자세한 내용이 보인다. 8월 13일 향현사 다례에 몸이 좋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하고 아우들이 대신 참석을 하였는데, 명년의 유사로 박원동을 비롯하여 이윤식(李潤植)·조병룡(曹秉龍) 등이 추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9월 1일 향현사로 가서 신규 유사 인수인계식에 참석을 하였다.

바꾸게 되었다.<sup>395)</sup>

박원동이 『강릉향현행록』을 편찬한 것은 12향현의 행록을 집적하고 향현사의 역사를 정리한 데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향현사의 역사와 12향현의 고행(高行)을 계승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다. 박원동은 『강릉향현행록』의 말미에 「진설도」를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이 「진설도」는 박원동이 여러 교원(校院)의 진설의식(陳設儀式)을 참고하여 만든 것이다. 향현사의 배향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 것이다.

또한 박원동은 12향현의 후손 중에서 효행(孝行)과 정포(旌褒)가 있는 이가 있으면 행록 뒤에 함께 서술하였다. 아울러 관련 묘비(墓碑)나 정려(旌閭)의 경우에는 현재의 지명을 적어두어 후손들이 잘 보존하도록 하였다. 이는 12향현의 후손가를 중심으로 12향현의 정신과 고행이 계승되기를 바란 것이다.

한편 향현사는 1867년 화재로 모두 소실되어 지역 유림이 이를 중수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1868년(고종 5) 사액을 받지 못한 서원의 철폐령이 내려지면서 좌절되었다. 그 후 1921년 배향 인물의 후손들이 본래의 자리를 옮겨 향현사를 중건하였다. 그런데 1942년 정월 25일에 향현사에 또 다시 화재가 발생하였다. 『시호거사일기』에는 화재의 원인과 피해 상황, 향현사 중수 관련 회의, 공사비용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표 IV-7> 『시호거사일기』 소재 향현사 중수 관련 기록

연월일	내 용
1942.01.25.	- 향현사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우가 반이나 타고 위판은 문간에 꺼내 놓았으며 서쪽 협실은 피해를 면했다는 이야기를 들음. - 소방대가 아니었으면 전소되었을 것이라 함. 다시 중수하는 데에 비용이 1천여 원이 든다고 함.
1942.01.28.	- 향현사 관리인 및 유사 통지서가 옴.
1942.02.01.	- 향현사 회의에 참석. 각 문종이 와서 위판을 문간의 서쪽 협실에 봉심(奉審)함. - 불길기 사우 뒷면 세 기둥으로 나갔음. 화재의 원인은 향현사 지기가 촉칠고(蜀漆膏)를 뒤쪽 처마에 세워두었는데 이웃의 5~6세 아이들이 방화하여 연소된 것이었음. - 목수들에게 중수 예산을 뽑아보라고 하니 1천 2백 원정도가 든다고 함.

395) 박원동, 「題鄉賢祠祝式及陳設圖後」, 『시호거사문고』, 98면. 원주에 “癸酉秋有司朴元東謹書”라 되어 있음.



연월일	내 용
1942.0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륜당에서 열린 향현사 중수 회의에 참석.(40여 명이 참석)</li> <li>- 공사비는 1천 원으로 하고 목수 최사도(崔士道)를 도총(都摠)으로 하며 중수비는 사림 의연금을 모아 충당하기로 결의함. 각 면에 수금 유사를 2인씩 정함.</li> <li>- 공사 착수가 시급하므로 12현 자손들이 먼저 5백 원을 모아서 지급하기로 정함. 삼가·조은·임경·눌재·춘헌 5종중에서 각각 1백 원을 분담하기로 함.</li> </ul>
1942.0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현사 중수 공사가 끝나고 12선생 신위를 다시 봉안함.</li> <li>- 중수 공사비 1천원, 향현사 지기 집의 기와를 덮은 비용 6백 원, 사우 단청비 2백 원, 도합 1천 8백 원이 들었음.</li> <li>- 각 면에서 수입금은 아직 미필한 것이 있는데 현금이 기백 여원이 있음.</li> </ul>
1942.05.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현사 중수 유금결산회에 참석. 각 면에서 수금한 금액이 2천 4백여 원이고 공사비 2천원, 잔액 4백원은 위답을 매입하기로 결정함.</li> <li>- 유금록 1책을 장차 녹성(錄成)하고 박원동이 서문을 지음.</li> </ul>

박원동은 1월 28일 향현사 관리인 및 유사 통지서를 받고 공사비용 마련을 위해 의연금을 모금하고 중수 공사를 감독하였다. 이때 의연금을 기부한 유림의 명부를 만들었는데, 그 서문을 박원동이 써서 중수의 내력과 경위를 기록해 두었다.<sup>396)</sup>

## 2.2. 오봉서원의 재정 확충과 『오봉서원실기』의 편찬

오봉서원은 1556년(명종 11) 칠봉(七峯) 함헌(咸軒)이 서원을 세우고 공자의 영정을 봉안한 데서 시작되었다. 공자의 영정은 오도자(吳道子)가 그린 것인데, 함헌이 1552년(명조 7) 중국의 남경에 사신으로 갔다가 가져온 것이었다. 그 뒤 함헌은 1556년 최운우(崔雲遇) 등과 협의하고 강릉부사 홍춘년(洪春年)과 강원도 관찰사 윤인서(尹仁恕)에게 건의하여 서원 건립을 성사시켰다. 1782년(정조 6)에는 주자의 영정을 봉안하고 1831년(순조 32)에는 우암 송시열의 영정도 함께 봉안하였다.

오봉서원은 1868년 훼손된 후 1905년에 오봉단(五峯壇)을 설치하고 다향(茶享)을 거행하였다. 1916년 묘정비가 큰 비로 잠기고 파손이 되었는데, 박원동의 아버지인 풍은 박증혁이 발의해서 오봉단의 제단과 담장을 개축하고 묘정비를 중건하였다.

396) 박원동, 「鄉賢祠重修儒金錄序(壬午)」, 『시호거사문고』, 161면.

훼철되기 전 오봉서원은 조정에서 민전(民田)을 내려주고 향당에서 재력(財力)을 출연하여 재정을 충당하였다. 오봉서원은 사액을 받지 않은 서원이었으나 1681년(숙종 7)에 위토 3결과 모속인 20명을 하사받아 사액서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훼철된 이후 열악한 재정 속에서 근근이 다항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

그러다가 1930년 가을 제향(祭享) 때 유금(儒金)을 모아서 제전(祭田)을 확립(擴立)하자는 결의하였다. 이때 박원동은 오봉서원 유사 및 유금(儒金) 유사를 맡아 오봉단의 재전을 확립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행하였다. 박원동은 김양경(金陽卿)과 함께 오봉단소 유사를 맡았으며, 전임 유사는 권규식(權逵植)과 신진묵(辛晉默)이었다. 장재(掌財)는 정봉화(鄭鳳和)와 심상조(沈相祚)가 맡았으며, 오봉 수금 유사는 박원동을 비롯하여 김의남(金儀南), 권길수(權吉洙), 심기수(沈基洙), 박증영(朴曾泳) 등 5인이 맡았다.<sup>397)</sup>

이듬해인 1931년 5월에 강릉의 남북으로 청조문(請助文)을 발송하여 유금 모금의 취지를 알리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원동을 비롯한 수금 유사들은 유림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근 300원 가까이 모금을 하였다. 의연금으로 이 해 겨울에 산북리(山北里)에서 위토(位土)를 매입하여 오봉단의 재전을 확충하게 되었다. 이때 의연금을 낸 내용을 기록한 명부록(名簿錄)을 별도로 엮었다.<sup>398)</sup>

박원동은 이듬해인 1932년 『오봉서원실기』를 편찬하였는데, 『시호거사일기』에 관련 기록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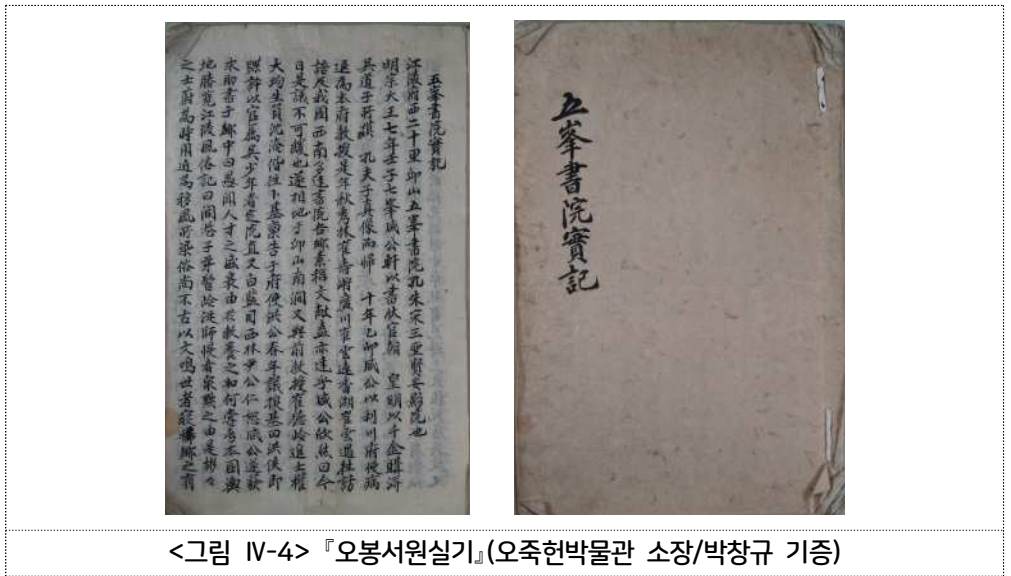
<표 IV-8> 『시호거사일기』 소재 오봉서원실기 편찬 관련 기록

연월일	내 용
1931.06.24.	- 여러 가문에 소장되어 있는 고적을 참고하여 장차 오봉서원 연혁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소상하게 기실(記實)하기 어렵다며 한탄함.

397) 『시호연명록』, 「五峯壇所有司(辛未)」·「五峯收金有司(辛未)」, 698면; 박원동, 「五峯壇所請助文」, 『시호거사문고』, 87면.

398) 박원동, 「五峯儒金錄序」, 『시호거사문고』, 150면. 서문의 말미에 “創院後三百七十八年癸酉暮春者 朴元東謹叙”라고 되어 있음.

연월일	내 용
1932.01.18.	- 지난 해 난초(亂草)해 두었던 오봉서원실기를 비로소 정초(正抄)하기 시작함.
1932.01.28.	- 오봉서원실기와 칠봉사(七峯祠) 연혁을 편성(編成)함.
1932.07.30.	- 병계록(丙癸錄)에 있는 우암 영정 추배와 관련된 일을 오봉서원실기에 적입(摺入)함.



<그림 IV-4> 『오봉서원실기』(오죽헌박물관 소장/박창규 기증)

박원동이 편찬한 『오봉서원실기』(필사본 1책)는 현재 오죽헌시립박물관에 전하고 있다.<sup>399)</sup> 『오봉서원실기』에는 「칠봉별묘연혁(七峯別廟沿革)」이 부록으로 붙어 있으며 그 뒤에 박원동이 지은 발문이 있다. 발문 뒤에는 「오봉서원도(五峯書院圖)」와 「오봉단위도(五峯壇位圖)」가 붙어 있다. 『오봉서원실기』에 수록되어 있는 발문은 『시호거사문고』의 「오봉서원실기발(五峯書院實記跋)」과 동일한 글이다. 다음은 『오봉서원실기』 발문의 서두이다.

399) 필사본 1책 『오봉서원실기』는 방동만이규대 공편, 『영동지방향토사연구자료총서』 2(書院·學校 1),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1994, 17~75면에도 영인되어 있다. 그런데 『오봉서원실기』의 발문에는 '박원동'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영인본의 해제에서 『오봉서원실기』의 편자 이름을 밝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명종 병진년(1556, 명종 11) 이후 370여 년 동안의 오봉서원 역사가 산일되었다. 지금에 의지하여 옛 일을 상고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이다. 서원을 창건한 때부터 훼손된 때까지의 일을 여러 집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인들의 유고를 통해 상고하였다. 오봉단을 설치한 이후의 사적은 내가 직접 목도하였다. 고금에 차이가 있어 상략(詳略)이 동일하지 않다. 영정을 봉안하고 제전을 하사받으며 비를 건립하고 판을 걸었던 일과 관련된 것은 전하는 유문(遺文)이 있었다. 그러나 창원록(創院錄)·거접규(居接規)·청금록(靑衿錄) 등의 문적들은 어디에서도 살펴볼 수가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다.<sup>400)</sup>

『오봉서원실기』는 오봉서원이 터를 잡은 1552년(명종 7)부터 훼손된 1868년(고종 5)까지의 연혁이 기록되어 있다. 1905년 오봉단을 세우고 1916년에 묘정비를 중건한 사실들도 기록되어 있다. 또한 1930년 가을 정향(丁享) 때 제전 확립(擴立)을 논의하여 장재 2명과 수금 유사 5명을 두었고, 이듬해 1931년 5월에 수금 유사가 뜻있는 유림을 일일이 찾아가 근 300원을 모금하였으며, 이해 겨울에 산북리에 제전을 마련한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다.<sup>401)</sup>

그런데 박원동이 『오봉서원실기』를 편찬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다음은 발문의 후반부이다.

그러나 붓을 멈추고 탄식할 일이 절로 생겼다. 오봉서원이 이미 우암 영정을 함께 봉안한 곳인데, 어찌 다시 당론이 화합되지 않는단 말인가. 하나의 서원 내에 이제 단(壇)에 이르는 자는 단을 세우고, 비(碑)에 이르는 자는 비를 세워 제각각이다. 적이 지난날 우리 고향의 군자들이 부끄러워하였던 일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옛날 영정을 배향할 때 사론이 둘로 갈라져 마침내 고을에 싸움이 벌어져서 구류(拘流)하는 지경에 이른 후에야 다시 평화를 찾았다. 그러하니 아, 지금 종묘사직이 뒤집어지고 이교가 세상에 가득한데, 편향된 일종의 색론(色論)을 어찌 다시 일삼는단 말인가. 우리의 도를 걱정하고 우리의 윤리를 아낀다. 머지않아 단합할 날이 올 것을 손꼽으며 이에 여기서 기다린다.

작년 가을(1930) 나는 오봉단의 유사를 맡아 전임자에게 부기(簿記)를 인수받을 때, 어떤 사람이

400) 박원동, 「五峯書院實記跋(壬申)」, 『시호거사문고』, 91~92면. “明宗丙辰後三百七十餘年間, 院史散逸, 憑今溯古, 亦已難矣. 自創院及毀院時事, 考諸家藏諸賢之遺稿, 設壇後事, 則余所目睹也. 今古有殊, 詳略不同. 其奉影賜田, 建碑揭板, 自有遺文之傳, 而其創院錄·居接規·靑衿錄諸籍之考見無處, 是可恨也.”

401) 1905년에서 1931년까지의 사적은 『시호거사문고』에 수록되어 있는 「五峯壇所講助文」(87면) 및 「五峯儒金錄序」(150면)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오봉서원의 전사(前事)를 제기하였으나 앞에서 말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 어떤 이가 나를 경계시키며 말하길, “그대는 어찌 오봉서원과 오봉단의 전말을 정리하여 후진들로 하여금 충분히 징험해 볼 수 있게 하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나는 고사에 어두운 데다 적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람됨을 무릅쓰고 감히 이에 대략 글을 엮어서 후대 사람이 널리 상고하고 자세히 살펴보며 잘 기록해 주기를 기다린다.<sup>402)</sup>

인용문의 앞에는 오봉서원이 훼손된 후에 옛날의 서원으로 복원되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단소에서 다행히 제사를 올리게 된 일을 언급하였다. 인용문에서 색론(色論) 운운한 것은 지역의 유림사회가 노론과 소론으로 파가 갈리어서 대립하는 상황을 말한다. 지역 유림사회에서 사론의 분열은 순조 연간 우암 송시열의 영정을 배향할 때의 사건으로부터 기인하였다.<sup>403)</sup> 1806년(순조 6)에 우암의 영정을 오봉서원에 배향하는 일을 논의하였으나 당시 당론에 합당하지 않는다 하여 거절되었다. 그러나 1813년(순조 13)에 권한룡(權漢龍)이 연천(漣川) 임장서원(臨漳書院)의 예를 제시하며 송시열의 위패를 오봉서원에 봉안하였다. 이에 김학두(金學斗), 조석헌(曹錫憲) 등 팔유생(八儒生)들이 적극 반대하였다. 반대 유생들은 구류나 귀향의 조치가 처해졌으며, 지역 노론계의 의지대로 우암 송시열의 추배는 실현되었다.

오봉서원이 훼손된 이후 오봉단은 노론이 중심이 되어 세웠고 기적비는 소론이 의연금을 모아 세웠다. 박원동 당대까지도 노론과 소론의 대립은 여전하였던 것이다. 단적으로 1926년 박원동을 중심으로 강릉 유림이 『임영지』 속수를 추진하다가 결국

402) 박원동, 「五峯書院實記跋(壬申)」, 『시호거사문고』, 92면. “然自有停筆而興歎者, 既是影院同奉之地, 復何黨論不諧? 一院內, 今至壇者壇, 碑者碑, 竊向吾鄉諸君子含愧也. 反而思之, 昔之配影也, 士論歧貳, 遂成鄉戰, 至有拘流之境, 而還爲平和. 則噫今宗社板蕩, 異教充塞, 一種色論之偏, 抑何服也? 憂吾道, 愛吾倫, 指有不遠團合之日, 是所竚待也. 前年秋余忝壇任, 簿記授受, 時有人提說本院前事, 自無逕庭. 又有人警余曰: ‘子盍修院壇顛木, 使晚進人有所足徵?’ 余自顧耆昧古事, 且非其人, 而不揆猥越, 敢茲略綴, 以俟後來博考詳見秉筆者.” “竊向吾鄉”의 ‘鄉’이 『오봉서원실기』에는 ‘邦’으로 되어 있음.

403) 관련 내용이 『오봉서원실기』(오봉서원 소장 필사본 1책), 방동만이규대 공편, 『영동지방향토사연구자료 총서』 2(書院·學校 1),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1994, 37~54면에 자세히 보인다. 당시 관련자들이 보낸 통문 등의 글들도 수록되어 있다. 이충형, 「오봉서원에 관한 연구」, 『영동문화』 5, 관동대학교 영동문화연구소, 1994; 임호민, 「18세기 강릉지방 사족·관·문중간의 갈등양상」, 『인문학연구』 9, 관동대 인문학연구소, 2005.

완수하지 못하였는데, 우암 영정 배향과 관련된 사건을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를 두고 지역의 노론과 소론 사이에 빚어진 갈등이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였다. 『오봉서원실기』를 편찬하던 1932년에 박원동은 『증수 임영지』 편찬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때도 위 문제를 두고 지역 유림 간의 갈등과 반목이 여전하였다.<sup>404)</sup> 박원동은 유학이 침강하는 시대에 지역의 유림 사회가 여전히 분열되어 반목하고 있는 상황을 개탄하며 유림사회의 단합을 촉구하였던 것이다.

박원동은 1932년 『오봉서원실기』는 물론 『강릉향교실기』 역시 편찬하고 있었다. 두 책 모두 ‘실기(實記)’라는 제목을 달았으나, 『오봉서원실기』는 체제에서 『강릉향교실기』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강릉향교실기』가 연혁을 비롯하여 문류(文類)로 구성된, 반면 『오봉서원실기』는 연혁만 있고 문류는 없다. 박원동에 앞서 최동길(崔東吉)은 1931년 7월 강릉의 삼산서재(三山書齋)에서 『오봉서원고적(五峰書院古蹟)』을 석판본 1책(28장)으로 간행하였다.<sup>405)</sup> 이 책은 강당현판시(講堂懸板詩), 강당중수기(講堂重修記), 오봉서원기적비(五峯書院紀蹟碑) 등 오봉서원과 관련된 시문들을 모아서 엮은 것이다. 서문은 편자인 최동길이 1929년에 지은 것이며, 말미에는 편찬에 도움을 준 찬성록(贊成錄)이 있는데 무려 300명 가까운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다.(박원동 이름은 보이지 않음.) 박원동이 『오봉서원실기』를 편찬하면서 연혁을 중심으로 서술을 하고 ‘문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최동길의 『오봉서원고적』이 이미 간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오봉서원실기』에는 이른바 『삼사실기(三祠實記)』가 합철되어 있다.<sup>406)</sup> ‘삼사(三祠)’는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삼연(三淵) 김창흠(金昌翕),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 3인을 모시는 사당으로, 각각 도동사(道東祠), 호정사(湖亭祠), 약천사(藥泉祠)를 가리킨다. 이 세 사람은 강릉 출신은 아니지만, 강릉과 깊은 연관이

404) 『임영지』 속수 과정에서 빚어진 지역 유림 사이의 갈등은 『시호거사일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자세한 것은 ‘IV-3-3.2. 『증수 임영지』 편찬 및 간행’을 참고하기 바란다.

405) 崔東吉 編, 『五峰書院古蹟』, 江陵: 三山書齋, 1931.

406) 『삼사실기』는 방동안이규대 공편, 『영동지방향토사연구자료총서』 2(書院·學校 1),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1994, 16~102면에 영인되어 있다.

있어서 이들을 모시는 사당이 세워진 것이다. 정경세는 강릉 부사로 와서 유교의 진흥에 크게 기여하였고, 김창흡은 호해정에 은거하며 지역 유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으며, 남구만은 강릉에 유배를 와 있었다.

영인본 해제에 『삼사실기』의 편자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1935년 5월 박원동이 이 책에 붙인 발문이 『시호거사문고』에 남아 있어 편자를 알 수 있다.<sup>407)</sup> 이 책의 본래 서명은 ‘강릉삼현사실기(江陵三賢祠實記)’이며, 편자는 조병구(曹秉九)이다. 서원철폐 이후 1882년 고종은 “충신과 현인을 제사 지내지 않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다. [忠賢不祀, 是予之罪也.]”라는 윤음을 내렸고, 이에 따라 강릉에서는 오봉서원과 송담서원, 향현사 등에서 다향을 복원하였다. 그런데 삼현사(三賢祠)만이 사전(祀典)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조병구는 여러 집안에 소장된 단편적인 기록들을 십여 년간 수집하여 1책으로 엮었으며, 서두에 세가(世家)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통문과 단자, 서기(書記)를 수록하였다. 말미에는 육위문(六偉文)과 고향문(告享文)을 붙였다. 박원동은 발문의 말미에서 삼현사가 복원되어 제향이 행해지기를 바랐다.

407) 박원동, 「江陵三賢祠實記跋(乙亥五月日)」, 『시호거사문고』, 116면. 『시호거사일기』 책3, 1935년 3월 10일자에 조병구(曹秉九)가 『강릉삼현사지(江陵三賢祠誌)』를 가지고 박원동을 찾아와 목었다는 기록이 있다.



### 2.3. 송담서원의 다례 의식 개정과 비각 건립

송담서원의 건립과 사액, 송담재의 중건 등에는 박원동 집안의 역할이 컸다. 10세 조인 완하당 박진해는 1652년(효종 3)에 강릉을 유생들을 이끌고 율곡 선생의 석천서원(石川書院)을 송담(松潭)으로 이건하고는 신판(神版)을 봉안하였다. 1655년에 송담서원의 사액 상소를 올렸으나 받지는 못하였고, 1659년 2월에 김속(金涑) 등과 다시 상소를 올려 마침내 사액을 받았다. 1660년(현종 1) 가을 송담서원의 사액치제(賜額致祭)를 거행하였는데, 지제교 김만기(金萬基)가 제문(祭文)을 짓고 동춘당 송준길이 사액의 글씨를 썼으며 우암 송시열이 정향(丁享) 축문(祝文)을 지었다. 그 후 1675년(숙종 1)에 우암 송시열이 유배지를 함경도 덕원(德源)에서 경상도 장기(長鬐)로 옮기며 강릉의 송담서원을 지날 때, 박진해는 우암에게 ‘안인동송담(安仁洞松潭)’ 5자를 써 달라 청하여 서원 앞 계석(溪石)에 새겼다.

서원철폐령에 따라 1871년 송담서원은 제향이 폐지되고 그 터만 남겨 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강릉에서는 송담단에서 약식으로 다례(茶禮)를 올릴 뿐이었다. 그러다가 1882년 고종은 서원철폐를 후회하며 “충신과 현인을 제사 지내지 않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다.[忠賢不祀, 是予之罪也]”라는 윤음을 내렸다. 이에 박원동의 아버지 박증혁은 1905년 지역의 사림들에서 통문을 보내 발의하여, 송담 묘우(廟宇)를 중건하고 ‘송담재(松潭齋)’라는 편액을 걸었다. 이로부터 4년 뒤인 1909년 다례 때에 조병두(曹秉斗)와 박증길(朴曾吉) 등이 주관하여 송담재 건립의 전후 사정을 기록하여 계판(揭板)을 하였다. 이때 박원동은 계판문의 서문을 짓고 글씨를 썼다.<sup>408)</sup>

박원동은 1938년 66세 때 송담서원 관리(管理)에 위촉되어 송담서원의 다례 개정과 비각 건립 등을 추진하여 성사시켰다. 박원동은 이전에도 송담서원의 다례에

408) 박원동, 「松潭齋揭楹叙(己酉五月十三日)」, 『시호거사문고』, 36면. 현재 「송담재중건전말(松潭齋重建顛末)」이란 글이 전하고 있는데, 글의 말미에 “乙巳五月日 有司 李錫夏 朴曾赫”이라 적혀 있다. 임호민 편, 『강릉사우자료집』, 강릉문화원, 1998, 50면.

대해 자문의 형식으로 관여를 하고 있었다. 『시호거사일기』 1925년 2월 20일 기록을 보면, 1924년 심상조와 최대수 등이 내방하여 송담재 목주(木主)가 이미 완성되었으니 제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며 박원동에게 자문을 구했고, 박원동은 목주가 완성되었다면 마땅히 삭망(朔望) 분향을 해야 하며, 향현사 역시 이미 완성된 이후에는 삭망분향을 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1925년부터 송담서원 다례는 2월 중에 행하게 된 것이다.

박원동은 이듬해인 1938년에도 관리인에 임명되었으며, 1947년 사임할 때까지 10년 동안 송담서원의 관리를 맡았다.<sup>409)</sup> 박원동은 송담서원 관리인으로 있으면서 1942년 봄에 송담서원 다례 의식을 개정하였다. 전에는 지주(紙主)로 제사를 올렸지만, 이미 영정으로 대체하였으므로 마땅히 사변두(四籩豆) 의식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sup>410)</sup> 이에 박원동은 진설도(陳設圖)와 홀기(笏記)를 개정하고 그 사실을 홀기첩(笏記帖) 말미에 기록하였다.<sup>411)</sup>

지난 신미년(1871, 고종 8)에 송담서원의 위판을 땅에 묻고는 단을 세워 제사를 올렸는데 별도로 단사(壇祀)의 홀문(笏文)이 있었다. 지난 을사년(1905)에 묘우(廟宇)를 완성하고 지위(紙位)로 다향(茶享)을 행하였는데 의절(儀節)이 여전히 미비하였고 홀문에 소략한 부분이 많았다.

이제 이미 영정을 봉안하고 제사를 올리니 마땅히 사변두(四籩豆) 성폐의(腥幣儀)를 사용해야 한다. 울곡 선생은 본래 진영(眞影)이 없었으나 근래 금산(釜山)에서 유상(遺像)을 사출(寫出)하였다. 이에 죽헌의 몽룡실(夢龍室)에 이미 걸었고 송담서원에서도 이를 따라 감실에 봉안하였다. 영정을 봉안하면 단지

409) 『시호거사일기』 책5, 1947년 2월 16일자에 박원동은 송담서원 관리인을 사면하였으며, 사림이 논의하여 이 이후로는 관리인을 두지 않기로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한편 『시호연명록』, 「송담서원(松潭書院)」, 699면에 무인년(1938)부터 계미년(1943)까지의 송담서원 관리인(管理人) 및 유사(有司) 명단이 있다. 무인년(1938) 관리인은 박원동이고 유사는 이한용(李漢鎔)과 최승규(崔升圭)이며, 기묘년(1939) 관리인은 역시 박원동이고, 유사는 김의남(金儀南)과 신기환(曹璣煥)이다. 경진년(1940) 유사는 이원응(李元應)과 신정묵(申鼎默)이고, 신사년(1941)은 김남선(金南鎭)과 정문화(鄭文和)이고, 임오년(1942)은 김봉경(金鳳卿)과 최경섭(崔景燮)이고, 계미년(1943)은 조병동(曹秉棟)과 심달섭(沈達燮)이었다.

410) 『시호거사일기』 책4, 1942년 2월 20일, 3월 6일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개정의 이유는 송담서원에서 영정을 봉안하여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마땅히 사변두를 갖추어 의식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해 3월 6일에 다례부터 개정된 제의에 따라 4변(籩)과 4두(豆) 예식으로 거행하였다.

411) 한편 현재의 송담서원 홀기와 진설도는 임호민 편, 『강릉사우자료집』, 강릉문화원, 1998, 54-1~54-2면에 수록되어 있다.

분향(焚香)만 해야 하고 향사(享祀)는 마땅하지 않으니, 이는 선유(先儒)가 이미 말한 바이다. 또한 유천 회암영당(楡川晦菴影堂)에서 우리 고을의 선배들이 이미 다례(茶禮)를 지내고 있다. 그러하니 같은 고을의 유천회암영당과 송담서원에서 다르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향사(享祀)의 의절(儀節)도 같은 규례대로 봉행해야 하므로, 홀문(笏文)과 진설도(陳設圖)를 이제 개정하여 그에 따라 시행한다.<sup>412)</sup>

인용문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박원동이 송담서원 다례 의식을 개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이에 앞서 1933년 유천회암영당(楡川晦菴影堂)의 유사(遺事)를 맡아 영당의 다례홀기(茶禮笏記)를 개정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sup>413)</sup> 당시 박원동은 영당의 다례홀기를 강릉향교의 석전홀기(釋奠笏記)와 경학원(經學院) 석전홀기(釋奠笏記)에 의거하여 개정하였다. 박원동은 함께 유사로 임명되었던 조규동(曹圭東)과 다향(茶享)을 주관하였는데, 예전의 홀기에 오자와 임시로 수정해 놓은 부분이 많았다. 이에 처음에서 깨끗하게 다시 쓰려고 시작을 하였다가 결국은 개정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sup>414)</sup>

박원동은 송담서원 관리인으로서 1944~1945년에 송담서원의 비각 영건을 담당하였다. 1944년 7월 박원동은 송담서원의 비각(碑閣)을 건립하는 일로 발기인을 맡아 고을 유림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앞서 고을에서 100인이 부천(副薦)되었으며 이때에 이르러서 함께 일을 맡아 같이 진력하였다. 박원동은 묘정비각 발기문을 작성하였는데 아래는 전문이다.

412) 박원동, 「題松潭書院茶禮笏記後」, 『시호거사문고』, 163면. “二去辛未, 本院位板埋, 安行壇祀一獻, 別有壇祀笏文. 去乙巳廟宇成, 以紙位行茶享, 而儀節尙未備, 笏文省略矣. 今既妥影行祀, 卽宜用四簋豆腥幣儀也. 先生元無影本云, 而近自釜山有遺像寫出, 竹軒夢龍室, 既爲揭奉, 則本院隨而龕奉也. 妥影而只可焚香, 不宜享祀, 先儒有言, 而楡川晦菴影堂, 本鄉先輩, 既行茶禮, 則一鄉而楡松兩廟, 不可有異也. 其享祀儀節, 一例奉行, 而笏文及陳設圖, 今茲改定依行焉.” 이 글의 말미에 “壬午春朴元東識”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1942년 봄에 개정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413) 『시호거사일기』 책3, 1934년 2월 14일자에 유천영당 다례 홀기에 오서(誤書)와 도말(塗沫)한 곳이 많아서 개서를 하면서 개정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414) 박원동, 「楡川影堂茶禮笏記改書辨(甲戌三月上澣)」, 『시호거사문고』, 104면. “舊笏多有誤書塗抹處, 不佞與曹圭東, 幹事于茶享, 今茲改書, 敢因改定. 其他幾字之潤刪, 不須悉辨.”

송담서원에는 특히 긴요한 공사가 셋이 있습니다. 묘우의 기와가 터진 것이 오래되어 비가 새는데, 임시로 틈을 때우고 보수하는 것은 역시 장기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장인을 불러 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 이것이 첫 번째 긴요한 공사입니다.

묘정비는 인가들 사이에 노출되어 있어 무지한 아이들이 비석의 글자를 훼손하기에 판책(板冊)을 사방에 둘러두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 목재가 절로 썩고 이제 강풍이 불어 파손되었습니다. 묘정비를 묘우 신문(神門) 안으로 이건하고자 하였으나 화재를 겪어서 종횡으로 파손되고 곁에는 퇴락한 곳이 있으니 감히 옮길 수 없습니다. 비각을 세우고 담장을 두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긴요한 두 번째 공사입니다.

재실(齋室)이 퇴락하여 비가 새니 수직(守直)이 떠나고 있습니다. 제때에 재실을 수리하여 수직을 두고 다항 때 제관들이 재숙(齋宿)하고 제수를 올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긴요한 세 번째 공사입니다.

이 세 가지 공사 중에 하나라도 늦출 수 없습니다. 이제 동지들이 원소(院所)에 모여 논의를 하고 동향의 여러 군자들에게 삼가 고합니다. 사정을 상세하게 나열할 필요도 없이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널리 해량하시어 원소를 중히 여기시고 고적을 보존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sup>415)</sup>

박원동은 묘우 기와 수리, 묘정 비각의 건립, 재실 수리 등의 세 가지 시급한 공사를 언급하며 유림의 의연금을 모금하였다. 이들 공사와 관련된 기록이 『시호거사일기』에 보이는데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IV-9> 『시호거사일기』 소재 송담서원 비각 영건 관련 기록

연월일	내 용
1944.윤04.20.	- 송담서원 친구 유사 인수인계식에 참석하였는데, 향교 직원 최태규(崔台圭)가 참석하여 송담서원 묘정비각 건립 건으로 5월 8일 회의를 열자고 함.
1944.05.08.	- 송담서원 묘정비각 건립 회의 참석. 묘정비 주변에 목책을 세워두었는데 지금은 바람에 무너져서 비각을 세우려고 하는 것임.

415) 박원동, 「松潭書院發起文」, 『시호거사문고』, 165면. “松潭書院, 特緊起役者有三. 廟宇瓦綻, 年久滲漏, 姑時葺罅而補缺, 亦非遠計, 則莫如招工而改繕者一也. 廟庭碑, 露立於人家叢雜中, 無知童輩, 剝琢碑陰字畫, 故以板冊四圍之, 不幾年, 木材自朽, 今爲獐風破碎焉. 碑欲移建于廟宇神門內, 而曾聞火劫, 破線橫縱, 傍有剝落處, 凜不可運動, 則不得不閤之而墻之者二也. 齋室頽漏, 守直辭去, 及時改室而置直, 以備茶享時祭官齋宿, 祭品供進之所者三也. 顧此三役, 一不可緩也. 今同志諸人, 會議於院所, 茲舉告于同鄉僉君子, 惟此形情不必齟齬而可獨矣. 幸須裁諒, 使係重院所得保古蹟之地, 千萬.”

#### Ⅳ. 강릉 유교문화 유산의 정리와 재건

연월일	내 용
	- 36명이 참석을 하였는데 당일 3백 여원이 약정됨. 각 면에 수금 유사 4인 혹은 3인씩 위촉하기로 함.
1944.05.22.	- 송담서원 비각 건립 협조 통고문을 작성함.(『시호거사문고』, 「송담서원발기문(松潭書院發起文)」) - 통고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송담서원에서 특별히 긴요한 역사(役事)가 세 가지인데, 묘우의 기와를 교체하는 게 첫째요, 묘정비각을 건축하는 게 둘째요, 재실을 증건하는 게 셋째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늦출 수 없다고 운운하며 사람의 협조를 구함.
1944.05.27.	- 송담서원 비각 건립 관련 각 면의 수금유사 회의에 참석함. 수금을 7월 그믐까지 마치기로 기한을 정함.
1944.07.16.	- 송담서원 유사 최봉중(崔鳳重)이 경찰서에서 불러 가보니 송담서원 비각 건립과 관련하여 각 면에서의 수금을 금지하였으니 관리인 박원동에게 기별하라는 것이었음. * 일제의 총동원체제에 따른 것으로 보임.
1944.07.19.	- 송담서원 유사 이광중(李光琮)과 각 면의 수금 유사들에게 편지를 보내 수금 금지 사실을 알림.
1945.03.09.	- 송담서원 다례를 거행하였는데 묘정비각 건립 추진이 정지되어 담장을 쌓고 재실에 기와를 덮기로 정함.
1945.04.13.	- 송담서원 비각 건립 유금(儒金)을 수합함.
1945.08.07.	- 송담서원 비각 신축을 결의하는 양식을 각 면의 수금 유사에게 발송함. * 해방 후 비각 건립이 다시 추진된 것으로 보임.
1945.10.08.	- 송담서원 묘정비각을 상량하였는데 상량문은 박원동이 지었음. 상량문에는 '檀紀四千二百七十年己酉十月初八日乙酉'라 적음.
1945.10.28.	- 송담서원 수금 회의에 참석. 비각 공사가 끝남. - 재실에 다시 기와를 덮자는 발의가 있어 공사비 2천원을 각 면에서 11월 20일까지 수금을 하기로 함.

송담서원의 묘정비각을 건립하는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1944년 7월 경에 경찰서에서 묘정비각 건립을 위한 각 면의 수금 활동을 금지시킨 것이다. 『시호거사일기』에는 금지의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아마도 일제 말기 총동원체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지는 1945년 해방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해방 후에 다시 수금 활동과 건립 공사가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1945년 10월에 송담서원 묘정비각을 완공하게 되었는데, 박원동이 지은 묘정비각상량문이 문집에 수록되어 전한다.<sup>416)</sup>

416) 박원동, 「松潭書院廟庭碑閣上樑文」, 『시호거사문고』, 237면.

### 3. 강릉고적보존회 활동과 『증수 임영지』·『강릉향교실기』 편찬

#### 3.1. 강릉고적보존회의 설립과 활동

박원동은 1932년 가을에 김병환(金秉煥)과 함께 『임영지(臨瀛誌)』를 속수(續修)하고 『강릉향교실기(江陵鄉校實記)』를 편찬하였다. 이 두 책은 이듬해인 1933년 8월(양력) 강릉고적보존회에서 연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간행본에는 편자로 박원동·김병환뿐만 아니라 당시 강릉군수였던 일본인 다키자와 마코토[瀧澤誠]의 이름도 들어있는데, 강릉고적보존회의 설립과 활동을 군수가 주도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지역별로 고적보존회를 조직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많았다. <매일신보>, <중앙일보> 등의 신문을 보면, 경북 경주, 충남 공주와 부여, 함경도 경성과 경원 등에서 고적보존회를 조직하고 활동했다는 기사가 빈번하게 나온다.<sup>417)</sup>

강릉고적보존회는 일본인 강릉군수 다키자와 마코토가 주도하여 1932년에 설립되었다. 오죽헌과 신사임당 유적의 보존, 정경세가 세운 흥학비 중건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문헌 간행 사업으로는 1933년에 『증수 임영지』와 『강릉향교실기』를 간행하고, 1936년에 이이의 『격몽요결(擊蒙要訣)』 일본어판을 간행하기도 하였다.<sup>418)</sup>

<매일신보>, <동아일보> 등의 기사를 통해 강릉고적보존회의 설립과 활동에 대해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17) 일례로 <매일신보> 1913년 6월 4일에 경남 합천에서 고적보존회 조직 기사가 있고, <매일신보> 1925년 5월 23일에 부여고적보존회가 군청 회의실에서 평의원회를 개최한 기사가 보인다.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2009.

418) 장정룡, 「일제강점기 강릉고적보존회 역할과 고전출판」, 『강원학비전포럼자료집』, 강원발전연구원, 2006, 579~585면.

<표 IV-10> 강릉고적보존회 관련 신문기사 (연월일은 양력)

신문 및 일자	기사 제목 및 내용 개요
<매일신보> 1932.08.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李栗谷先生の 古蹟保存會組織 瀧澤郡守發起로”</li> <li>- 울곡의 출생 장소 몽룡실(夢龍室), 신사임당의 유묵(遺墨), 울곡이 친서한 『수초격몽요결(手草擊蒙要訣)』, 울곡이 사용한 연석(硯石) 등을 보존하기 위한 재단법인 조직으로 결성할 계획이며 이들 유적의 유지비용을 조달함.</li> <li>- 신사임당이 이손년(姨孫女) 최씨(崔氏)에게 교육 재물로 써 주었다고 하는 당시 육폭(唐詩六幅)과 『수초격몽요결』 등을 모사하여 세상에 소개하는 사업도 벌일 계획임.</li> </ul>
<매일신보> 1932.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財團法人으로 誕生된 江陵古蹟保存會 多年懸案 맞춤내 實現”</li> <li>- 강릉군회의실에서 다수의 지역 유지가 모여 강릉고적보존회를 재단법인으로 조직할 것을 결정하고 규약을 제정함.</li> </ul>
<매일신보> 1932.1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江陵古蹟保存會 設立資金融通 朴, 金兩氏が 五千圓을”</li> <li>- 김윤경(金潤卿)과 박기동(朴起東)이 벼[菰] 일천 석을 강릉식산은행에 담보로 차입하고 일금 오천 원을 융통하여 고적보존회의 설립 자금으로 충당함.</li> <li>- 김윤경은 사천면 판교리에 거주하는 부호이며 박기동은 사천면 덕실리에 거주하는 현 중추원(中樞院) 참의(參議)임.</li> <li>- 강릉고적보존회설립 위원회는 이 금액으로 우선 현 권오성(權五成) 씨의 소유인 몽룡실과 기타 부속 토지에 대한 관계 채권채무를 무이자로 정리 인수키로 함.</li> </ul>
<매일신보> 1933.1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江陵臨瀛誌』 古蹟保存會의 事業으로 發刊”</li> <li>- 역사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강릉임영지』(곧 『증수 임영지』)의 발간을 소개함. 반포 사무는 강릉군청 내 강릉고적보존회 사무소에서 진행.</li> </ul>
<조선신문> 1934.1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栗谷先生と江陵古蹟保存會, 先生の生家烏竹軒, 負債を整理して保存”</li> <li>- 오죽헌이 400년 간 울곡의 문생 권씨 자손에 의해 보존되어 왔는데, 불황으로 오죽헌을 더 이상 보존하기 어렵게 됨.</li> <li>- 1932년 5월 28일로 채무 정리를 조건으로 고적회의 재산으로 함.</li> </ul>
<동아일보> 1938.0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栗谷先生の「烏竹軒」不遠國寶로 指定? 夢龍室의 遺硯, 擊蒙要訣等 四百年 祭도 準備中”</li> <li>- 오죽헌 및 소장 유물 등을 강릉고적보존회가 인수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li> <li>- 상부에서 조사관이 다녀갔는데 아마도 국보의 지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함.</li> </ul>

신문기사에 따르면, 강릉고적보존회는 1932년 8월(양력)에 울곡과 신사임당의 유적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되었다. 울곡과 신사임당의 유적을 소유하고 있었던 권오성(權五成)은 부채가 많아서 이들 유적을 유지, 보수하는 데에 어려운 겪고 있었다. 『시호거사일기』 1928년 6월 28일자에는 권석여(權錫汝)·권원중(權元重)이 울곡 선생이 수사(手寫)한 『격몽요결』을 석판으로 이사(移寫)한 것과 사임당



수필(手筆)을 이사한 것을 가지고 와서 박원동에게 구람할 것을 요청한 기록이 보인다. 권오성이 몽룡실의 수리 건을 관청에 요청하여 『격몽요결』 석판 등사를 허가 받아 2천 권 가량을 인출했는데, 권당 정가는 2원이며 사임당 수필첩 역시 폭당 정가는 1원이라고 하였다.<sup>419)</sup>

강릉고적보존회는 1932년 12월(양력) 군청에 사무소를 마련하고 규약을 제정하여 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하였다. 신문기사에 규약이 실려 있지 않아 보존회의 구체적인 규약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비록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단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수가 관할하였다. 그런데 재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매일신보> 1932년 12월 27일자(양력) 기사에 의하면, 부호인 김윤경과 중추원 참의 박기동이 식산은행에 미곡을 담보로 제공하고 설립 자금으로 5천 원을 융통해 주었다고 한다.



<그림 IV-5> 강릉고적보존회 <매일신보> 기사(1932.08.17·12.27, 1933.10.07.)

『시호거사일기』에는 강릉고적보존회와 관련된 기록이 다소 보이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시호연기』를 비롯하여 여타 시문에는 ‘강릉고적보존회’와 관련된 기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419) 『시호거사일기』 책1, 1928년(무진) 6월 28일.

<표 IV-11> 『시호거사일기』 소재 강릉고적보존회 관련 기록

연월일	내 용
1932.05.17.	- 죽리의 권오성은 부채가 8천 원인데 자신의 집과 토지에 대한 압류를 풀려고 군청의 보존회(곧 강릉고적보존회)에 들어갔다고 하였음. - 당시 울곡의 고적인 몽룡실과 어제각 등이 압류된 상태였음.
1933.01.05.	- 농촌진흥회 일로 군수 농택성, 교화 서기 권영기, 면장 박진동(朴晉東), 김진직(金振植) 등이 강동면에 왔다가 박원동 집에서 묵음. - 박원동은 이들로부터 오죽헌과 경포대 고적보존회에서 권오성의 부채 8천원 중에서 3천원을 갖고 은행에 아직 상환하지 못한 5천원을 박기동과 김윤경이 각각 5백 섬의 조(租)를 은행에 저당 잡히고 부채를 갚았다는 이야기를 들음.
1933.01.10.	- 관동명덕회(關東明德會) 찬의(贊議) 망지(望紙)와 강릉고적보존회 협찬위원 망지가 군청에서 옴.
1934.01.08.	- 아우 광동과 함께 모전(茅田) 삼종숙 증영(曾泳) 댁으로 갔는데 강릉고적보존회 기부를 권면하는 일이었음.
1934.07.27.	- 강릉고적보존회 결산서를 면부(緡附)함.
1936.12.11.	- 강릉고적보존회 결산서가 옴.
1937.08.21.	- 경포대의 단청을 새로 칠하고 찻길 내었는데 강릉고적보존회에서 수리한 것임.
1938.07.06.	- 강릉고적보존회 수입지출 결산서가 옴. 잔액이 710여 원임.
1939.05.15.	- 강릉고적보존회의 결산서가 옴

박원동은 강릉고적보존회의 설립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닌 듯하며, 1933년 초에 협찬위원으로 위촉되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였다. 특히 군수의 지원 아래 김병환과 『임영지』를 증수하고 『강릉향교실기』를 편찬하였다.

강릉고적보존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하였던 군수 다키자와 마코토는 1888년 생으로 일본 나가노 현[長野縣] 출신이다. 1914년 강원도 통천군 판임관(判任官) 견습(見習)을 시작으로 1920년까지 통천군·금화군·양양군·영월군 등의 서기(書記)를 지냈다. 1921년부터 1930년까지는 강원도청의 세무과·이재과(理財課) 등에서 근무하였다. 1931년부터 1934년까지 강릉군수, 1935년 춘천군수, 1936~37년 춘천 읍장을 지냈다.<sup>420)</sup> 다키자와 마코토는 춘천으로 임지를 옮겨 간 뒤인 1936년에 강릉의 유림

420) 『직원록자료』(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DB). 한편 다키자와 마코토 춘천읍장으로 재직 시 『조선』 제255호(1936.8.1.)에 “半島都府の大觀-春川邑”이란 글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에게 엽서를 보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면서도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다.<sup>421)</sup>

일본인 군수와 강릉 유림이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서 강릉고적보존회 활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짐작된다.<sup>422)</sup> 박원동 역시 군수와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강릉의 고적 보존 사업에 협력하였다. 『증수 임영지』 편찬 및 간행 과정에서 발생한 유림 간의 갈등, 박원동에 대한 무고 등이 있을 때, 군수가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간행을 성사시켰다. 박원동 역시 원우의 제향, 우복 정경세의 흥학비 재건 등과 관련하여 군수를 설득하여 지원을 받아내었다. 일례로 박원동은 1932년 2월 오봉단소·송담묘우·유천영당 제향에 향교재산 일부를 기부 편입시키는 건을 군수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수는 향교재산을 오봉단소에 매년 15원, 송담묘우에 10원, 유천영당에 10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향현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15원을 지원한다고 하였다.<sup>423)</sup> 『시호거사일기』를 보면, 다키자와 마코토가 1936년 춘천으로 근무지를 옮긴 이후에도 서로 편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많이 보일 정도로 둘은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박원동과 함께 『증수 임영지』·『강릉향교실기』를 편찬하였던 이는 김병환(金秉煥, 1871~1947)이다. 김병환은 본관은 강릉, 자는 성길(聖吉), 호는 석창(石倉)이며, 궁내부(宮內府) 주사를 역임하였다.<sup>424)</sup> 박원동은 1933년부터 2년 남짓 향교의 직원을 역임하였는데, 1935년 박원동을 이어 직임을 맡은 이가 김병환이었다.<sup>425)</sup> 김

421) 다키자와 마코토가 강릉의 유림 조인환(曹仁煥, 1888~1976)에게 보낸 엽서가 강릉 창녕조씨 고문서에 들어 있다. 조인환은 박원동과는 처남 매부 사이이다. 박원동의 누이가 조인환과 혼인하였다. 당시 조인환은 강릉 향교의 장의였다. 『수집사료해제집』 7, 「강릉 창녕조씨 소장자료 고문서 목록 및 해제」, 국사편찬위원회, 2013.

422) 1977년 10월에 다키자와 마코토가 강릉시를 방문하였는데 강릉고적보존회 활동과 관련하여 “당시 일본의 문화말살 정책 속에 자신은 이의 집행자이면서도 옛 성현의 발자취를 보존해야 된다는 일종의 의무감에서 그 일을 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중앙일보> 지방화제 편에 소개) 장정룡, 앞의 논문, 580~581면.

423) 『시호거사일기』 2책, 1932년 2월 16일·30일.

424) 『강릉김씨대동보』 2권, 강릉김씨대동회, 1061~1062면.

425) 『증보 강릉향교지』, 강릉향교, 2009. 『강릉김씨대동보』에는 생년월일이 1871년 2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증보 강릉향교지』의 역대 임원 명단에는 음력 1871년 2월 20일로 되어 있다.

병환은 주춘시사와 강호시사에도 참여하였고, 1941년 『명덕사조』를 편찬할 때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으며, 1947년 풍호정 낙성을 기념한 시회에도 참석하여 시를 남겼다.

한편 박원동은 강릉고적보존회의 주요 사업 중 하나였던 강릉 향교의 흥학비(興學碑) 개수에 관여하였다. 흥학비는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가 강릉부사로 재직할 때 유학의 진작을 위해 건립한 것이다. 다음은 『시호거사일기』에 보이는 흥학비 개수 관련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표 IV-12> 『시호거사일기』 소재 흥학비 개수 기록

연월일	내 용
1931.08.07.	- 우복 정경세의 흥학비가 세월이 오래되어 자획이 보이지 않으므로 개수 의견을 군수 다키자와 마코토에게 진정을 하여 허락을 받음. 향교의 재산으로 개수할 계획임. - 퇴곡(退谷)에 우복사를 창립할 때 방계의 선조 돈검(敦儉)과 신석필(辛錫秘)·김려(金侶)가 통문을 보낸 까닭에 박원동에게 군수에게 진정을 요청하라고 한 것이었음.
1931.08.17.	- 우복 정경세의 흥학비 개수 관련으로 회의가 있어 아우 광동을 대신 참석시킴.
1932.04.16.	- 정채화·심상조·김윤경·권영기와 함께 군청에 들어가 오봉단소·송담재·유천영당의 제향비 및 우복 정경세 흥학비 개수에 향교의 재산을 예산으로 편입시켜 준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함.
1932.08.27.	- 향교에서 우복 정경세의 흥학비 관련 회의가 있었으나 참석치 못함. - 회의 안건은 예전 흥학비의 음기(陰記)가 마멸되어 탁본을 하니 상방의 8~9자 혹 2~3자는 무슨 글자인지 알 수가 없어서, 향교 직원의 요청에 따라 박원동이 문헌에 의거하여 보충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제유(諸儒)가 모여 의론을 하게 된 것임.
1933.06.05.	- 향교의 우복 정경세 흥학비 개립(開立)에 참가함. - 예전 흥학비의 마멸된 글자에 대해 경학원에 자문을 받기도 하였으나 결국 박원동이 보결한 것으로 결정을 함.(보결한 글자는 32자임) - 예전 흥학비는 글씨 쓴 이를 앞에 적고 찬자를 뒤에 적었는데 지금은 찬자를 앞에, 글씨 쓴 이를 뒤에 적는 것으로 개정하는 게 마땅하였으나 어떤 이가 옛날의 서식을 고쳐서는 안 된다고 하여 그대로 둠.
1933.08.10.	- 우복 흥학비 비각 건축 상량을 함.
1933.09.15.	- 우복 흥학비 비각의 단청 공사를 마침.

박원동은 군수를 설득하여 흥학비 건립에 대한 지원을 받아내었다. 예전 비문이 마멸되어 자획이 불분명하였는데, 박원동은 문헌 고증을 통해 글자를 보결(補缺)하는 등, 흥학비의 개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 3.2. 『증수 임영지』 편찬 및 간행

박원동은 1932년 강릉고적보존회 사업의 일환으로 『임영지』를 편찬하는 작업에 참여하기 전부터 향지(鄉誌)나 향사(鄉史) 편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시호거사일기』에 따르면, 강릉에서 『임영지』를 속수하려는 계획은 이미 1926년에 있었다. 다음은 『시호거사일기』 1926년 4월 5일자 기록의 일부이다.

본 읍의 활판소 정호태(鄭鎬泰)와 김진태(金振泰)가 장차 『임영지(臨瀛誌)』를 속수하여 간행하려고 나에게 함께 논의하라고 요청하였다. 그래서 활판소에 가보니, 고을의 장로 10인이 회의에 참석해 있었다. 『임영지』는 본래 4책인데 영조 때 진사 민백조(閔百祚), 감찰 박민첨(朴民瞻), 진사 김시옥(金時玉)이 다시 1책을 속수하였다. 이제 전지(前誌)와 후지(後誌)를 합치고 대소과(大小科)·효열(孝烈)·원우(院宇)·호구(戶口)를 이어서 속수하기로 하였다. 대소과는 갑오년(1894)까지로 하고 효열 또한 갑오년까지를 하한선으로 하여서 뒤섞이는 것을 방지하자고 하였다.<sup>426)</sup>

『임영지』는 정조 연간 동호노인(東湖老人)이 편찬한 것으로, 강릉의 역사와 인문 지리 등을 엮은 읍지이다. 1926년 인쇄소의 정호태와 김진태의 요청으로 『임영지』의 속수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때 임원을 선출하고 원고를 작성하는 등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었다. 『시호거사일기』에 기록된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13> 『시호거사일기』 소재 1926년 임영지 속수 관련 기록

연월일	내 용
1926.04.15.	- 강릉 읍내 활판소의 정호태(鄭鎬泰)와 김진태(金振泰)가 『임영지』 속수 발간을 계획하고 개최한 회의에 참석함. - 강릉의 장로 10여 명이 모여 범례를 대략 마련하였는데, '대소과(大小科)'와 '효열(孝烈)'의 하한선을 갑오년(1894)으로 정함.

426) 『시호거사일기』 책1, 1926년 4월 15일. “本邑內活板所鄭鎬泰·金振泰, 將續修臨瀛誌刊行, 要余參論. 故往參, 則長老并十餘人來會焉. 臨瀛誌本四冊, 英廟時, 閔進士百祚·朴監察民瞻·金進士時玉, 又續修一冊, 而今合前後誌, 繼修大小科·孝烈·院宇·戶口云. 大小科, 至甲午而止, 則孝烈亦止于甲午, 以防淆雜爲言.”

#### Ⅳ. 강릉 유교문화 유산의 정리와 재건

연월일	내 용
1926.08.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영지』 속수 회의에 참석하여 '연혁'의 하한선을 정하고 임원을 선정함.</li> <li>- 편집인(編集人) 3인 : 정채화(鄭察和)·최명익(崔命翼)·박원동(朴元東)</li> <li>- 교정 3인 : 최동길(崔東吉)·조삼환(曹三煥)·김재익(金在翼)</li> <li>- 고문 3인 : 권규식(權逵植)·김연작(金演焯)·심상조(沈相祚)</li> </ul>
1926.09.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영지』 속수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각 면에 심사원(審査員)을 3인씩 선출함.</li> <li>- 강릉면의 경우 면이 크므로 5인 선출하였으며, 박원동이 소속된 강동면의 경우 신재경(辛在卿)·이시응(李時應)·김대기(金大起)가 선출됨. 그 후 평의원 30인을 추가로 선출함.</li> <li>- '기사(記事)'조에 '하남재'와 '오봉서원'에 관한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운정의 심씨 가문과 옥가의 김씨 가문 사이에 논란이 벌어짐.</li> </ul>
1926.0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영지』 속수 임원회의에 참석하였는데, 당론의 다툼이 발생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함.</li> <li>- 옥가 김씨 가문의 김진영(金振永)이 참석하였고, 소론들이 병계록(丙癸錄) 1권을 가지고 일제히 참석을 하였는데, 소론 측에서 하남재 사실과 오봉서원 우암 영정 배향의 사건은 모두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함.</li> </ul>
1926.1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영지』 속수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기사'조에 하남재와 오봉서원 관련 기록 문제를 협의함.</li> <li>- 하남재의 경우 '애안(挨眼)' 문자는 삭제하고 오봉서원의 경우 여덟 유생 관련 일은 간략하게 기재하여 넣는 것으로 협의함.</li> <li>- 오봉서원 우암 영정 배향 사건과 관련하여 박원동을 비롯하여 김진영(金振永), 최달하(崔達河), 최명익(崔命翼) 4인이 각각 원고를 작성해 와서 추후에 협의하기로 함.</li> </ul>
1926.1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영지』 속수 회의에서 오봉서원 '기사(記事)'와 관련하여 4인의 원고를 검토함.</li> <li>- 김진영은 '병계록'을 등초(謄草)해 왔는데 분량만 많고 번쇄한 까닭에 중론이 쓸 수 없다고 함. 최달하는 불과 수십 행을 지어 왔는데 내용 중에 '당사(黨私)'라는 말이 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최명익은 해당 사실을 잘 알지 못해서 글을 지어오지 않았다고 함.</li> <li>- 박원동은 병인년 기적비(紀蹟碑)를 세운 일과 우암 영정 배향 관련 일의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작성하여 채택됨. 다만 '여덟 유생 규류' 이하에 '권한룡이 삭적부죄(削籍付罪)' 등의 말을 삽입하기로 함.</li> <li>- 운정의 심씨 가문이 다수 참석하여 하남재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삭제할 구절을 요구함.</li> <li>- 2건에 대한 시비 다툼이 심해서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결국 하남재와 오봉서원 시비 건은 편집에서 발거(拔去)하자고 결의함.</li> </ul>
1926.12.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영지』 속수 회의에 참석함. 오봉서원과 하남재 관련 기사(記事)는 박원동이 작성한 것을 채택하기로 결정함.</li> </ul>

1926년 『임영지』를 속수하자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기사(記事)'조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어났다. 『시호거사일기』 1926년 9월 2일자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논란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하남재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전의 속지(續誌)에 정자와 주자, 심어촌(沈漁村, 심언광)을 하남재(河南齋)에 배향하는 데에 사론이 일치하지 않아 두 정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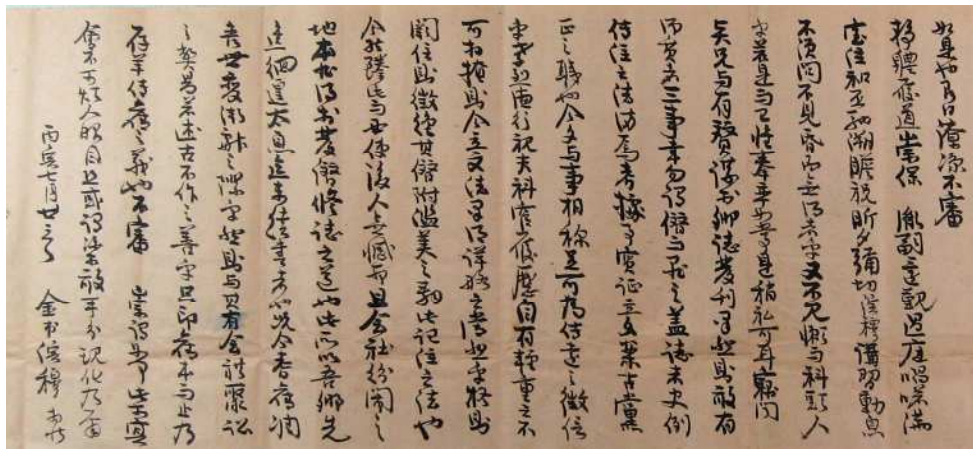
(정호와 정이)의 영정은 세초하여 화부산(花浮山)에 매안(埋安)하고 배향을 철회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속지의 기록은 이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어떤 본에는 ‘사실무흠(事實無欠)’이라 되어 있고, 어떤 본에는 ‘각박심상(刻薄甚詳)’한 구어(句語)가 있었다. 운정의 심씨 가문에서는 ‘사실무흠’이라 한 것이 원본이라고 주장하고, 옥가의 김씨 가문에서는 ‘각박심상’이라는 한 것이 원본이라고 주장하여, 어느 본을 근거로 할 것인지 확정하지 못하였다.

다른 하나는 순조 연간 오봉서원에 우암 영정을 배향할 때의 사건이었다. 당시 소론의 여덟 유생이 우암 영정의 배향을 반대하다가 심지어 정배(定配)된 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이를 신유(新儒) 향교 장의가 처음에 통문을 보낼 때 구유(舊儒) 3인 유생이 구수(拘囚)된 일을 함께 편집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노론과 소론의 대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강릉의 유력한 가문인 심씨와 김씨 가문의 후손에게 선조의 사적에 대한 평가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이들 사건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하는가는 심씨와 김씨 가문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으며, 두 가문은 관련 기록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박원동은 정채화·최명익과 함께 편집인에 위촉되어 원고 작성을 맡았는데, 이 두 가지 사적은 간략하게 하는 기록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고장의 읍지를 속수하는 의미 있는 일이었으나 이로 인해 지역 유림사회에 과거의 갈등이 재현된 것이었다. 편찬 작업의 중심에 있었던 박원동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다음은 몽재 김연목이 1926년 7월 23일 박원동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그림 IV-6> 1926년 김연목이 『임영지』 속수 관련 박원동에게 보낸 편지  
(오죽헌박물관 소장/박창규 기증)

들으니 그대가 찬조자들과 함께 향지(鄉誌)를 발간하는 일을 도모한다 하더군요. 과연 그렇다면 감히 질정할 게 세 가지 있으니, 참람하다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개 지(誌)는 사서(史書)의 규례이니 전주(傳注)의 법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실을 고증하고 논증하여 문안(文案)을 작성하니 옛날 당정(黨正)이 맡았던 일입니다. 지금 문안과 사실이 서로 상부하여 족히 먼 후대까지 전하는 징신(徵信)이 될 수 있습니까? 효열(孝烈)의 덕행(德行)은 과환(科宦)의 이력(履歷)에 비하여 절로 경중을 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문법을 세움에 과연 상략(詳略)의 마땅함을 획득하였습니까? 의심스러우면 빼고 믿을 만하면 징험하여 아부하거나 찬양하는 말을 끊는 것이 기주(記注)의 법입니다. 이제 능히 이에 도달하여서 필시 후인들에게 유감이 없게 하였습니까? 또한 사우들 사이에 분란이 생긴 것은 본래 참람함을 발하여 향지를 편수하는 도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야말로 우리 고을의 선배들이 근심하고 크게 탄식하며 끝내 향지를 속수하지 못했던 까닭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장로들이 돌아가시고 세상이 극변한 때가 아닙니까. 그러하니 서로 시비를 다투며 결말을 내지 못하는 폐단(427)을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옛 것을 조술하고 새것을 짓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428)

427) 서로 시비를……폐단 : 여러 설을 가지고 분분히 서로 다투어 정론(定論)이 없는 것을 이른다. 『후한서(後漢書)』 권35 「조포열전(曹褒列傳)」에 “예(禮)를 따지는 사람이 모인 것을 이름 하여 ‘취송’이라 하니, 서로 이의를 제기하면 끝내 붓을 놓을 수 없다.[會禮之家, 名為聚訟, 互生疑異, 筆不得下.]”라고 하였다.

428) 김연목이 1926년 7월 23일 박원동에게 보낸 편지(오죽헌시립박물관에 소장). “竊聞賢兄與有贊謀於鄉誌發刊, 果然則敢有仰質者三事, 幸勿謂僭而罪之. 蓋誌者史例, 傳注之法備焉. 考據事實, 證立文案,

김연목이 향지 운운한 것은 1926년 4월부터 시작된 『임영지』 속수를 말한다. 김연목은 향지 발간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철저한 사실 고증을 통해 문안과 사실의 상부, 효열의 덕행 관련 서술은 상략의 엄정함 획득, 사실을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찬미하는 것 경계 등이다. 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한다면 사우들 사이에 분란과 송사를 야기하는 폐단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원동은 다음과 같이 답서를 보냈다.

그러나 유독 황공하여 식은땀이 나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 향지(鄉誌)의 발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두고 그 사이에서 술작(述作)<sup>429</sup>하고 필삭(筆削)<sup>430</sup>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는 와전된 이야기입니다. 일을 맡은 것은 책임자가 있기에 참여를 한 것인데, 논란이 될 만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인행된 구본(舊本)에 따라 유독 대소과와 효열만을 실징(實徵)에 의거하여 속부(續附)할 뿐입니다. 지금 27일에 향지(鄉誌)와 관련하여 회의하자는 요청이 있었고, 향교에서는 강독을 개최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향사(鄉史)를 정리하고 향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니, 이것은 고도(古道)가 아니라면 오늘날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좌하(座下, 편지에서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말)에 첩(帖)을 올리오니 혹 참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sup>431</sup>

인용문의 앞에는 김연목과 박원동 자신의 근황을 서술하며 만나지 못한 안타까움을 서술하였다. 그리고는 김연목이 편지를 통해 교의(教意)를 베풀어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위와 같이 『임영지』 속수의 편찬 원칙과 의미를 해명하였다. 『임영지』 구본에

古黨正之職也。今文與事相稱，足可爲傳遠之徵信乎。孝烈德行，視夫科宦履歷，自有輕重之不可相掩，則今立文法，果得詳略之當然乎。疑則闕，信則徵，絕其僭附濫美之辭，此記注之法也。今能臻此，而必使後人無憾耶。且會社紛鬧之地，本非得於發僭修誌之道也。此所以吾鄉先進徊遑太息，迄未續書者也。況今者宿凋喪，世變漸劇之際乎。然則與其有會禮聚訟之弊，曷若述古不作之善乎。”

429) 술작(述作) : 술이부작(述而不作). 전인(前人)의 설(說)을 전술(傳述)하여 밝히고, 자기의 설을 제창하는 것을 말한다.

430) 필삭(筆削) : 역사를 기록할 때에 쓸 만한 것은 쓰고 없앨 만한 것은 없애는 것을 말한다. 『사기』 권 47, 「공자세가(孔子世家)에 “『춘추』를 지을 때에 쓸 만한 것 쓰고 없앨 만한 것 없애니 자하 같은 사람도 한마디 말을 거들지 못했다.[至於爲春秋，筆則筆，削則削，子夏之徒不能贊一辭.]”라고 하였다.

431) 박원동, 「荅金蒙齋(演穆)(丙寅七月日)」, 『시호척독』, 517면. “然獨有惶汗難解者，鄉誌發刊，謂余述作筆削於其間云歟，此是訛聞也。尸事者，有其人而參，挂其論則有矣。依即舊本，而獨大小科孝烈，據其實徵，續附云耳。今廿七，鄉誌有會議之請，鄉校有講讀之請，鄉史之修，校講之習，此非古道，復見於今日者乎？想有呈帖于座下矣。或動文駕否？”

따라 대소과와 효열만을 속수할 뿐이며, 결코 술작(述作)하거나 필삭(筆削)하는 것이 아님을 역설하였다. 아울러 『임영지』의 속수가 고도(古道)에 따른 작업이라며 속수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읍내의 활판소에 가서 『임영지』 속수 회의에 참석하였다. 하남재 사건은 내가 편성한 글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1년 내내 회의를 12회나 개최하였는데 당론을 화합시키기가 이처럼 어려우니 참으로 가소롭다. 또 소식을 들으니 풍기의 김진영(金振永)이 강릉으로 아들을 보내 오봉서원 시비와 관련하여 이른바 병계록(丙癸錄)과 하남재 사적을 별도로 인편(印編)한다는 뜻을 고을 유림에게 전하며 사람들을 모아서 선금으로 1백 원을 빌렸다고 한다.<sup>432)</sup>

인용문은 1926년 12월 11일자 『시호거사일기』의 일부이다. 박원동은 6개월 남짓 『임영지』 속수에 매진하였으며,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결국 박원동이 작성한 원고가 채택이 되었다. 그러나 지역의 유림 사회에서 갈등은 여전하였으며,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현실에 개탄하였다. 결국 1926년 『임영지』 속수와 간행 작업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6년 뒤인 1932년 가을에 박원동은 김병환과 함께 『임영지』 속수를 완료하였으며, 이듬해인 1933년 8월(양력)에 강릉고적보존회에서 연활자본 1책으로 간행을 하였다.<sup>433)</sup> 『시호거사일기』에는 1932~1933년에 걸쳐 진행된 『증수 임영지』의 편찬 및 간행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432) 『시호거사일기』 책1, 1926년 12월 11일. “往活板所，參臨瀛誌會議。河南齋事，以余所編文用之決會議，終一年凡十二會也。黨論和合之難如是，實可笑也。更聞豐基金振永，送子入來，五峯所謂丙癸錄與河南齋事，別爲印編之意，一邊人會議，姑先百圓金出債云。”

433) 『增修 臨瀛誌』, 瀧澤誠 等編, 江陵古蹟保存會, 1933. 刊記에는 ‘瀧澤誠, 金秉煥, 朴元東’ 3인의 이름이 거주지와 함께 순서대로 적혀 있다.

<표 IV-14> 『시호거사일기』 소재 1932~1933년 증수 임영지 편찬 및 간행 기록

연월일	내 용
1932.05.14.	- 임영지 속편 겸 강릉향교실기 편찬 위원에 위촉되는 첩지(帖紙)가 음.
1932.05.15.	- 임영지 속편 및 강릉향교실기 편찬 관련 군청 회의에 참석. - 편찬위원으로 박원동·권인식(權麟植)·김병환(金秉煥)이 선출됨. - 고문 11인을 선출하고 각 면에 수집 위원 각 2인을 차출하며, 간행 경비로는 향교 재산 150원을 사용기로 함. - 대략적인 범례를 정함 : 군청에 있는 것은 구지(舊誌) 3권인데 정조 병오년 민 진사와 박 감찰이 편찬한 것이며, 속지(續誌)는 보전(保傳)되지가 않고 각 리에 등본(謄本)이 있음. 구 지와 속지를 합쳐 병칭 '전지(前誌)'라고 함. 병오년 이후 147년간의 사적을 이제 다시 수집 하여 1권으로 만들고 '속지(續誌)'라 칭하기로 함. 다만 음사(蔭仕)는 갑오년 전은 실직(實職)을, 갑오년 후는 실직 주임관(奏任官)을 수록하기로 함.
1932.05.20.	- 군청에 들어가 임영지 범례와 향교실기 범례를 작성함. 권인식과 김병환이 동참함. * 이후 수시로 군청에 들어가 임영지와 향교실기를 편성함.
1932.05.27.	- 향교 명륜당에서 열린 임영지 및 향교실기 임원회의에 참석함. 군수 및 각 임원 50여 명이 출석함. - 박원동은 임영지와 향교실기의 범례를 낭독하며 설명함. - '인물'조에 '정현덕(鄭顯德?)'과 '민백조(閔百祚)' 2인을 수록하기로 정함. - 각 면의 자료 수집은 1개월 이내로 기한을 정하고 수집된 것에서 편집하기로 함.
1932.06.19.	- 군수와 임영지 편찬과 관련하여 2가지 문제로 상의함. - 영서의 6개면이 옛날에는 강릉부 관할이었으므로 임영지에 편입하는 것을 허가 받음. - 운정의 심씨 가문이 하남재(河南齋) 기실(記實) 문제로 찾아옴. 원래 이 사건과 관련된 기록 은 2본이 있었는데, 하나는 순탄(順坦)하고 하나는 각박(刻迫)하였음. 운정의 심씨 가문은 순 탄이 옳다고 하고 옥가의 김씨 가문은 각박함이 옳다고 함. 1926년 활인소의 정호태(鄭鎬泰)와 읍지를 편찬하려고 할 때에 박원동이 2본에서 간략하게 뽑아 편성한 글이 있었는데 여전히 어떻게 기입할지 결정을 하지 못하였음. 군수는 만약 두 가문 간에 화해와 조율이 안 된다면 2본을 모두 기재하자고 하였음.
1932.07.19.	- 임영지 관련 각 면의 수단 마감 기일인 까닭에 군청에 들어감. 군수와 함께 강릉읍 사천면 수단을 다른 면에 넣는 것을 논의하여 조만간 입송(入送)하기로 함.
1932.07.28.	- 면의 수집 위원인 조병천(曹秉千)과 조기환(曹璣煥)이 임영지 일로 내방함. - 김운탁(金雲倬)이 증조의 효열(孝烈) 문장(文狀)을 가지고 와서 보여줌. * 임영지 속수에 '효 열(孝烈)'을 넣기 때문에 여러 가문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것임.
1932.08.06.	- 운정의 심씨 가문과 옥가의 김씨 가문이 군청의 임영지 편집소에 모여 '기사(記事)조의 하남 재 기입과 관련하여 쟁단(爭端)을 벌임. - 박원동은 1926년 임영지를 속수하려고 할 때 이에 대해 "영정이 진상이 아니다.[其影幀非眞像]"라고 운운하였는데, 심씨 가문에서는 이를 완전히 빼고 싶어 하였고, 김씨 가문에서는 구지에 "영정이 위상(僞像)임이 분명하다(明其爲僞像)"고 한 것을 거론하면서도 화해의 의미 로 "진상이 아니다(非眞像)"로 고쳐서 말을 하였음. 박원동은 이 구절을 삽입하는 것은 심씨 가문에게 흠결이 아니라며 설득함.
1932.08.07.	- 각 면에서 들어온 수단을 정리하여 필삭(筆削)을 마쳤으나, 취류(聚類) 편차와 빙거(憑據) 조 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할 일이 많아서 읍내에 계속 유숙함. * 이후로도 여러 차례 읍내에 유 숙하며 편찬 및 검열 작업에 몰두함.
1932.08.19.	- 권규식(權達植)이 자신의 아버지 학수(鶴洙)가 송담서원·오봉서원·유천영당에 묘우를 세우고

#### Ⅳ. 강릉 유교문화 유산의 정리와 재건

연월일	내 용
	<p>단소를 설립할 때 전적으로 공이 있다며 이름을 넣어줄 것을 요청함. 박원동은 세 곳의 문적에 상고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에 권규식은 종손(從孫) 혁병(赫炳)을 시켜 군수에게 박원동을 무고하였는데, 군수는 박원동은 협잡한 사람이 아니며 규식의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공이 있는지는 상고할 만한 문적을 조사하여 확인하겠다고 대응함.</li> </ul>
1932.08.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원동이 김병환·정호덕과 함께 군청으로 들어가 편집 작업을 하는데, 권규식의 무고와 험담에 대해 군수가 개념 하지 말고 작업에 전념할 것을 권고함.</li> </ul>
1932.08.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망상(望祥)의 수집원 김진탁(金振鐸)이 선조 김종정(金宗鼎)이 약천영당(藥泉影堂)을 건립할 때 공이 있다고 한 까닭에 관련 내용을 기입함.</li> <li>- 심곡의 박씨 가문에서 구지(舊誌)에 기재되어 있는 의우총(義牛塚)과 관련된 선조의 사적에 대해 수정을 요청함. '양인(良人) 박성진(朴性珍)' 운운한 것에서 '양인(良人)'은 삭제하고 '성진(性珍)'은 '성진(聖振)'으로 개서함. 또 구지에 성진의 어머니가 '열녀(列女)'에 기재되어 있는데 성(姓)이 누락되어 있어 '장씨(張氏)'를 기입함.</li> </ul>
1932.1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영지와 향교실기 편집을 명륜당에서 통과(通課)함. 군수가 참석하였으며 고문과 각 면의 수집원 등이 모두 참관하였는데 도합 50여 인이 출석함.</li> <li>- 검열원으로 김연채·정채화·최문길·김연성 등을 차출함.</li> <li>- '인물'조에 기재한 인물 15인을 좌중에서 추천함.</li> </ul>
1932.1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교에서 열린 임영지와 향교실기 검열 회의에 참석함.</li> <li>- 정채화·최문길·김연성 및 편집을 함께 한 김병환, 서사(書寫) 정호덕, 군청의 교화 주사 권영기(權寧機)가 참석함. * 향교에 유숙하여 27일까지 검열을 진행함.</li> </ul>
1932.1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교 명륜당에서 열린 '인물'조에 기재할 인물 선정에 관한 제3회 회의에 참석함. 군수 및 여러 임원이 참석함.</li> <li>- 전에 '인물'조에 수록할 15인을 추천한 이후 김한주(金漢柱) 등 4~5인이 추가로 진정이 있었던 까닭에 수록 여부에 관한 회의를 열게 된 것임.</li> <li>- 수록 인물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에 관한 전권을 총재(總裁: 군수) 및 편집인에게 위임하기로 다수결을 통해 의결함.</li> </ul>
1932.12.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청에 들어가 임영지 인물 관련 회의에 참석. 8인으로 예정을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못하고 우선 총24인 중에서 덕행과 사업으로 선발함.</li> </ul>
1932.12.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죽헌(竹軒)의 권오석(權五錫)으로부터 장문의 편지가 왔는데, 선조 죽암공(竹巖公)을 임영지 인물에 선입해 달라는 것이었음.</li> </ul>
1932.12.15. ~ 1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영지와 향교실기를 정서한 것을 군청에서 집으로 가지고 와서 교정을 보아 오류와 착오가 있는 곳을 고쳐서 19일에 군청으로 돌려보냄.</li> </ul>
1932.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석평의 김진우(金振宇: 김연목의 손자)가 선조 만(晩)공(公)의 효행을 임영지에 넣어달라고 일로 면암(勉菴)이 지은 비문을 가지고 옴.</li> </ul>
1933.0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병환과 함께 군청에 들어가 임영지와 향교실기 출판 허가 수속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함.</li> <li>- '인물'조에 최종적으로 8인을 기재함.</li> <li>- 오봉서원·송담서원·유천영당과 관련하여 권규식이 제기한 논란이 있었던 까닭에 관련 '기사(記事)'에 당사자 이름은 명기하지 않음. 검열인이 검열 중에 문헌에 근거하여 이름을 명기한 것을 다시 묵삭(墨削)하고 단지 "사람이 단소를 설치하고 향사했다.(自土林設壇焉享祀焉.)"고만 운운하여 다수가 기명하고 싶어 하는 폐단을 막음.</li> </ul>
1933.0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청에 들어가서 군수와 교화 주사 권영기를 만났는데, 그 사이에 권규식이 오봉서원·송담서원·유천영당의 기사(記事)의 기명(記名)과 관련하여 군수에게 진정을 하였고 교화주사 권영기가 변백(辨白)하였다고 함.</li> </ul>

연월일	내 용
1933.04.02.	- 읍내 김문제(金文濟)의 인쇄소에 가서 임영지 인출을 관람함. * 이후 수시로 인쇄소에 들러 인쇄 상황을 확인하고 오탈자 등을 교정함.
1933.04.29. ~05.03.	- 우암의 후손가인 노탄 송규현 일행이 강릉을 찾았는데, 임영지에 기재한 오봉서원의 우암 영정 배향 고나련 사건에 대해 정석화(鄭錫和)가 송규현과 송철호 등에게 무언(誣言)을 함. - 박원동은 송규현과 송철호를 만나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였으며, 5월 3일 노탄 송규현을 비롯하여 심상조·정채화·정석화·최대수·김한주·신진묵 등이 박원동 집에 찾아왔을 때 정석화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
1933.05.29.	- 임영지 '기사(記事)조'의 오봉서원과 관련하여 "시속이 꺼리는 구어(爲時所碍)"를 개정하는 뜻을 군청에 언급하여 최영환에게 편지를 보냄.
1933.05.16.	- 주춘시사에 사우들이 모였기에 임영지의 '기사'조 오봉서원 부분 개정에 대해 발언을 하니, 사우들이 "八儒改正付罰下加"라 운운한 것을 "시속의 꺼리는 바이다.(爲時所碍)"로 삼았다고 하였음.(‘애(碍)’자는 본래 ‘애(捩)’임) * 결과적으로 『임영지』 속지 권1 「기사」의 ‘오봉서원’조를 보면 여덟 유생 사건 관련 내용 자체를 모두 삭제함. 박원동은 『오봉서원실기』에 이와 관련된 문적을 거의 다 인용하며 자세하게 밝혔음.
1933.08.17.	- 임영지 1책은 정가 2원 50전, 향교실기 1책은 1원 50전으로 하여 각 면에 청구서를 권고함.
1933.09.09.	- 최창순(崔昌洵)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임영지 '인물'조에 최징(崔澂)과 최만재(崔萬載) 부자가 실려 있는데 잘못 인쇄된 곳이 있어서 고쳐야 한다는 것이었음. - 최창순은 경성에서 읍지를 사인(私印)하고 여든 이상 된 이들에게 몰래 수단(收單)을 하였는데, 지금 이미 인출을 해서 강릉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음. (최백순 편, 『동호승람(東湖勝覽)』에 관한 것임.)
1934.07.02.	- 군수가 임영지와 강릉향교실기 편집일로 감사장과 함께 두 책 각각 1부를 수여함.

1932년 여름에 삼척에 사는 김현구(金顯球)가 박원동이 『임영지』 속편(續篇)을 편찬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 왔다.<sup>434)</sup> 김현구는 자신의 선조와 관련된 화산사유적(花山祠遺蹟)을 보여주면서 혹 속편에 관련 기록을 기재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박원동은 선조를 기리고자 하는 정성에 감동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도 모르게 감동이 일어나 말하였다.

“호자로대 김 사문(斯文)은 먼 조상의 유사(遺史)를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칠순의 고령에 삼복더위를 무릅쓰고 능히 배리 길을 찾아오셨습니다. 행세(行世, 사회에 사람의 도리를 행함)가 쉬이 얻을 수 있는 게

434) 『시호거사일기』 책2, 1932년 7월 1일자에 보인다. 삼척에 사는 김현구(金顯球)가 찾아와 그의 선조인 흥무왕(興武王) 김유신의 화산사(花山祠) 사적을 임영지에 기입해 달라고 하였다. 그의 9세조 진사 정신재(鼎新齋) 김득직(金得直)부터 삼척의 미로면 하정리에 살기 시작하였으며 김현구는 지금 휴허각과 비를 세우고 청명일에 다례를 지내며 삭망으로 분향을 한다고 하였다.



아닙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 조상의 유사를 위하는 것이고 나는 우리 고을의 유적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거북(車菴)을 수록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어찌 소매(騷梅)를 홀로 편성하겠소이까.”<sup>435)</sup>

그러자 김현구는 자신의 9세조인 정신재(鼎新齋) 김득직(金得直)의 행록을 보여주며, 병자호란 때의 사적이 『척주지(陟邑誌)』에 수록되어 있고 유허(遺墟)에 각(閣)과 비(碑)를 세워서 제를 올린 지 10년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박원동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다시 옷깃을 여미고 일어나 공경을 표하고 말하였다.

“효자입니다. 그래! 김 사문이 처음 화산사(花山祠)에 대해 얘기할 때 이미 효심에 감동을 하였는데, 유허각(遺墟閣)을 세워 선조를 계승하고 있다고 하니 그 효심을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그대는 참으로 두 세조 선조를 기릴 줄 알아 일을 실행한 사람입니다.

화산사 사적은 지금 이미 『임영지』 속지(續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고향으로 돌아가 유허각 관련 사적을 또한 진주속지(眞珠續誌, 진주는 삼척의 이칭)에 넣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임영과 진주 두 고을이 이 아름다운 사적을 함께 전하게 된다면, 이는 비단 후손들이 선조를 이어나가는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보고 감동하는 다행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sup>436)</sup>

박원동은 화산사(花山祠)<sup>437)</sup>에 관한 기사는 이미 『임영지』 속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선조와 관련된 유허각(遺墟閣)은 삼척지(三陟誌) 속지를 편찬하게 되면 그때 삽입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435) 박원동, 「贈金顯球」, 『시호거사문고』, 94면. “余乃不覺興感曰: ‘孝哉! 金斯文以其遠祖遺史之傳於後, 七旬暮景, 三庚煖熱, 能勇作宿春之旅, 行世不易得也. 然子是子之先祖史, 而我是我之本鄉蹟也. 不待子之車菴之載, 詎有我騷梅之獨編乎?’”

436) 박원동, 「贈金顯球」, 『시호거사문고』, 94면. “余又斂衽而起敬曰: ‘孝哉! 金斯文初於花山祠, 既感其孝, 慶於遺墟閣, 益敬其孝, 子眞於兩世先祖事業人也. 花祠事, 今既記於臨瀛續誌, 則子歸之鄉, 遺墟閣事, 亦爲插入于眞珠續誌, 使瀛珠兩州, 共傳此美蹟于千秋, 則不徒爲其裔孫繼述之榮, 而抑不爲此儒門觀感之幸也歟.’”

437) 화산사(花山祠) : 화부산사(花浮山祠). 신라 김유신(金庾信)을 모신 사당으로 화부산 아래에 사당을 세운 데서 유래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관련 기록이 보이며, 1884년 영남에 사는 후손 김홍두가 성금을 모아서 화부산사를 중건하였다. 1936년 동해철도부설공사 관계로 다음 해인 1937년에 후손 김시배(金時培)와 김현국(金顯國)이 주선하여 강릉시 교동으로 이전하였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강릉)> ‘화부산사(花浮山祠)조’)



박원동은 『임영지』 속수 과정에서 지역의 사우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시호거사일기』 1932년 8월 19일자 기록이다.

설사병으로 인해 7~8일간 집에 머물러 있다가 읍지를 편집하는 일로 읍내로 들어갔다. 권규식(權逵植)이 말하기를 자신의 아버지 학수(鶴洙)가 송담서원·오봉서원·유천영당에 묘우를 건립하고 단소를 설립할 때 전적으로 공이 있으므로, 오직 자기 아버지 한 사람의 이름만 읍지에 기재되어야 하며, 그를 제외하고는 전혀 관여한 사람이 없으니 다른 이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규식은 위의 세 곳이 소재한 면의 수집위원에게 미리 가서 유독 자신의 아버지 이름만 기재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한다. 이는 허황되고 잡스런 말에 불과하다. 만약 규식의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공이 있다면 세 곳에 모두 기적(記蹟)과 문적(文籍)이 있는데 유독 그의 이름이 기재된 것이 없겠는가.

그 사이에 무슨 마음으로 종손(從孫) 혁병(赫炳)으로 하여금 군수에게 통변(通辯)하게 하여 날조해서 말하기를 “박원동은 무식하니 읍지 편집을 맡는 것은 불가하며 또한 험잡(挾雜)한 사람입니다. 송담의 묘우를 건립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전적으로 공을 세운 것인데, 그의 아버지 공이라 합니다.”라고 하였다. 군수가 말하길 “지금 편집원은 험잡한 사람이 아닌 듯합니다. 만약 그대의 부친이 전공(專功)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상고할 수 있는 문적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해당 면의 수집원들로 하여금 다시 문적을 조사해 오게 하겠소이다.”라고 하였다.<sup>438)</sup>

『임영지』의 속수는 강릉고적보존회에서 처음부터 기획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중수 임영지』가 편찬이 완료되어 간행되게 된 데에는 군수와 강릉고적보존회의 조직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438) 『시호거사일기』 책2, 1932년 8월 19일. “近以泄症在家七八日後入邑, 權逵植謂‘其親學洙松潭五峯楡川三所之建廟設壇, 專有其功, 獨一人名, 記載于邑誌也. 外他人, 則全無干涉者, 不得記名可也. 預爲往囑于該三所所在面蒐集委員, 獨以其親名記呈’云云, 此是幻雜說也. 若然則三所皆有記蹟文籍, 而獨無其名之所載也? 其間以何心腸, 使其從孫赫炳, 通辯于郡守, 搆毀曰: ‘朴元東無識, 不可任邑誌編輯, 且挾雜者也. 松潭廟建, 吾父之專功, 而渠父之功云’. 郡守曰: ‘今之編輯員, 似非挾雜人, 而若子之親有專功, 則必有遺籍可考也. 使該面蒐輯員, 更爲文籍調查而來云云.’”



<그림 IV-7> 『증수 임영지』 「범례」 일부와 강릉부지도(국중 소장)

『증수 임영지』의 범례는 다음과 같은데, 『시호거사문고』에 수록되어 있는 것과 간행본 사이에 차이는 없다.

- ① 옛 것을 갖추고 지금 것을 빠뜨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근래의 역사를 추가하여 속수(續修)한다.[臨瀛誌者, 江陵邑史也. 史不可以備古而闕今, 故今茲續修近史者.]
- ② 『임영지』가 본래 전지(前誌)·후지(後誌)·속지(續誌) 3종이 있었는데 전지는 만력(萬曆) 말년에, 후지는 영조 무진년(1748, 영조 24)에, 속지는 정조 병오년(1786, 정조10)에 각각 편찬되었다. 이제 이 3종을 아울러 구지(舊誌)라 하고 병오년 이후 147년간의 역사를 구지의 편말에 덧붙인다.[本誌有前後續三, 誌之別, 前誌者, 萬曆末年創修也; 後誌者, 英廟戊辰修也; 續修者, 正宗丙午修也. 今則前後續三之並稱舊誌, 而丙午後一百四十七年間事, 以付舊誌篇末者.]
- ③ 구지에 실려 있는 것은 오로지 등본(謄本)에 의거하였는데 혹 중복되어 기록된 것은 지금 교정을 보아 삭제하였다.[舊誌所載者, 一依謄本, 而其間或有疊錄者, 今茲考正刪出者.]
- ④ 구지는 모두 5권이다. 사적을 기록한 것이 1권인데 기(記) 1권으로 하였고, 시사(時事)를 기록한 것이 2권인데 기(記) 2권으로 하였다. 시사는 고람(考覽)하기가 불편한 까닭에 지금 비슷한 것들끼리 분류하고 취합해서 일관성 있게 정리하여 고람하기 편리하게 하였다.[舊誌共五卷, 而其記事者一卷則記一卷, 時事二卷則記二卷. 時事不便利於考覽, 故今則引類聚合, 一以貫之, 以便考覽者.]
- ⑤ 구지의 편말에서는 반드시 옆에 '이상은 구지(以上舊誌)'의 네 글자를 써서 근래의 사적을 속부(續附)하였음을 표시하였다.[舊誌篇末, 必傍書'以上舊誌'四字, 以表續附近事者.]

- ⑥ 구지에서는 읍선생(邑先生)을 명환(名宦)한 몇 사람만 특기하였으나 지금은 「읍선생안(邑先生案)」을 연편(聯編)해서 어떤 수령이 현감이 되고 다시 부사나 군수가 되는 연혁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sup>439)</sup>[舊誌中邑先生, 特記名宦幾人, 而今則聯編邑先生案, 以知其自某倅爲縣監, 還爲府使爲郡守之沿革者.]
- ⑦ 기애(耆艾)는 실제 나이 90세 이상을 기록하였는데 수직(壽職)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기입하였다.[耆艾, 從實年九十以上, 勿論壽職有無, 并爲記入者.]
- ⑧ 음사(蔭仕)는 실직(實職)에 의거하였으며 고종 갑오년 이후는 실제 주임(奏任)을 기입하였다. 효자와 열부는 문헌에 근거가 있는 것을 기록하되 현재 생존해 있는 자는 기입하지 않고 후대에 속수(續修)할 때를 기다렸다.[蔭仕, 從實職, 而自高宗甲午後, 則以實奏任記入. 孝烈, 從文憑而現時生存者, 不爲記入, 以待後來續修者.]
- ⑨ 구지 5권은 군청에 보관하여 후일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舊之五卷, 保管于郡廳, 以備後日憑據者.]<sup>440)</sup>

한편 비슷한 시기에 최백순(崔白洵)은 『동호승람(東湖勝覽)』을 간행하였다. 『동호승람』은 사찬(私撰) 읍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증수 임영지』와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 인물과 시문 등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인문지(人文志)의 성격이 강하다.<sup>441)</sup>

『시호거사일기』에도 『동호승람』과 관련된 기록이 보인다.<sup>442)</sup> 1932년 3월 최창순(崔昌洵)이 읍지 편찬과 관련하여 박원동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박원동은 군청 주도의 『임영지』 속수를 주도하느라 최창순의 제안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듬해 1933년 9월 9일 최창순의 편지가 왔는데, 『증수 임영지』 ‘인물’ 조에 최징(崔澂)과 최만재(崔萬栽) 부자가 실려 있는데 잘못 인쇄된 곳이 있어서 고쳐야 한다는 것이

439) 강릉은 조선시대 대도호부(大都護府)였으나 두 번에 걸쳐 현으로 강등된 적이 있었다. 1666년(현종 7)에 박옥지(朴玉只)가 아버지를 생매장한 사건으로 인해 강릉현(江陵縣)으로 강등되었다. 1675년(숙종 원년)에 다시 강릉대도호부로 승격되었다. 1782년(정종 6)에 역신(逆臣) 이택징(李澤徵)이 태어난 고을이라 하여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1790년(정종 14)에 강릉대도호부로 환원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관찰부(觀察府)가 되었으며 아울러 참서관(參書官)을 두었다. 1896년(고종 33)에 강릉군(江陵郡)이 되었다.(〈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강릉)〉 > ‘강릉대도호부’ 조)

440) 박원동, 『臨瀛誌凡例(壬申)』, 『시호거사문고』, 100~101면.

441) 최백순 편, 최호·임호민 역, 『국역 동호승람』, 강릉문화원, 2001.

442) 『시호거사일기』 책2, 1932년 3월 21, 1933년 9월 9일·20일.

었다. 이 날의 일기에 최창순이 경성에서 읍지를 사인(私印)하고 여든 이상 된 이들에게 몰래 수단(收單)을 하였는데 지금 이미 인출을 해서 강릉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또한 9월 20일자 일기에 박원동은 최창순이 읍지를 경성에서 단독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와서 여러 곳에 배포를 하는데, 이 책의 편록(編錄)은 오로지 1~2인에게 사적으로 부탁하여 불공(不公)한 구어가 많으니 이를 후대에 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시호거사일기』에서 최창순이 편찬했다고 한 ‘읍지’는 『동호승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호승람』의 실질적인 편자는 ‘최창순’이었으며 간행 연도는 1934년임을 알 수 있다.

### 3.3. 『강릉향교실기』 편찬 및 간행

박원동은 1902년 안변소학교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안변 군수 김선규(金善圭)의 요청으로 안변향교와 향청의 임원록을 개선(改繕)한 바 있었다. 아울러 군수를 대신하여 임원록 개선의 사정을 기록하여 계판(揭板)하였다.<sup>443)</sup> 이러한 경험은 『강릉향교실기』를 편찬하고 강릉향교 직원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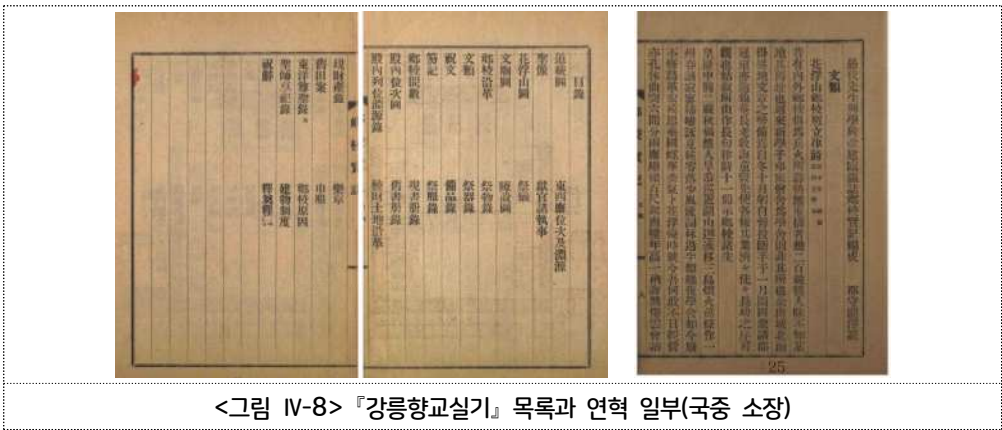
『강릉향교실기』는 『증수 임영지』와 마찬가지로 김병환과 함께 1932년 가을에 편찬한 것이다. 이듬해인 1933년 8월 강릉고적보존회에서 연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sup>444)</sup> 『시호거사일기』 1932년 9월의 일기에는 박원동이 『강릉향교실기』를 편성한 기록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박원동은 9월 11일 집에서 향교실기를 편수하였는데 이날 고려 충렬왕부터 지금까지의 연혁과 여러 문적을 편성하였다. 15일에 향교실기의 편성을 완료하고 22일에 서사(書寫)를 하였으며 27일에 편책(編冊)을 하였다.

443) 박원동, 「安邊鄉校任錄叙(代主倅金善圭. 作揭板并書. 在安邊時. 壬寅), 22면; 「安邊鄉任序」, 『시호거사문고』, 23면.

444) 『江陵鄉校實記』, 瀧澤誠 編, 江陵古蹟保存會, 1933. 刊記에는 ‘瀧澤誠, 金秉煥, 朴元東’ 3인의 이름이 거주지와 함께 순서대로 적혀 있다.

『증수 임영지』를 주로 군청의 사무실에서 편성하였다면, 『강릉향교실기』는 박원동 집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강릉향교실기』는 고려 충렬왕 계축년(1313)부터의 연혁과 관련 기문(記文)을 모아 엮은 것이다. 이 책은 서두에 「범례」 8개조가 있고 본문은 크게 연혁과 문류로 구성되어 있다. 「범례」는 다음과 같은데, 『시호거사문고』에 수록된 것과 간행본 사이에 차이는 없다.



<그림 IV-8> 『강릉향교실기』 목록과 연혁 일부(국중 소장)

- ① 강릉군에는 옛날에 안팎으로 향교가 있었는데 고증할 만한 문헌이 남아 있지 않다. 향교가 화부산(花浮山)에 창건된 이후의 연혁은 누락된 것 없이 기재하여 고금의 내력을 갖추었다. ‘기문(記文)’은 번다하게 많아서 다 수록하지는 못하였다.[本郡古有內外鄉校, 而無文可考. 自花浮山創建後沿革, 無漏記載, 以備今古來歷, 而記文則煩, 不能悉錄.]
- ② 봉향된 제위(諸位)는 순서를 기재하여 태학의 규례를 오로지 따랐음을 보였다.[奉享諸位, 列次記載, 以示一依太學之例.]
- ③ 계성(啓聖) 3위는 동무와 서무에 모두 봉향하고 위치(位次)에 따라 기재하여 고을에 계성사(啓聖祠)가 없음을 알게 하였다.[啓聖三位, 同享于東西廡, 則依位次記載, 以知其鄉無啓聖祠.]
- ④ 묘당의 칸수, 제기의 숫자 등을 모두 기재하여 건물과 예기(禮器)를 보존하는 근거로 삼도록 하였다.

445) 계성사 : 공자안자증자자사맹자의 아버지의 신주를 모셔 놓고 제사 지내는 사당이다. 조선 시대 문묘(文廟) 안에 있었으며 계성사(啓聖祠)라고 일컬었다.

[廟堂間架, 祭器件數, 并爲記載, 以憑建物禮器之保存.]

- ⑤ 제물의 목록 및 축문(祝文)과 홀기(笏記)는 규식에 따라 기재하여 향사(享祀)의 의절(儀節)을 밝혔다.[祭物物目及祝文笏記, 依式記載, 以明享祀之儀節.]
- ⑥ 향교 소유의 토지와 산림 역시 기재하여 향교의 재산을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所有土地山林, 亦爲記載, 以考校中之財產.]
- ⑦ 진설의 절차와 묘당의 규모를 그린 그림을 부록으로 붙여 후대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陳設節次, 廟堂典型, 亦付圖寫, 以爲後來參考.]
- ⑧ 아울러 「존성제의(尊聖諸儀)」를 부록으로 붙였는데 역대 문헌을 증빙으로 갖추었다.[并付尊聖諸儀, 備歷代文獻之徵.]<sup>446)</sup>

『강릉향교실기』에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연혁」을 보면 1905년까지는 도유사(都有司)·장의(掌議)·유사(有司) 등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1905년에 도유사인 ‘정중시(鄭中時)’ 이후로는 강릉군수의 이름을 적어두었다. 향교의 책임자가 향교의 임원이 아니라 군수임을 명기한 것이다. 1933년 『강릉향교실기』 발간 당시 군수였던 ‘다키자와 마코토[瀧澤誠]’의 이름도 들어 있다.

「교재토지연혁(校財土地沿革)」에는 1910년 이후 향교의 재산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향교의 산림과 토지가 1911년에 총독부 관할 하에 강릉공립보통학교로 귀속되었다가 1920년에 다시 향교로 환속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sup>447)</sup> 부록의 「동양존성록(東洋尊聖錄)」에는 한나라 때 유학이 국교가 되어 석전제를 지낸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특기할 것은 중국과 한국의 석전의 역사는 물론 일본의 사적도 삽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관련 내용을 인용해 본다.

① 서두

- 당나라 무후(武后)가 무인년에 공자를 용도공(隆道公)에 봉하였다.
- 일본 문무천황(文武天皇)이 신축년에 처음으로 태학(太學)에서 석전제(釋奠祭)를 지냈다.
- 신라 성덕왕(聖德王) 신사년에 태감(太監) 김수충(金守忠)이 당나라에서 돌아와 공자·공문십철(孔

446) 박원동, 『江陵鄉校實記凡例(壬申)』, 『시호거사문고』, 101~102면.

447) 『江陵鄉校實記』, 瀧澤誠 編, 江陵古蹟保存會, 1933. “明治四十四年辛亥(1911), 本校山林與土地, 并養賢齋所有, 爲總督府所管, 付于江陵公立普通學校. 其後大正九年庚申(1920), 還付本校, 養賢齋所有, 則永爲學校所有.”

門十哲·칠십이제자(七十二弟子)의 화상을 올리니 명하여 태학에 안치하였다. 이때부터 왕은 대대로 태학에 이르러 청강(聽講)을 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학제(學制)와 사전(祀奠)의 시초이다.

② 말미

- 속증 경오년에 문묘악장(文廟樂章)을 찬하였다.
- 일본 동산천황(東山天皇)이 공자사(孔子祠)를 유시마[湯島]로 옮겼다.<sup>448)</sup>

중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사적도 6군데 기술되어 있다. 이는 서양 세력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동양’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유교를 식민 통치의 정당화에 이용하였던 일제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그렇다고 『강릉향교실기』가 지닌 자료적 가치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강릉향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향교 중 하나이다. 오늘날까지 문묘 제향의 전통을 원형에 가깝게 이어오고 있는 곳이다. 2009년에 편찬된 『증보 강릉향교지』는 대부분의 내용이 『강릉향교실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강릉향교실기』가 없었다면 강릉향교의 역사 및 관련 기록을 상고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편 박원동은 1935년 8월 강릉향교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강릉향교의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해 봄에 박원동은 경학원과 평양·재령 문묘를 시찰하고 제기(祭器)가 매우 청결하게 진열되어 있음을 보았다.<sup>449)</sup> 강릉으로 돌아와 8월에 강릉향교의 제기고(祭器庫)를 중수하고 제기를 새롭게 마련하였다. 경학원 명륜당(明倫堂)의 편액 대자(大字)는 주자(朱子)의 글씨이다. 그 글씨를 모사하여 가지고 와서 본향의 명륜당에 걸었다. 죽변(竹籩)을 구입하여 제기를 갖추고 위판(位版)을 올려놓는 의자를 개조하고 위판을 넣어두는 함을 개칠(改漆)하기도 하였다.<sup>450)</sup>

448) 『江陵鄉校實記』, 「東洋尊聖錄」, 강릉고적보존회, 1933. 「동양존성록」은 2009년에 강릉향교에서 편찬한 『증보 강릉향교지』에도 그대로 번역되어 수록되어 있다.

449) 『시호거사일기』 책3, 1935년 2월 26일~28일에 평양향교와 재령향교를 방문하여 향교의 시설을 본 소감을 다음과 같이 적어 두었다. 평양향교 : “奎審新建大成殿, 東西廡改修鮮明, 其設位設卓, 模範于經學院文廟也.” 재령향교 : “觀祭器庫, 則藏置淨潔, 蓋經學院之模範也. 明倫堂之精構, 東齋室之新建, 果非他郡之可諭也.”

450) 박원동, 「校制修備記(明倫堂揭板)」, 『시호문고』, 123면. 글의 말미에 “孔夫子誕降後二千四百八十六



## 4. 대외 활동 : 송자대전 중간과 간재사고 간행

### 4.1. 송자대전 중간

우암 송시열의 문집인 『송자대전』은 1787년(정조 11) 9월에 정조의 명에 의하여 평양 감영에서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이 초간본의 책판은 정조의 지시로 화양동(華陽洞)에 건립된 화양동서원의 장관각에 보관되었다. 그러나 1907년 9월에 정미(丁未) 7조약에 항거하는 반일의병이 봉기하였을 때, 장관각이 있던 환장사(煥章寺)가 의병의 유숙처라는 이유로 일본수비대에서 파견한 진압군의 방화에 의해 소실되었다. 이에 1927년에 남간정사(南澗精舍)에서 다시 『송자대전』을 중간하였고, 이듬해 1928년 서울에서도 간행하였다. 『송자대전』 중간 사업은 충청 지역의 유림이 주축이 되어 전국 2천여 명의 유림이 참여한 대규모 사업이었다.<sup>451)</sup>

강릉 유림도 『송자대전』 중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다. 박원동은 1925년 10월 송자대전중간소에서 강릉군 유사로 위촉되었다. 이때 최대수(崔大洙)가 강원도 도유사를 맡았으며, 심상조(沈相祚)와 김연목(金演穆)이 찬성장(贊成長)을 맡았다. 또한 1932년 5월에는 송자대전복판동지록(宋子大全復板同志錄) 간행과 관련하여 강원도총무에 위촉되어 『존위안(尊衛案)』의 편찬 및 간행에 간여하기도 하였다.

『송자대전』의 중간 사업은 강릉 유림이 상당수 참여하여 강릉 내에서 관련 논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등 강릉 유림사회의 중요한 사업이었다. 우암 송시열은 송담서원과 인연이 있었으며 오봉서원에 배향된 인물로서, 송자대전 중간 사업은 노론이 주류인 강릉 유림에게는 내적인 일이기도 하였다. 『시호거사일기』와 『시호문집』에 박원동을 비롯하여 강릉의 유림이 송자대전 중간에 관여한 경위와 역할 등이 비교적

年乙亥仲秋日 江陵文廟直員朴元東"이라 되어 있음.

451) 『송자대전』의 초간본과 중간본 간행에 대해서는 오항녕, 「尤菴 宋時烈 문집의 편찬과 간행」, 『한국사학보』 33, 고려사학회, 2008; 박준호, 「『宋子大全』 간행에 관한 연구: 『掃塵錄』과 『尊衛案』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지학보』 36, 한국서지학회, 2010 참고.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시호문집』 자료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31년에 간행된 『화양연원록(華陽淵源錄)』과 1936년경에 간행된 『존위안(尊衛案)』, 그리고 1941년 우암신도비각 중건에 관련된 내용도 함께 정리하였다.

<표 IV-15> 『송자대전』 중간 관여 경위 및 역할

연월일	내용	문집 내 관련 기록
192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 소재리(蘇堤里)의 송자대전 중간소에서 관련 통문과 함께 망첩을 보내 강릉군 유사로 위촉함.</li> <li>- 송자대전 중간에 전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판본식양(式樣)·경비예산 등을 적어서 보내주면 적극 돕겠다고 회신함.</li> <li>- 연원록(淵源錄) 속간(續刊)과 관련하여 내년 봄에 집안의 유적(遺籍)을 가지고 간행소로 가겠다고 적었음.(완하당 박진해와 우암 송시열 관련 내용을 속간 시 추가하려는 의도)</li> <li>- 답통은 박원동을 비롯하여 박기동(朴起東), 박용수(朴容壽) 3인의 명의로 보냄.</li> </ul>	『答大田郡宋子大全重刊所簡通』(71면)
192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간소의 별유사(別有司) 송필호(宋苾鎬)가 강릉에 와서 뜻을 함께 할 동지들을 설득함.</li> <li>- 강원도 도유사 최대수, 강릉군 유사 박원동, 찬성장 심상조·김연목 등의 명으로 강원도 각 군의 유림에게 통문을 발송하여 『송자대전』의 중간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함.</li> <li>- 별유사 송필호에게 편지를 보내 현재 몇 책이 판각되었는지, 전국 각지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문의함.</li> </ul>	『宋子大全重刊事通告于道內各郡』(68면) 『宋子大全重刊江陵郡有司望帖答通』(72면) 『答宋苾鎬(十一月日)』(509면)
1926.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필호가 중간 사업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증빙으로 새로 판각한 인본(印本) 1판(板)을 박원동에게 보내자, 박원동은 찬성장을 맡은 심상조(沈相祚)와 중간 문제에 대해 상의함.</li> </ul>	『與沈參奉相祚』(510면)
1926.02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수(崔大洙)·신진묵(辛晉默) 등과 대전 소재리 기국정(杞菊亭) 간행소를 방문하여 판각을 직접 관찰함.</li> <li>- 서울에 가서 간행소 총무인 김희진(金憲鎭)을 만나 중간에 관해 상의함.</li> </ul>	『答宋苾鎬(丙寅三月日)』(511면) 『答金可石(憲鎭)』(512면)
1926.05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릉 유림이 연명하여 『송자대전』 구본 권193의 「향호최공묘표(香湖崔公墓表)」 일부 내용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함.</li> <li>- 중간소 장재(掌財) 송재덕(宋在憲)이 지역별로 간행 비용을 찬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아직 금액을 완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보고함.</li> </ul>	『聯名送大全刊所書』(513면) 『與宋參奉在憲』(514면)
1927.07 ~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월 송자대전중간소에서 『송자대전』 완질 및 『송자대전수차』를 보내와 그 대금에 대해 족종(族從) 박기동(朴起東)과 상의 후 집안에게 알려 대금을 모아서 8월 박원동, 박기동, 박용수(朴容壽) 3인의 명의로 보냄.</li> <li>- 7월 초 송자대전중간소 총무 김희진(金憲鎭)이 『송자대전』 중간을 완료한 후 소진록(掃塵錄), 문인록(門人錄), 동지록(同志錄)을 등의 편찬간행 및 화양소재보존회(華陽蘇堤保存會)의 창립 계획을 알림.</li> </ul>	『答族從雲濱起東(七月日)』(526면) 『答金祀丞可石憲鎭(七月十日)』(528면) 『與金祀丞(憲鎭)(八月廿五日)』(532면)

Ⅳ. 강릉 유교문화 유산의 정리와 재건

연월일	내용	문집 내 관련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에 박원동은 7월 10일 김희진에게 답서를 보내 10세조 박진해(朴震楷)가 우암을 배행(陪行)한 사적이 있으므로, 문인록(문 『화양연원록(華陽淵源錄)』의 '문인록') 편찬 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편지와 함께 「완하당행록」 및 「삼인동지명(三人同志名記)」를 보냄.</li> <li>- 8월 25일 김희진에게 편지를 보내 완하당의 행록 중 우암이 완하당에게 써준 축문(祝文)과 답서(答書)가 『송자대전』에 실려 있으니 잘 살펴볼 것을 부탁함. 아울러 자신이 지은 차문(筭文) 및 자궁운율(紫宮韻律)을 소진록(掃塵錄) 뒤에 넣어줄 것을 부탁함.</li> </ul>	
1927.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월 22일 송자대전 간행소의 김희진에게 편지를 보내 무서(誣書)에 대해 해명함.</li> <li>- 이에 앞서 7월에 어떤 사람이 박원동을 빙자해 간행소에 편지를 보냈고, 김희진은 7월 20일 박원동에게 편지를 보내 관련 내용을 문의함.</li> <li>- 이에 대해 박원동은 9월 22일 김희진에게 답서를 보내 번무하였는데, 투서는 자신이 지은 것이 아니며 투서 원본이나 사본을 자신에게 보내주면 더욱 명확히 증명해 보이겠다고 함. 아울러 투서에 적혀 있다고 하는 내용들은 날조에 불과하며, 7월 10일과 8월 25일에 보낸 편지의 내용과 대조해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함.</li> </ul>	「答金祀丞憲鎮(九月廿二日)」(533면)
193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의 화양연원록 간행소로부터 편지와 『화양연원록』 사본을 받아 보고 선조 완하당행록(玩荷堂行錄)에 오탈자에 대해 정정(整訂)해 줄 것을 요청함.(생년을 '병신(丙申)'에서 '무술(戊戌)'로 수정)</li> <li>- 『화양연원록』 1책의 대금이 10원(圓)인 것은 다소 비싼데, 송자대전 장판각 건축비로 쓰인다고 하니 다른 말은 하지 않겠다고 함. 다만 대금은 책을 보내주면 받아보고 보내겠다고 함.</li> </ul>	「答華陽淵源錄刊所文」(88면)
194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주 유림이 우암의 신도비각과 사우(祠宇) 등이 무너져 중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강릉 유림에게 통문을 보냄</li> <li>- 이에 앞서 송빈헌(宋斌憲)이 비각 중건과 관련된 일로 박원동에게 편지를 보냈음.</li> <li>- 강릉 유림은 박원동을 비롯한 김의남(金儀南), 권오석(權五錫), 심동경(沈東慶) 등의 명의로 100여 원을 수금하여 보냄.</li> </ul>	「答宋斌憲(八月四日)」(614면) 「答通清州儒林」(157면)

강릉 유림은 전통적으로 율곡 이이-우암 송시열로 이어지는 서인-노론 계열이 우세하였다. 단적으로 송담서원은 율곡 이이를 모신 서원이며, 오봉서원에는 공자·주자와 함께 우암 3인을 배향하였다. 특히 우암은 송자(宋子)라 일컬어졌으며 함경도 덕원(德源)에서 경상도 장기(長鬢)로 유배지를 옮길 때 경유지인 강릉의 유림과 특별한 인연을 맺기도 하였다. 강릉의 유림에게 『송자대전』 중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① 우리 송자(宋子)의 도와 덕은 산처럼 높고 하해(河海)처럼 깊습니다. 무릇 유자 중에서 누군들 선생의 후예가 아니며 백세토록 조술(祖述)할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송자대전』이 책은 간행 소관이 학관(學官)에게 있었고 판목이 화양(華陽)에 소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무궁한 규범을 이루니 삼가 지켜서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어찌 능히 보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 큰 변고가 일어나 판목이 불에 타고 지금 재로 남겨져 있습니다. 은하수 같은 천장(天章, 임금의 글)과 일월성신과 같은 문장이 긴긴 밤 빛을 잃고서 드러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사문(斯文)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시고 덕이 있는 어른들을 묵묵히 이끌어 선생의 구택인 소제리(蘇堤里) 기국정(杞菊亭)에 중간소를 설치하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겨울잠을 깨우는 우레요, 어둠을 깨뜨리는 새벽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인륜을 지닌 자라면 누군들 기뻐하며 경하하지 않겠습니까. …(중략)… 능히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인사를 올리며 아뢰지 못하고 외람되이 이처럼 글을 통해 고합니다. 아울러 사람이 나쁘다 하여 그 사람의 좋은 말을 버리지 마시고, 각자 정성과 힘을 보태주시어 선생의 집안사람이 되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sup>452)</sup>

② 주나라 왕실이 동천(東遷)한 뒤에 공자는 『춘추』를 지으셨고, 송나라가 남으로 옮겨간 후에 주자께서는 『주자전서(朱子全書)』를 지었으며, 명나라가 망한 뒤에 『송자대전』이 나왔습니다. …… 반드시 말하기를 “『송자대전』은 『주자대전』의 부분(副本)이요 『춘추』의 연의(衍義)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일월성신과 같은 문장과 금석과 같은 장구가 판목에 새겨져 보물처럼 보관되어 왔으니, 하루라도 세상에 드러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번 판목이 불에 탄 뒤로 지금까지 십 수 년이 흘렀습니다.

이로운 군자들이 정론을 다시 발의하여 나라 안의 이목들에게 중간(重刊)의 일을 특별히 반포하였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후학 중에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서 조금이나마 인륜을 갖춘 자라면, 누군들 한 목소리와 한 기운으로 서로 감응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sup>453)</sup>

452) 박원동, 「宋子大全重刊事通告于道內各郡」, 『시호거사문고』, 68면. “夫我宋子之道之德，喬嶽也河海也。凡爲儒流者，誰非夫子遺裔而百世祖述也哉？所以大全一書，領在學官，板藏華陽，允爲無窮成規，謹守勿替矣，何不能保？不虞而滄桑劫灰，無古有今，使雲漢天章，日星文字，晦晦長夜，莫得以見之，此吾東普恨也。幸天弔我人，而不能終喪斯文，默誘列德文文，使設重刊于先生舊宅蘇堤之杞菊亭，誠振蟄之雷，破昏之曙。苟有人彞者，孰不動顏相慶也耶？…… 不能家戶奉誦，猥此書告，兼勿以人廢言，須各獻效誠力，勉作夫子家中人。”

453) 박원동, 「宋子大全重刊江陵郡有司望帖答通」, 『시호거사문고』, 72면. “周室東遷，孔子作『春秋』；有宋南渡，朱子著『全書』；大明社屋而『宋子大全』出焉。…… 必曰：‘宋子大全，朱書之副本，春秋之衍義也。’其日星文字，金石章句，繡梓藏寶，不可一日沈晦於世，而往在燬板，迨至十數稔于茲矣。何幸上天未喪斯文，好義君子，正論復發，特佈重刊之事于海內耳目。凡爲後學戴天履地粗俱人彞者，孰不有同聲同氣相感之理乎？”

인용문 ①은 강원도 각 군의 유림에게 보낸 통문이고, ②는 송자대전 중간소에 담긴 통문이다. 『송자대전』을 공자가 『춘추』를 짓고 주자가 『주자전서』를 지은 것과 비견하였다. 아울러 내외환의 시기에 유학을 도를 흥기시키는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였다.

『송자대전』 중간과 관련하여 강릉 유림이 맡았던 주요한 역할은 원고의 교정과 간행 비용의 협조이다. 그런데 1925년 11월 도유사·찬성장·찬성원 등의 임원 구성과 찬조원의 확대 등의 문제를 놓고 강릉 유림 내부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 운정(雲亭)의 심씨 가문이 회산(淮山)의 심씨 가문에서 임원이 2명이나 나온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강릉에 명망 있는 집안이 많으므로 찬조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유림 회의를 열어 갈등을 조정하였다.<sup>454)</sup> 임원을 맡아 사업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이들은 동지원으로, 간행 비용을 찬조한 이는 찬조원으로 구별을 하였다. 결국 1926년 『송자대전』 중간본이 간행될 때 강릉에서 동지록에 이름을 올린 유림은 10명이었으며, 찬조원은 21인에 달하였다.<sup>455)</sup>

한편 주목되는 것은 『송자대전』에 수록된 글의 수정을 요청한 것이다. 아래의 인용문은 1926년 강릉 유림이 연명하여 송자대전 중간소에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최향호 휘 운우 묘갈문(崔香湖諱運遇墓碣文)」은 『송자대전』 제193권의 12판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에 애자(礙玼)한 구절 십 여자가 있어서 지금껏 후학들이 억울하고 원통해하면서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향공의 중부(仲父)는 곧 간재(良齋) 최연(崔演)입니다. 증증인증명증 세 임금을 섬겼으며 ‘문양(文襄)에 증시(贈諡) 되었습니다. 을사사화 때 더러운 일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다소 받았으나 곧바로 해소가 되었으니, 이는 유문(遺文)을 통해 절로 증명이 됩니다. 이번에 대전을 중간하게 되었으니 잘못된 부분을 산삭하는 은혜를 특별히 입게 된다면, 다만 조상을 존경하는 최씨 집안 자손들에게 영광일 뿐만 아니라 현자를 존모하는 강릉 고을의 사람에게도 다행일 것입니다.<sup>456)</sup>

454) 『시호거사일기』 책1, 1925년 11월 18일.

455) 『시호연명록』, 『宋子大全重刊時同志錄(丙寅. 贊助員二十一人, 煩未錄)』, 697면. 총10명의 이름이 자, 생년, 관직, 본관 등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朴曾虎(仁彦, 戊午, 參奉, 江陵人), 沈相斗(星七, 甲子, 主事, 三陟人), 朴容壽(仁伯, 甲子, 參奉, 江陵人), 沈相祚(錫年, 乙丑, 參奉, 三陟人), 金潤卿(德允, 己巳, 直員, 江陵人), 權五成(敬菊, 己巳, 主事, 安東人), 朴元東(德英, 癸酉, 敎員, 江陵人), 金儀南(創寶, 甲戌, 江陵人), 朴起東(禹玉, 甲戌, 參議, 江陵人), 鄭然達(元八, 乙未, 延日人).”

편지의 서두에서 『송자대전』 구본(곧 초간본)의 한 글자를 더하고 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임을 언급하며, 구본 『송자대전』 권193에 수록되어 있는 「향호최공묘표(香湖崔公墓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향호(香湖) 최공(崔公)은 강릉 12향현의 한 사람인 최운우(崔雲遇, 1532~1605)이다. 인용문에서 말하는 “애자(礙玼)한 구절 십 여자”는 묘표 중 “중부 최인이 을사간흉들과 한 무리가 되었을 때, 향호공이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내 간을 하였으니, 공의 고명함과 성숙함을 볼 수 있을 것이다.<sup>457)</sup>”를 가리킨다.

최운우의 중부(仲父) 간재 최연(崔演)<sup>458)</sup>의 행적과 관련된 것이다. 최연의 시문은 가장(家藏) 초고(草稿)가 40책이라는 방대한 분량이 전해져 왔다고 한다. 그러나 1928년 초간본을 간행할 때는 전란과 화재로 인해 거의 산일(散逸)되고 5책만 남았다. 사손(嗣孫) 최형길(崔亨吉, 1882~1939)이 이 가장본 5책을 정봉시(鄭鳳時)에게 가져와 교정과 정리를 부탁하였고, 여기에 연보와 신도비명 등을 부록으로 첨부하여 강릉에서 목판으로 간행을 하였다.<sup>459)</sup> 최형길은 자가 대원(大元)이며, 박원동과 함께 강회계와 금란계에 참여했던 인물이다.<sup>460)</sup>

456) 박원동, 『聯名送大全刊所書』, 『시호척독』, 514면. “崔香湖諱運遇墓碣文, 載在大全第百九十三之十二板, 而其文有礙玼句語十數字, 以是到今爲後學之抑冤, 而無所告籲者也. 香湖公之仲父, 卽良齋諱演, 而歷事中仁明三朝, 贈諱文襄. 乙巳之變, 些被汚累, 旋即消雪者, 自有遺文之可懲也. 今番大全再修之日, 特蒙刪瑕掩垢之施, 則非特爲崔氏子孫尊祖之榮, 而此鄉儒士慕賢之幸也.”

457) 송시열, 『송자대전』 권193, 「香湖崔公墓表」, 총간114, 357면. “其仲父演黨於乙巳姦亂, 公累以書諫之, 可見其高明而夙成矣.”

458) 최연(崔演) : 본관은 강릉 자는 연지(演之), 호는 간재(良齋). 1525년(중종 20)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예문관검열이 되고, 이어 저작에 올랐다가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설서·사서를 거쳐 1531년(중종 26)에 김안로(金安老)의 전횡을 고변하고 홍문관수찬에 올랐다. 1537년(중종 32) 장령이 되었고 이듬해에는 문장이 능하다고 하여 명나라 사신을 맞는 원접사(遠接使)의 종사관으로 활약하였다. 1545년(명종 즉위년) 도승지에 올랐는데,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이기(李芑)·임백령(林百齡) 등 소윤에 가담, 위사공신(衛社功臣) 3등에 책록되고 동원군(東原君)에 봉해졌다. 1548년(명종 3) 지중추부사·겸지금부사(兼知義禁府事)를 거쳐, 이듬해 동지사(冬至使)로 명나라에 가던 중 평양에서 병사하였다. 저서로 『간재집(良齋集)』이 있다. 좌찬성 겸 대제학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양(文襄)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최연’ 조

459) 오세옥, 『간재집』 해제, 한국고전종합DB. 최연의 『간재집』은 한국문집총간32에 영인되어 있으며 서문은 정봉시가 썼다. 『시호거사일기』 책2, 1929년 12월 12일자에도 『최간재문집』 6권을 받았는데 사손(祀孫) 최형길이 올해 봄에 목판으로 1백여 질을 인출하여 강릉의 몇 집에 배포한 것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시호거사일기』에 따르면, 1926년 3월 간재 최연의 사손 최형길이 박원동을 찾아와 이 문제를 거론하며 송자대전 간소에 편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형길은 우암이 찬한 묘갈명의 해당 구절(“其仲父演黨於乙巳姦兇, 公累以書諫之, 可見矣.”)이 『향호집』에 실려 있는 묘갈명에는 이미 빠져 있다며, 『송자대전』을 중간할 때에도 이 구절을 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sup>461)</sup> 이에 박원동은 강릉의 유림이 연명하여 중간소에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간본 『송자대전』은 삭제나 수정 없이 초간본대로 간행이 되었다.<sup>462)</sup>

한편 『송자대전』 중간을 마치고 『화양연원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무서(誣書) 사건이 발생하였다.<sup>463)</sup> 1927년 7월에 어떤 사람이 박원동을 빙자해 송자대전 간행소에 편지를 보냈고, 총무인 김희진은 7월 20일 박원동에게 편지를 보내 관련 내용을 문의하였다. 이에 대해 박원동은 9월 22일 김희진에게 답서를 보내 변무하였다.<sup>464)</sup> 투서는 자신이 지은 것이 아니며 투서 원본이나 사본을 자신에게 보내주면 더욱 명확히 증명해 보이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투서에 적혀 있다고 하는 내용들은 날조에 불과하며, 자신이 7월 10일과 8월 25일에 김희진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과 대조해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박원동도 무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7월 20일 김희진이 박원동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다. 9월 22일 편지에서 해명한 것은 크게 3가지이다. 박원동이 지은 차문(筭文)과 자궁운율(紫宮韻律)에 대한 것으로

460) 박원동이 최형길을 위해 지은 만시가 『시호만음』에 수록되어 있다.(「輓崔亨吉」, 『시호만음』, 402면) 이 시는 1939년에 지은 것인데 이를 통해 최형길의 물년이 1939년임을 알 수 있다. 『시호연명록』의 금란계 명단에 최형길의 생년이 ‘임오년(1882)’으로 되어 있다.

461) 『시호거사일기』 책1, 1926년 3월 15일. “崔亨吉聞余松林之行來。此是其先祖良齋所欠文字, 欲改整于宋子大全者也。尤菴撰「崔香湖墓碣文」云: ‘年十四, 其仲父演黨於乙巳姦兇, 公累以書諫之, 可見矣.’ 『香湖集』中與墓碣既爲漏沒十七字, 而大全則依本文刊板者也。今以依舊本重刊, 一字一畫, 不可增損, 而將欲改正者, 抑非難乎? 然要余致書于本刊所, 辭不獲已, 姑未料如何歸決耳。”

462) 『시호거사일기』 책1, 1927년 7월 8일자에 『송자대전』 중간본 1백 2권을 읍내의 운송점에 가서 찾아왔는데, ‘초간본과 중간본 사이에 터럭만큼도 차이가 없었다’(“新刊與舊板, 毫無差異耳.”)는 기록이 보인다.

463) 『시호거사일기』 책1, 1927년 9월 21일·22일, 10월 9일에 관련 기록이 보인다.

464) 박원동, 「答金祀丞熹鎮(九月廿二日)」, 『시호척독』, 533~534면.



‘삼석장어(三碩藏魚)’라 운운했다고 하는 것, 화양소제보존회에 대해 ‘명탁정침(鳴鐸頂針)’이라 운운했다고 하는 것, 배송 받은 『송자대전수차』를 반송하겠다고 한 것 등이다. 박원동은 첫 번째 사안은 도저히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다고 하고, 두 번째 것은 실정에 맞지 않는 말이라 하였다.<sup>465)</sup> 그리고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명을 하였다.

마지막에 『송자대전수차』를 돌려보낸다는 부분은 미처 다 읽기도 전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팔이 떨렸습니다. 더욱이 가만히 반복하여 읽어보니 저도 모르게 정신이 나갔습니다. 지난 모춘(暮春, 음력 6월)에 대전 중간소에 가서 머물렀을 때, 처음으로 『송자대전수차』라는 책을 보고 삼가 받들어 읽어 보았습니다. 이 책은 곧 전서(全書)에 관한 한 권의 연의(衍義)요, 한 부(部)의 속지(續誌)였습니다. 전서가 중간 되어 반포된 후를 기다렸다가 수차도 함께 인행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하니 이제 어찌 되돌려 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sup>466)</sup>

『송자대전수차』는 송근수가 송시열의 『송자대전』 중에서 난해한 구절을 뽑아 해석한 주석서이다. 『송자대전』 권1에서 권215까지 판별(板別)로 난해구를 쓰고 소자(小字)로 주석을 붙였다. 끝에는 송시열과 관련된 김상헌(金尙憲)·김집(金集) 등 510인의 이름과 자호·약력을 수록하였다. 1901년 송근수의 조카 송병선(宋秉璿)이 목판본 13권 6책으로 간행하였다. 박원동은 『송자대전수차』가 『송자대전』의 연의(衍義)이자 속지(續誌)로서 『송자대전』을 읽을 때 반드시 필요한 책으로 평가하였다.

박원동은 1927년 7월 10일 박원동은 송자대전 중간소 총무 김희진에게 편지를 보내 『문인록』 편찬 시 10세조 완하당 박진해가 우암을 배행(陪行)한 사적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sup>467)</sup>

465) 박원동도 투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하겠다고 언급하였듯이, 박원동이 김희진에게 답한 편지만으로는 저간을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박원동의 후손가에 김희진이 박원동에게 보낸 편지가 4편 소장되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편지가 있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466) 박원동, 「答金祀丞憲鎮(九月廿二日)」, 『시호척독』, 533면. “未有筭書還送句語, 讀未訖, 心惶腕戰, 況默反復, 茫然不自覺也. 上年暮春, 往留大全刊所時, 始見筭書, 愛敬奉玩, 卽全書之一卷衍義, 一部續誌也. 待後全書刊佈時, 筭書同印之意, 得聞而歸者, 今詎有返送之意也?”

467) 『시호거사일기』 책1, 1927년 7월 11일자에 관련 기록이 보인다. 박원동은 10세조 완하당이 우암을

전후의 간행 사업에 미력하게나마 석승(石丞, 김희진을 가리킴)을 도왔습니다. 만약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소진록(掃塵錄)』 상편과 하편은 실제 사적을 기록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할 것입니다. 감히 저는 보잘것없는 솜씨로 한 미디 찬사를 짓고자하는데 중추(中秋)까지는 짐짓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록(門人錄)은 선배들이 미처 이루지 못한 것인데, 지금 장차 편성하여 간행하려고 합니다. 이는 과연 사문(斯文)의 전수와 관련되어 크게 기여할 일이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저의 10세조(완하당 박진해)는 우암 선생을 유시(留侍)하고 배행(陪行)한 사실이 있는데, 지위가 낮고 행적이 소루하여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이것이 못한 후손이 문적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제 지시하신 것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행적을 기록하여 올립니다. 잘 살펴 봐 주시고 이를 문인록에 넣을지의 여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동지록(同志錄)은 한 가문에서 혹 3인의 이름을 기록하는 관계에 의거하여 양식에 따라 나란히 끼워넣었습니다.

화양소제보존회는 『송자대전』 중간 사업 후 추진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힘을 펼쳐서 일을 잘 이루어야 하는데, 지난번 강릉에서 한 번 논의하였을 때<sup>468)</sup>, 사기(辭氣)가 영성하여 아직 인과(因果)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 이와 관련하여 들은 소식이 있는지요? 후에 도모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sup>469)</sup>

다음 달인 8월에는 김희진에게 편지를 보내 완하당의 행록 중 우암이 완하당에게 써준 송담서원의 제향 축문과 답서가 『송자대전』에 실려 있으니 잘 살펴볼 것을 부탁하였다. 아울러 자신이 지은 줄고를 소진록(掃塵錄) 뒤에 넣어줄 것을 부탁하였다.<sup>470)</sup>

이후 1931년 5월 대구의 화양연원록(華陽淵源錄) 간행소에서 편지와 함께 『화양

배행한 이력을 다음과 같이 적어서 보냈는데, 『완하당문집』, 『송담서원실기』, 『울곡연보』 등의 문헌에서 발췌 것이었다. “朴震楷，江陵人，字正甫，號玩荷堂。宣廟丙申生，肅廟戊辰卒，享九十三。仁廟己卯進士，壽階嘉善同樞。公以栗谷先生嶽降之鄉，建書院于松潭……栗谷先生文廟從祀事，累度封章，竟得蒙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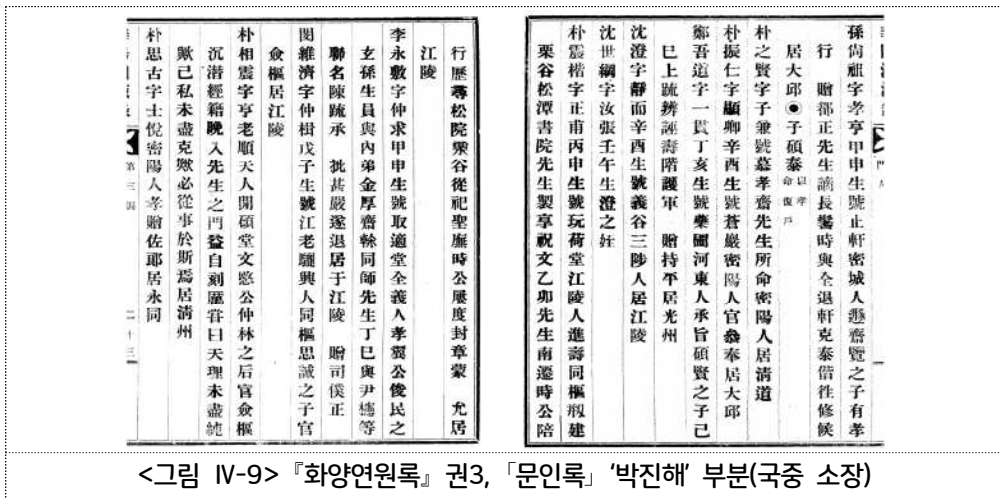
468) 『시호거사일기』 책1, 1927년 5월 20일자에 화양소제고적보존회 일로 읍내 심동섭(沈東燮) 소실(小室)에서 회의가 있어서 찬무원(贊務員) 자격으로 참가를 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469) 박원동, 「答金祀丞可石憲鎮(七月十日)」, 『시호척독』, 528~529면. “前後之是刊，芹相石丞，若有相待，則掃塵錄爲上下篇，以誌其實者，固宜也。敢擬構拙，以贊一辭，以姑徐中秋之內耳。門人錄，先輩之未違者，今將編刊，果係斯文傳受之一大事功也，何幸如之！生之十世祖，有留侍陪行事實，而地賤跡疎，無聞於世，是所孱仍之抱籍霑泣者也。今遵開示，據實錄呈，照察而進退之，未知如何？同志名錄，依一門或三人例，隨樣式伴夾耳。華蘇保存，此是刊役後一條巨關也。大奮力可濟事，而陋鄉曩有一回議，辭氣零星，未曉其因果也。或入聞否？更待後圖耳。”

470) 박원동, 「與金祀丞憲鎮(八月廿五日)」, 『시호척독』, 532~533면. “先祖行錄中祝文·答書在先生文集者，即大全載在也，細加閱察憑企耳。謹依紫宮韻露拙構呈，或并收而插入于掃塵之末否。瑕點字句，更須繩斤改補，無至唾垢于傳後，千萬幸甚。”

연원록』 사본을 보내왔다. 박원동은 선조 완하당행록(玩荷堂行錄)에 생년을 ‘병신(丙申)’에서 ‘무술(戊戌)’로 수정하는 등, 오탈자에 대해 정정(整訂)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sup>471)</sup>

『화양연원록(華陽淵源錄)』은 1931년 양력 7월에 대구의 인쇄소에서 신연자본 3권 1책으로 간행이 되었다.<sup>472)</sup> 권1 「사우(師友)」에는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을 비롯한 우암의 사우 143명을, 권2~3 「문인(門人)」에는 한수재(寒水齋) 권상하(權尙夏)를 비롯한 문인(門人) 800여 명을 수록하였다. 말미에 「배사록(背師錄)」을 두어 명재(明齋) 윤증(尹拯)을 비롯하여 우암과 등진 문인 14명을 수록하였다.



<그림 IV-9> 『화양연원록』 권3, 「문인록」 '박진해' 부분(국중 소장)

완하당 박진해는 『화양연원록』 권3에 수록되어 있는데, 박원동이 요구한 생년이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간행되었다.<sup>473)</sup> 박원동이 수정을 요구한 것이 음력 5월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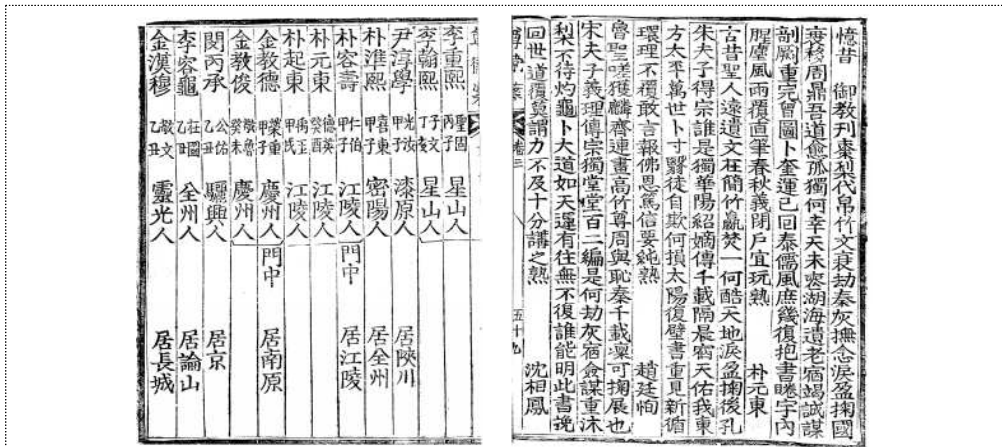
471) 박원동, 「答華陽淵源錄刊所文」, 『시호거사문고』, 88면.

472) 『華陽淵源錄』(新鉛活字本 3卷 1冊), 淸州: 蓮亭, 1931.(국립중앙도서관 소장: BC古朝57-가493) 간기(刊記)에는 저작 겸 발행인이 '조형원(趙炯元)'으로 되어 있으며, 인쇄 완료일은 1931년 양력 7월 8일, 간행일은 양력 7월 20일로 되어 있다.

473) 『華陽淵源錄』 卷2, 「門人」, 淸州: 蓮亭, 1931, 張22~23. “朴震楷, 字正甫, 丙申生, 號玩荷堂, 江

인쇄가 양력 7월 8일에 이루어진 것을 고려해 볼 때, 일정상 박원동의 수정 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자대전복판동지록은 『존위안(尊衛案)』이란 제목으로 1936년경에 무주군 사류정(四柳亭)에서 목판본 3권 2책으로 간행하였다.<sup>474)</sup> 이 책은 표제가 ‘송자대전복판동지록(宋子大全復板同志錄)’으로 되어 있으며, 권수에 목록과 범례가 있다. 권1은 「소진록서(掃塵錄序)」, 「소진동고록(掃塵同苦錄)」, 「소진축(掃塵軸)」인데 이는 정조 연간 『송자대전』을 초간할 때 참여하였던 인사들에 관한 기록과 시축이다. 권2와 권3은 「복판동지록(復板同志錄)」과 「복판축(復板軸)」인데, 이는 『송자대전』 중간에 참여하였던 인사들과 그들의 시축이다.



<그림 IV-10> 『존위안』 권2 「복판동지록」 및 권3 「복판축」 '박원동' 부분(국중 소장)

권2의 「복판동지록(復板同志錄)」에 박원동의 이름이 문중의 박용수(朴容壽)·박기동(朴起東)과 함께 올라 있으며, 권3의 「복판축」에 박기동·박증호·박용수·정석화·심상조 등의 시와 함께 박원동이 오언고시가 수록되어 전한다.

陵人。進壽同樞。創建栗谷松潭書院。先生祭享祝文。乙卯。先生南遷時。公陪行。歷尋松院。栗谷從祀。聖廡時。公屢度封章。蒙允。居江陵。”

474) 『尊衛案』(木版本 3卷2冊), 柳東烈 編著, 茂朱: 四柳亭, 昭和11[1936].(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4.2. 간재사고 간행

1922년 간재 전우가 졸하자 제자 오진영(吳震泳), 성기훈(成璣運), 최병심(崔秉心) 등이 문집 간행을 추진하여 1922년 10월(양력) 청도(淸道)에 소재한 성기훈(成璣運)의 덕천재(惠泉齋)에 간소(刊所)가 설치되었다.<sup>475)</sup>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 틈이 벌어져서 1923년 3월(양력)에 최병심은 김택술(金澤述), 김낙규(金洛奎) 등과 함께 전북 익산의 현동(玄洞) 간재의 묘소 아래에 따로 간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허가 등의 문제로 간행은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오진영, 최원(崔愿), 김정호(金楨鎬) 등이 1925년 10월(양력)에 진주(晉州)에 모여 간행을 결의하고 진양인쇄소(晉陽印刷所)에 간소를 설치하였다. 김정호가 장재(掌財)를 맡고 최원이 작업을 주관하여, 1926년 10월(양력)에 『간재사고(良齋私稿)』를 연활자(鉛活字)로 간행하였다.(진주본)

한편 1925년 겨울에는 저자의 문인이자 손서(孫婿)인 이인구(李仁渠)가 저자의 장손 전일효(田鎰孝)와 함께 논산(論山) 용동(龍洞)의 봉양정사(鳳陽精舍)에 간소를 설치하고, 청도의 양기소(梁基韶) 집에 보관되어 있던 별도의 고본(稿本)을 가져다 1926년 봄부터 독자적으로 문집의 간행에 착수하였다. 송의섭(宋毅燮)과 이상규(李相珪), 이광규(李光珪) 등이 간역(刊役)에 참여하였고, 평안도 삭주에서 목재를 실어 왔으며, 서울과 영남의 각수 7~8명이 투입되어 1927년경 ‘간재선생문집(良齋先生文集)’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용동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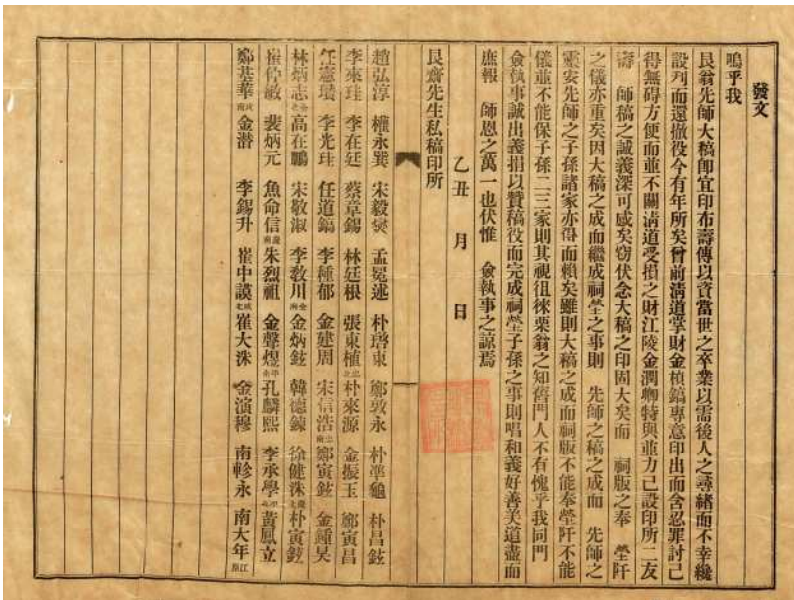
간재사고인소가 먼저 설치가 되기도 하였거니와 관련 인사들이 강릉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의 유림을 설득한 까닭에, 강릉의 간재 문인들은 대부분 간재사고의 간행에 깊이 관여하였다. 다만 논산의 간재문집간소에는 간행 비용을 찬조하는 등으로 협조를 하였다.

오진영은 진주에 간소를 설치하기 전인 1924년 10월 강릉을 찾아와 간재 문집

475) 이하 간재집 편찬 경위에 대해서는 양기정(2005), 「간재집 해제」, 한국고전종합DB 참조.



간행과 관련하여 강릉 문생들과 상의를 하였다. 이때 박원동은 모친상 중이라 참여하지 못하였다. 강릉 출신의 간재 문하생은 권오성, 김윤경, 최대수, 박원동, 최임수(崔恠洙), 김연목, 박화동(朴華東), 함병삼(咸炳三) 총 8명이었다. 오진영이 강릉을 다녀 간 뒤 이듬해 진주에 간재사고인소가 설치되고 문집 간행이 다시 추진이 되었는데, 특히 김윤경의 경제적 지원이 컸다.



<그림 IV-11> 간재사고인소 발문(1925년) (국편 전자사료관 소장)

1924년 4월에 박원동 집에서 권오성, 최대수, 김연목, 김윤경 등 간재의 문인들이 회동을 하였다. 이때 김연목이 오진영의 편지를 김윤경에게 보여주며 문고 간행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sup>476)</sup> 김윤경은 자금 지원을 약속하였는데, 1925년에 간재선생사고인소(良齋先生私稿印所)에서 발급한 발문(發文)에 김윤경의 자금 지원이 보인다.

476) 『시호거사일기』 책1, 1924년 4월 17일.

이 발문에는 간재 선생의 유고가 마땅히 간행되어야 하나 전에 청도에 간행소를 설치하여 추진했던 일이 철거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강릉의 김윤경이 특별히 힘을 보태주어 다시 추진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이 나온다.<sup>477)</sup> 말미에는 조홍순(趙弘淳)을 필두로 간행소 유사 48명이 연명하였다.<sup>478)</sup> 48명 중에 강원도 유사로 최대수, 김연목, 남진영(南軫永), 남대년(南大年) 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최대수와 김연목은 강릉 출신이다.

박원동은 49세 때인 1921년 10월 몽재 김연목의 추천으로 간재 전우에게 편지를 올리고 제자로 들어갔다. 박원동에 앞서 강릉의 권오성, 김연목, 김윤경, 최대수 등이 간재의 문하에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22년 7월 간재는 졸하였다. 간재의 문하에 비록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이고, 직접 뵈는 적이 없이 편지를 통해 가르침을 받았지만, 박원동은 강릉 지역 간재의 문하생 8인 중 하나로 간재사고 편찬에 일정정도 관여하였다.

박원동은 진주의 간재사고인소로부터 1925년 10월 통천군·회양군·강릉군 유사 망첩을 받았고, 이듬해인 1926년 2월에는 논산의 간재문집간소로부터 강릉군 유사 망첩을 받았다. 1925년 진주에 간소가 설치된 후, 이해 11월에 진주의 간재사고(良齋私稿) 인소(印所)에서 박원동을 강릉·회양·통천 3개 군의 유사로 위촉하고 통문을 보내왔다. 이에 박원동은 강릉은 적극 동참하겠으나 회양과 통천은 거리가 멀고 사우(士友)의 명단이나 거주지도 정확치 않아 일이 쉽지 않다고 보고하였다.<sup>479)</sup> 아울러 간재사고인소의 장재 김정호에게 간행에 필요한 의연금 21원(圓)을 보냈다.<sup>48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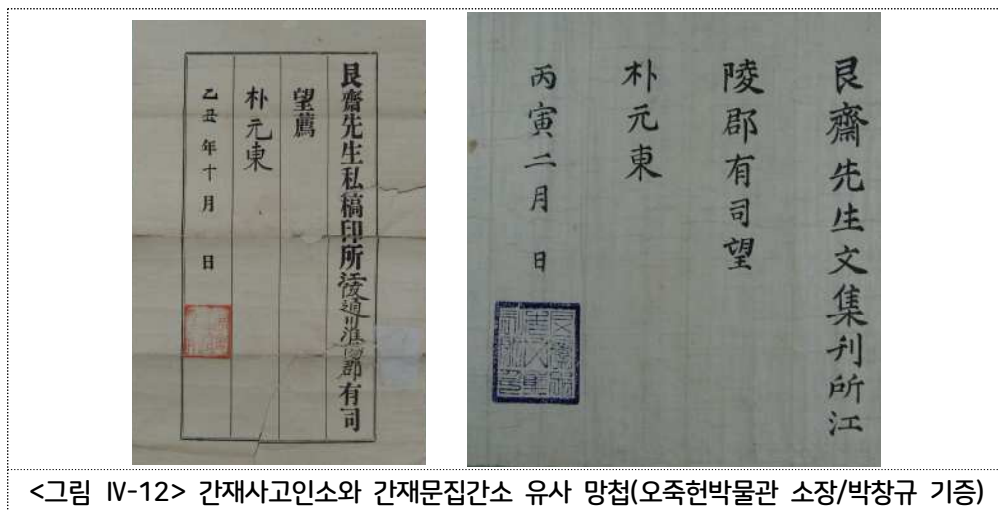
477) 「良齋先生私稿印所 發文」(乙丑),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이 문서는 유영선(柳永善)의 문중에 소장되어 있던 것인데, 유영선은 간재의 제자이다.

478) 지역별로 보면 총북이 13명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 9명, 전북 3명, 전남 3명, 경북 3명, 경남 4명, 평남 2명, 평북 2명, 함남 2명, 함북 3명, 강원 4명이다.

479) 박원동, 「答晉州印稿通文」, 『시호거사문고』, 70면.

480) 박원동, 「良齋文稿印所義金付送文」, 『시호거사문고』, 73면. 말미에 ‘十一月日. 金二十一圓送焉’이라 되어 있음.





<그림 IV-12> 간재사고인소와 간재문집간소 유사 망침(오죽헌박물관 소장/박창규 기증)

1926년 여름에 박원동은 오진영에게 편지를 보내어 봄에 『송자대전』 중간을 확인 하러 최대수(崔大洙)과 함께 소제(蘇堤)에 다녀오느라 간재사고 간행 회의에서 만나지 못한 것에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였다. 또한 강릉 지역의 8~9인이 진주의 인행소에 찬조금을 보냈음을 알렸다. 그리고 문집 간행과 관련하여 문인들이 두 파로 갈린 상황과 근래에 간행의 진행 소식을 듣지 못한 답답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 하였다.

다만 우리 선생님의 문고를 간행하는 일이 어찌 이리도 여럿으로 파가 갈렸단 말입니까. 근래에 혹 서로 사이 좋게 협력하는 데로 귀결이 되었는지요? 진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인행이 이미 반 넘게 진행이 되어 먼저 반포를 한다고 합니다. 논산에서 온 편지에는 이미 몇 책을 간행했고 판목 작업을 장차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곳의 최근 소식이 모두 끊어져서 답답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의연금을 모아 진주의 간소에 보냈고 또한 잘 수령했다는 증서가 왔습니다. 논산의 간소에서는 아직 한 글자도 답장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번 소제리에 있을 때 미처 선생님의 묘우에 가서 배알하지 못했으니, 참으로 미안할 뿐입니다. 우리 선생님의 도덕은 광명하고 정대하여 세상의 모범이 되는데, 지금 문학생들이 분열되고 반목하며 선생님의 문집 간행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산 현동의 인소, 진주의 인소, 논산의 간소가 매년 서로 반목하고 있으니 어디에 애를 써야 할 것인지 참으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sup>481)</sup>

강릉에서는 김연목이 간재사고 편찬과 관련된 일을 주관한 것으로 보인다. 박원동은 진주간행소에 일을 보러 가는 김연목에게 보낸 편지에서 막중한 책임을 맡은 김연목에게 감사를 표하고, 간행 회의에 참석치 못하는 송구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였다.<sup>482)</sup>

그런데 문하가 둘로 갈리어 문집 간행이 두 곳에서 추진되는 상황에서, 서울에 별도로 사고절요(私稿節要)와 척독인소(尺牘印所)까지 설치되었다. 이미 진주와 논산에서 협조 요청은 받은 상황에서, 서울에서도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 이에 박원동은 김연목에게 편지를 보내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다음과 같이 문의를 하였다.

문집 간행소가 이미 두 곳에 설치가 되었는데, 사고절요(私稿節要)와 척독(尺牘) 인행소가 또 서울에 설치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문장이 사도(斯道)를 천발함에 지극이 정미하고 지극이 요결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의로운 군자들이 선생님의 문장을 널리 배포하고 오래도록 전하려고 한 시대에 공간(公刊)을 해서 길이길이 후대에 전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두 정성을 쏟으니 동문으로서 축하할 일이며 말세의 다행한 일입니다.

서울로부터 온 편지는 필시 좌하(座下)에게 먼저 도착을 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답장을 할 계획인지요? 나에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sup>483)</sup>

박원동은 진주의 간재사고 인소, 논산의 간재문집 간소에서 유사 망첩을 이미 받았는데, 서울의 사고절요와 척독 인행소에서 또 다시 유사를 부탁한 것이었다.

한편 박원동은 1927년 7월 논산의 간재문집 간행과 관련하여 의연록(捐金錄)에 이름을 기재하는 문제로 김윤경과도 긴밀하게 상의하였다. 논산에서 『간재문집』이

481) 박원동, 「與石農震泳」, 『시호척독』, 516면. “惟我師稿事, 何其多歧也? 近或有協好歸宿處也? 自晉來簡, 則印已過半, 粒續續先頒云. 自論來書, 則刊已幾冊, 割鬪方務云. 而兩所俱絕近音, 不任悶鬱耳. 所稱義金, 收送于晉印所, 亦有領証之來. 論刊處, 則未能一字答付. 向在蘇堤, 未得往謁師廟, 誠涉未安耳. 吾先生之道之德, 光明正大, 爲萬世法門, 而今親炙其下者, 分裂背附, 同是師稿清刊, 而玄印晉印而論刊, 每每相反, 何其用意之難測也!”

482) 박원동, 「答金蒙齋(演穆)」, 『시호척독』, 492면.

483) 박원동, 「與金演穆」, 『시호척독』, 494면. “文集刊所, 既有兩設, 而私稿節要與尺牘印所, 復設于京城. 蓋吾先師之文, 闡發斯道, 至精至要, 故好義諸君子, 茲有廣佈壽傳, 以公一世以垂千載. 若是齊誠, 竊爲同門之賀而叔世之幸也. 自京來書, 必先着于座下矣. 如何應酬計也? 示及瞻望.”

간행된 뒤 간행소에서 의연금을 낸 이들을 명단을 별도로 기록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원동은 김윤경에게 보낸 답서에서 8명을 넣을 것이면 다 넣어야 하고 빼는 것이면 다 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더욱이 김윤경도 이미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니, 박원동 자신의 이름은 넣을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sup>484)</sup>

---

484) 박원동, 「答金滄雲潤卿(七月日)」, 『시호척독』, 527면.

## 5. 유교단체 활동 : 유도천명회 및 관동명덕회

1920년대 초반 중앙의 대동사문회(大東斯文會), 유도연합회(儒道聯合會) 등을 비롯하여 각 지역별로 많은 유교단체가 창립되었다. 경북의 유도진흥회(儒道振興會), 경남의 유도협성회(儒道協成會), 호남의 유도창명회(儒道彰明會), 호서의 명륜회(明倫會), 관서의 대동유림회(大東儒林會) 등이 그것이다.<sup>485)</sup>

강원도에서도 1921년 유도천명회(儒道闡明會)가 창립되고, 강릉지회는 이듬해인 1922년 창립되었는데, 관련 기사가 <매일신보>·<동아일보>·<세계일보> 등에 보인다. 유도천명회의 창립과 강릉지회의 활동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IV-16> 유도천명회 관련 신문기사 (연월일은 양력임)

신문 및 일자	기사 제목 및 내용 개요
<매일신보> 1921.07.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儒道闡明會 開設”</li> <li>- 강원도청에서 일반 유림을 지도하고 유도(儒道)를 진흥하기 위하여 각 군에 유도천명회라는 유림단체를 조직하는 중임.</li> <li>- 순회강연을 통해 윤리도덕을 바로 세우는 한편 회보를 간행하며, 각 군의 대표 1명을 선발하여 내지(內地, 일본)의 문화 제도를 시찰할 계획.</li> </ul>
<매일신보> 1921.07.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儒道闡明會 開會”</li> <li>- 춘천읍내에서 제1회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안내함.</li> </ul>
<매일신보> 1921.09.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儒道闡明會 趣旨”</li> <li>- 유도천명회의 취지와 규칙을 소개하였는데, 취지서는 한문으로 작성됨.</li> </ul>
<동아일보> 1922.0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江陵儒道闡明會”</li> <li>- 1월 8일 강릉향교의 강당에서 있었던 강릉 유도천명회 발기회의 개최 소식. 강릉군수 이택규(李宅珪)의 배석 하에 각 임원을 선출함.</li> <li>- 회장 최동길(崔東吉), 부회장 권인식(權麟植), 총무 박기동(朴起東) 등을 선출함.</li> <li>- 평의원(評議員) : 조규대(曹圭大), 최대수(崔大洙), 최대식(崔大植), 김재익(金在翼), 심상조(沈相祚), 김봉경(金鳳卿), 정석화(鄭錫和), 박원동(朴元東), 윤상각(尹相覺), 김진탁(金振鐸), 최경집(崔慶集), 최돈웅(崔墩膺)</li> </ul>
<毎日申報> 1924.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儒道闡明會 總會”</li> </ul>

485) 정규훈, 「일제기 한국유교개혁의 동향」, 『정신문화연구』 2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95~119면; 강대민, 「일제하의 향교운영과 유림조직의 변화」, 『한국의 향교 연구』, 경성대 출판부, 1992; 성주현, 「1920년대 유림계의 동향과 활동」, 『식민지시기 종교와 민족운동』, 선인, 2013.

신문 및 일자	기사 제목 및 내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4년 1월 2일에 강릉향교 명륜당에서 개최된 유도천명회 강릉지회 정기총회 소식.</li> <li>- 회장 최동길은 장자상(長子喪)으로 불참하고 총무 박기동이 대리함. 75 명이 참석함.</li> <li>- 고문으로 추대된 군수 장헌근(張憲根)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후임 회장으로 박기동을 선출함. 부회장은 권인식, 총무는 김재익이 선출됨.</li> <li>- 잉여 향교재산을 향교 내 수선강습소(首善講習所) 고등속성과(高等速成科) 설비에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유림의 후원을 받기로 함.</li> </ul>
<p>◦ &lt;每日申報&gt; 1925.10.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江陵儒道闡明會 孔子誕生日紀念會況”</li> <li>- 강릉지부에서 10월 14일(음력 8월 26일) 향교 명륜당에 유림 70여 명이 모여 공자 탄생 2476주년 기념식을 거행함.</li> <li>- 군수 윤희성(尹希誠)은 유림에게 신지식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시대에 맞는 신교육을 위해 수선강습소를 운영하게 하게 됨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함. 오후에는 강습소 학생들의 학예회가 개최됨.</li> </ul>



<그림 IV-13> 유도천명회 관련 신문기사

(<동아일보> 1922.01.27, <매일신보> 1925.10.19)

강릉 유도천명회는 1922년 1월 8일 강릉향교의 강당에서 강릉군수 이택규(李宅珪)의 배석 하에 발기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선출하였다. 평의원(評議員)에 박원동의 이름이 보이며, 박원동과 친분이 있는 이들이 임원으로 구성되었다. 회장 최동길(崔東吉), 총무 박기동(朴起東)을 비롯하여 평의원에 최대수(崔大洙), 심상조(沈相祚) 등이다. 특히 박기동은 박원동의 종제로서 1924년에 최동길을 이어 회장을 맡았다.

1925년 10월에는 강릉 유도천명회에서 공자탄생 2476년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군수 윤희성(尹希誠)은 유림에게 신지식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강릉향교에 수선강습소를 운영하게 된데 대하여 양해를 구했다. 향교라는 유교 시설에 서구식 신식교육기관을 운영하고 그 예산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유림의 불만이 있었던 것이다.

강원도 도청이 유도천명회의 창립과 조직 구성을 주도하였다는 점, 강릉 유도천명회가 군수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는 점, 군수와 유림 간의 긴장 관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강릉 유도천명회의 설립은 유림사회 내부의 요청에 따른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관동명덕회(關東明德會)는 유도천명회를 대체하는 유교단체로 1930년에 창립되었다.<sup>486)</sup> 1930년 8월 27일 춘천의 공회당에서 관동명덕회의 발회식 거행되었다. 발기인은 강원도 참여관(參與官) 손영목(孫永穆), 춘천군수 장헌근(張憲根), 강원도평의원 남상학(南相鶴)·이기중(李起鐘)·이근우(李根宇)·정호봉(鄭鎬鳳)·박기동(朴起東)·정봉시(鄭鳳時) 등이다. 이 중에 이근우와 박기동 등은 강릉 출신이다.

관동명덕회의 창립 취지는 “공맹(孔孟)의 가르침을 좇아 현재 무너져 내린 동양도덕(東洋道德)을 부흥하는 문제를 환기시키고, 소위 외래사상 또는 경거위격(輕舉危激)한 사상을 타파하는 동양고유의 도덕을 발휘시켜야 함”에 있었다. 공맹 사상을 ‘동양도덕’이라 이름 하고 서구 사상을 타파하기 위해 동양고유의 도덕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함경남도 관찰사를 지낸 황성 출신 정봉시(1855~1937)<sup>487)</sup>가 초대 회장

486) 관동명덕회의 발회식 소식이 <부산일보> 1930년 9월 1일자 “江原道に 東洋道德の關東明德會 生る; 廿七日 春川公會堂にて 盛大なる 發會式 舉行”에 상세히 보인다. 창립 자리에서 유도천명회의 존폐 문제를 두고 약간의 논쟁이 있었다. 관동명덕회는 유도천명회와는 별도 조직으로 창립한 것인데, 강릉의 최준집(崔準集)이 유도천명회를 공식적으로 폐지한 뒤에 관동명덕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나, 결과적으로 관동명덕회가 유도천명회를 대체하게 되었다.

487) 정봉시 : 본관이 초계(草溪), 호는 송리(松里)이며 강원도 황성 출신이다. 1891년(고종 28) 생원이 되었으며 1896년 춘천부 참서관으로 근무한 뒤, 內部의 회계국장, 지방국장·치도국장 등을 역임하였다. 1906년(광무 10) 함경남도 관찰사로 승진한 뒤, 1907년(융희 1) 중추원찬의로 재직하였다. 1908년 『국조보감(國朝寶鑑)』 증보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였고, 1909년 규장각 부제학에 올랐으며, 1912년부터 1929년까지 17년간 경학원 강원도 강사(講師)로 활동하였다. 1929년 경학원 부제학에 올랐으며,

으로 선출되었으며, 손영목(1888~1950)<sup>488)</sup>과 이근우 2인이 부회장으로 지명되었다.

조선총독부기록물 중에 1936년과 1939년의 관동명덕회 사업보고서가 남아 있다. 관동명덕회 회장이 주요 사업 현황, 규정 제정, 세입세출 등을 총독부에 보고한 것이다. 1939년 보고서의 내용 중에 ‘주요 사업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 1939년(소화 14) 7월 27일자 보고서의 주요 사업 현황
  - 관동명덕회보 간행(10,000부). 도내 각 관공서, 농촌시설단체, 유림 관계 지도 기관 등에 배부
  - 청년층 시국 인식 고취를 위한 지나사변(支那事變, 중일전쟁. 1937.7.7.) 1주년 기념 청년 강습회 개최
    - 1938년 7월 7일~10일. 금강산 장안사. 각 군으로부터 優良 청년 2명씩 선발. 총40여 명.
  - 각군 지부의 청년단 총회 및 강습회 등 개최 지원
    - 지부별 40원 내외 보조금 지원하였으며, 연구사업 발표회 등을 통해 총후황국청년(統後皇國青年)으로서의 신념을 파악하게 함.
  - 청년의 식견을 향상시키기 위한 순회문고 63개 구입 및 순회 운동회 시행
  - 유교정신 진작을 위한 경학원(經學院) 사성(司成) 안인식(安寅植) 초빙 강화회(講話會) 개최: 춘천·원주·영월·강릉·삼척·울진·평해 등 청강자 1,800명.
  - 각군 경로회(敬老會) 개최 : 동양도덕(東洋道德)의 본의를 천명하기 위한 각 군 경로회 개최 예산 배부. 각 군의 군수가 개최하게 하였으며 80세 이상 고령자 412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룸.

주요 사업 중에는 ‘유교정신 진작을 위한 경학원 사성 안인식(安寅植, 1883~1969) 초빙 강화회’가 있었다. 경학원은 일제가 조선총독부 직속기구로 설립한 것으로, 일제는 경학원을 통해 전국의 향교와 유림을 통제하였다. 안인식은 일제의 ‘황도유학(皇道儒學)’을 추종하였으며,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일제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순회강연을 펼쳤던 대표적인 인물이다.<sup>489)</sup> 관동명덕회가 중일전쟁 1주년 기념

1936년 경학원 대제학 겸 명륜학원(明倫學院) 총재로 재직하였다.<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정봉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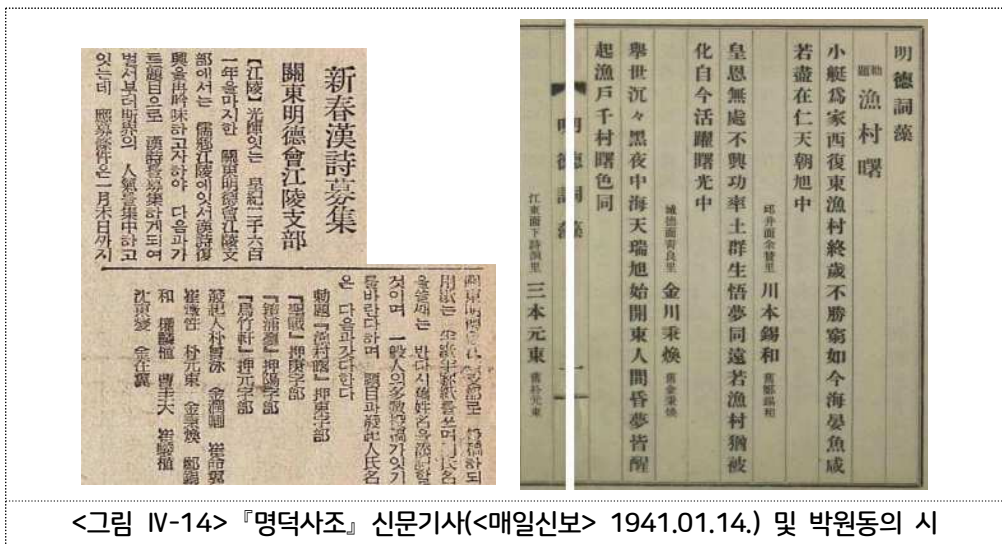
488) 손영목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1909년 내무부 주사로 관직을 시작하였으며, 1929년에 강원도 참여관에 임명되었고 이후 강원도지사를 두 번이나 재임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손영목’조.)

489) 정욱재, 「일제 협력 유림의 유교인식-1910~1920년대 경학원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16, 한국사학사학회, 2007; 정욱재, 「조선유도연합회의 결성과 황도유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참고.



청년강습회를 개최하고, ‘황국청년으로서의 신념’을 고취시키기 위한 청년단 총회 및 강습회 개최를 지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관동명덕회 강릉지부는 1941년 6월(양력)에 일제의 침략 전쟁을 찬양하는 한시집 『명덕사조(明德詞藻)』를 출간하였다.<sup>490)</sup>



<그림 IV-14> 『명덕사조』 신문기사<매일신보> 1941.01.14.) 및 박원동의 시

『명덕사조』 편찬에 앞서 관동명덕회 강릉지부에서는 <매일신보> 1941년 1월 14일자(양력)에 ‘한시부흥’이라는 취지를 내걸고 한시를 모집하였다. 시제로는 칙제(勅題) 「어촌서(漁村曙)」, 「성전(聖戰)」, 「경포대(鏡浦臺)」, 「오죽헌(烏竹軒)」 등을 운자와 함께 제시하였다. 원고 모집 기간은 1월 말까지였으며, 저자명에 창씨명을 쓸 경우는 반드시 본래의 성명을 함께 적어 보내도록 하였다. 발기인 명단에 박증영(朴曾泳), 김윤경(金潤卿), 박원동(朴元東), 김병환(金秉煥) 등이 들어 있다.<sup>491)</sup>

490) 『明德詞藻: (竝)附錄松井會永』, 朴曾泳 編, 關東明德會江陵支部, 1941. 『명덕사조』에 대해서는 한길로, 「일제 말 지방 유림의 동향과 친일시의 국면-강릉 유림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60, 성균관대 인문학연구원, 2016 참조.

491) <毎日申報> 1941.1.14. “新春漢詩募集 關東明德會江陵支部”. 발기인 : 박증영(朴曾泳), 김윤경(金

박원동은 1922년 창립된 강릉 유도천명회의 평의원이었으며, 1941년에는 관동명덕회 강릉지회의 일원으로 『명덕사조』 편찬의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박원동은 『시호연기』를 작성하면서 유도천명회나 관동명덕회 등에 관하여 거론하지 않았다. 『시호연기』에서 뿐만 아니라 『시호문집』에 영인되어 있는 여러 문적에도 이들 단체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시호만음』의 맨 마지막 별도의 면에 관동명덕회 월보에 수록되었던 소양초부(昭陽樵夫)의 「오월전가(五月田家)」란 시가 초록되어 있다.<sup>492)</sup> ‘소양초부’는 춘천에 거주하는 유림으로 추정된다. 다만 『시호거사일기』에는 관동명덕회와 『명덕사조』 편찬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보인다. 관련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IV-17> 『시호거사일기』 소재 관동명덕회 및 『명덕사조』 관련 기록

연월일	내 용
1931.04.12.	- 관동명덕회 월보에 실려 있는 영월군 수주면의 이재민 관련 소식을 적어 등.
1931.07.04.	- 관동명덕회 잡지 1삭(朔) 2권이 도착함. 신임 총독 우항일성(宇恒一成)의 훈시가 실려 있다고 함.
1932.01.01.	- 관동명덕회 역시 강릉에 지회를 설립한다고 함. 향교의 후임 장의(掌議)가 선정되기를 기다려 회의해서 결정한다고 함.
1932.12.22.	- 관동명덕회 춘천 지부의 월보가 왔는데 이는 매월 오는 것임.
1933.01.10.	- 관동명덕회 강릉지부 찬의(贊議) 망지(望紙)와 강릉고적보존회 협찬위원 망지가 군청에서 옴.
1935.08.23.	- 6개 군 유림간담회가 우리 군의 향교에서 개최되는 일로 군수가 상의할 게 있다고 하여 군청에 들어감. - 도청의 관동명덕회에서 보낸 공문이 왔는데, 유림간담회 일자는 9월 11일이며 강릉 참석 정원 50인을 보고하라는 것임. - 울진·삼척·정선·양성·고성 5개 군은 각각 3인 도합 15인이 향교에서 2박을 하며 다섯 번의 식사 비용은 관동명덕회에서 부담하는 예산서가 옴. - 회의 사항은 심전개발청년지도(心田開發靑年指導)를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것이었음. 본도에서는 4개 군을 지정하여 개최하는데 강릉·춘천·원주·철원임.

潤卿), 최명익(崔命翼), 최돈성(崔燾性), 박원동(朴元東), 김병환(金秉煥), 정석화(鄭錫和), 권인식(權麟植), 조규대(曹圭大), 최희식(崔曦植), 심동섭(沈東燮), 김재익(金在翼).

492) 『시호만음』, 「五月田家」, 471면. 제목 아래에 “昭陽樵夫詩載明德會月報”란 원주가 달려 있다.

연월일	내 용
	- 8월 27일 공부자탄신축하식을 거행하였는데, 군수가 와서 명륜당에서 개최되는 유림간담회에 대해 설명을 함.
1935.09.11.	- 관동명덕회 주최 6개 군 유림간담회를 강릉향교에서 개최함. 관동명덕회 회장 홍종국(洪鍾國), 촉탁 김영근(金永根), 군수 정연기(鄭然基), 기타 관인 및 회원 총70인이 참여함. - 회장이 장시간 강화를 하고 심전개발청년지도(心田開發靑年指導)는 서면으로 간명하게 서진(書陳)함. 향교 재산은 유도 진흥을 위해 사용하고 관동명덕회 지부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언급함.
1935.10.30.	- 향교 주최 문예회 시상식 후에 유림간담회를 열어서 관동명덕회 회원 모임을 각 면에 위원 2인씩 정하고 '심전개발' 설치(設施) 건은 조목이 많아서 기록하지 않음.
1935.11.17.	- 모전의 삼종숙 박증영과 김노경(金魯卿)이 명덕회 회원 모집 일로 찾아와서 신입서(申込書)에 날인하여 줌.
1936.02.16.	- 군청에 들어가 관동명덕회 강릉지회 회의와 향약을 3월 초순에 열기로 정함.
1936.05.15.	- 들으니 내 이름이 명덕회 평의원(評議員)에 올라 있다고 함.
1936.11.29.	- 관동명덕회 통지서가 왔는데 나를 평의원이라 여겨서 통지문을 보낸 것임. - 통지서 내용은 회원 부모 중 여든 이상은 경로를 표창하고, 아흔 이상 및 선행자와 공로자는 유림지(儒林誌)에 넣을 테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것이었음.
1936.12.08.	- 최학집(崔學集)이 관동명덕회 회원 부모 중 여든 이상인 자를 조사하여 보고하는 일로 내방함. - 남자 5인, 여자 3인을 보고하였는데 그 중에 여자 1인은 나이 90세로 모전 김진희(金振熙)의 어머니라고 함.
1936.01.06.	- 관동명덕회에서 도내 고령자에게 세찬을 제공하였는데, 90세 이상 185인, 100세 이상 12인이라고 신문에 실려 있음.
1937.02.03.	- 관동명덕회 잡지가 왔는데 각 고을의 신사단도(神祠壇圖)와 진설도(陳設圖), 축식(祝式)이 수록되어 있음.
1937.05.11.	- 관동명덕회 회의가 명륜당에서 있었는데 참석치 못하고, 아우 광동이 장의라 참석함.
1937.07.19.	- 관동명덕회에서 국방금을 수집하는 일로 보낸 통지문이 옴.
1938.03.15.	- 향교 석전제에 참석 후 명륜당에서 열린 상품 수여식에서 수상함. 효열 5인, 비각 수호는 1인이었는데 박원동은 삼가선조 생효비각 수선으로 상을 받음. - 관동명덕회 강릉군 지부장은 최만달(崔晩達)인데 수상자 대표로 나에게 답사를 하라고 함. * 최만달은 당시 당릉 군수이자 명덕회 지부장. 군수가 명덕회 지부장이로서 총괄하며 지역 유림을 관리함.
1938.05.12.	- 관동명덕회가 명륜당에서 열렸는데 참석하지 않음. - 임원이 교체되었는데 본 면의 평의원 2명 중에서 나는 연임되고 1명은 최학집(崔學集)이 피선됨. 협찬원 5인은 해당 면의 평의원이 선출하여 보고하며 의결한다고 함. 최학집이 와서 말해주어 협찬원으로 신공묵(辛恭默)·박좌동(朴佐東)·김우경(金禹卿)·심순황(沈純潢)·김진수(金振秀)를 선정함. * 명덕회 평의원은 각 면에서 1~2명씩, 협찬원은 각 면에서 5인씩 선출된 것으로 보임.

#### Ⅳ. 강릉 유교문화 유산의 정리와 재건

연월일	내 용
1938.06.13.	- 관동명덕회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평의원에 연임되었다는 망첩이 옴.
1939.05.03.	- 관동명덕회 회원 명부 관련 본회에서 통첩이 옴. 본 면의 평의원 최학집과 장의 심순황이 찾아와 본 면은 20여 명을 정하고 회비는 50전과 신입서에 날인함.
1939.05.15.	- 향교의 명륜당에서 개최된 명덕회에 참석. 군수 강연이 있었음.
1940.09.21.	- 관동명덕회 회원의 부모 중에 여든 이상인 자는 경로례(敬老禮)를 개최한다고 하여 본 면에서 5인을 보고함.
1940.12.07.	- 양력 설날인데 군수 이현재(李玄載)가 보자고 하여 관저에 들어가 음주하고 돌아 옴. 1940년 12월 29일(양력)에 시국인식협회의 관련 유림대표회의가 열린다는 통지서가 늦게 도착하여 참석하지 못했는데, 들으니 칙제(勅題) 「어촌서(漁村曙)」 및 「성전(聖戰)」, 「경포대(鏡浦臺)」, 「오죽헌(烏竹軒)」 모두 4개의 시제로 시를 지어 이를 발간하여 기념한다고 함. * 『명덕사조』 편찬 관련 기록임. <매일신보> 1941.1.14.자 광고(음1940.12.17.)와 관련됨.
1941.01.29.	- 관동명덕회의 4제(題) 칠언절구 고사(考査) 관련 군청에서 보낸 공함이 옴. - 향교에 들어가 보니 고사하는 사람이 3~4명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단지 박원동과 김병환 둘 뿐이었음. - 향교 직원 박증영, 교화 주사 권영기, 심상준(沈相駿)을 저녁에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향교에서 묵음.
1941.01.30.	- 네 가지 시제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제출한 시가 많았는데, 함자에 함부로 고정(考訂)을 가하여 본향을 알 수 없게 함. *창씨명을 쓴 것을 말함. - 많은 사람들이 심히 망평(望評)을 하였는데, 박원동은 온당치 않다 생각하여 사양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음. * 2월 1일에도 제출된 시들을 고평함.
1941.02.05.	- 교화 주사 권영기에게 변제(弁題)를 보냄. * 『명덕사조』 권수의 「변제」를 이룸.
1941.02.15.	- 『명덕사조』의 변제와 관련하여 군청의 교화 주사 권영기를 찾아가 상의함.
1942.09.06.	- 관동명덕회에서 고령자 및 행실이 높은 자에 대해 포상식을 거행함. 열부 4인, 85세 이상 11인.

『명덕사조』의 발행인은 관동명덕회 강릉지회장 ‘이현재(李玄載, 창씨명: 李家玄載)’으로 되어 있으며, 저작인(著作人)은 ‘박증영(朴曾泳, 창씨명: 杉井曾泳)’으로 되어 있다. 이현재는 강릉 군수이며, 박증영은 박원동의 삼종숙으로 당시 강릉향교 직원(直員)을 맡고 있었다. 시의 형식은 모두 칠언절구로, 작자는 82명이며 총167편이 수록되어 있다. 작자는 지전풍길(池田豊吉)<sup>493</sup>을 제외하면 모두 강릉의 유림이다.

성명은 창씨명을 쓰고 본래 성명을 창씨명 아래에 소자(小字)로 함께 표기하였다.

시집의 구성을 보면, 서두에 ‘발기자(發起者)’ 명의의 「변제(弁題)」가 있는데 서문에 해당된다. 본문은 일본 천황의 칙제(勅題) 「어촌서(漁村曙)」와 이에 차운한 시 81편, 「성전(聖戰)」 8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에는 「경포대(鏡浦臺)」 3편, 「오죽헌(烏竹軒)」 3편 모두 6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박원동이 지은 칙제 「어촌서」에 차운한 시와 「성전」 두 편이 『명덕사조』에 수록되어 있다.<sup>494)</sup>

아래는 서문에 해당하는 「변제(弁題)」의 일부이다.

관동명덕회는 곧 유도(儒道)의 연맹으로 우리 고을에도 지부가 결성되어 있다. 이는 모두 천황의 문치(文治)와 풍교(風敎) 속에서 교화를 입은 것인데 아직 티끌만큼도 보답을 하지 못하고 한낱 조정을 향한 마음이 절절할 뿐이다. 더욱이 황군(皇軍)이 출정하여 고통을 참아가며 충성을 바친 것이 지금 5년이 되었다. 의리 상 전우를 위하여 한마디 말로 노고를 위로해야 하는데 지금 오히려 늦었다. 현 관동명덕회의 지부장 이가현재(李家玄載) 군수는 고을에 부임하여 위로는 성지(聖旨)를 받들고 아래로는 유화(儒化)를 일으켰다. 이에 칙제(勅題)를 받들어 정사를 펼치는 동시에 무운(武運)을 기원하고, 또한 본 고을에 보존된 승지와 고적을 시로 가영(歌詠)하게 하였다.<sup>495)</sup>

“황군이 출정하여 고통을 참아가며 충성을 바친 것이 지금 5년이 되었다.”라고 운운한 것은 1937년 발발한 중일전쟁을 가리킨다. 시제인 ‘성전(聖戰)’ 역시 중일전쟁을 말한다. 관동명덕회의 지회장을 유림이 아니라 군수가 맡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관동명덕회가 군수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며, 관변단체로

493) 지전풍길(池田豊吉)은 일본인으로 추정되는데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직원록』에 따르면 1940~1942년까지 강릉군 촉탁을 지냈다. 한길로, 앞의 논문, 2016, 313면.

494) 칙제 「어촌서」 차운사: “曙色初浮大海東, 漁村先得日輪紅. 山河從此文明氣, 盡在吾皇化園中.” 「聖戰」: “雷轟旭赫出天征, 所向無城攻不平. 聖德好仁持久戰, 今年太歲是橫庚.” 박원동의 창씨명은 ‘三本元東’으로 되어 있다. 이 두 편의 시는 『시호만음』에는 실려 있지 않다. 한편 『시호만음』, 422면에는 1940년에 지은 「경포대(鏡浦臺)」와 「오죽헌(烏竹軒)」 시가 수록되어 있다.

495) 『明德詞藻』(竝)附錄松井會永, 「弁題」, 關東明德會江陵支部, 1941. “關東有會曰明德, 卽儒道之聯盟, 而吾州亦結成支會一部. 此莫非天皇文治風敎中涵育所化, 而未有涓埃之報. 徒切魏闕之心. 矧復皇軍出征, 忍苦效忠, 五載于茲, 義在同袍, 一言勞慰, 尙此晚矣. 今支部長郡守李家侯玄載莅州, 而上承聖旨, 下興儒化, 奉宣勅題, 兼祝武運. 且指本州保存之勝地古蹟, 使之歌詠于詩.”

서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덕사조』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총동원체제에 부응하는 일환으로 편찬된 것이다. 일제의 총동원체제와 군수의 강압적인 지시에 의해서 강릉의 유림 전체가 동원된 것이다.

관동명덕회는 총독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제반 사항을 매년 보고하는 관변 단체로서, 총독부의 정책이나 지시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각 지역의 유림은 군수의 관할 하에 이들 단체에의 가입을 종용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유림이 이들 단체에 기대어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하게 한 측면도 없지 않다. 강릉 유림은 향교를 비롯한 4대 원우의 운영에 있어서 군청과 관동명덕회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다. 일제 말기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명덕사조』를 발간한 것은 유림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권력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부작용이었던 것이다.





## V

## 결론

## 1. 논의의 요약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강릉의 유학자 시호(詩湖) 박원동(朴元東, 1873~1949)의 생애와 활동을 연구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강릉 유교문화 유산을 정리하고 재건에 힘쓴 활동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박원동이 지니는 근대적 의미에서 지역학 연구자로서의 위상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II장에서는 박원동 관련 문헌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1993년 영인 출간된 『시호문집』를 비롯하여 『강릉향현행록』(석판본 1책), 『증수 임영지』(연활자본 1책), 『강릉향교실기』(연활자본 1책), 『주춘시화』(석판본 1책) 등 간행된 자료를 정리하였다. 또한 『시호거사일기』(필사본 5책)를 비롯하여 『구로속회록』(필사본 1책), 『오봉서원실기』(필사본 1책), 『풍호정시』(필사본 1책) 등 필사본 자료도 가능한 한 수집하였다. 이들 자료는 박원동이 저술하거나 편찬에 참여한 저작들이다. 후손가에 전해지다 현재 오죽헌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헌 자료 260여 점도 검토하였다. 박원동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간찰이 가장 많으며, 송자대전 중간 및 간재사고 간행과 관련된 자료도 다수 보인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매일신보>, <동아일보> 등의 신문에 나오는 강릉고적보존회, 강릉 유도천명회, 관동명덕회 강릉지회 관련 기사도 수집하였다.

박원동의 생애와 활동을 연구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자료는 영인본 『시호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호거사문고』, 『시호만음』, 『시호척독』 등이다. 또한 1924년 52세부터 몰년인 1949년까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시호거사일기』도 중요하다. 박원동의 강릉 유교문화 유산의 정리와 재건 활동이 1920년~1940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시호거사일기』의 자료적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이에 『시호거사문고』, 『시호만음』, 『시호척독』, 『시호거사일기』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간략한 해제를 작성하였다. 또한 부록으로 『시호거사문고』, 『시호만음』, 『시호척독』 등의 목차를 제시하여 향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장에서는 박원동의 생애와 현실 대응을 살펴보았다.

① 박원동의 가문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강릉 박씨 가문은 강릉 12향현 중 삼가 박수량, 사휴당 박공달, 농헌 박억추 3인을 배출한 명문가이다. 지역의 유교문화를 연구하고 계승한 측면에서는 10세조인 완하당 박진해의 영향이 컸다. 박진해는 향현사의 창건과 7현의 배향을 주도하였으며, 송담서원의 건립하고 사액을 받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박원동은 지역 사회에서 조부 삼락 박규환과 아버지 풍은 박증혁의 역할과 위상을 이어받았다. 조부 박규환은 향교의 교임을 맡아 문묘를 중수하였고, 아버지 박증혁은 향약계의 설립, 오봉서원 묘정비 중건, 계련당 중건 등에 역할을 하였다. 요컨대 박원동이 평생토록 진력한 강릉 유교문화 유산의 연구와 정리 사업은 10세조 박진해로부터 조부와 아버지로 이어지는 유교문화 창달의 정신과 역할을 계승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② 박원동이 직접 작성한 『시호연기』를 중심으로 연보를 재구성하였다. 『시호연기』에는 1873년 1세부터 1949년 77세까지의 주요 행력이 기록되어 있다. 『시호거사문고』, 『시호만음』, 『시호척독』, 『시호연명록』 등을 참고하여 관련 내용을 함께 정리하였다. 특히 1924년 52세부터 몰년인 1949년까지의 행적은 『시호거사일기』의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검증하는 한편,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함께 제시하였다. 박

원동은 이른바 강릉의 4대 원우인 향현사오봉서원·송담서원·유천회암영당의 유사나 관리인 등을 역임하였으며, 1930년대 초반에는 강릉향교의 직원(直員)을 맡아 문묘의 제향을 담당하였다. 또한 『강릉향현행록』, 『오봉서원실기』, 『증수 임영지』, 『강릉향교실기』 등의 주요 편찬자였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전국적으로 유림의 중요한 사업이었던 『송자대전』 중간 사업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③ 재구성한 연보를 바탕으로 박원동의 시대인식과 현실대응을 살펴보았다. 안으로는 갑오개혁 이후 과거제가 폐지되고 향교의 교육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밖으로는 서구의 교육제도와 종교가 지역 사회 내부까지 들어오는 상황이었다. 1910년 조선은 일제에 강제 병탄되었으며 향교를 비롯하여 향현사·오봉서원·송담서원·유천회암영당 등의 인사와 재정은 군수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 이후는 일제의 총동원체제로 인하여 지역 사회에서 총독부와 군수의 압박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박원동의 고민과 현실 대응 양상을 살펴보았다. 박원동은 1900~1915년의 기간에 현실과 거리를 두며 후학 교육을 통해 난세를 돌파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902년 30세 때에 안변소학교의 교원이 되었던 것이며, 1909년 37세 때 농한기에 농사짓는 아동들을 불러 이웃의 서당에서 글을 가르쳤던 것이다. 1907년 35세 때 가자곡면(資可谷面)의 면장에 임명되었으나 누차 사직을 청할 정도로 관직에는 뜻이 없었다. 1910년 조선이 일본에 강제 병합되고 서당의 제자들이 점점 떠나가면서 1913년 41세 때 세상사를 끊고 은거하며 생을 마칠 뜻을 품기까지 하였다. 『시호연기』를 보면 1914~1915년까지 2년 남짓한 기간 동안의 행적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박원동 자신에게는 고민과 모색의 시간이었던 것이다.

그 후 1916년 봄에 벗들과 금강산 유람을 다녀 온 후 강회에 참석하는 등 지역 유림과의 결속을 다졌다. 또한 강릉향교 직원, 4대 원우의 유사나 관리인 등을 역임하며 강릉의 유교문화 유산의 정리와 재건, 송자대전 중간 및 화양연원록 편찬, 간재 문하에 입적 및 간재사고 편찬 등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박원동은 난세를

살아가는 유학자로서 끊임없이 출처에 대해 고민을 하였으며, 세상의 병폐를 치유해야 한다는 우환의식 속에서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이어나갔다. 향교 직원일 때 경학원과 군청으로부터 단발을 강요받았을 때 이를 감수한 것은 이런 의식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④ 박원동의 사승 관계와 교유 인물을 정리하였다. 박원동의 삶과 의식에 영향을 준 스승으로는 시산 박정규, 수당 이종문, 간재 전우를 들 수 있다. 시산 박정규는 집안의 어른이기도 한데, 박원동이 초년에 수학하면서 독서와 작문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수당 이종문은 성균관장을 역임하였는데, 박원동이 1901년 29세 때 서울에 올라가 지낼 때 잠시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인물이다. 박원동이 강릉 이외의 인사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되었다. 간재 전우는 당대의 이름난 학자인데 박원동은 동향의 몽재 김연목을 통해 간재의 만년 제자로 들어갔다. 비록 1년 정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나 박원동의 삶과 의식에 영향을 미쳤다.

박원동이 향교와 원우의 직책을 맡아 각종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가문의 지원과 사우들의 협조가 있었다. 『시호연명록』을 보면 각종 시회나 사업에 함께 참여한 강릉의 사우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가문 내 인물로서 동호 박장실과 운빈 박기동을, 강릉의 사우로서 몽재 김연목과 창운 김윤경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강릉 지역 외 석촌 윤용구, 동강 김영한, 논탄 송규현, 건암 송재경, 석농 오진영 등과 박원동과의 교유 관계를 살펴보았다.

IV장에서는 강릉 유교문화 유산의 정리와 재건, 지역학 연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① 유림 사회의 결속과 교류의 일환으로 강학 활동과 시회 활동을 살펴보았다. 박원동은 고을의 유림과 문창계(文昌契), 강회계(講會契) 등의 모임을 결성하여 유학을 진작하고 유림의 결속을 도모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향교에 문묘 제향만 유지되고 교육 기능이 상실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강회계는 박원동이 1902년 30세에 사우

들과 운양재(雲陽齋)에 모여 『소학』을 강독하고 김윤경과 주도하여 결성한 것이다. 『시호거사문고』의 「강회계조약」을 통해 강회계의 설립 취지, 회원의 요건, 조직 구성, 강장의 초빙, 강독 서목, 모임 횟수 등을 파악하였다. 강회계는 봄가을로 1년에 2회씩 강릉의 남북으로 돌아가며 모임을 가졌는데, 경학을 공부하며 유향으로서의 강릉의 위상을 계승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강릉에는 금란반월회(金蘭半月會), 영주구로회(瀛州九老會), 주춘계(住春契) 등과 같이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시회가 많았다. 이들 시회는 한말~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명맥이 끊어진 상태였다. 1930년대 후손가를 중심으로 이들 시회를 속수(續修)하였는데, 박원동도 속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단적으로 박원동은 영주구로속회첩의 서문을 짓고 그 범례를 정리하였다. ‘주춘계’의 경우 후손들뿐만 아니라 다른 성씨로 확대하기 위해 ‘주춘음사(住春吟社)’로 갱신하였으며, 1936년에는 시사의 시집인 『주춘시화(住春詩話)』를 석판본 1책으로 간행하기도 하였다. 금란계, 주춘시사, 영주구로회 등이 선조들의 시회를 다시 부활한 것이라면, 강의계(講義契)와 강호시사(江湖詩社)는 박원동이 사우들과 새롭게 창설한 시회였다. 강의계는 1934년 62세 때, 강호시사는 1941년 69세 때 각각 창립하였다. 특히 강의계의 경우 박원동이 향교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창립을 하였는데, 시회의 이름을 ‘강의(講義)’라 지은 이유가 시회의 모임이 단순한 음풍농월이 아니라 향교에서 유학을 공부하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 강학과 시회 활동은 박원동이 원우를 중수하고 『강릉향현행록』·『증수 임영지』 등을 편찬 과정에서 조직적인 힘을 발휘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② 향현사, 오봉서원, 송담서원 등 원우의 역사를 편찬하고 재건한 활동을 살펴보았다. 박원동은 이들 원우를 비롯하여 유천회암영당을 포함한 강릉의 4대 원우의 유사나 관리인을 역임하였다.

향현사는 강릉 출신의 12현을 배향한 사당인데, 강릉이 지닌 유향으로서의 위상을 상징하는 곳이다. 박원동은 1930년 12향현의 행록을 집적하여 간행하는 일을 맡

하여, 12문중을 설득하고 협조를 받아 이듬해 1931년에 『강릉향현행록』을 간행하였다. 『시호거사일기』에 편찬 및 간행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편찬 과정에서 벌어진 지역 유림과의 갈등이나 출판 허가 과정에서의 총독부 검열 등을 밝혀내었다.

향현사 ‘연혁’에 자기 집안의 선조의 이름과 공적을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박원동은 문헌 자료를 근거로 거절하였다. 이에 경찰서에 투서가 들어와 인쇄 작업이 중지되기에 이르렀으며, 결국 12문중 후손가들의 전체 회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였다. 또한 총독부의 출판 허가 과정에서 「범례」의 ‘황명(皇明)’의 ‘황(皇)’자를 삭제하는 등의 검열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박원동은 엄정한 역사 서술의 태도를 견지하며 12향현의 행적을 편차하였다. 단적으로 강릉 박씨인 농헌 박억추의 행록을 생년 고증을 통해 임경당 김열과 보진재 김담의 뒤에 편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집안사람이 향현사의 위판 순서에 따라 농헌행록을 임경당행록 위로 옮겨야 한다고 반발하였다. 박원동은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 농헌의 비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설득시켰다. 1933년 박원동이 향현사 유사를 맡았을 때 12문중의 동의를 얻어 결국 위패의 순서도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오봉서원은 주자와 우암의 영정을 봉안한 서원이다. 1868년 훼손된 후에 1905년 오봉단을 설치하여 다향을 유지하긴 하였으나 재정이 열악하였다. 1930년에 유금(儒金)을 모아 제전(祭田)을 확립하자는 유림의 결의가 있었으며, 박원동은 유사 및 수금 유사에 피선되어 재정 확충에 진력하였다. 『시호거사일기』의 1930~1931년 기록을 통해, 박원동이 동료 수금 유사들과 강릉 남북의 유림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유금을 모집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이듬해인 1931년 유림의 의연금을 모집하여 위토를 마련하였으며 박원동은 의연금 명부를 작성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박원동은 1931년 6월 『오봉서원실기』 편찬에 착수하여 1932년 7월 『오봉서원실기』를 편성하였다. 이 책은 1552년(명종 7) 오봉서원이 터를 잡을 때부터 1868년(고종 5) 훼손을 겪은 후, 1905년 오봉단을 세우고 1916년에 묘정비를 중건하며,

1930~1931년 제전을 확충한 연혁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오봉서원의 역사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순조 연간 우암 영정의 배향을 두고 벌어진 소론과 노론의 갈등이었다. 당시 유림사회가 소론과 노론으로 갈라져 반목을 하였는데, 박원동 당대에까지 이 사건을 두고 후손들의 갈등이 여전하였다. 이로 인해 1926년 박원동은 『임영지』 속수를 추진하다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박원동은 오봉서원의 연혁을 편성하면서 병계록(丙癸錄)에 있는 우암 영정 추배와 관련된 일을 비중 있게 수록해 두었다. 박원동은 『오봉서원실기』의 발문에서 “지금 종묘사직이 뒤집어지고 이교가 세상에 가득한데 편향된 일종의 색론(色論)을 어찌 다시 일삼는단 말인가. 우리의 도를 걱정하고 우리의 윤리를 아낀다. 머지않아 단합할 날이 올 것을 손꼽으며 이에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말하며, 유학이 침강하는 시대에 여전히 분열되어 있는 지역 유림사회의 각성과 단합을 촉구하였다.

송담서원은 박원동 가문과 특히 인연이 깊은 서원이었다. 10세조 박진해의 주도로 사액을 받았으며, 1871년 훼손된 후 1905년 아버지 풍은 박증혁의 발의에 의해 묘우를 중건하고 ‘송담재’라는 편액을 걸었다. 박원동은 1938년 66세 때 송담서원 관리인에 임명되었으며 1947년 사임할 때까지 10년 동안 송담서원의 관리를 맡았다. 1942년 다례(茶禮) 의식을 개정하였는데, 진설도(陳設圖)와 홀기(笏記)를 개정하고 그 사실을 홀기첩(笏記帖) 말미에 기록하였다. 이는 1933년 유천회암영당의 유사를 맡아 다례 홀기를 개정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원동은 1944~1945년에 송담서원의 비각 건립을 주도하였는데, 『시호거사일기』에 수금 및 공사의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히 1944년 7월 비각 건립과 관련된 각 면의 수금이 경찰서의 명령에 의해 중지되었다가 1945년 해방 이후에 다시 추진되는 과정은 특기할 만하였다.

③ 1932~1933년 사이에 있었던 강릉고적보존회 활동과 『증수 임영지』·『강릉향교실기』의 편찬 및 간행을 살펴보았다. 강릉고적보존회의 주요 업적인 흥학비 개수와 『증수 임영지』 편찬이 이 단체가 1932년 설립된 이후에야 기획된 사업은 아니었다.



흥학비 개수가 발의된 것은 1931년 여름이었으며, 『임영지』 속수 작업은 이미 1926년 강릉 유림의 자발적 발의에 의해 진행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1933년 흥학비가 개수되고 『증수 임영지』가 간행된 데에는 군수 다키자와 마코토[瀧澤誠]가 주도한 강릉고적보존회의 조직과 지원이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일제강점기의 각종 신문기사와 『시호거사일기』 등을 통해, 1932년 강릉고적보존회가 일본인 군수 다키자와 마코토에 의해 발의되어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강릉고적보존회는 사무실을 군청에 두는 등 군수가 주도하고 지역의 유림이 참여하는 형태였다. 설립의 과정에서 김윤경과 박기동의 재정적 지원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김윤경은 간재 전우의 문생으로 박원동과 함께 강회계를 조직했던 인물이며, 박기동은 박원동과 같은 집안으로 증추원 참의를 지내며 박원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했던 인물이다. 1933년 1월에 박원동은 강릉고적보존회의 협찬위원에 위촉되었으며, 박원동이 김병환과 함께 편찬한 『증수 임영지』와 『강릉향교실기』는 이해 강릉고적보존회 사업의 일환으로 간행되었다.

강릉향교에는 우복 정경세가 강릉부사 시절 세운 흥학비가 있었는데 마멸이 심하여 1933년 개수를 하였다. 1931년에 8월에 흥학비 개수와 관련된 지역 유림의 발의가 있었다. 박원동은 이를 군수에게 진정하여 허락과 함께 지원을 받아내었으며, 마멸된 글자는 박원동이 문헌에 의거하여 보충하기도 하였다.

『임영지』 속수(續修)와 관련하여 『시호거사일기』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임영지』 속수 작업은 1926년에 이미 활판소 정호태(鄭鎬泰)와 김진태(金振泰)의 발의에 의해, 편집인 박원동을 중심으로 편집·교정·고문 등의 임원진이 구성되어 상당한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때 대략적인 「범례」가 작성되고 각 면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원고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하남재와 오봉서원 관련 기사(記事)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 유림사회에서 소론과 노론 사이의 갈등이 재현되면서 결국 편찬 작업이 완료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32년에 군수의 주도로 『임영지』 속수가 재추진되었다. 박원동은 5월에

편찬 위원에 위촉되어 김병환과 함께 편찬 및 간행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때도 지역 유림 간의 갈등과 선조의 사적을 기재해 달라는 요청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군수가 주도하며 관찬(官撰)을 추진한 까닭에 간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시호거사일기』에는 1932~1933년 『임영지』 속수 작업과 관련된 내용이 30건 이상 나오는데, 박원동은 주로 군청의 사무소에 나가 자료를 검토하고 원고를 작성하였다. 며칠씩 읍내에 유숙하며 교정과 검열 작업에 몰두하기도 하였다. 과거 강릉부 관할이었던 영서 6개 면의 『임영지』 편입 여부, 하남재와 오봉서원 기사 작성 문제 등 논란이 될 만한 사항이 있을 때면 군수와 상의하여 결정하였다. 선조의 사적을 『임영지』에 넣는 것을 거부당한 이가 박원동을 무고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군수와 군청의 담당 직원이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박원동을 옹호하기도 하였다. 『임영지』의 편집 원고의 검열, ‘인물’ 조에 넣을 인원의 선정 등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면, 군수 주도로 향교에서 임원회의나 관련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강릉향교실기』는 고려 충렬왕 계축년(1313)부터의 강릉향교 연혁과 관련 기문(記文)을 모아 엮은 것이다. 이 책은 편찬 과정에서 『증수 임영지』와 같은 논란 사항은 거의 없었으나, 『증수 임영지』와 마찬가지로 관찬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강릉향교실기』를 내용을 보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곳이 발견된다. 「연혁」에 1905년까지는 도유사·장의·유사 등 향교 임원 명단을 기록했는데, 1905년에 임명된 마지막 도유사인 ‘정중시(鄭中時)’ 이후로는 도유사 대신 강릉군수의 이름이 적혀있다. 향교의 책임자가 향교의 임원이 아니라 군수임을 명기한 것으로 간행 당시의 군수였던 ‘다키자와 마코토[瀧澤誠]’의 이름도 들어 있다. 부록한 「동양 존성록(東洋尊聖錄)」에는 한나라가 유학을 국교로 정하고 공자를 제사지낸 이래 중국·한국을 비롯하여 일본의 석전의 연혁이 시대 순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동양(東洋)’이란 제목을 붙였듯이, 종래 중국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사적도 6군데 기술되어 있었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과 일본인 군수가 주도한 관찬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④ 대외 활동으로 송자대전 중간과 간재사고 간행 사업에서 박원동의 역할을 살펴 보았다. 이 두 사업은 단순히 대외 활동으로만 볼 수 없는데, 강릉 유림이 상당수 참여하여 강릉 내에서 관련 논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등 강릉 유림사회의 중요한 사업이었다. 특히 우암 송시열은 송담서원과 인연이 있었으며 오봉서원에 배향된 인물로서, 송자대전 중간 사업은 노론이 주류인 강릉 유림에게는 내적인 일이기도 하였다.

송자대전 중간 사업은 충청 지역의 유림이 주축이 되어 전국 2천여 명의 유림이 참여한 대규모 사업이었다. 박원동은 1925년 10월 송자대전중간소에서 강릉군 유사로 위촉되었다. 또한 1932년 5월에는 송자대전복판동지록 강원도총무에 위촉되어 『존위안(尊衛案)』의 편찬 및 간행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시호거사문집』과 『시호척독』에는 송자대전 중간 작업과 관련하여 박원동이 작성한 통문이나 간행소 담당자에게 보낸 편지가 다수 수록되어 있었다. 또한 『시호거사일기』의 1926~1927년 일기에도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들 자료를 참고하여 박원동을 비롯한 강릉 유림이 송자대전 중간 작업에 관여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송자대전』 중간과 관련하여 강릉 유림이 맡았던 주요한 역할은 원고의 교정과 간행 비용의 지원이다. 그런데 1925년 11월 도유사·찬성장·찬성원 등의 임원 구성과 찬조원의 확대 등의 문제를 놓고 강릉 유림 내부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 운정(雲亭)의 심씨 가문이 회산(淮山)의 심씨 가문에서 임원이 2명이나 나온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강릉에 명망 있는 집안이 많으므로 찬조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유림 회의를 열어 갈등을 조정하였다. 임원을 맡아 사업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이들은 동지원으로, 간행 비용을 찬조한 이는 찬조원으로 구별이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강릉에서 동지원은 10명이었으며 찬조원은 21명이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초간본 『송자대전』에 수록된 글의 수정을 요청한 것이었다. 간재(良齋) 최연(崔演)의 사손이 『송자대전』 초간본에 수록되어 있는 향호(香湖) 최운우(崔雲遇) 묘갈명의 일부 구절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였다. 논란이 된 구절은

최운우의 중부인 최연이 을사간흉과 한 무리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최연의 사손이 박원동에게 찾아와 해당 사항을 부탁하였고, 박원동은 강릉 유림 연명으로 송자대던 중간소에 편지를 보내 정식으로 삭제를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간본 『송자대전』은 삭제나 수정 없이 초간본대로 간행이 되었다.

박원동은 간재 전우의 만년 제자로서 간재의 문집 간행 사업에도 관여를 하였다. 그런데 간재 문인들 사이에 파가 갈려서 1925년 진주에 간재사고 인소가, 1926년에는 논산에 간재문집 간소가 별도로 설치되었다. 결국 진주에서는 1926년 『간재사고(艮齋私稿)』를 연활자(鉛活字)로 간행을 하였고, 논산에서는 1927년경에 『간재선생문집(艮齋先生文集)』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박원동은 진주의 간재사고인소로부터 1925년 10월 통청군·회양군·강릉군 유사에 임명되었고, 이듬해인 1926년 2월에는 논산의 간재문집간소로부터 강릉군 유사에 임명되었다. 강릉에는 박원동을 비롯하여 김연목, 최대수, 김윤경 등 간재의 문인이 8명 있었다. 이들 중에 김연목과 최대수는 진주 간재사고인소의 강원도 유사를 맡았고, 김윤경은 진주 간재사고인소에 거금을 지원하였다. 간재사고인소가 먼저 설치가 되기도 하였거니와 관련 인사들이 강릉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의 유림을 설득한 까닭에, 강릉의 간재 문인들은 대부분 간재사고의 간행에 깊이 관여하였다. 다만 논산의 간재문집간소에는 간행 비용을 찬조하는 등으로 협조를 하였다.

김연목이 진주의 간재사고를 오가며 주요 업무를 전담하였는데, 박원동은 관련 사항이 있으면 김연목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였다. 간재의 문집 간행이 두 곳에서 각각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에 별도로 사고절요(私稿節要)와 척독인소(尺牘印所)까지 설치되었다. 서울에서도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오자, 박원동은 난감해 하며 김연목에게 편지를 보내 대처 방법을 문의하기도 하였다.

⑤ 일제강점기 관변 유교단체인 강릉 유도천명회(儒道闡明會)와 관동명덕회(關東明德會) 강릉지부의 활동 관여한 사실을 살펴보았다. 1920년대 중앙의 대동사문회(大東斯文會), 유도연합회(儒道聯合會) 등을 비롯하여 각 지역별로 많은 유교단체가

창립되었다. 강원도에서도 1921년 유도천명회가 창립되고 이듬해인 1922년 강릉지회가 설립되었다. 강릉 유도천명회 발기회는 군수 이택규의 배석 하에 임원을 선출하였는데 박원동은 조규대·최대수·심상조 등과 함께 평의원을 맡았다. 같은 집안의 종제 박기동은 이때 총무에 임명되었으며 1924년에는 초대 회장 최동길을 이어 회장에 올랐다.

관동명덕회는 유도천명회를 대체하는 유교단체로 1930년에 창립되었는데, 강릉 출신의 이근우와 박기동이 평의원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근우는 부회장에 피선되었다. 『시호거사일기』를 통해 관동명덕회 강릉지회의 설립과 활동, 박원동이 이에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1932년 관동명덕회 강릉지회가 군수 다키자와 마코토의 주도 하에 설립되었으며 이때 박원동은 찬의(贊議)에 임명되어 회원 모집을 담당하였다. 또한 1936년에는 관동명덕회의 평의원에 올랐는데 각 면에서의 회원의 모집, 경로례(敬老禮)를 위한 여든 이상의 고령자 조사 및 보고, 각종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관동명덕회 업무 지시나 회의는 주로 군청과 향교에서 이루어졌는데, 지회장은 각 군의 군수가 맡았고 향교의 직원은 유림을 동원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를 통해 이 단체가 철저히 군수와 향교의 직원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에 향교와 4대 원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강릉 유림사회의 조직이 관동명덕회 중심으로 재편된 것이다. 관동명덕회 주최로 강연회가 빈번하게 개최되었으며, 유교정신 진작의 미명 하에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강릉지회는 관동명덕회 본부의 지시에 따라 1935년 강릉향교에서 강릉을 비롯한 울진·삼척·정선·양성·고성 6개 군 유림간담회를 주최하였는데, 이때 주요 논제가 ‘심전개발청년지도(心田開發靑年指導)’이었다. 또한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국방금을 수집하는 일에 관동명덕회의 조직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관동명덕회 강릉지회는 1941년에 일제의 침략 전쟁을 찬양한 『명덕사조』를 양력 6월에 출간하였다. 한시 모집 광고를 <매일신문> 1월 신문에 게재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박원동은 박증영·김윤경·김병환·정석화 등과 함께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 박

증영은 박원종의 삼종숙으로 당시 향교의 직원이었으며, 박원동은 송담서원 관리인을 맡고 있었다. 『시호거사일기』를 보면, 1940년 12월 29일(양력)에 열린 시국인식협의 관련 유림대표회의에서 군수 이현재(李玄載)가 이 시집을 편찬하자고 발의하였다. 1941년 1월부터 모집된 한시를 박원동을 비롯하여 김병환, 향교 직원 박증영, 교화 주사 권영기 등이 검토를 하였고, 최종적인 선별은 박원동이 담당을 하였다. 아울러 군수의 지시에 따라 서문인 「변제(弁題)」 역시 박원동이 작성을 하였다. 다만 박원동은 성명을 함부로 고쳐서 본향을 알 수 없게 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곧 작자 이름을 창씨명으로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결국 창씨명 아래에 본명을 주석 형태로 병기하는 것으로 절충이 되었다.

강릉 유도천명회와 관동명덕회의 인사와 재정, 주요 활동 등이 군수의 관할 하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들 단체의 활동은 유림사회 내부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강릉의 유림은 향교를 비롯한 4대 원우의 운영에 있어서 군수의 관할 하에 있는 군청과 관변단체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다. 일제 말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명덕사조』를 발간한 것은 유림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권력에 지나치게 의존한 부작용이었던 것이다.

## 2. 전망과 과제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시호 박원동의 생애를 상세히 정리하고, 강릉 유교문화 유산의 정리 및 재건 활동을 탐색한 것이다. 이는 향후 박원동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는 데에 기초적인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박원동을 비롯한 강릉 유림의 주요 인물과 활동 양상을 연구하거나 강릉 유림이 경기·호서 지역의 유림과 교류한 양상을 연구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시호거사일기』는 일제강점기 강릉의 사회상, 산업과 교통, 교육과 출판 등을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날 강릉은 유교문화의 전통이 어느 지역보다 강하다. 단적으로 강릉향교 대성전은 전국의 향교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건물 중 하나이며 보물 214호로 지정되어 있다. 봉안 신위는 성균관보다 많은 전국 최대 규모이다.<sup>496)</sup> 또한 강릉향교는 2014년 문화재청이 <생생문화재-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자체적으로 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왔다.<sup>497)</sup>

1984년 향교의 명륜당에 ‘명륜교육원’을 개설하여 『명심보감(明心寶鑑)』 강의와 예절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2001년에는 죽헌동에 건물을 신축하고 ‘강릉향교 충효교육원’으로 확대하였다. 충효교육원에서는 예지반·중용반·논어반·맹자반·삼경반·서예반 등을 운영하며 시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5년에는 ‘강릉향교 예절원’을 설립하여 청소년 인성 교육, 강릉보호관찰소 청소년 인성교육, 다문화 가족 예절교육 및 이름 짓기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오늘날 유교문화 유산의 상징인 향교와 서원의 존재를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전통문화 유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늘날 유교문화의 존재 이유를 강변해서는

496) 『향교석전: 강릉향교·인천향교』,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112면.

497) 『강릉향교칠백년사지』, 강릉향교, 2013, 266~273면.



안 된다. 향교와 서원은 사찰·교회·성당처럼 성직자가 상주하며 교리를 수양하고, 주기적으로 신자들이 모여 종교 의식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시민 사회에서 향교와 서원은 왜 존속해야 하며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반문해 보아야 한다.

지역별로 향교와 유도회의 임원을 두고 있으나, 이들은 조선시대는 물론 일제강점기 유림과는 다르다. 오늘날 향교와 유도회의 임원들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일상 생활에서 실천한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유교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책무를 전가할 수는 없다. 유교 사상에 관한 학문적 탐구와 교육은 중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학 연구와 이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은 지역의 대학과 문화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에서 유교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할 책무는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지자체-문화원-향교 및 유도회 임원-대학 연구자’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유교문화의 계승 사업을 자임하거나 혹은 요청받은 인사들부터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박원동의 생애와 활동은 오늘날 지역사회에서 유교문화를 연구하고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일제강점기에 강릉 유교문화 유산을 정리하고 재건한 다양한 활동은 오롯이 박원동 한 사람의 업적이 아니다. 박원동이 주도한 사업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업적은 강릉 유림 전체가 참여하여 함께 이룩한 것이었다. 유림사회가 내부적으로 서로 갈등하는 가운데 상호 이해와 조정의 과정을 거쳤으며, 때론 강릉 이외 지역의 유림과 협력하며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때 박원동은 철저하게 실사구시의 정신에 입각하여 역사를 서술하고 대응을 하였다. 지역 이해 당사자들 간의 상호 협력과 조정의 과정, 실사구시의 태도 등은 오늘날 지역 문화를 연구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강릉 유림사회는 군청이나 관변단체와 긴장 관계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관청의 지원을 받아내는 한편 관청의 요구에 일정정도 협조하였다. 군청에서 향교 재산을 관리하였는데, 4대 원우의 제향이나 흥학비 개수 등에 향교 재산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다. 『증수 임영지』와 『강릉향교실기』는 군청에서 주도하고 지원하지 않았다고 편찬과 간행이 완수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1940년대 일제의 총동원체제에서 유교정신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것은 반성이 필요하다. 이 역시 박원동 혼자가 아닌 강릉 유림사회가 함께 책임을 통감해야 할 부분이다. 권력에의 의존과 그로 인한 통제가 높아질수록 유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지역 사회와의 소통도 멀어지게 된다. 오늘날에도 연구자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지자체도 자율적인 연구와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 참고문헌

### • 자료

- 朴元東, 『詩湖文集』, 춘천: 강원출판사, 1993.
- 朴元東, 『詩湖居士日記』(필사본 5책), 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 소장.
- 朴元東 編, 『江陵鄉賢行錄: 并江陵鄉賢祠沿革』, 江陵: 江陵鄉賢祠, 1931.
- 朴元東 編, 『五峯書院實記』(필사본 1책), 오죽헌시립박물관 소장.
- 朴元東·金秉煥 編, 『江陵鄉校實記』, 강릉고적보존회, 1933.
- 朴元東·金秉煥 編, 『增修臨瀛誌(全)』, 강릉고적보존회, 1933.
- 『住春詩話』(석판본 1책), 鄭宗和 等著, 住春社, 1936.
- 『藥城詩稿』(구활자본 1책), 매일신보 강릉분국 발행, 개인 소장.
- 『江陵靑衿錄續錄』, 崔寅洵 等編, 京城: 江陵靑衿錄發行臨時事務所, 1930.(국립 중앙도서관 소장)
- 『五峰書院古蹟』, 崔東吉 編, 江陵: 三山書齋, 1931.
- 『尊衛案』(목판본 3권2책), 茂朱: 四柳亭, 昭和11[1936].
- 『華陽淵源錄』(신연활자본 3권 1책), 淸州: 蓮亭, 1931.
- 金演穆, 『蒙齋私稿』(석판본 2권 1책), 1940.
- 金甯漢 著, 金潤東 編, 『及愚齋集(遺集·續集)』(신활자본, 20권 15책), 1969.
- 宋奎憲 著; 宋柱憲 編, 『史謂遺稿』(석판본 2권 2책), 京城: 宋桂憲家, 1942.
- 宋秉煥, 『果菴先生文集』(목판본 15권 7책), 道林精舍, 1942.
- 宋時烈, 『宋子大全』, 한국문집총간112:114, 한국고전종합DB.
- 沈一洙, 『遯湖遺稿』, 江陵: 檄祿書屋, 1961.
- 李 珥, 『栗谷全書』, 한국문집총간44, 한국고전종합DB.
- 李 紱, 『陶菴集』, 한국문집총간195, 한국고전종합DB.

田 愚, 『艮齋集』, 한국문집총간334·335, 한국고전종합DB.

鄭經世, 『愚伏集』, 한국문집총간68, 한국고전종합DB.

崔 演, 『艮齋集』, 한국문집총간32, 한국고전종합DB.

황현 저, 임형택 외 옮김, 『역주 매천야록』 상·하, 문학과지성사, 2005.

방동인·이규대 공편, 『영동지방향토사연구자료총서』 1(鄉約契),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1994.

방동인·이규대 공편, 『영동지방향토사연구자료총서』 2(書院·學校 I),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1994.

방동인·이규대 공편, 『영동지방향토사연구자료총서』 3(書院·學校2),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1994.

방동인·금석문연구회 공편, 『영동지방 금석문자료집(1)』,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1984.

방동인·금석문연구회 공편, 『영동지방 금석문자료집(2)』,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1989.

이규대·임호민 공편, 『江陵의 樓亭資料集』, 강릉문화원, 1997.

임호민 편, 『강릉사우자료집』, 강릉문화원, 1998.

임호민 편, 『江陵市 金石文 資料』,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2003.

『강릉시사』, 강릉문화원, 1996.

『강원도사』, 강원도, 1995.

『증보 강릉향교지』, 강릉향교, 2009.

『향교석전: 강릉향교·인천향교』,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강릉향교칠백년사지』, 강릉향교, 2013.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47(강원도), 한국고전종합DB.

- 『국역 강원도지』 上·下. 原文, 강원도 편, 최상익 외 역주, 강원도, 2005.
- 『臨瀛(江陵溟洲)誌』, 임영지증보발간위원회, 강릉시·명주군, 1975.
- 『국역 동호승람』, 최백순 편, 최호·임호민 역, 강릉문화원, 2001.
- 『수집사료해제집』 7(강릉 창녕조씨 소장 고문서), 국사편찬위원회, 2013.
- 『江陵朴氏世稿』, 朴元東 等編, 江陵: 江陵朴氏宗中, 隆熙 1(1907).
- 『江陵朴氏世稿』, 朴起東 編, 江陵, 1937.
- 『江陵朴氏世譜』, 朴起東 編, 江陵: 江陵朴氏大同譜所, 1937.
- 『江陵金氏世譜』, 金潤卿 編, 江陵: 江陵金氏族譜所, 1940.
- 『江陵金氏大同譜』, 강릉김씨대종회, 2005.
- 『江陵朴氏世譜』, 강릉박씨대동보편찬위원회, 회상사, 1984.
- 『昌寧曹氏江陵派譜』, 창녕조씨강릉과보편찬위원회 대전: 回想社, 1989.
- 『한국근대사기초자료』 2, 국사편찬위원회, 2010.
- 『강원도 항일독립운동사』 II, 광복회 강원도지부, 1992.
- 논저
- 강대민, 「일제하의 향교운영과 유림조직의 변화」, 『한국의 향교 연구』, 경성대 출판부, 1992.
- 강대민, 『한국의 향교 연구』, 경성대 출판부, 1992.
- 권오영, 『근대이행기의 유림』, 돌베개, 2012.
- 금창헌, 「강릉 화산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연구」, 『영동문화』 8,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2001.
- 김풍기, 「강릉 지역 시사(詩社) 주춘사의 한시집 <주춘시화(住春詩話)> 에 대하여」, 『강원문화연구』 34,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2015.
- 박도식, 『강릉의 12향현』, 채륜, 2018.

- 박민영, 「閔龍鎬의 江陵義兵 抗戰에 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1.
- 박준호, 「『宋子大全』 간행에 관한 연구: 『掃塵錄』과 『尊衛案』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지학보』 36, 한국서지학회, 2010.
- 성주현, 「1920년대 유림계의 내지시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103~144면.
- 성주현, 「1920년대 유림계의 동향과 활동」, 『식민지시기 종교와 민족운동』, 선인, 2013.
- 손종환, 「강릉 3·1 독립운동의 조명(Ⅱ)」, 『臨瀛文化』 17집, 강릉문화원, 1993.
- 안세현, 「조선후기 향교의 지역성-정조 연간 강릉향교의 석전제 祭需 사건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36, 한국한문고전학회, 2018, 387~415면.
- 안세현, 「한말~일제강점기 강릉향교의 변화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花山學校의 설립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38, 한국한문고전학회, 2019.
- 안세현, 「한말~일제강점기 강릉지역 유림의 활동 양상과 그 의미-지역사회에서 유교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과제-」, 『고전과 해석』 29,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9.
- 오항녕, 「尤菴 宋時烈 문집의 편찬과 간행」, 『한국사학보』 33, 고려사학회, 2008.
- 이경화, 「강릉 지역 시사의 구성과 역할」, 『강릉학보』 제2호, 강릉학회, 2008.
- 이규대, 「16세기 후반 율곡과 강릉 사림의 교류와 향촌질서 모색」, 『율곡학연구』 13, 율곡연구원, 2006.
- 이규대, 「17세기 江陵地方의 士族과 향약 조직」, 『영동문화』 3,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1988.
- 이규대, 「17세기 초반 江陵지방 栗谷鄉約의 성격」, 『율곡학연구』 27, 율곡연구원, 2013.
-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2009.

- 이충형, 「오봉서원에 관한 연구」, 『영동문화』 5, 관동대학교 영동문화연구소, 1994.
- 이청희, 「復齋 閔龍鎬의 義兵活動」, 『영동문화』 6,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1985.
- 임호민, 「17~18세기 강릉사족의 결속과 분화」,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집문당, 2003.
- 임호민, 「18세기 강릉지방 사족·관·문중간의 갈등양상」, 『인문학연구』 9, 관동대 인문학연구소, 2005.
- 임호민, 「17~19C 강릉지역 재지사족의 조화와 갈등구조」, 『지역사 자원의 교육자료 활용방안 탐색』, 서경문화사, 2009.
- 임호민, 「18~19C 강릉 鄉儒의 爭端과 향교의 역할」, 『역사민속학』 43, 한국역사민속학회, 2013.
- 임호민, 「조선시대 향촌조직 결성의 양상과 추이 고찰-강릉지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원사학』 27, 강원사학회, 2015.
- 장정룡, 「일제강점기 강릉고적보존회 역할과 고전출판」, 『강원학비전포럼자료집』, 강원발전연구원, 2006.
- 정규훈, 「일제기 한국유교개혁의 동향」, 『정신문화연구』 2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95~119면.
- 정옥재, 「일제 협력 유림의 유교인식-1910~1920년대 경학원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16, 한국사학사학회, 2007, 59~85면.
- 정옥재, 「조선유도연합회의 결성과 황도유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27~264면.
- 차장섭 외, 『선교장과 관동 사대부가의 삶』,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9.
- 차장섭, 「강릉 선교장의 형성과 발전」, 『장서각』 39,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 한길로, 「일제 말 지방 유림의 동향과 친일시의 국면-강릉 유림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60, 성균관대인문학연구원, 2016.



• 인터넷 사이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 : <http://db.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 <http://archive.history.go.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http://db.itkc.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 : <http://people.aks.ac.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강릉) : <http://gangneung.grandculture.net/>

## Abstract

## A Study on Park Wondong's Life and Social Activities

Ahn, Se-Hyun

In this book, I studied the life and activities of Park Wondong (1873–1949), a Confucian scholar the Japanese colonial era. In particular, I focused on his efforts to organize and rebuild the Confucian cultural heritage of Gangneung.

In Chapter II, I collected and arranged the literature related to Park Wondong as much as possible. In addition to "Sihomunjip" and "Sihoilgi", data such as "Jeungsu Lim Young Ji", "Gangneunghyanggyosilgi", "Obongseowonsilgi", and "punghojeongsi" were compiled. In addition, related records were collected by review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newspapers.

In Chapter III, I looked at Park Wondong's family background, chronology of his life, life and reality response patterns, and his teachers and acquaintances. Park Jin-hae, the ancestor of Park Wondong, led the establishment of Hyanghyeonsa and the incense of seven prefectures. He also played a major role in the construction of SongdamSeowon and receiving the death penalty. I reviewed Park Wondong's life year by year, referring to "Sihoyungi", and also

presented related contents in the collection of "Sihomunjip" and "Sihoilgi". Park Wondong continued his active social activities amid a sense of duty to heal the world's ills, as a Confucian scholar living in the era of internal and external troubles. Finally, Park Wondong's teachers, including Park Jeonggyu and Jeonwoo, introduced his acquaintances, Kim Yeonmok, Kim Yungyeong, Yun Yonggu, and Kim Youngha.

In Chapter IV, I comprehensively reviewed Park Wondong's activities to organize and reconstruct the Confucian cultural heritage of Gangneung.

First, I looked at Park Wondong's teaching and poetry activities as part of the solidarity and exchange of Confucianism. Park Wondong formed a Ganghoegye with Kim Yun-kyung to conduct the lecture activities.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Gangeuigye, a poetry society, was not only to write poems, but also to study the scriptures of Confucianism.

Second, I looked at Park Wondong's activities to rebuild the shrine in Gangneung and compile history about it. He served as an executive of Hyanghyeonsa, Obongseowon, Songdamseowon, and Hhoeamyeongdang, the four major shrines in Gangneung. He also compiled a compilation of "Gangneunghyanghyeonrok" and "Obongseowon Silgi" and revised the ritual ceremonies of Songdamseowon and Hhoeamyeongdang.

Third, I looked at Park Wondong's compilation of the "Jeungsu Limyoungji" and the "Gangneunghyangsilgi" as part of the activities of the Gangneung Antiquity Preservation Society. It was discovered that the work to increase "Imyeongji" was already started in 1926, but was suspended due to conflicts between Confucian scholars, but was re-promoted and praised by the county

governor in 1932. "Gangneunhyangsigi" is a compilation of articles related to the history of Gangneun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and we looked at the reflection of the situation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Fourth, I looked into the fact that Park Wondong was involved in a project to republish Songjadaejeon and the publication of the Ganjaesago. Park Wondong was appointed as a manager of Gangneunggun in 1925 at the Songjadaejeon Jungganso. He corrected the manuscript and supported the publication cost with Gangneung Yurim. In 1925, he was appointed as a manager of Tongcheonggun, Hoeyanggun, and Gangneunggun by the Gansaigo Inso and was involved in the compilation of Gansaigo.

Finally, I looked into the fact that Park Wondong was involved in the activities of Confucian organizations in the government. The Gangneung Judochunmyeonghoe was established in 1922 and Park Wondong served as a council member. The Gwandong Myeongdeokhoe Gangneung Branch was established in 1932 under the leadership of Takizawa Makoto, the Japanese governor of the county, and Park Won-dong was appointed to the co-operation committee and was in charge of recruiting members. In 1941, the Gangneung Branch of the Kwandong Myeongdeokhoe published the so-called pro-Japanese poems, "Myeongdeoksajo", Park Wondong was in charge of editing. The publication of the book was a side effect of Confucian scholars failing to establish their own identity and relying too much on power.

We can learn some lessons from Park Wondong's life and activities. First, in studying local culture, we can learn that Park Wondong has reconciled conflicts among interested parties. He maintained an empirical research attitude and

persuaded the conflict parties. Second, researchers should work closely with local governments while maintaining a tense relationship. Local governments should also help researchers conduct research and activities voluntarily.

## □ 부록 : 시호문집 목차

### 1.1. 시호거사문고 목차

제목	영인본 쪽수
題文昌契忌案後(庚子)	17
講會契條約(壬寅)	18
安邊鄉校任錄叙(代主倅金善圭 作揭板并書 在安邊時 壬寅)	22
安邊鄉任序	23
慈親晬讞叙(甲辰十二月十三日 有詩)	24
江陵崔氏譜序(代崔榮圭作)	26
送姜秀才陽雲小叙	27
東湖說(族兄璋實號)	28
溟仙門記	29
通永興宗中文(丁未)	31
世稿跋	34
松潭齋揭楣叙(己酉五月十三日)	36
門生稜序(壬子三月)	38
金泰奉有南重修家屋記(壬子)	40
族叔仁翁晬朝叙	42
題菊史金剛錄後(琴山戚叔金潛卿號菊史)	44
講契刻石記	47
和崔威燾恒壽親韻小叙	49
寶城宣氏族譜跋(代宣德均作)	50
答通永興宗中(戊午春以兵使公位土買置事宗人膺洙良健明變三人持通文來到)	53
花飛嶺神祠重建記(庚申春)	55
濟州高氏通文(辛酉夏)	57
春川東邱齋十景記(春川郡東面萬泉里朴承翼構齋于東邱有十景詩韻要和且請記文, 辛酉六月日)	59
東州崔氏世譜序(代崔熙洙)	61

제목	영인본 쪽수
題良齋先生喪紀後(甲子)	64
贈崔普煥	66
宋子大全重刊事通告于道內各郡(乙丑十一月日)	68
答益山石儀通文(全北益山郡三箕面玄洞良齋墓齋祭文與有司望帖來到 乙丑十一月日)	69
答晉州印稿通文(慶南晉州邑大安洞良齋私稿印所 江陵淮陽通川三郡有司望帖與通文來到 乙丑十一月日)	70
答大田郡宋子大全重刊所簡通(忠南大田郡外南面蘇堤里通文來到後有江陵郡有司望帖來 乙丑十月日)	71
宋子大全重刊江陵郡有司望帖答通(乙丑十一月日)	72
良齋文稿印所義金付送文(掌財金楨鎬慶南泗川郡邑西面界陽里)	73
新里齋室新建記(代三從叔作 懸板乙丑五月日云而戊辰正月五日書刻)	74
鏡浦端川公先祖墓祭告由文(四月十五日行墓祭今以三月五日改定)	76
答朴氏總譜所通文(慶南密陽郡下西面武安里萬雲齋 戊辰十一月五日)	77
題崔孝子傳後(己巳五月日)	78
贈林善明(蔚珍北面蘇谷里道洞 字復汝年二十三)	79
族兄東隱晬讞叙(四月日)	80
題村約契條約後(六月日)	82
題滄雲金潤卿南遊錄後(庚午七月之望)	83
鄉賢祠十二賢行狀編集通文	84
次李哲鎬晬詩小序(庚午十月十日)	85

제목	영인본 쪽수
答朴氏總譜所文(辛未五月廿日)	86
五峯壇所請助文	87
答華陽淵源錄刊所文(辛未五月日 大邱府鳳山町)	88
瀛州九老續會序	89
五峯書院實記跋(壬申)	91
與朴晉遠朴鳳瑀文(壬申春)	93
贈金顯球	94
答朝鮮儒教會同志文(壬申七月廿四日)	95
江陵鄉校通文(京城全炳基有善行與直員曹圭常及諸儒聯名)	96
答載寧鄉校文(載寧文廟直員李濟朋與講士掌儀士林聯名有敬告文 癸酉十月日答文)	97
題鄉賢祠祝式及陳設圖後(癸酉秋有司朴元東謹書)	98
江陵鄉賢行錄凡例(辛未)	99
臨瀛誌凡例(壬申)	100
江陵鄉校實記凡例(壬申)	101
瀛州九老續會凡例(癸酉)	102
楡川影堂茶禮笏記改書辨(甲戌三月上澣)	103
九老臺記(甲戌五月日)	105
鼎新齋遺事序(代三陟郡未老面下鼎里金顯球作 甲戌秋)	106
答靈光鄉校通文(十二月日)	107
答忠南舒川鄉校文(十二月日)	108
答忠南青陽郡遺衣閣文(朴薇淳竹山人號巽窓其八世祖參判信龍號澤叟 十二月日)	109
答舒川鄉校文	110
經學院報告(大提學鄭萬朝 乙亥二月日)	111
講義契詩稿序(甲戌)	113
雲樵公墓表(乙亥)	114
滄可墓表(乙亥)	115

제목	영인본 쪽수
江陵三賢祠實記跋(乙亥五月日)	116
經學院報告(乙亥六月日)	117
答固城鄉校文(乙亥六月日)	119
答知禮鄉校文(乙亥六月日)	120
譜所通文(乙亥六月日)	120
答鴻山文廟文	121
洛雲齋序(乙亥十二月日)	122
校制修備記(明倫堂揭板)	123
世譜跋	125
答南澗精舍文(丙子八月廿七日 九月日 丁丑行二回秋享也)	128
贈司僕寺正朴公墓表(十二月日)	128
贈參贊朴公墓碣銘(并序)	130
雙白堂記	132
世稿跋	133
辛明善德元字辭(并小序)	135
敬窩遺稿附于愚峯遺稿序	136
洛雲齋遺錄刊行序(戊寅五月日)	137
章光契序(代光弟作 癸酉創契越四年丁丑孟冬上澣)	138
慕遠齋記(珍島郡 己卯三月日)	139
朴惺軒碎詩小序(名淵祚居軍威郡. 己卯三月日. 代人作)	141
安城李氏世譜跋(己卯 代左司郎中後孫相燾作)	142
鼎村公遺事	143
鏡陽祠位土事通函于同貫諸族	146
通告于寧海派各郡居族	147
鏡陽祠記	148
五峯儒金錄序	150
東西庵重修記(代作 庚辰夏)	152
鏡浦齋廳重建記	153
金蘭亭種花木記	155



제목	영인본 쪽수
答通淸州儒林	157
滄巖齋記(鄭鍾和號)	158
金濟卿回香序(號夢川 有詩)	159
次飾喜詩小序(金振甲爲祝登禮飾喜)	161
鄉賢祠重修儒金錄序(壬午)	161
題松潭書院茶禮笏記後	163
星史齋記	163
松潭書院發起文	165
贈權重溫	166
栗溪記	167
朴公大澈墓表	169
朴公南肇墓表	171
霽月樓移建記	172
松潭廟庭碑閣儒金錄序	174
峴南堂記	176
送郭晚江南歸序	179
朴公文赫墓表	180
祭隣友李鍾泰(字應麟)文(丁酉十二月日)	183
祭辛參奉泰然(號小下)文(乙巳)	186
哭四從弟台東文	190
祭伯氏文(代崔永鐵 戊午七月三日)	191
祭詩山先生文(門生禊中)	195
良齋先生告墓文	198
祭先姊文(代崔鍾淑)	199
祭三從叔德峯公文(丁卯十月十一日)	202
祭德峯先生文(代門生契)	205
祭聘祖金公文(代辛明善)	207
祭金蒙齋文(演穆)	209
祭沈慕河文(基洙 代章光契)	211
祭亡弟光東文	212
祭青存沈相祚(金蘭契 庚辰三月四日)	216
祭海隱曹鐸承(講義契 辛巳二月)	217

제목	영인본 쪽수
祭荷汀李東祚文(住春詩社 辛巳五月日)	219
祭晦養崔大洙誄文(甲申七月日)	220
祭雙白金億卿(講義契 甲申八月)	221
上樑文(己酉 代隣友崔燉吉作)	223
祈雨祭文(丁巳三月十四日 雨至五月不雨 祈雨于烽島 十五日雨 又不雨 六月二十二日又祈雨于烽島 翌日雨)	225
花飛嶺神祠重建後祭文(庚申春)	226
深谷山神祠告由文(辛酉七月 面事務所改建時)	226
元舍重建上樑文(戊辰三月庚寅朔十一日 庚子某敢昭告于成造之神)	227
下詩洞書塾上樑文(丙子三月十三日)	229
栗谷先生記念祭祝文	231
章光契亭開基告由文(代光弟作)	232
章光契亭上樑文(丁丑八月八日)	232
忠烈先祖廟宇開基告由文(己卯正月十一日)	234
上樑文(正月二十一日)	234
鏡陽祠奉安告由文	237
松潭書院廟庭碑閣上樑文	237
楓湖亭開基告由文(丙戌七月十六日)	239
楓湖亭上樑文(丙戌七月二十八日 庚午)	239
次兒分家上樑文	241
與曹秉模書(癸丑十月日)	243
公羊穀梁春秋	244
抄出於文選總目	245
嵇叔夜養生論	247
謝惠連祭古豕文	251

## 1.2. 시호만음 목차

제목	영인본 쪽수
金星坡(振鴻)李菊隱(時應)夜到(三首 壬戌正月日)	255
書塾(時先生金星坡)	256
五山軒(三陟藪谷鄭疇鎔号 取五述山先壟下舊居之義 有韻請和)	256
翠圃(三陟藪谷張仁植先祖有圃蔭而今因繞圃松竹以翠爲號遺孫示韻求和)	256
金光李鍾斌晬宴見請和韻	257
繼和李定濟壽親詩	257
修講契于新里金燦卿庄	258
蟹(李毅齋示韻曰襄陽諸友之所拈試和云故戲構)	258
楊平辛養默丹陽辛在德與道洞社友遊溟仙門	258
英陽吳錫燾俗隱吳濟承廣盧奉化李濟相靑社入金剛歷訪	259
贈李(容儀)醉叟(居昌郡人 自北方暫留本邑來訪)	260
圍棋	260
潦水後(七絕五首)	260
吳俗隱廣盧金剛回路再訪贈別	261
牧牛戲吟	261
林中涼棚	261
與社友作喫麵會(辛鼎默家始會)	262
會東隱族兄柿陰	262
辛起默庄	262
金大起庄	263
觀海(會金振澈家)	263
述懷(霖雨乍晴會居士家)	263
辛晉默庄	263
留宿	264
辛在卿林亭	264

제목	영인본 쪽수
宣德均松亭	264
金漢卿庄	265
壬戌秋七月既望泛舟遊羣仙江	265
辛光必氏林亭	265
林亭三會(辛恒默會)	266
東湖族兄庄	266
庭梧(辛益默會)	266
金東振庄(酉谷仲秋)	266
算術(辛橘南宅宅)	267
酒煎鑪(族定實庄)	267
代八十一翁輓曹副正大澳(癸亥正月丁難後三年慶吟)	267
鄉校重修韻(代人作)	268
夫雲池(代作)	268
次崔燦鼎慈堂晬韻(崔燦鼎 平昌大和面長, 而晬辰則四月六日也 有請函而兼示元韻 故和送焉)	269
與金滄雲(潤卿)沈愚堂(相德)同發湖南留雨宿釜洞(三年慶詩後始吟 乙丑閏四月)	269
宿珍富(權叔達達同宿)	270
宿大和(將向安味舍弟家 寧越朴景來迈中請詩 構應而爲金東振被挽宿)	270
旅舍主李君号和翁有韻要和故立吟(以京城人 老於大和 故稱和翁)	270
安味里道中	271
發船崖(完島麟從所居)	271
拜峙(昔史庫曝曬使拜迎處 南有舟津)	271
龍山亭(舟津南有石窟導水)	271
宿寧越恭基咸基亨家(咸達周同吟)	272
信宿	272
莊陵(辛坐乙向 在邑北數里)	272
靈泉(有碑 右陵下祭閣前 無論旱潦 祭	273

제목	영인본 쪽수
享時 出泉云)	
禁夢菴(在陵洞東谷 端廟在位時夢見)	273
拜鵑亭(今拱北亭 在陵洞次板上韻 朴基正知郡創立)	273
子規樓(在邑中)	273
清泠浦(在六峯前 邑西有碑閣 又有禁界碑忠烈壇)	273
彰節祠(在邑北 十先生奉安 死六臣及生六臣中二位廢 忠臣朴思貞合十位)	274
錦江亭(在邑東 洛花巖宮女投水處 泰華山有戰場城壘)	274
隄川松鶴面過吟(將往義林池)	274
映湖亭(在茅山義林池堤 作亭其山下 李君 池生蓴菜)	274
別愚堂還鄉(與滄雲乘自働車向陰城)	275
別吳哀石農(陰城大所面講堂)	275
東一亭(在安城邑東 一云鳳儀軒 西有鳳凰山)	275
謁光師廟(新寓新都內儒林洞)	275
新都(古昔我朝觀移都 有伐礎石地 有四大門 名山有三佛峯秘訣 有石白之說 而山水果太極圖形也)	276
豆溪族舍(五月四日自益山回路)	276
動植物苑(與滄雲同上京城 買入場票 有李王職動植物焉)	276
楊平希菴宋斌憲原州愚堂孫炳龜茅山雨蕉崔鍾吉來訪留雨(雨七日乃止)	277
三友將往道洞 要余同行 過訪鎬均 滯雨夜吟	277
翌日余在家 友蕉帶雨告別 希菴又來叩	278
苦雨(希菴對吟)	278
榴花(希菴同吟)	279
芭蕉(希菴同賦)	279
道洞錦雲庄	279
雨中辭別錦雲	279
曉鍾	280

제목	영인본 쪽수
浦野沈苗	280
輓申石族晉東光君	280
代輓	281
開詩社于東隱庄 宋斌憲自南郡復到(自此午茶後每日相會)	281
贈宋希菴	282
詩社韻夜吟	282
往詩社	282
早秋露景	283
詩社吟	283
示甲兒	283
稻花	284
秋涼	284
古石(華陽洞詩社韻)	284
秋扇(蔚山詩社韻)	284
雨柳(慶山詩社韻)	285
無題	285
驅雀	286
卽事	286
渙翁	286
述懷	287
牧牛	287
大風雨後	287
新作路	288
敘懷	288
白露窺魚	288
有感	288
穉松	289
藥泉	289
卽題	289
代草	290
謾吟	290
秋山	290
偶書	291

제목	영인본 쪽수
樵歌	291
金蒙齋(演穆)書庄 與崔晦養(大洙)族叔 小山(曾魯)同宿	291
輓申姨叔	291
輓筱石金查丈演鐸(七絕六首)	292
輓族孫縞均(七言長篇)	293
輓菊史金威叔潛卿(五言長篇百句 用陌 字韻)	294
次沈參奉相祚(號青存)晬韻	298
復用前韻賀沈東燾壽祝	299
和辛蓬臯(益默)晬朝詩(丙寅)	299
次崔篁坡(命翼)晬韻(丁卯二月一日)	299
金蘭亭板上詩(代金有南)	300
霽月樓次板上韻(代金永來次其家君韻)	300
奉和京城大東詩壇長崔永年滿七生朝春 飲歌(號梅下山人)	300
次李參奉(春埴)晬韻(丁卯三月十日)	301
次金耕巖(振泰)晬韻(丁卯二月日)	301
謹次三從叔德峯門長崇拜韻(四月廿五日)	301
族兄東湖晬慶(四月廿六日)	301
禮安李鎬弼號敬菴示臚章韻要和故聊副 其意	302
次鄭監察(龍和號荀堂)晬讌詩(五月日)	302
次鄭進士(宗和號韶堂)丹邱卜居詩	302
次紫極宮韻贊賀宋子大全重刊	303
代姜軾永作	303
輓崔文熙洙	304
除夕和晚松宗人(公州居咸陽宗人章漢 來訪過歲)	304
和晚松贈別	304
和麟東從弟	304
滄石亭修講會禊次板上韻(戊辰六月四日)	304
次金梅谷(東秀)晬韻(二月日)	305
次金湖堂(漢卿)晬詩(八月廿日)	305
次崔孝子傳韻(并序)	305

제목	영인본 쪽수
追次崔進士燾性(號菊圃)晬韻(丁卯十一 月一)	306
次襄陽李及第夔在(號黃崑)晬詩	306
輓族叔閒閒堂(己巳二月日)	306
又(代三叔父)	307
次金滄雲潤卿晬韻	307
次金振楷飾喜韻	307
次金一起春堂晬韻(三月十六日)	307
萬雲齋(密陽郡密城大君景德壇萬雲齋 有示韻故和之)	308
東隱己巳甲契往飲(四月三日)	308
贈洪大麟移居陟州	308
芝蘭契共吟	309
鏡湖亭己巳契會次北園壽會帖韻	309
晦養齋講契(莘里橋頃里)	309
東隱晬朝(并序 四月八日)	309
辛晚悟庄會飲	310
長谷會飲	310
最勝臺(平壤牡丹臺詩社)	310
鏡浦臺(五星詩社押東)	311
又戲吟絕句	311
與金石江益洙共吟(金泉郡人來訪留雨)	312
郡城與石江夜吟	312
與石江夜吟(十餘日後, 又遇于郡城)	312
輓金丈鍾奎(庚午正月十二日)	313
輓金通政台演(三月十四日)	313
李毅堂講契(香湖)	314
許李臺(昨年秋講契員遊安仁共吟 今年 契會時追錄于契中吟詠錄)	314
溟仙門	314
羣仙江	314
楓湖	315
菴荳亭	315
寒松寺遺墟	315

제목	영인본 쪽수
姜達周藥局達詩社友	315
贈安竹儂(京城安淳煥號竹儂)	315
次辛枕湓(在卿)晬韻(庚午二月廿九日)	316
次金大起慈堂晬朝飾喜韻(三月二日)	316
次族兄奇實晬韻(丙寅生 丁卯十一月二日追宴)	316
次族侄容德飾喜韻	317
金蘭亭修契回路參聚瀛亭契	317
李參議鏡農自京歸與諸友往訪放海亭	317
靑龍巖(金有南家靑龍巖)	317
降仙臺	318
東隱庄甲契	318
住春詩社(第一會于魯澗金蒼西庄)	318
輓沈議官鎮珩	319
住春詩社(第二會于雲谷鄭梧月庄)	319
住春社(第三會于南嶺崔東隱庄)	319
住春社(第四會于淮山沈靑存庄)	320
滯雨又吟	320
住春社(第五會于魯澗李荷汀庄)	320
住春社(第六會于鶴山鄭韶堂庄)	320
住春社(第七會于魯澗金耕巖庄)	321
住春社(第八會于尋福鄭松蹊庄)	321
住春社(第九會于余贊鄭南崗庄)	321
住春社(第十會于華堂鄭晚湖庄)	322
住春社(第十一會于雲谷崔菊圃庄)	322
次崔東隱昆季滿七望七韻	322
住春社(第十二會于梨雪金滄雲庄)	323
住春社(第十三會于淮山沈相山庄)	323
住春社(第十四會于魯澗金義堂庄)	323
住春社(第十五會于茅山南竹西庄)	323
住春社(第十六會 金悠山崔雲南權海石金石滄四人并役于五星亭)	324
住春社(第十七會于余家)	324
住春社(第十八會于淮山沈愚堂庄)	324

제목	영인본 쪽수
住春社(第十九會于淮山沈相山庄)	325
住春社(第二十回于剡石靑霞隱庄)	325
城市夜吟	325
輓宣慕隱(德均)	326
次毅堂李訓導(哲鎬)晬韻并序	326
用毅堂韻賀晦養崔大洙晬朝	326
次夢川金濟卿晬詩	327
次茅山崔鎮泰晬親韻	327
次尹承旨斗炳晬韻并小序(號汶川)	327
住春社(第十一回于淮山沈立菴庄 自此秋停會後 辛未三月一日續會)	328
住春社(第十二回于辛晚悟庄)	328
住春社(第十三回于靑良李菊隱庄)	328
住春社(第十四回于河南權河隱庄)	329
金蘭亭契飲(五月十五日)	329
住春社(第十五回于茅山金春谷庄)	329
住春社(第十六回于雲谷崔東堤庄)	329
住春社(第十七回于靑良崔雲相庄)	330
住春社(第十八回于五星亭崔石村行會)	330
七月既望住春社泛舟于鏡湖	330
住春社(第十九回于池邊權悔醒庄)	331
次寧越辛在英廬墓關制詩	331
住春社會于邑南川蓮花亭	331
住春社(第三十回于蘆洞金月溪庄)	332
輓宣(夏均)	332
農桑園(壬申)	332
追次權寧機春親詩	333
次南桂詩	333
輓朴通政	334
代咸興府李振伯咸州郡李性一輓朴通政(錦幅聯名)	334
住春社(會于五星亭 壬申四月日)	335
松京懷古(用崔惺石滿月臺韻)	335
住春詩社(會于蓮花亭 五月九日)	335

제목	영인본 쪽수
講會契(會于余家)	335
住春社(會于明倫堂 六月十五日)	336
次鼎新齋遺墟閣韻(有序 三陟郡未老面 下鼎里)	336
住春社(會于魯澗峯 七月既望日)	336
住春社(會于玉街葆眞堂 八月十一日)	337
放海亭共吟	337
輓金漢卿	337
仲冬追設黃菊會于金蘭亭	338
輓沈議官(元漢)	338
輓辛楨默	338
輓鄭主事鳳和號雲谷(癸酉二月日)	339
族弟定實同寅契夜吟(戊寅生 十八人修 契事)	339
忠城君畫像贊詩	339
雲林堂(堂在光州瑞名山下崔錫休之所 構也 鄉士結詩社有韻要和 故并付答書)	340
輓南主事有榮	340
李菊隱追設甲會請住春詩社友	340
生朔示意(四月廿八日)	340
希菴宋斌憲剛菴宋勉憲剛窩尹虎赫來訪 共吟	341
與金東江(霽漢)朴雲濱(起東)沈蒼農(東 燮)金觀井(春東)月精寺共吟	341
留雨賡吟	341
入中臺道中	342
與金東江共賦于鄭胄教庄	342
金東江諸詞友來訪(五月十八日)	342
與東江金承旨及諸鄉友鏡湖夜泛	343
勸農謠	343
住春社(會于魯澗峯 自此五人担一會)	343
代人輓	343
追次辛晚悟壽詩	344
次辛在學節喜	344
賀鄭鎬景進甲(號晚湖)	344

제목	영인본 쪽수
改築花階	345
戲木客	345
偶吟	345
乳鷺	345
險雨未赴講契	346
南菑	346
悶肯痛兒	346
霖雨始霽赴講契于德實里諸員已會飲而罷	347
滯雨信宿	347
住春社(會于淮山)	347
和金東江示韻	347
尙州趙南峻來訪共吟(號晚翠)	348
苦蚊	348
住春詩社會于聚瀛亭	349
芭蕉花	349
輓辛在喆(堂在滄石亭下)	349
住春詩社會于滄石亭	350
住春社(會于橋洞)	350
池塘觀魚	350
次樂水齋韻(慶州朴泰鎮七世祖智堂公 所築 而今後孫重建 又實紀鏗梓 示原 韻求和)	351
住春社(會于邑)	351
住春社(會于青良里)	351
次辛孝子韻(辛弼成 今辛泰集先祖吏判 寧城君允文七世孫)	351
又次辛孝子韻(辛濶辛弼成曾孫)	352
金蘭亭(揭板)	352
輓金訓導春卿	352
瀛齋權集	353
輓崔主事(文吉)	353
瀛州九老續會	354
輓金東秀(號梅谷)	354
住春詩社會于邑(甲戌二月晦 今年初會)	355

제목	영인본 쪽수
文廟始置齋田儒林移秧有韻	355
節喜詩(旌善郡, 代人作)	355
住春社(會于剡石)	356
住春社(會于淮山)	356
約冷又結詩社于里中公會堂曰楓湖詩社	356
榮州朴勝復來訪示入金剛詩	357
楓湖詩社	357
輓蒼西金議官(演采)	357
楓湖詩社	358
輓族侄容禧	359
楓湖詩社	360
九老臺(有記文)	360
楓湖詩社	361
漁村	363
住春詩社會于雲谷	364
楓湖詩社	364
慰問水災同胞	365
田家秋興(鄉校文藝會 代人作 一等入選)	365
住春詩社(會于邑)	366
住春詩社(會于邑)	366
住春詩社(會于靑良)	366
講義契(余在文廟直員 時掌議修成一契以差同任 要余同參 會于笠巖沈龍圭庄)	366
講義契(會于圖通金億卿庄)	367
講義契(會于余家)	367
平昌張在產示其伯父澗松墓表詩要和, 故步原以副	367
和百和堂韻(振威郡鄭雨興有來文)	368
和載寧郡吳孝婦詩(載寧鄉校有通文 裴亨周妻)	368
次金振覺曄韻	368
賀李永振曄朝	368
住春詩社(會于邑)	369
講義契(會于木界曹圭鳳庄)	369

제목	영인본 쪽수
參章光契于道洞辛恭默庄(庚辰辛巳兩甲契, 光弟爲契首)	369
講會契(會于竹軒權五錫庄)	370
齋田移秧	370
參章光契于茅田三石庄	370
講義契(會于獐項洞鄭鎬濟庄)	371
住春詩社(會于邑)	371
次康愚軒(世烈)倅行韻(載寧郡三江面靑龍里有鄉校通告)	371
次金孝子韻(居昌郡金東奎 有鄉校通告)	371
輓沈松山(相烈)	372
住春詩社	372
輓高炳星(慶州川北面蓀谷里朴泰鎮有書)	373
住春詩社(會于邑北門 七月既望)	373
老將(住春社吟)	373
住春會滯雨宿于邑錦鶴里	374
養老堂	374
電燈(住春社吟)	374
金蘭亭十月堂	375
近次駐蹕臺碑閣落成韻	375
次梅隱齋韻	375
輓金悠山(演性)	375
觀楓(住春詩社)	376
講義契(邱山權夏植庄)	376
輓崔允七(玉溪珠樹里 代光弟作)	377
參一瀛會于道洞	377
洛雲齋(三陟金顯球號)	377
講義契(丙子二月日 松林崔濟河庄)	378
講義契(三月廿七日 鶴山曹鐸承庄)	378
設譜廳(閏三月日)	378
講義契(四月十五日 曹圭常庄)	378
住春詩社	379
齋田移秧	379
住春詩社(會于保眞堂)	379



제목	영인본 쪽수
住春詩社(會于邑)	380
住春詩社	380
輓辛老大成(代光弟作)	380
輓崔直員(東吉)	381
輓沈基洙	381
住春社(會于邑 丁丑三月廿二日)	382
講義契(三月晦 上詩洞鄭然始庄)	382
住春詩社(會于邑)	382
追和李元應重甲詩(丙子十月日)	383
次崔寬集春堂回盃韻	383
輓權雲洙	383
住春社(會于邑)	384
講義契(會于邑林町)	384
次族君周鷹親堂重甲韻	384
輓沈三潢	384
住春社(會于邑)	385
住春社(會于邑 五律)	385
輓三從叔(曾墳)	385
次鄭鍾和選甲韻(旌善臨溪)	386
住春詩社(會于邑 五律)	386
住春社會于七星菴(刻名後)	386
住春社會(會于邑)	387
輓金振洪	387
次崔篁沙(後植)晬讌詩	388
次族從益東晬朝韻	388
輓辛容默	388
賀辛蓮濱(鼎默)甲朝(戊寅四月十二日)	389
次族從楓村(定實)晬韻(三月三日)	389
住春社(會于邑)	389
金蘭亭	389
齋田移秧	390
講義契(鄭鎬濟庄)	390
臥病和族侄容奎見寄	390
瓜	391

제목	영인본 쪽수
襟江亭(代光弟作)	391
又(代人作)	391
輓外叔(權延洙氏 九月十三日)	392
輓鄭進士(鄭宥和號韶堂)	392
金蘭亭	393
香湖李相勳承入講契	393
講義契(會于笠巖里沈晚松庄)	393
次權悔醒(寧機)幽居詩	394
間鷹(大邱府鳳山町山南詩社韻)	394
次李學模晬宴詩	394
輓宣鎬瓚	395
輓金有南	395
輓沈宗燮	396
次崔駿植晬詩	396
輓從叔曾挺(己卯正月五日)	396
輓侍從族祖	397
輓心堂金漢柱	398
講義契(會于邱山權岳農庄)	398
參己巳契于東隱庄	399
次朴惺軒壽詩(淵祚 居軍威 代人作)	399
與珍島族老鳳瑀及諸族會雙閣亭)	399
修契于金蘭亭	400
住春社唵(會于邑)	400
輓權查邦有	400
襟江亭避暑	401
住春社會于葆真堂	401
住春詩社(會于邑)	401
輓崔亨吉	402
次四從善實親山立石韻	402
金蘭亭(十月望前日)	402
歧栗詩并小序	403
鷓詠亭(代人作)	403
和珍島族鳳瑀詩	403
賀丁晚學事功(丁南鎮 號晚學 居務安)	404

제목	영인본 쪽수
面長~)	
輓朴主事泰鎮(居慶州 號晚悟 其族人 定慰 輓所于邑 追有訃書)	404
輓靑存沈相祚(庚辰)	404
輓鄭丹陽(義東 七絶)	405
次東湖齋詩(咸基永號)	405
金蘭亭綠楊會	406
講會契(金燦卿庄)	406
講義契(會于牛市崔禹集別庄)	406
齋田移秧	407
立巖(咸在錫號)	407
輓崔雲南(在河)	407
住春社(會于邑)	408
楓湖吟社(自五月晦)	408
新設鐵路	408
竹筍	408
喜雨	409
健鷄	409
畫屏	409
蓮亭愛蓮(楓湖八景)	410
荳井靑松	410
寒寺暮鍾	410
道洞夕烟	411
仙浦歸帆	411
遶臺明月	411
榜山白雲	411
鷄岑落照	412
參藥局契于茅山留雨宿	412
詩社謾吟	412
鏡浦臺(講義契員約會)	413
楓社謾吟	413
海浴	414
稻花	414
謾吟(詩社)	414

제목	영인본 쪽수
飛行機	415
久雨祈晴	415
謾吟	416
秋夕	416
輓族弟參議	417
謾吟	417
和李丹亭(容汶)二絶	418
次農菴崔龍集晬朝詩	418
次飾喜詩	418
輓崔燦佑	419
輓經石權五成	419
次崔燦鼎甲朝詩	419
次飾喜韻	420
金蘭亭會	420
次崔景燮晬朝詩	420
飾喜韻	421
參同寅契于島項金振徹庄	421
鏡浦臺	422
烏竹軒	422
次瞻慕齋韻(高興郡朴鍾偉~)	422
次雲樵軒晬韻(朴鍾偉號~)	422
族侄容起戊寅契承入往飲(辛巳二月)	423
輓曹鐸承(講義同契居鶴山)	423
講義契(會于笠巖里)	423
次朴士奎晬朝詩(三陟遠南面理川 號松潭)	424
住春詩社(會于邑)	424
金蘭亭會(綠楊會)	424
參知己契于金振會庄(白沙川移居于玉 川町)	424
輓荷汀李東祚	425
與甲兒滯雨長安戲吟	425
次辛恭默甲朝韻(上月一日)	425
登襟江亭(二首)	426
住春社(會于淮山公會堂)	426

제목	영인본 쪽수
住春會(會于雲谷)	426
七星菴(住春詩會)	427
又夜吟	427
講義契(會于金雙白庄)	427
會于崔燦鼎書樓約詩社	428
江湖吟社(會于邑)	428
輓李查丈錫春	428
江湖吟社	429
參永樂契于茅田金南鐸庄	429
次板橋松堂門長崇朝韻	430
次孝烈韻(沙川板橋里)	430
江湖吟社	430
輓崔永鐵	430
次晉東族弟晬朝韻	431
次三從叔三石甲朝詩	431
賀張漢植回晉禮(寧越邑 甲子生~)	431
江湖吟社(壬午正月十七日)	432
江湖吟社	433
題參同契詩帖	432
輓沈愚堂相德	433
輓曹雲圃圭泰	433
次宋子神道碑閣重修感吟韻	434
次滄巖齋韻(鄭鍾和齋詩)	434
修講義契于鄭農山庄	434
次夢川金濟卿回晉詩(有序)	435
次飾喜詩(有小序)	435
聽溪堂重建(全南光陽郡進士黃勉基號 聽溪堂六世孫鎬一重建 湖南各郡儒士 發通募詩)	435
住春詩社(會于邑)	436
贈別李容九(本郡守李玄載之春堂)	436
江湖詩社	436
完弟甲朝	437
江湖詩社	437

제목	영인본 쪽수
講義契會于明倫町	438
江湖詩社(會于李菊隱庄)	438
江湖詩社會于邑金谷町	438
病未赴詩社感吟(江湖詩社行于斗山崔 燦吳庄. 癸未三月日)	438
住春詩社(會于邑)	439
江湖詩社會于錦鶴里	439
講義契會于石橋愚石庄	439
江湖詩社(會于雲谷崔東堤庄)	440
江湖詩社(會于邑 崔澤集藥舖)	440
小石金在傑晬朝詩見寄追次(舊名在翼 江陵人 今居原州)	440
和湖隱金永近辭職詩(湖南人 曾經郡守. 今江原道廳囑記)	441
江湖詩社(會于廣汀里)	441
江湖詩社(會于白橋金翰卿庄)	441
和春圃孔聖學儒道會見寄(以經學院副 提學來 儒道會講話于巽堂 遊鏡湖而去 開城人)	441
次朴周顯壽韻(代作)	442
江陵儒道會贈別鄭主事雲亨移任橫城	442
和孔春圃復用前韻見寄	442
行江湖吟社于邑	442
講義契(松林崔翠軒庄)	443
江湖吟社(會于邑辛晚悟次子庄)	443
江湖吟社(會于玉川町)	443
輓鄭南岡錫和	444
江湖詩社(會于邑)	444
參二能契于聲谷	444
江湖吟社會于青良金石倉庄)	445
次蒼農沈東燮晬朝詩	445
江湖詩社會于玉川町	445
追次嶺南李錫麟晬詩	446
輓碧下金鳳卿(甲申二月日)	446
江湖詩社會于安谷權寧軾庄(甲申四月日)	447

제목	영인본 쪽수
江湖詩社(會于邑崔澤集藥鋪)	447
襄陽族溢鉉親山立碣詩	447
次崔英澤先君孝感韻	447
次辛在文晬朝韻	448
江湖詩社會于崔英華書樓	448
綠楊會(會于金蘭亭)	448
次崔澤集晬朝韻	449
輓崔燉昊	449
會于權重溫庄	449
川獵	450
江湖吟社(會于邑沈東燮食堂)	450
江湖詩社海浴于安木港	450
儒道會奉呈道知事(劉鴻淳)	450
輓晦養崔大洙	451
輓雙白金億卿	451
江湖詩社會于小山庄(金周煥)	452
江湖詩社會于邑	452
江湖吟社會于鄉賢祠	452
輓李菊隱時應	453
次朴憲祚祖母烈女韻(旌善北面柳川里松川洞)	454
輓晚悟辛晉默(乙酉正月)	455
次松西崔燦翊晬朝詩	456
講義契曹秉鶴承入	456
權講士寧機置酒于新買別庄邀諸友	457
江湖詩社會于炳山	457
江湖詩社會于本家	457
奉贈朴侯永斌移幸通川	457
江湖詩社會于曹時齋庄	458
江湖詩社會于沈蒼農庄	458

제목	영인본 쪽수
江湖詩社會于辛蓮濱庄	458
江湖詩社會于雲谷	458
聞朝鮮復國(二首)	459
江湖詩社會于淮山沈相山庄	459
講義契會于石橋	460
族叔會夏晬朝詩	460
江湖詩社會于山篁三石庄(丙戌三月)	460
江湖詩社會于青良金石儉庄	460
金蘭契亭會	461
江湖詩社會于鄉校	461
江湖詩社會于柏山小山庄	461
楓湖亭	462
講義契會于石橋	462
輓桐山沈相鳳	462
權珏洙晬朝	463
賀城雲晬朝	463
辛在龍晬朝	464
登茅山峯	464
次辛明善壽親詩	464
輓辛蓮臯益默	465
輓辛在德	465
江湖詩社會于鄭學模庄	466
池雲集晬朝	466
崔光燮親堂回晉禮	466
飾喜韻	467
金俊卿壽宴	467
江湖詩社會于崔鍾海庄	467
輓崔進士燉性	468
次四仙亭詩呈辛兄諸執	468
江湖詩社會于辛蓮濱庄	469
敬次朴潛昭堂題鳴巖權處士山居	469
松波亭賀僉崔兄	469
和金卿孝烈閣韻	470

### 1.3. 시호척독 목차

제목	영인본 쪽수
上金菊史(濬卿)	475
與李參奉鏡農(根宇)	476
答辛在璣	478
答辛在鳳	479
答永興族膺洙	480
上金戚叔菊史	482
上田良齋先生	484
上良齋田先生	489
答金光鉉	491
答孫得和	491
答金蒙齋(演穆)	492
與金演穆	493
答金演穆	494
與金演穆	495
與崔主事(鍾海)	496
與辛訓導在璣	497
與崔普煥	498
與金直員(潤卿)	499
與沈主事相燉	501
與吳石農震泳	503
與吳哀石農(乙丑五日晦)	504
答金滄雲(六月念後)	505
答金文筱石(演鐸)	507
與金演穆(十一月日)	508
答宋苾鎬(十一月日)	509
與沈參奉相祚	510
答宋苾鎬(丙寅三月日)	511
答金可石(憲鎮)	512
聯名送大全刊所書	513
與宋參奉在憲	514
與吳石農震泳	515
答金蒙齋(演穆 丙寅七月日)	516
與辛錦雲(晉默 丁卯正月八日)	521
答辛晉默	522

제목	영인본 쪽수
族兄東湖問答	524
與崔鎮華(乙兒筭禮後 丁卯二月日)	525
答族從雲濱(起東 七月日)	526
答金滄雲(潤卿 七月日)	527
答金祀丞可石(憲鎮 七月十日)	528
答宋苾鎬(七月十日)	529
答族從起東	530
與金祀丞(憲鎮 八月廿五日)	532
答金祀丞(憲鎮 九月廿二日)	533
與崔晦養(大洙)	535
與金哀演穆疏(十月七日)	536
與宋曾憲(號后菴 戊辰九月晦)	537
答宋曾憲(十一月五日)	538
答金憲鎮(十一月六日)	539
上尹判書用求(十一月二十四日 高陽崇仁面石村)	540
與李夔在(號黃崑 居襄陽水餘里 己巳四月日)	541
與金潤卿(四月日)	541
與林善明(字復汝 蔚珍郡人 七月日)	542
答宋曾憲(茂朱郡內北里 七月晦日)	543
與朴瓚培(崇德殿參奉 八月一日)	544
與密陽總譜所諸宗(八月日)	545
與總譜所(九月廿七日)	546
答宋曾憲(九月廿八日)	547
答總譜所	548
答宋曾憲	550
答朴教理海徹	551
答崔晦養大洙(庚午閏六月十三日)	552
答辛明善	553
與崔晦養大洙(庚午臘月念日)	554
與金夢川濟卿(庚午臘月立春後三日)	555
上金議官(演采 辛未正月八日)	556
與宋曾憲(辛未四月立七日)	558

제목	영인본 쪽수
答宋秉夔(辛未六月八日 大邱府鳳山町華陽淵源錄刊所)	559
答宋曾憲(辛未十月十五日)	560
答金完鎭(經學院司成 號雨峯 辛未十一月七日)	562
答宋曾憲	563
答宋曾憲(壬申四月十一日)	564
與林河永(四月十六日 開城崧陽書院內在門洞建院事務所)	564
答金口均林河永(六月十日 與起東聯名答書)	565
答宋曾憲(六月十日)	566
答宋曾憲(九月廿日)	567
與林河永(十二月十二日)	568
與崔東吉(十二月十二日)	569
與宋曾憲(十二月十二日)	570
與金完鎭(十二月廿七日)	571
答宋曾憲(癸酉四月廿七日)	571
與宋哲鎬(五月十日)	572
答宋勉憲尹虎赫(四月廿九日 竹軒留有書)	573
答宋曾憲	574
答辛在璣(時在春川農事試驗場)	575
答辛明善(時在始興鹿洞書院)	576
答東江金霽漢(閏五月廿一日)	577
與金春東(號觀井東江第三子)	578
答宋曾憲(七月廿二日)	579
答宋哲鎬(八月十二日)	580
答宋勉憲(報恩郡馬光面葛坪 十月廿九日)	581
與宋老灘(奎憲 甲戌四月十三日)	582
答宋老灘(甲戌八月九日)	583
答宋老灘奎憲(乙亥正月十日)	584
答宋老灘(乙亥十一月廿九日)	585
答吳石農(震泳 丙子正月十日)	586
答宋老灘(丙子正月十九日)	587
與姜聖遇(咸南利原郡東面孝友里 丙子三月四日)	589

제목	영인본 쪽수
與金東江(霽漢 丙子三月十二日)	589
與金東江(霽漢 丙子閏三月廿九日)	590
答金億卿	591
與宋奎憲(丙子八月日)	592
上鄭進士(宗和 八月十日)	593
與李參判喬永(八月十六日)	594
與東江金承旨(霽漢 八月廿日)	595
與金春東(十二月十五日)	596
答朴在喆(盈德梅嶺 十二月廿六日)	597
答宋老灘(丁丑正月七日)	598
與權寧機(正月望日)	599
答金承旨霽漢(正月念日)	600
答崔大洙(正月念日)	601
與崔大洙(丁丑二月二日)	602
答鄭韶堂(宗和)	603
與松堂族容壽(丁丑十二月旬二日)	604
與東江金霽漢(己卯二月日)	605
與朴鳳瑀(珍島宗人 己卯四月三日)	607
答咸基永	607
答老灘集刊所書(辛巳二月日)	608
答崔鎮泰	609
答宋柱憲(四月六日)	610
與金春東	610
與金東江(霽漢 五月廿一日)	611
與金東江(六月廿一日)	612
與金講士潤卿(七月八日)	613
答宋斌憲(八月四日)	614
答朴華準(崇德殿參奉 八月十六日)	615
答宋柱憲(壬午六月十四日)	615
答宋秉煥(癸未正月小晦)	616
與松堂族容壽(癸未二月十二日)	617
與崔台圭(甲申正月日)	619
答宋柱憲(甲申閏四月)	620
又答	620
答朴進翰(閏四月廿八日)	622





# 시호(詩湖) 박원동(朴元東)의 생애와 활동 연구 : 일제강점기 강릉 유교문화의 정리와 계승

A Study on Park Wondong's Life and  
Social Activities

2020년 12월 인쇄  
2020년 12월 발행

발행인 : 박영일  
발행처 :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24265)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0  
전화 : (033) 250-2980  
홈페이지 : <http://www.gangwonstudies.re.kr>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사는 금합니다.
-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시호(詩湖) 박원동(朴元東)의 생애와 활동 연구

: 일제강점기 강릉 유교문화의 정리와 계승

A Study on Park Wondong's Life and  
Social Activities

안세현

Ahn Se Hyun

약력

강원대학교 한문교육과 부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24461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0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TEL. 033-250-2980, 2983  
<http://www.gangwonstudies.re.kr>

ISBN 978-89-5705-812-1 93910



9 788957 058121

ISBN 978-89-5705-812-1